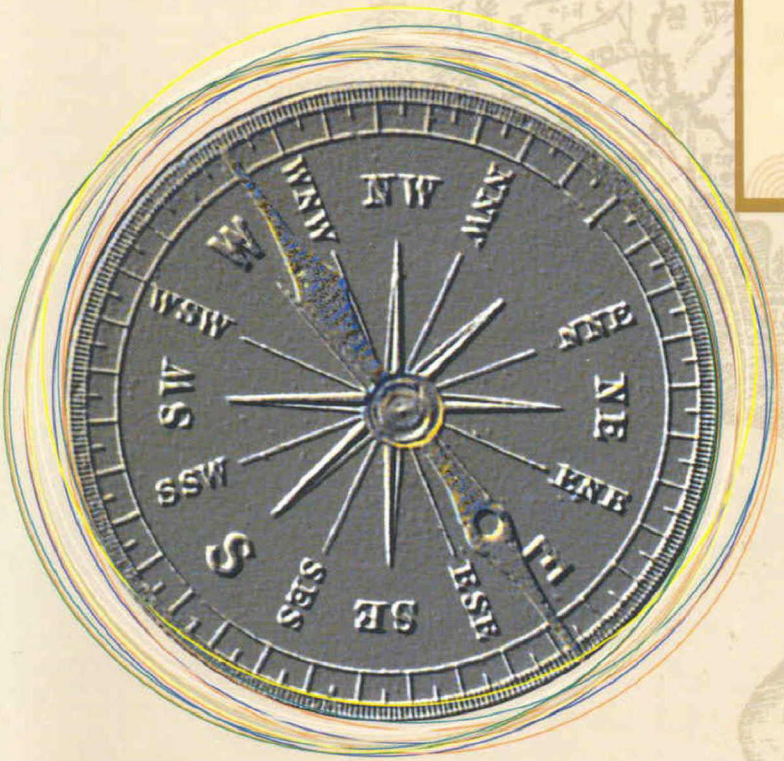
기전문화예술총서 4

경기 문학지도 2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예술총서 ❹

경기문학지도 2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예술총서'를 내면서

세기의 전환기에 한편에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니, 문예부흥이니 하는 장미빛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과학의 위기'라는 우울한 지탄이 터지 나오고 있다. '세계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화'의 진전에 따라 막강한 '초국적 자본'의 유령이 떠돌면서 '민족국가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가닥을 어디에서부터 잡아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 세계를 잇는 긴 탐사의 길을 떠나려고 한다. 경기도의 특수성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민족적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또한 그럼으로써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업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전문화예술총서'라는 출판 매체를 통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먼저 기전문화예술의 정수에 해당하는 주제를 발굴하여, 그 현황과 위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음, 그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이 장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마지 않는다.

■『경기문학지도』를 펴내며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



생각해보라.
문학만큼 자기 고장을 빛내주는 것이
그리 많은가를.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없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생각할 수 없고,
조정래의 『태백산맥』 없이
남도의 작은 읍
벌교를 생각할 수 없다.

속도와 물질과 양이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에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통한 답변은 못되겠지만, 적어도 잊어버린 기억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사라져버린 흔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간 일, 이미 과거의 일이 아니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것들 없이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경기문학지도』를 기획한 의도는 아주 단순하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좋은 카페가 어디 있는지, 유원지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그만큼 레저생활의 기회와 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내 고장에 어떤 문인들이 살았으며 어떤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인지 아는 이들은 극히 드문 게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문학만큼 자기 고장을 빛내주는 것이 그리 많은가를.

우리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없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생각할 수 없고, 조정래의 『태백산맥』 없이 남도의 작은 읍 벌교를 생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북부의 작은 도시 동두천은 적어도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김명인의 시집 『동두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문학적 저력이 새삼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멀리는 이규보, 이율곡, 정약용으로부터 가까이는 박두진, 고은, 김지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우리 문학사를 빛냈던 이들이 이토록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없이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수인선 협궤열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윤후명의 소설 속에서는 영원한 생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경기문학지도』가 자칫 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학유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일깨워주는 환기통 구실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저것 자료를 뒤적거리고 이곳저곳 현장을 돌아다니며 『경기문학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문학적 저력이 새삼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멀리는 이규보, 이율곡, 정약용으로부터 가까이는 박두진, 고은, 김지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우리 문학사를 빛냈던 이들이 이토록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 다 우리 문학의 박물관이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돌아서는 마음이 더 착잡해지던 기억도 선하다. 변변한 표지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외진 구석에 파묻혀 이제 곧 들이닥칠 포크레인의 삽날만 기다리고 서 있던 유적이 몇이었으며, 민선 목민관(牧民官)이 들어선 뒤 부랴부랴 제 고장의 '위인'이며 '문화인물'을 찾아낸 것까지는 좋았으되 그 뒤 도대체 그 '어른'에게 어떤 대접을 했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관리는 또 몇이나 될까.
그래서일까, '우리문학기림회'라든지 '전국시가비건립추진위'와 같이 오직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모여 서로의 주머니를 뒤져 모은 돈으로 애써 문학비를 세운 이들의 정성은 눈물겹기까지

서울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의 변천이 유난히 심했고 이에 따라 해당 문인들의 정확한 출신지를 찾는 작업도 무척 어려웠다. 예전에 나온 문학사전에만 의존해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했다.
『경기문학지도』가 그런 이들의 정성 위에서 탄생하게 된 것임은 물론이다.

『경기문학지도』는 지방자치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펴내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않았다.
무엇보다도 경기도는 서울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의 변천이 유난히 심했고, 이에 따라 해당 문인들의 정확한 출신지를 찾는 작업도 무척 어려웠다. 예전에 나온 문학사전에만 의존해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예를 들어 성호 이익이나 현민 유진오, 그리고 일석 이희승의 경우, 그들이 모두 광주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최신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각기 안산, 하남, 의왕에 태를 묻은 것으로 달라졌다. 이러다 보니 어떤 신도시는 이렇다하게 내세울 만한 문학사적 인물을 찾아내기가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았고, 반면 어떤 곳은 거론해야 할 인물이 넘쳐나서 오히려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다.
또 한 가지 큰 어려움은 고전문학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었다. 처음 기획단계에서는 구비문학도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이므로 이에 대한 배려도 크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집필 과정에서는 구비문학의 비중이 미미해지고 말았다. 이는 구비문학에 대한 홀대라기보다는 단순히 책의 전체 분량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아울러 신문학 이전 시대 '문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느냐 하는 것도 꽤 난감한 일이었다. 가령 우리가 이미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청백

옛날에는 인재를 등용할 때,
시와 문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뽑았다. 왜 그랬을까.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란, 무엇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터. 그 인간 됨됨이를 살펴보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잣대가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리의 표상 황희 정승의 경우, 그를 문인으로 간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통일된 원칙을 세우지는 않았다. 각 지역의 문학적 재부(財富)의 특성에 따라 집필자들이 판단하도록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물론 이들이 비록 문학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에게 지금 남은 시나 문장이 결코 빠지지 않다는 확신이 설 때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묵계로 했다. 다행스럽게도, 몇백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흔적을 남긴 이들은 대개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했다.

옛날에는 인재를 등용할 때, 시와 문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뽑았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의 고등고시처럼 과거 역사나 법조문들을 시험 과제로 삼지 않고 어째서 하필이면 시와 문장이란 말인가.

정치란 단순한 통치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란, 무엇보다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터. 인간에 대한 존경과 연민,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 예로부터 이상정치의 한 형태라고 일컬어지던 덕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인간 됨됨이를 살펴보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잣대가 바로 문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편의 시로써 과거시험을 대신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 사람의 글처럼 그 사람 됨됨이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한 인간의 세계관, 국가관, 인생관 따위의 철학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창(窓)과 같은 것이리라.

이런 점에 생각이 미치자 우리 선조들의 인재 등용에 대한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넘지만 다

과거처럼 누구는 어디 사람,
하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 합리성' 만을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는지, 그곳을 무대로 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지, 하는 것 등등으로.

음과 같은 생각까지 했다. 지금이야 시나 문장으로 인재를 등용하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문학 작품들을 통독하고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재미 혹은 정서 함양도 문학의 한 기능임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문학보다 좋은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할 판검사들이 골방에서 두꺼운 법조문만 외고 있다면 자못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요즘처럼 거주 이전이 빈번한 시대에 누구를 어느 지역에 편입시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또한 의미가 있겠는지 하는 점이었다.

사실 각 문인단체에서 펴내는 인명사전이나 주소록, 또는 수첩을 참고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어제 이곳에 살던 이가 내일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사는 일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게 된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과거처럼 누구는 어디 사람, 하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 합리성' 만을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다. 상대적으로 오래 살았는지, 그곳을 무대로 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는지, 하는 것 등등으로. 하지만 그곳이 출생지라면 당연히 상대적 비중이 아니라 절대적 비중이 커짐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문학이었다. 그리고 그 문학의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현재 문학을 하고 있는, 게다가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 집필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처음 밤바다의 등대 구실을 하리라 믿고 시작했던 『경기문학지도』 작업이 결국 그 남은 흔적을 겨우 확인하는 데 그쳤구나 하는 자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시 루카치에 기대면 용기를 얻는다. "여행이 끝나자 길은 시작되었다."

수밖에 없었다. 본의아니게 언급되지 못하거나 비중이 적어진 이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앙문단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한 문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할 다른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던 시대는 행복하였노라."

새삼 헝가리의 미학자 루카치의 말을 떠올린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를 받쳐주던 '형이상학적 지붕'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지 이미 오래 아닌가. 이제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막아줄 우산이 없다. 이런 시대, 우리 삶의 원형을 찾아나서는 여행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운명지워졌으므로. 미련이 남은 이들 몇몇이 떠나온 고향을 향해 발길을 옮기지만, 어디 고향이 있으랴. 고향으로 대변되던 총체성은 사라진 것이다. 남은 것은 흔적뿐.

처음 밤바다의 등대 구실을 하리라 믿고 시작했던 『경기문학지도』 작업이 결국 그 남은 흔적을 겨우 확인하는 데 그쳤구나 하는 자괴감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다시 루카치에 기대면 용기를 얻는다.

"여행이 끝나자 길은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미래는, '오래된 미래'가 가장 좋은 게 아닌지, 21세기의 벽두에 서서 새삼 생각해 본다. 쓸데없이.....

부탁컨대, 부디 손에 손에 『경기문학지도』를 들고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란다.

『경기문학지도』 집필자 일동

차 례 / 경기문학지도 2

■ 경기문학지도를 펴내며/3
■ 일러두기/11

의 왕　청계산 맑은 물처럼 맑은 문학 15
하 남　유길준의 언문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31
용 인　이제는 죽은 자들만의 땅이 아니다 43
파 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63
이 천　좋은 물만 흘러 땅을 이롭게 하여라 101
안 성　시인 묵객들이 많아 노래로써 편안하여라 117
김 포　너른 들만큼이나 넉넉한 161
양 주　큰 고을의 자부심으로 175
여 주　여강이 들을 품어 큰 고을 하나 만들었으니 191
화 성　기전문화, 화성의 마음을 찾아서 207
광 주　너른 고을 어딘들 문학이 아니랴 249
연 천　휴전선의 비극을 문학으로 아우르며 273
포 천　산 좋고 물 맑으며 문학 또한 우뚝하니 285
가 평　수려한 산수만큼이나 수려한 301
양 평　남북이 두물머리에서 만나듯 313
개 성　희미한 옛도읍의 그림자를 찾아서 341
개 풍　갈 수 없는, 그러나 가야만 할 353
장 단　임진강 구비마다 스민 문학의 역사 367

■ 참고문헌/372

일러두기

1. 분량이 많아 상하 두 권으로 나누되, 그 분류는 경기도 시군건재순을 따랐다.

2. 각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거주한 문인, 또는 그 지역을 무대로 한 중요 작품을 쓴 문인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두 지역에 겹칠 경우,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되, 특히 비중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두 지역에서 각기 언급한 경우도 있다.(예: 박완서=구리, 개풍)

3. 서원, 사당, 생가, 생가터, 묘비, 거주지, 시비, 작품무대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나 기념물은 가능한 한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이나 인물 사진만으로 만족한 경우도 없지 않다.

4. 개성, 개풍, 장단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책의 자랑이다. 하지만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분단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훗날, 보완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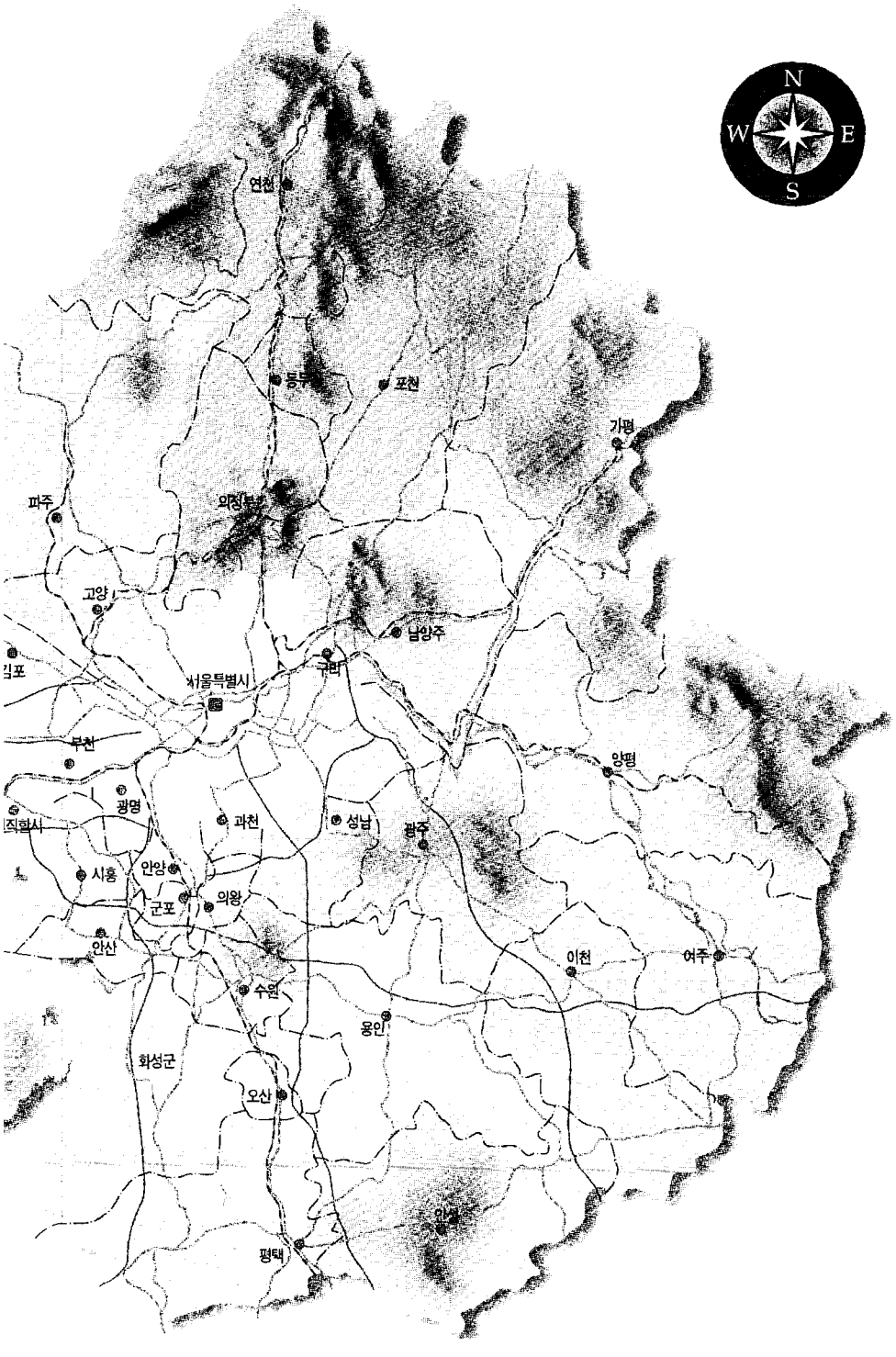
5. 각 지역마다 중요한 대상의 경우,  찾아가는 길을 별도로 표시했다. 이 작업에는 『답사여행의 길잡이』시리즈(돌베개)를 많이 참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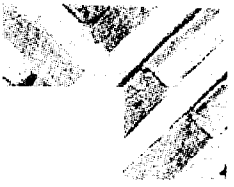
6. 인용의 경우, 편의상 일일이 주를 붙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 미주(尾註)로 처리했다. 그외의 중요한 참고자료 목록은 책뒤에 붙였다.

7. 이 책은 일곱 명의 작가들이 공동집필했으며 집필을 맡은 지역은 다음과 같다.
   김남일—구리, 동두천, 하남, 남양주, 광주, 개풍, 장단
   오봉옥—안산, 시흥, 광명, 군포
   용환신—수원, 평택, 용인
   이성아—의정부, 고양, 파주, 연천
   이영진—과천, 가평, 포천, 개성
   이인휘—안양, 부천, 김포, 의왕
   홍일선—화성, 안성, 여주, 이천, 오산

경기도 시군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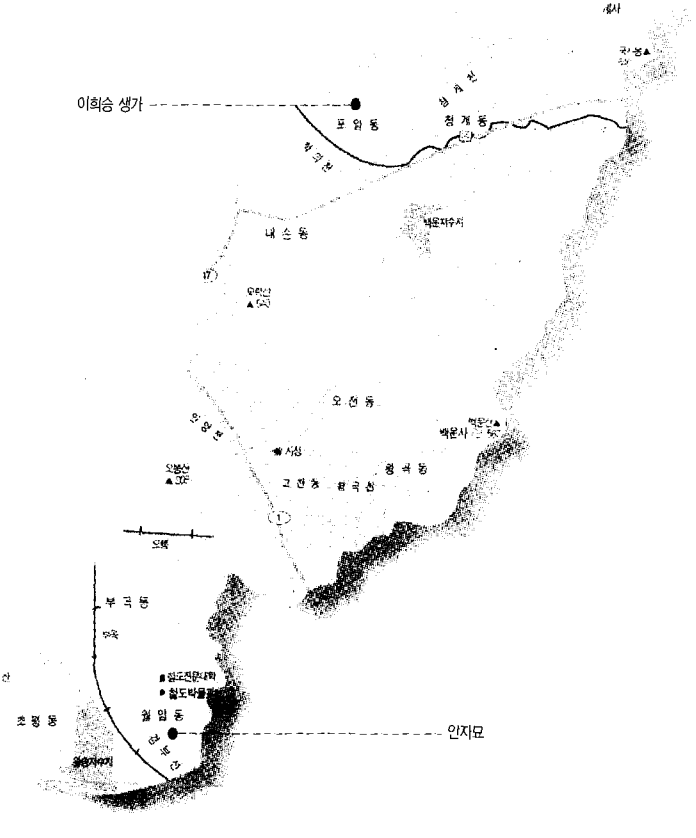

N
W
E
S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파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
구리
김포
서울특별시
부천
양평
광명
과천
성남
광주
시흥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이천
여주
수원
용인
화성군
오산
안성
평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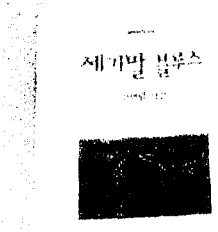




의왕

청계산 맑은 물처럼 맑은 문학





아주 최근에서야 시로 독립한 의왕은 수려한 청계산을 끼고 있지만, 서울과 수원, 안양과 같은 대도시들과 인접해 있어 발전의 속도 또한 멀미가 일 정도로 빠르다. 따라서 의왕시가 녹색환경도시를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매우 타당한 도시 전략이라 보여진다. 의왕은 일석 이희승과 「세기말 블루스」로 90년대 초반 우리 시문학계를 강타한 여성시인 신현림의 고향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문학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동서문학관이 자리잡고 있어 앞으로의 저력 또한 만만치않을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청계산 맑은 물처럼 맑은 문학

의왕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동쪽은 성남시와 용인군, 서쪽은 안양시, 남쪽은 수원시와 화성군, 북쪽은 과천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청계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국사봉(540m), 바라산(428m), 백운산(567m), 모락산(385m) 등의 잔구성 산들과 구릉 산지들 사이에 놓여 있다.

서울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많은 위성도시가 그렇듯이 의왕시도 지역의 개편과 더불어 1983년 화성군 월암리, 초평리가 의왕읍에 편입되고, 그 인구와 도시적 규모가 커지면서 1989년 의왕시로 승격되었다.

청계산 정상에 만경대가 있는데, 고려가 망하고, 태조가 등극하자 고려 충신이었던 이색, 조윤, 길재 등이 청계산으로 들어와 절개를 지킨 곳이다. 또한 모락산은 세조가 단종을 추방,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목격한 임영대군이 세조에게 반감을 품고 이 산에 은거하였으니, 의왕시는 충절의 도시 의로움의 정기를 받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왕시는 서울을 비롯한 안양, 성남, 수원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근년에 들어와 채소나

과일 등 원예작물의 재배와 낙농업 등 상업적인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 또 서울시의 공업 분산정책에 따라서 공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교통편으로는 시의 중심부인 고천동 지역을 서울-수원간의 경부국도가 관통하고 과천과 성남을 이어가는 지방도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이 곳은 청계산이 있어 등산이나, 사람들의 쉼터 구실을 톡톡히 한다. 망경대와 국사봉, 옹녀봉, 응봉 등 수려한 봉우리들이 있고, 산기슭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청계사가 있다. 산림이 수려하고, 계곡의 물도 좋아 찾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청계산은 서울 근교에 바싹 붙어 있는 산으로 일품 중의 일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의동에 있는 백운저수지와 월암동에 있는 왕송저수지는 낚시터로서, 농업용 저수지로서,또한 시민들의 쉼터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오전동에서는 행복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 산신제는 한 번도 거름이 없이 이어져 내려와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날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가 하나 되는 이 날, 모두가 음복을 하고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 하니 서울 근교에서 이런 풍성한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옛부터 씨름판이 펼쳐지면 그 규모가 커서 수원, 안양 할 것 없이 모여들었다는 의왕시. 충절과 의로움과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가 깊다는 도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문학적 토양이 청계산을 중심으로 한 몇몇 시모임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직 그 토대가 얕다는 것이다. 이곳은 일석 이희승 박사와 『세기말 블루스』를 써서 90년대 중반 우리 시문학계를 강타한 여성시인 신현림의 고향이기도 하다.

수필 「딸깍발이」로 유명한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1896~1989)의 생가가 의왕시 포일동(옛 광주군 의곡면) 78-13 양지편마을에 있다.

'딸깍발이'라는 것은 '남산골 샌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별호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 샌님은 지나 마르나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나막신 굽이 굳은 땅에 부딪쳐서 딸깍딸깍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이희승 생가
의왕시 포일동 78-13 양지편마을

이렇게 시작하는 「딸깍발이」는 벼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업에도 아주 손방이어서 꼬락서니라든지 차림이 볼품없는 남산골 샌님이 '자락이 모지라지고, 때가 꾀죄죄하게 흐르는 도포나 중치막을 입은 후, 술이 다 떨어지고, 몇 동강을 이은 띠를 흉복통에 눌러 띠고, 막신을 신었을망정, 행전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이 치고' 길을 나서는데, '걸음을 걸어도 일인(日人)들 모양으로 경망스럽게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갈짓자 걸음으로, 빼대만 엉성한 호리호리한 체격일망정, 그래도 두 어깨를 틱 젖히서 가슴을 빼기고, 고개를 휘번덕거리기는 새레 곁눈질 하나 하는 법 없이 눈을 내리깔아 코끝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묘사한다. 그러한 딸깍발이를 왜 그리고자 했을까. 그는 단발령이 내렸을 때 '이 목은 잘릴지언정 이 머리는 깎을 수 없다'며 고집불통의 의기를 발휘한 딸깍발이들의 정신을, 너무나도 약기만 한 현대인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염결(廉潔)에 밝은 것이 아니라, 극단의 이기주의에 밝다. 이것은 실상은 현명한 것이 아니요,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 꾀에 제가 빠져서 속아 넘어갈 현명이라고나 할까. 우리 현대인도 '딸깍발이'의 정신을 좀 배우자.

첫째 그 의기(義氣)를 배울 것이요, 둘째 그 강직(剛直)을 배우자. 그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오히려 분간을 하여 가며 배워야 할 것이다.

이희승은 경성제대 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전 교수를 지냈다. 1932년 『신동아』에 시 「무덤」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문학쪽에서도 활약했지만, 특히 국어학 분야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탁월하다.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대학에 재직하면서 국어국문학계에 많은 후학들을 배출했다. 주요 저서에 『조선문학연구초』, 『국어학 개설』 등과 시집 『박꽃』, 『심장의 파편』, 수필집 『벙어리 냉가슴』, 『소경의 잠꼬대』 등이 있다. 자신이 그린 '딸깍발이'처럼 불의한 시대와 맞서서도 늘 꼿꼿한 선비의 기개를 잃지 않았던 그는 1970년대 중반 박정희 군

사독재정권에 맞서 문학인들이 자유실천문인협의회(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창립했을 때 고문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를
드리우고 있건만,
—「벽공」 전문

의왕시 학의동 천주교 공원묘지 위쪽에 있는 **정인섭** 노래비는 1983년 11월 20일 색동회에서 세운 것으로 묘비 앞면에는 '눈솔 동래 정공요셉 인섭박사의 묘'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그의 작품 「산들바람」이 새겨져 있다.


정인섭


정인섭 노래비
의왕시 학의동 천주교 공원묘지

시인이며 학자인 눈솔 정인섭은 1932년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했으며 1956년 펜클럽 한국본부위원장을 지냈고 1958년 중앙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4년 색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국민훈장 모란장과 펜클럽 번역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문단논고』, 『세계문학산고』, 『종합변증법세계문학론』, 『국어음성학연구』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는 『산넘고 물건너』, 『별같이 구름같이』가 있고 수필집에는 『버릴 수 없는 꽃다발』, 『생각은 파도처럼』, 『일요방담』 등 다수가 있다.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안자묘는 **안향**(安珦)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 송천리에 있던 것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으로 옮겼다가

197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묘당의 전체면적은 약 1,500여평으로 입구에 안자묘란 비석이 있고 소슬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팔각지붕에 내부 전체에 붉은 단청을 한 3칸의 한옥이 웅장하게 버티고 있다. 묘당 가운데 처마 밑에는 '안자묘'란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 현판은 공자의 후손인 공덕성이 쓴 것이라고 전한다.

안향은 고려시대의 명신 · 학자로 호는 회헌, 시호는 문성공. 충렬왕 12년(1286)에 정동행성의 좌우사랑중과 고려유학 시거가 되었다. 왕을 따라 원의 연경에 갔다가 처음으로 『주자전서』를 보고 손수 책을 베껴 썼으며,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돌아와서 주자학을 연구하였다.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기금으로 6품 이상은 각각 은 1돈씩, 7품 이하는 포를 내게 하여 이를 양현고에 귀속시키고 그 이식으로써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박사 김문정 등을 중국에 보내서 공자와 그 제자들의 초상을, 그리고 제기 · 악기 · 경서 등을 구해오게 하는 등 고려 말기 유학 진흥에 큰 공을 남겼다.

우리나라에 주자학을 최초로 전래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가 죽은 지 12년째 되는 충숙왕 5년(1318)에는 그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왕이 그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 안자묘에서는 종친회 주관으로 음력 9월 12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전국에서 약 500~600명이 참석한다. 시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다.



안자묘
의왕시 월암동.

신현림의 시는 당당하다. 거침없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을 울림처럼 펼쳐놓는다. 그렇게 소리치다가 안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한다. 그 중 하나가 사진이다. 그녀만의 독창적인 기법은 아니지만 그녀는 소리와 함께 사진으로 저항한다.

발가벗은 사진.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 머리는 없고, 허리와 다리와 무엇인가를 후려치고 있는 팔뚝만 있다. 그녀는 그 사진에다 '나의 싸움'이란 글을 써놓았다. 도대체 그녀의 싸움은 무엇인가. 사진 속에 있는 얼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후려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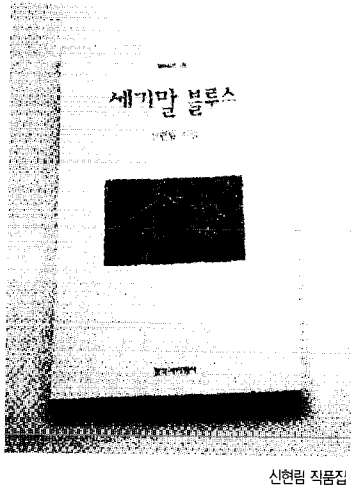
삶이란 자신을 망치는 것과 싸우는 일이다

망가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한다
지상에서 남은 나날을 사랑하기 위해
외로움이 지나쳐
괴로움이 되는 모든 것
마음을 폐가로 만드는 모든 것과 싸운다

슬픔이 지나쳐 독약이 되는 모든 것
가슴을 깨맣게 태우는 모든 것
실패와 실패 끝의 치욕과
습자지만큼 나약한 마음과
저승냄새 가득한 우울과 쓸쓸함
줄 위를 걷는 듯한 불안과

지겨운 고통은 어서 꺼지라구!
—「나의 싸움」 전문

그녀의 시를 보면, 섹스, 마약, 속도, 독신 등과 같은 언어들이 즐비하다. 특히 「세기말 블루스」 연작을 보면 그녀가 무엇과 싸우는지 얼핏 알 수 있다.



신현림 작품집

오늘은 컴퓨터 냄새가 싫으니까
손으로 쓴 편지로 날 울게 해봐
—「세기말 블루스 1」

스피드의 황홀만이 두려움을 마비시킬까
—「세기말 블루스 1」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떤 기분일까?



신현림

가슴 안 아픈 연애를 했을까?
나의 피니스는 촛불처럼 아름다웠을까?
—「세기말 블루스 2」

사랑의 쇠못에 네 전부를 걸으렴
나중이란 없으니까!
—「세기말 블루스 3」

차들을 저세상으로 밀어버리고 싶군요
—「세기말 블루스 4」

얼마나 더 아파야 따뜻한 길이 보이나
얼마나 더 잃어야 안 무너지는 세상이 오나
—「세기말 블루스 5」

그녀는 매 순간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과 싸운다. 그 싸움은 거침이 없어 그녀는 온몸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을 시로 묶어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 비수처럼 날린다.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속도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 저항하고, 남성우월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나중이 없다고 하며 목숨을 건 사랑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급기야 모든 차들을 저세상으로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 속에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세상의 아픔을 노래한다.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잃어야 아름다운 세상이 올 수 있는가, 한탄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꽃상여 같은 가슴 뒤흔들고/ 오래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진다
(중략)
장 밖 강물이 깃발처럼 넙이친다 / 사라진 자들이
희망의 호롱불을 켜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듯 / 삶을 이어주고 만나게 하는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라 한다
따스해서 끊어지지 않는 다리 / 헤어져도 헤어지지 않는 다리를

뭐든 다시 시작돼야 한다
—「따뜻한 다리를 꿈꾸며」

아픈 사람은 상처의 깊이를 안다. 그리고 아픔이 깊을수록 그 아픔을 걷어내고 싶은 참 마음이 일게 된다. 신현림은 그 모든 저항의 목소리를 배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항의 끝에 만나고 싶은 희망의 목소리를 찾아낸다.

그건 개인을 향한 목소리일 수도 있고, 집단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다.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고, 신현림 시의 중심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을 비추는 그 무엇이다.

멋진 풍경은 수없이 많고 멋진 사람도 수없이 살다 가지만, 고향 마을만큼 변함없이 멋진 곳도 없다. 그러나 그 등지의 멋스러움을 인간이 개발의 이름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쉿, 조용히……고향의 바람소리가 박수소리처럼 쏟아져온다. 멀리 있어도 안개와 기차소리와 바람소리가 보인다. 추억의 등대에 불이 켜지고, 그리움이 밀려온다. 세월이 흐르면 괴로움과 상처가 묻어나는 자리에 꽃나무가 자라는 법이다. 흑설탕을 넣어 만든 백설기처럼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의 고향은 수원행 전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율전역과 군포역 사이 부곡이란 곳이다. 이곳은 철도 화물기지로 마치 섬처럼 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나는 고향의 아침 풍경을 찍고 싶어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다. 내 작업을 도와주시려고 아버지는 보험 안된 차를 운전하시기로 했다. 우리 집에도 바람이 불어 모든 보험을 중단했고, 자동차도 긴 동면에 들어간 상태였다. 가족간의 따뜻한 정은 무거운 현실을 오리털처럼 가볍하게 해준다. 아버지와의 즐거운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아침 8시였다. 초평동의 들과 산, 온 천지에 하얀 안개가 흐르고, 성에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해가 떠서 구름을 휘감고 있었다. 언젠가 쓴 내 시를 읊어본다.

칠갑따라 길으면 품 속으로 빨간 물고기들이 날아와

바람이며 풀이며 꽃이 내 살에 박히와

칠갑따라 길으면 왠지 서러워서 출렁

사람만 보면 반가와서 출렁

들국화를 늘고 출렁

그야말로 나는 아름다운 악기가 돼

이 모든 것을 사, 랑, 해라고 노래하면

사람이라는 악기도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람 냄새가 난다. 도시 건물 속에선 그 냄새가 제대로 배어 나올 수가 없다.

"아버지, 초평동의 뜻은 어떻게 돼요?"

"한자 뜻풀이대로 풀과 들이 어우러진 마을이란 뜻이지."

"뜻을 알고 나니 무척 기분좋은 이름이네요."

이곳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초평동과 월암동, 그리고 부곡동 사이에서 출렁이는 왕송저수지로 아담하나 거대한 느낌을 준다. 따뜻한 한국미를 자아낸다. 아아, 이대로 그대로 이 땅 마음대로 풍경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평선이 보이는 풍경을 찍으려다 논밭에 넘어졌다.

카메라는 알고 있었을까. 몸은 망가져도 카메라와 필름은 지키고 만다는 사실을. 전신에 퍼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래도 풍경에 압도되어 통증도 즐겁다.

지금 할머니가 무덤 속에서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린다.

10년 전 2월 13일에 쓴 메모를 기억해냈다.

"바람불고, 기차소리가 희게 메아리져온다. 아, 하루를 가득 메우고 사라지는 것들. 하루의 반을 게으름과 공상이 삼켜버렸다. 절제. 잠자는 시간 외에 늘 깨어있기. 친숙한 슬픔에 더 이상 친숙해지지 않기....."

별걸 다 기억해내는 사람이 글쟁이다. 나날의 불안과 슬픔을 이기려고 나는 메모를 했다. 주부가 잠들어도 가계부는 깨어있듯이 사람은 떠나가도 고향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내 고향 의왕시」

서울구치소

의왕은 또 서울구치소가 있는 곳(청계동)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에 있던 구치소를 80년대에 이곳 청계산 자락으로 옮겨온 이래로 많은 민주인사들이 그곳을 들락거렸다. 물론 전직 두 대통령과 이른바 황태자 한 사람을 비롯하여 정재계의 거물들도 온갖 추잡한 비리 혐의로 거쳐갔지만. 어쨌거나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저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언젠가 다시 한번쯤은 의왕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기억은, 바로 희망에 찬 미래를 건설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문인들도 적잖이 서울구치소를 거쳐갔다. '긴급조치'의 70년대나 '집시법'의 80년대와는 달리 대개 '국보법' 위반이었다. 분단 민족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아파한 그들은 자연히 통일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넘어간다고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단 50년 동안 겹겹이 쳐진 철조망을 훌쩍, 마치 이웃집에 마실가듯 넘어가 버렸다. 그것은 분명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 위반이었으되, 그들은 문학이란 바로 그런 잠꼬대 같은 상상력에서 비롯한다고 생각했다. 김수영이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 힘이 바로 시의 힘, 문학의 힘이라고 했듯이. 문익환 시인이 그랬고, 소설가 황석영이 그랬고, 나중에는 술에 취한 소설가 김하기가 그랬다. 그들은 시차는 있었지만 당연히 서울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다. 어떤 이들은 작품이 문제가 되어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출판 관계로 들어갔다.

어떤 구실로 들어갔든지 간에 서울구치소는 결코 그들의 정신까지 가두지는 못했다.

오봉옥 시인은 『붉은산 검은피』라는 시집을 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다. 그는 그속에서 오히려 투쟁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감옥은 이미 감옥이 아니었다. 차가운 창살이나 감금의 공포도 시인의 자유의지, 투쟁의지를 꺾지 못했다.

꼭두새벽 외로운 밤길로 가시었으리
거시링풀만 소문으로 밟고 가시었으리
말하자면 섬골 사내들이랑 샛강 처녀들이랑
어느 계급 없는 목적지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길동무로 가시었으리
두고 온 누메 그리울 땐
뒤돌아 머리부터 엎드려 절해 놓고는
울음다짐으로 다시 일어나 가시었으리
—「전사의 길」

그런 반면, 소설가이자 시인인 **송기원**처럼 세 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간 경우, 이미 그들은 영어의 몸이 아니라 천하무적의 길, 말하자면 한 도(道)를 이루는 길로 점점 더 깊숙이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 그가 『실천문학』에 보낸 편지글 전문을 소개한다.

벗들! 세번째 징역살이가 두 달이 넘어 어언 세 달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슬슬 자신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사전이 없어서(일부러 사전을 차입하지 않고 있다. 무슨 고집인가) 사육의 정확한 뜻을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을 동물적으로 사육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이한 것은 그렇게 동물적으로 사육당하는 내가 사육하는 나에게 전혀 반감을 느끼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위장은 벌써부터 술과 고기 따위 미식은 까맣게 잊은 채 기꺼이 짬밥에 순응하는가 하면 워낙 막무가내로 들이키는 수돗물에도 설사 한 번 하지 않은 절대 복종을 보여주었으며, 의식 또한 한 평이 채 못되는 기거 공간에 맞추어 유물론적으로 즐거이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스스로 놀랄 정도로 사육은 잘 되었다.

벗들! 그리고 나는 노자(老子)를 만났다. 어느 해의 봄과 마찬가지로 이 봄에도 예외없이 대륙으로부터 황사바람이 불어오고 온통 누런 모래로 뒤덮인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부비다가 눈병처럼 노자를 만난 것이다. 그 무렵 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화두 하나를 마치 개뼈다귀처럼 이리저리 핥으며 낑낑거리고 있을 때였다. 그것은 이번 징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개뼈다귀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다. 비극인가 희극인가, 아니면 한낱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가. 역시 화두는 화두였다. 화두 치고 쉽게 풀어지는 화두는 없는 법이 아닌가.

벗들! 그렇듯 개뼈다귀 같은 화두를 눈병처럼 찾아온 노자가 풀어준 것이다. 황사와 함께 찾아온 춘추전국시대의 이 위없고 찬백한 지식인은 대뜸 나에게 난세철학을 설하였는데 꾀죄죄한

형색과는 달리 그 설은 역시 절묘하였다. 비록 무력이 난무하는 힘의 시대에 병아리 한 마리 죽일 힘조차 없던 한 지식인의 자기만족이라면 그만이지만 그의 난세철학에서 나는 자신을 스스로 사육하는 일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벗들! 여기서 나는 노자의 난세철학을 해석한 글 중의 일부를 벗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노자의 철학은 말하자면 중국 역사의 진흙땅 속에 뿌리를 내린 철학이다. 그것은 유린당한 자의 강인성, 대지에 밀착한 끈기, 중심(重心)을 아래로 내려뜨린 자만이 지닐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살아나가겠다는 철학이며 더 이상은 붕괴될 수 없는 철학, 즉 모든 인간의 작위(作爲)가 무(無)로 돌아가는 데서 나의 삶을 찾는 천하무적의 난세철학이다.

벗들! 안심하시라. 나는 천하무적의 길로 가려 한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잘 있거라.

1990년 늦은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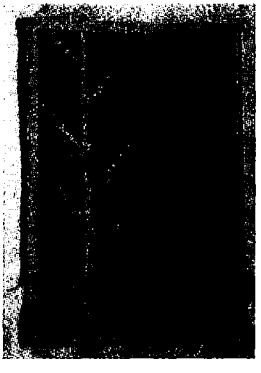
세번째 장역을 살며

문익환은 서울구치소에서 몇번째인지 모르는 감옥살이를 하면서 파스요법이라는 건강비법을 고안해냈다. 그렇지만 그는 출옥한 뒤 갑작스레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유해는 남양주군 모란공원 묘지에 묻혔다. 수만 명의 조문객이 가득 메운 서울 거리를 뒤로 한 채.(남양주편 참고)

『객지』, 『무기의 그늘』,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은 1989년 방북 이후 내내 베를린이며 미국 등지를 떠돌며 정처없는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그가 왜 방북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으나, 우리는 아무래도 작가의 입을 가장 신뢰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분단은 정치, 제도적으로 즉물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욱 문제인 것은 분단의 '내면화' 일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뇌리에서 북의 국토와 동포와 그들의 삶은 제외되어 있으며, 그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전에 가슴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의식 바깥으로 밀어내기를 했던 것입니다. 북과 관련된 모든 상념들은 이제는 꿈결에서까지 부정적으로 윤색되어야 생리에 맞도록 제2의 천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석영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작가로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는 분단콤플렉스를 건드리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른바 문민정권이라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뒤인 1993년 결단을 내려 귀국했고, 곧바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그는 공주교도소에서 4년 반여에 걸친 감옥살이를 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사면때 형집행정지 조치로 풀려난 그는 현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여념이 없다. 그의 문학에서도 이제 '감옥의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든 배어나올 것이다.(개성편 참고)


김하기 작품집

김하기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소설가다. 그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대에 갔고, 거기서 어떤 사상사건에 연루되어 탈영을 한다. 그는 야산을 헤매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체포되었고, 무장탈영 혐의로 그때부터 8년에 걸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출옥 후에 그는 소설가가 되어, 감옥 체험을 『완전한 만남』(창작과 비평사)이라는 소설집에 담아 호평을 받았다. 그러던 그가 어느날 신문지면을 온통 장식하는 유명인사가 되는데, 어느 여름날 술에 취해 두만강을 넘어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충격이었다. 돈키호테도 아니고..... 그를 아는 이들 사이에서도 여러 말이 많았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그의 진정성을 믿는 이들은 통일에 대한 그의 절절한 염원만큼은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그는 북에서 강력히 남쪽으로의 송환을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는 김포공항에서 수사대에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도 역시 서울구치소행이었다.

그밖에도 또 누구누구의 이름을 들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주는 느낌도 예전과 같지는 않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일까. 어쨌든 문인이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는 불행하다. 그런 일이 21세기에는 제발 없어야겠다. 지금까지 이땅에서 참다운 문학을 한다는 문인들이 겪어야 했던 감옥생활 햇수만 다 합해도 이미 하나의 밀레니엄을 꾸릴 만큼 충분하지 않은가!

한편 작가 **조정래**가 『태백산맥』을 집필하던 곳도 의왕이다. 그는 『태백산맥』을 집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어느 곳보다 조용한 의왕의 나자로마을을 찾았던

것이다. 그곳의 수녀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의왕의 자랑거리로서 **동서문학관**을 빼놓을 수 없다.



동서문학관
의왕시 내손동 산125번지 계원조형예술대학내 '계원과학정보센터' 2층. 지하철 4호선 인덕원 1번 출구, 자동차로 10분거리. 전화 (0343)424-9900, 인터넷 DONGSEO.kaywon.ac.kr.

동서문학관은 1996년 12월 24일 의왕시 내손동 산125번지 계원조형예술대학내 계원과학정보센터 2층에 15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이 있다. 100평 규모의 제1전시실에는 한국 현대문학 1백년사를 개괄할 수 있는 계보도를 비롯하여 왼쪽으로부터 이광수에서 오영수에 이르는 소설가 진열장, 홍명희 · 이기영 · 정지용 등의 월북작가들의 진열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육사 · 김억 · 김소월에서 청록파에 이르는 시인들의 초판본 작품집과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시인 진열장이 있다. 그리고 아래 유리 진열장에는 주요 잡지의 창간호와 신소설 · 방각본, 일제 강점기에 출판된 창작 · 번역서적, 평론과 수필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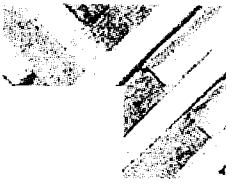
50평 규모의 제2전시실에는 김광균 · 모윤숙 · 정비석 · 천상병 · 박재삼 · 정한숙 등 작고문인과 현역 작가들의 육필이 빛바랜 원고지 속에 담겨져 있고, 전숙희가 국제펜클럽대회에 참석하여 모아온 자료와 세계 문학사를 빛낸 작가들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동서문학관은 초판본을 포함한 문인들의 저서와 문학잡지 3천여 종, 육필원고 2백여 점, 문인 도예품이 60여 점, 그외에 희귀한 문학사 관련자료와 영상자료 50여 점, 문인 유묵 60여 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학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는 동서문학관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개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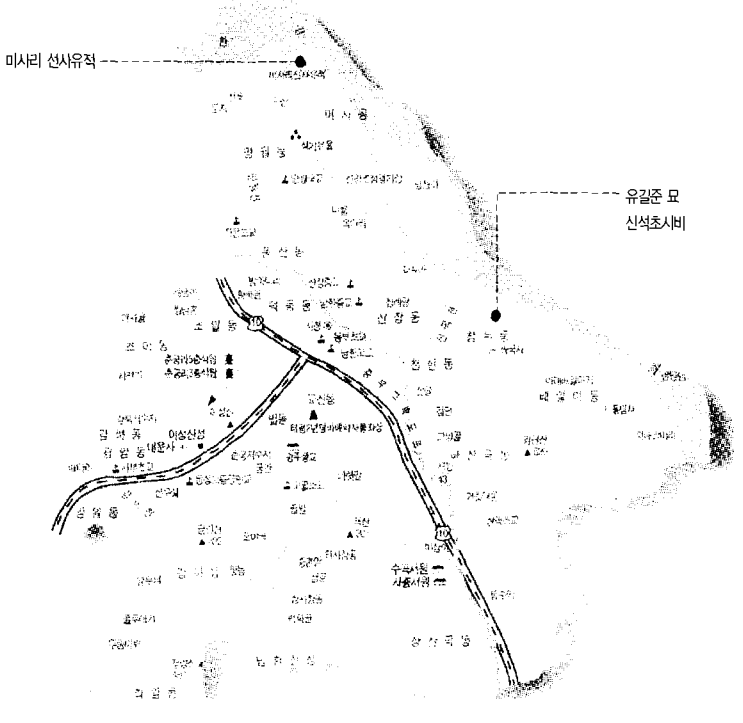
1. 황석영, 「저의 구명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옥중서신, 1993. 8. 29, 『사람이 살고 있었네』, 시와 사회사, 1993





하남

유길준의 언문일치정신을 이어받아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유명한 하남은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독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중이다. 격동의 구한말을 산 개화파 인물 유길준이 이곳 출신이며, 한국 최고의 수재 소리를 들었으며 작가이자 정치가로도 유명한 현민 유진오도 하남을 빛낸 인물에 속한다. 창우동 한국일보 농장에는 신석초의 시비가 서 있어 찾는 이들의 가슴을 포근하게 해준다.

유길준의 언문일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남은 주변의 다른 위성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바짝 붙은 서울로 인해 울고 웃는 도시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여 하남시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해에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일 것이다.

올림픽 조정경기장으로 더 유명한 미사리(渼沙里, 현재는 미사동)에는 적어도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 1979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미사리 선사유적지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등 유물들이 다량으로 발굴되었다. 이 터전 위에 훗날 백제의 도읍지인 하남 위례성이 들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의 여파로 그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한 시인이 어느 저녁 그 미사리를 찾아갔다.

물결이 빳빳하게 펴지고서야 비로소
모래알들이 꼼지락거렸다 잘게
부서져 흩어지는 발자국 소리 멈춰서면
황급히 침묵으로 뭉쳐지고





미사리 조정경기장
올림픽대로를 타고 중부고속도로 하일나들목에서 고속도로로 접어들지 말고 176번 시도로를 따라 하남시 안으로 들어가 4km쯤 가면 길 왼쪽에 나타난다.

감시의 눈 겨우 밝힌 국도변 가로등들
그림자를 다 게워낸 풀잎의 맨살을 살피고 있었다
삐걱이는 노 자국 날랜 龍骨 자국
한낮의 햇살을 담은 채 모조리 물밑으로 가라앉고
잦아드는 노을의 끄트머리에 닦이며 저무는 江은
마음속 더 깊은 물살을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河口를 향해 놓아보내고 있었다
高壓의 電流라도 흐르는지
물고기들 놀란 듯 간간 수면 위로 뛰어오르고
높은 산이 흘린 體液으로 江 어딘가에선
앓는 소리 힘줄 곱게 들릴 것 같은데
깎이며 끌려가는 모래알들 河口에 닿으면
홀연 한 가닥 물결로 풀릴 텐가
물결 되어 온 바다 떠돌다가
시름없이 까불며 떠돌다가 아득함에 지쳐

모르는 바닷가에 문득
아무렇게나 몸 풀고 기억 더듬어
다시 한 무더기 모래로 빛날 텐가
고단하게 어깨에 기댄 바람
차라리 서슴없이 껍질 벗고 스러져도
나는 흐르지 않는 것에도 발목을 담글 수 없고
지루하게 磨滅하는 시간은
한꺼번에 먼 도시로 몰려가
떼지어 불빛으로 돋아날 뿐이어서
고함이라도 지르면
그 고함 소리 삭여내기 위해
江 언덕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어느새 빽빽이 끼워진 어둠들
서로 자리를 바꾸며 한바탕
소란을 피울 것 같았다
부질없이
—강윤후, 「저녁 미사리에서」, 『다시 쓸쓸한 날에』, 문학과지성사, 1995

마음이 어쩐지 쓸쓸한 날 저녁에는 한번쯤 서울을 빠져나가 미사리를 찾을 일이다. 그리하여 조정경기장 너머 방죽에서 한강의 수면 위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내려다볼 일이다. 그렇게 한참을 넋놓고 서 있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 무엇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생각, 그런 것이 다 부질없음을 느낄 순간도 찾아오지 않을까. 한강은, 미사리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살포시 잠재우기 위해 그토록 아름다운 물비늘을 내비추는 것이리라.

유길준

격동의 구한말을 산 이로서 하남시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인물이 유길준(俞吉濬,



유길준

1856~1914)이다. 서울 계동에서 태어난 그는 열한 살때인 1866년 병인양요를 피하여 광주군 동부면 덕풍리(현재의 하남시 덕풍동) 선영 아래로 옮겨 3년간을 살았다. 다시 서울로 돌아간 그는 1881년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바 있는데, 그해 6월에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경영하던 게이오(慶應)의숙에 입학하여, 동인사(同人社)에 입학한 윤치호와 함께 한국 최초의 유학생이 된다.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학업을 중단한 그는 1883년에 정사 민영익을 수행하여 40여일간 보빙사(報聘使)라는 친선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시찰한다. 미국에서 그는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박람회장, 공장, 병원, 조선소, 신문사, 육군사관학교 등을 방문하였다. 그후 민영익의 후원으로 미국에 남아 약 4개월에 걸친 유학생활(매사츄세츠주 덤머 아카데미)을 하면서 그 당시 발전한 문물을 직접 보고 온 감회를 틈틈이 메모해 놓았다. 그는 19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어쩔수없이 귀국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저 유명한 『서유견문(西遊見聞)』(1889년 완성, 1895년 동경에서 출판)을 펴내는 바, 이 책은 훗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고 있는 개화기의 중요한 기행문으로서뿐만 아니라 언문일치에 관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저술로서 대접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책이 말 그대로 기행문인 것만은 아니다. 집필 형식은 오히려 일종의 개화교본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제1편부터 제18편까지는 세계지리와 서양문물을 소개하고 개화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제19편과 20편이 비로소 유럽 문물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기행문 형식은 아니다. 어쨌든 새롭게 접한 서양 문물을 조국의 동포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일종의 견문기인 것만은 틀림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식.

> 여자의 의관에 대해서 논해보자. 자세히 알 수는 없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기록하겠다.
>
> 치마는 품과 길이가 몸에 알맞도록 맞추고, 허리 부분은 주름잡지 않으며, 아랫단에다 주름잡

한 조끼만 조각을 붙여 중간쯤까지 이르게 한다. 남자의 바지처럼 멜빵끈으로 조절하며, 저고리 밑으로 해서 어깨에 매도록 되었다. 저고리는 그 길이가 가슴 부분을 덮는데, 옷깃이 있는 곳은 노출하게 하여, 왼 동여매지는 않았다. 모자는 사절 말총으로 만든 것뿐인데, 빛깔은 검은색을 좋아하고, 앞에는 일확달목한 새의 깃털을 비스듬히 꽂았으며, 패물은 귀고리, 가락지, 팔찌, 시계와 저고리의 단추 등이다.

이 책에서 그는 "무릇 개화란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선극미(至善極美)의 경역(境域)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고로 개화의 경역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개화, 반개화, 미개화의 단계를 구분한다. 이러한 그의 개화사상은 일본의 저명한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유길준은 전통적 '동도(東道)'의 입장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기(西器)'를 배울 것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유교를 야만으로 보는 후쿠자와의 탈아(脫亞)사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1]

한편, 그는 언문일치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문법서 『대한문전(大韓文典)』(1909)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언문일치에 관한 그의 입장은 『서유견문』 머리말에 잘 드러나 있다. 책을 다 쓰고 난 유길준이 친구에게 평을 부탁하자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참으로 고생하기는 했지만, 우리글과 한자를 섞어 쓴 것이 문장가의 궤도를 벗어났으니,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유길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을 옹호한다.

"이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 말하고자 하는 뜻을 평이하게 전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글자를 조금만 아는 자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내가 책을 읽은 것이 적어서 글 짓는 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기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우리나라 칠서언해(七書諺解)의 기사법을 대략 본받아서 상세하고도 분명한 기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나아가 "우리나라의 글자는 우리 선왕(세종)께서 창조하신 글자요, 한자는 중국

과 함께 쓰는 글자이니, 나는 오히려 우리 글자만을 순수하게 쓰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서투르고 껄끄러운 한자로 얼크러진 글을 지어서 실정을 전하는 데 어긋남이 있기보다는, 유창한 글과 친근한 말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2] 그는 1914년 9월 59세를 일기로 서울 노량진 조호정에서 생애를 마쳤는데, 10월 7일에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선영에 안장된 그의 유해는 1986년 4월에 하남시 창우동(옛 동부읍 창우리)로 이장되었다.

유진오

하남시 상산곡동(옛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에서 태어난[3] 현민(玄民) 유진오(俞鎭午, 1906)를 김윤식과 마찬가지로 문인으로보다는 정치가로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이는 그가 1966년 당시 제1야당이던 민중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면서 정치 일선에 참여했기 때문일 텐데, 신민당 당수로서 박정희 독재정권의 3선개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운 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정치가로서 그를 기억하는 데 커다란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문학사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설가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당시 맹렬한 세력을 얻고 있던 프로문학론에 동조하여, 이효석과 더불어 이른바 동반자작가로서 활동했다. 따라서 이 무렵 발표한 작품은 빈민계층의 생활을 소재로 삼아 경향적 색채가 짙다.(『귀향』, 『여직공』 등)

하지만 아무래도 그의 대표작으로는 프로문학 퇴조기인 1935년에 쓴, 현실과의 타협 문제로 갈등하는 지식인을 그린 『김강사와 T교수』(1935)를 꼽게 마련이며, 『창랑정기』(1938)는 감상적 정조가 매우 짙게 드러난 작품이다. 1938년에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장편소설 『화상보』를 연재하기도 한 그는 해방 이후 문단을 떠나 한 사람의 법학자로서 연구와 후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시피 한다.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듣고 자란 그는 경성제대에 수석 입학하기까지 한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청년 시절에 쓴 글들을 중심으로 모아 엮은 『젊은 날의 자화상』(박영문고)을 보면 식민지 시절을 보낸 한 수재의 고민과 꿈이 날것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그가 스물한 살이던 1927년에 쓴 일기는 인상적이다. 여기서 잠깐,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재미를 나누어보자.

1월 6일(목)

'결혼은 초인(超人)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Nietsche, Zarathustra) 가가(呵呵), 그러나, 좌우간 니이체란 통쾌한 사나이다.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될 까닭이 없다. 아, 나는 der letzte Mensch인가!

다니자끼 준이찌로(谷崎潤一郎)의 『걸작집(傑作集)』 제3권을 헌 책사(冊肆)에서 구입. 잔소리 넝어리의 분장. 간결의 소중함을 절감.

밤, 나의 게으름을 새삼스레 절감. 이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간다면, 백살을 살아도 무엇이 될 것 같지 않다.

1월 23일(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존경하는 사람보다 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 반면에, 후생(後生)을 업신여기는 자는 결코 진보(進步) 향상(向上)할 수가 없다.

공(功)은 이루지 못할 망정, 뜻은 높게 가지라. 뜻이 낮은 자에게는 공은 문을 닫는 법이다.

타인을 존경하든 업신여기든, 자기는 필경 자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나를 연마할 뿐이다.

2월 11일(금)

나는 내가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 속에 물결치는 위대에의 파도를 나는 자랑스럽게 느낀다.

표현주의의 작가들은 즐겨 '태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는 나아말로 태양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자라고 생각한다. 천행건(天行健). 태양은 말이 없고 조급하지 않지만, 기억리(幾億里)의 창공을 지배하지 않는가.

2월 28일(월)

『개조(改造)』지에 난 아쿠다가와(芥川)씨의 「하동(河童)」을 읽다. 역시 나 같은 건 문제가 아니다.

3월 30일(수)

봄비가 하루 종일 소리 없이 내린다.

감상.

우울.

아쿠다가와(芥川)씨의 「하동(河童)」을 재독. 별로 신통치 않다고 고쳐 생각. 깊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과 의견의 진열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밤에 「레미제라블」을 계속해 읽다. 역시 위대하다. 밀리엘 사교가 장발장에게 은촉대(銀燭臺)까지 내주는 장면. 컨벤셔널하기는 하지만, 역시 대가의 필치. 전권에 차 있는 경구와 잠언도, 표현주의류의 안가(安價)하고 히스테리칼한 것과는 선(選)을 달리 한다.

대작은 대작으로서 좋지만, 현대인에게는 역시 단편이 좋지 않은가 하고, 『레미제라블』을 읽으며 생각해본다.

4월 1일(금)

부모에 대한 사상상의 반항을 아무래도 누를 수 없다. 전혀 +와 −, 음과 양, 불과 물처럼 틀리는 것이다. 가정의 분위기가 메마른 근본원인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나의 부모가 다른 부모들 모양으로 완고하다거나, 자기 아들 지배욕에 차 있더라면, 아무리 마음이 약한 나일지라도 벌써 전에 집을 뛰어나갔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나의 결혼생활과 부모와의 동거는 양립되지 않는다. 억지로 양립시키는 경우에는 불만, 갈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5세기와 20세기와는 5백년의 간격을 두고 비로소 양립할 수 있다. 때를 같이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

타파되어야 할 가족제도, 봉건제도는 아직도 얼마나 뿌리 깊게 조선에 존재하고 있는지! 조선의 장래는 멀다. 우선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소유권(私所有權)의 자유가 발달하여야 한다. 그 뒤에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무엇이고 가능할 것이다.

몇날치만 훑어보아도, 청년기 특유의 격동하는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자만심과 열패감, 희열과 분노가 수시로 교차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암담한 식민지시대의 청년이 겪었을 고뇌가 더 크게 가슴을 치게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 수재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지, 당대 현실의 보편적인 반영은 아닐 것이다.



현민로

덕보교에서 광주 은고개까지의 43번 국도명으로 유진오 박시의 호를 딴 이름이다. 유진오 박시의 고향이 상산곡동이고 또 유택이 상산곡동에 있어 이를 상징한 것이다. 별도로 도로명 표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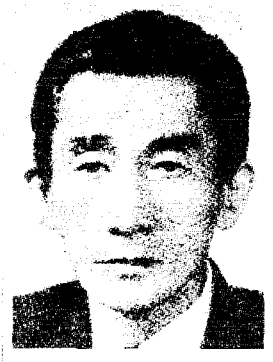
현재 하남시에는 그의 아호에서 따온 현민로가 있다.

신석초

창우동(옛 동부면 창우리)에 있는 한국일보 농장 검단산 기슭에는 화강암으로 된 시인 신석초(申石艸, 1909~1975) 시비가 세워져 있다. 고향이 아닌 곳에 그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 이유를 의아하게 여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를 창간한 장기영 사주가 사우(社友)이기도 한 신석초의 시비를 세우라고 간곡한 유지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기영 사주는 평소에도 아침저녁으로 애송할 정도로 신석초의 「바라춤」을 좋아했는데, 그의 시비를 세워주려고 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뒤에 남은 사람들이 장기영 사주의 49재에 맞추어 시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1977년에 세운 시비에는 대표시 「바라춤」과 함께 '생은 유한하나 청산과 더불어 시와 사랑은 영원하리라'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묻히리란다. 靑山에 묻히리란다.
靑山이야 변할 리 없어라.
내 몸 언제나 꺾이지 않을 無垢한 꽃이언만
깊은 절 속에 덧없이 사늘어지니
생각하면 갈갈이 찢어지는 내 맘
서러 어찌하리라.
묻히리란다. 靑山에 묻히리란다.

나는 혼자이로다. 찔레 얽어진
숲 사이로 표범이 불러 에우고,
쩡쩡 우는 山울림과 밤이면
달 피해 우는 杜鵑이 없으면
나는 혼자이로다.
—장시 「바라춤」 서사 중에서



신석초



신석초 시비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 아래 한국일보 농장. 하남시청 뒤편으로 검단산을 찾아간다. 그 아래 사부자집이라는 음식점을 이정표로 삼으면 된다. 한국일보 농장은 사부자집에서 직진하여 20미터 쯤.

전라북도 황등산의 화강암으로 만든 시비의 모양은 하얀 고깔을 쓰고 바라춤을 추는 등신대(等身大) 스님의 조각상이기도 하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신석초는 한때 카프에 가입했으나 1933년 박영희와 함께 탈퇴한다. 1937년에는 서정주, 김광균, 윤곤강, 이육사 등과 함께 『자오선』 동인으로 활동했다. 1946년에는 첫시집 『석초시집』을 펴냈고, 1959년에는 『바라춤』을 펴냈다. 1975년에 사망했다.

그는 자신의 시정신과 창작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4]

한편에는 동양적인 한국적인 어느 것, 또 한편에는 서구적인 것, 그리고 대별하여 두 개의 정신적 패턴은 서로 상이한 얼굴을 하고 상극하고 길항하여 하나의 오뇌하는 야누스의 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는 정신의 이 창해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 하나 좀처럼 나르시스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 평론가는 그의 문학세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초기시에서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규제된 형식미나 철학적 사유의 깊이 등은 시인 석초의 행복이면서 동시에 그의 불운이기도 한 것' 이라면서 '인간과 예술, 속과 성, 고전과 현재 등 대등한 양자 사이에서 그가 너무나 일찍이 터득한 균형감각이 그로 하여금 어느 한쪽으로도 멀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고 지적한 바 있다.[5]

어쨌거나 검단산 신석초 시비 앞에 서면 평소 학같은 외모와 성품으로 살았다는 시인이나 그 시인의 시를 즐겨 암송하던 한 언론사 사주의 우리 시대에는 이미 드물어져

버린 관계가 생각이 나, 새삼 착잡한 마음이 들 것이다.

대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의 시 한 편을 더 읽어보는 것으로 하남 문학기행을 마친다.

바다에 끝없는
물결 위으로
내, 돌팔매질을 하다
히무에 쏘는 화살 셈치고서.

돌알은 잠깐
물연기를 일고
금빛으로 빛나다
그만 자취도 없이 사라지다.

오오 바다여!
내 화살을
어디서 감추어 버렸나.

바다에
끝없는 물결은,
그냥, 까마득할 뿐.....
—「돌팔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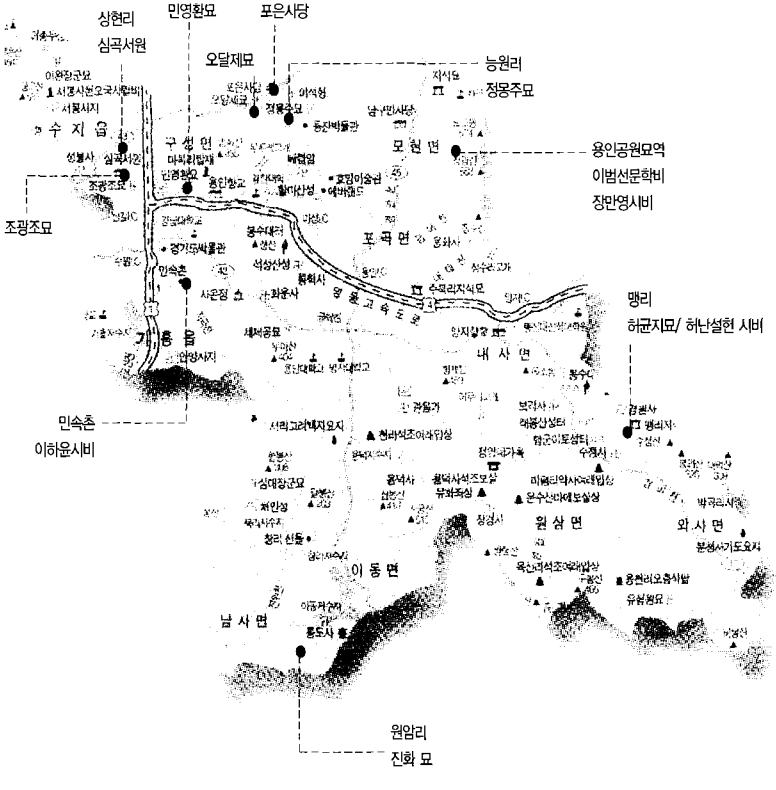
1) 강재언, 『한국의 개화사상』, 정창렬 역, 비봉출판사, 1981. 172쪽 참고
2) 허경진 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3) 일부 전기에는 그가 서울 출생이라고 되어 있다. 가령,어문각 판 『한국문예사전』, 1991
4) 신석초, 「나의 시정신과 방법」, 『삶의 투시로서의 문학』, 신동욱, 문학과지성사, 1988에서 재인용
5) 김은자, 「신석초론」, 『바라춤』, 미래사, 1991,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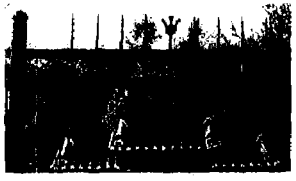




용인

이제는 죽은 자들만의 땅이 아니다





용인을 왜곡시킨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죽어 용인'이라는 말일 것이다.그 말이 생겨난 유래를 더듬다보면 아름다운 설화를 만나게 된다. 어떻게 이 빛나는 판결문이 그저 죽은 자의 명당 자리로 이 고장을 변질시키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용인의 문학을 어떤 체계적인 주류에 맞춰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용인 문학은 용인 출신으로 타도시에서 활동했었거나 현재 하고 있는 문인들과 타지역 출신으로 용인에 거주하였거나 작품 배경으로 용인을 택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제는 죽은 자들만의 땅이 아니다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 용인을 왜곡시킨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죽어 용인'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 말이 생겨난 유래를 더듬다보면 아름다운 설화를 만나게 된다.

370여년 전 죽은 아버지를 서로 모시겠다고 진천 아들과 용인 아들 간의 싸움이 끝내 진천 관아 군수의 판결에까지 이르는데, 살아서 그동안은 진천 아들이 모셨으니, 이제부터는 용인 아들이 죽은 아버지를 모셔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는 아름다운 송사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빛나는 판결문이 그저 죽은 자의 명당 자리로 이 고장을 변질시키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용인의 문학을 어떤 체계적인 주류에 맞춰 살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용인 문학은 용인 출신으로 타도시에서 활동했었거나 현재 하고 있는 문인들과 타지역 출신으로 용인에 거주하였거나 작품 배경으로 용인을 택했던 문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다.

해방 전 이 지역 출신의 문인으로는 유일하게 유영(1917~)이 있는데, 그는 1939년 『문장』지에 소설 「조갯살」

로 등단, 그후 시집 『일월』과 수필집 『인생 산책』, 『이 한줌의 흙』, 『고향』, 『하늘』 등 사물의 본질을 역사의식으로 파악하여 서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발표하였지만 주로 영문학에 관한 논문과 번역에 더 치중하였다.

그 후 1966년 한국일보 현상 응모에 주어진 운명을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소설 『회전목마』가 당선되어 등단한 건축가 이건영이 있지만 그도 몇 편의 소설을 발표한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용인시 이동면에서 태어나 인천교대를 졸업하고 수필로 문단에 나와 장편소설 『겨울 아지랑이』, 『1급 정교사』, 시집 『함께 걷기』 등을 발표한 양승본이 용인여고 교사로 있으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몇 안되는 사람의 개인적 글쓰기에서 1984년 『용구문화』 창간호가 나올 때까지 용인은 문학의 불모지였다고 볼 수 있다. 용인문화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용구문화』는 그만큼 이 지역 문화 동호인들에게 단비가 아닐 수 없었다.

그후 1987년 전문시동인지 『서정 3세대』가 3호까지 내며 1993년 용인문예운동협의회 창립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현재 용인 연합신문 편집국장인 김종경을 중심으로 같은 해 용인문학회가 결성되면서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틀을 갖춘 문학단체로 그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용인문학회는 기관지 『용인문학』을 3호까지 펴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대시인 조태일 시인이 간암으로 갑자기 별세하면서 묻힌 곳이나 한창 열정적인 창작열을 과시하던 젊은 소설가 김소진이 죽어서 묻힌 곳도 용인 공원묘지이다. 문학기행을 하는 이라면 이들도 한번쯤 기억해야 할 터.

도원가(桃源歌)를 찾아서 - 진화

동해의 푸른 안개/ 풀잎 위에 아련하고
향기로운 난초 지초/ 남산 위에 무성하네
진나라의 모진 법을/ 피해 와서 사는 고장



진화 묘지

오산 인터체인지 진입 사거리를 지나 송탄 방향으로 가다 성은리 가는 길인 38번 지방도로에 들어서 남촌초등학교를 지나면 바로 풍질관리연수원인데 그 맞은편 길을 오르면 진화묘소인 남시면 원암리 원암골에 닿을 수 있다.

예가 바로 이름 높은
선경 같은 무릉도원

시냇물 거슬러서
산 어귀로 들어가면
땅 좋고 물 흔한
양전옥답 펼쳐 있네

한낮이 기운 때에
삽살개 짖는데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잎들이 지는구나

복사나무 가꾼 후로/ 고향 생각 잊었거니
책을 떼운 그 뒤 일은/ 모르고 살아오네
(중략)

달밤에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나무에선 새들이/ 정다웁게 지저귀네
그러하나 백성들은/ 살림에 쪼들리고
고을 관리 쌀을 내라/ 문을 차며 성화로세

백성들을 들볶는/ 이런 성화 없으면야
우리나라 산촌들도 / 어디 가나 도원일세

이 시속에 담긴 뜻을/ 그대여 잊지 말고
관청책에 적어 두어/ 자자손손 전해 주게
– 「도원가」

고려 무신의 난 이후 피폐한 농촌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원가」를 지어 유명한 매호 진화는 고려 신종과 희종 연간의 문신으로 어릴 적부터 글 재주가 뛰어나 이인로와 함께 절창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남긴 시는 모두 59수가 전해져 오는데 「도원가」 이외에 그가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었다는 「봉사입금(奉使入金)」과 「사금통주구일(使金通州九日)」 또한 절창으로 알려져 있다. 허균도 그의 시를 읽고 맑고 굳세어 읊을 만하다고 하였다.

불러도 불러도 뜨거운 이름 -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죽어..... ."

어릴 때부터 외기 쉬운 시조 중 가장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단심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불사르는 장엄한 순절이 무엇인지 뜨겁게 깨우쳐주던 민족혼의 노래가 아직도 은은하게 감도는 곳.

포은 정몽주는 고려 충숙왕 복위 6년(1337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 스물네 살에 문과에 응시 삼장(三場)에서 잇따라 장원급제하여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서른 살에 성균관 박사, 마흔 살에 대사성에 올라 1383년에는 동북면 조전원수가 되면서 벼슬길이 끝없이 열리는데, 이미 최영을 제거한 이성계의 정권 찬탈의 야망을 알고, 이를 꺾기 위해 계획을 꾸미지만, 이를 눈치 챈 이방원에 의해 「단심가」를 남긴 채 선지교(나중에 정몽주의 혼이 대나무가 되어 솟았다고 선죽교로 이름이 바뀜)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정몽주가 죽은 지 석달 후에 결국 이성계는 역성혁명에 성공, 조선왕조를 세우게 된다.

1392년 56세로 죽임을 당한 포은의 시신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송악산 스님들에 의해 풍덕군에 묻혔다가 14년 뒤인 태종 6년(1406년) 고향인 영천으로 면례하기 위해 운구하던 중, 지금의 용인시 수지읍을 지날 때 명정이 바람에 날아가 할 수 없이 명정 떨어진 자리에 묘를 쓰게 되었다. 여포리라는 마을 이름도 그 때 능원리로 고쳐진 것이다.

문수산 기슭 포은의 묘소는 왕릉에서나 허용되는 담이 둘러 있고 '고려수문하시중정몽주지묘' 의 비석이 있고, 뒷면에는 '불사이군' 네 글자가 쓰여져 있다. 묘소 주위에는 숙종이 짓고 썼다는 편액과 함께 영모재가 있다.

또한 묘지 아래편에는 선조 9년(1576년) 에 세운 충렬서원이 있는데, 이는 동방성리



충렬서원
수원에서 43번 국도 타고 수지 지나 광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문수산 아래이다. 묘 안내판과 '단심가'비가 보인다. 서울에서는 분당을 거쳐 마찬가지로 43번 국도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충렬서원은 묘 안내판이 있는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학의 조종으로 추숭된 포은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처음에는 조광조와 함께 위패를 모셨었고 위치도 정몽주와 조광조 묘의 중간 지역인 죽전리에 세웠었다. 서원 이름도 죽전서원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태워진 후 지금 자리에 중건하였다가 고종 8년(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72년 전체를 보완 신축,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원 경내에는 6칸의 사우, 내신문, 외신문, 동서협문,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된 8칸의 강당 등이 있다. 서원 입구에는 홍살문을 세워 신성시하였으며, 한때 용인의 대학자 도암 이재 선생이 여러 유림들과 학문을 교류하던 곳이기도 하나, 그 이후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다.

너무 짧았던 왕도정치 - 조광조

임금님 사랑을 어버이같이 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같이 하였네
저 하늘의 태양이 땅을 밝히니
밝고 밝게 비춰지겠지
내 붉디 붉은 마음도

그의 「절명시」처럼 무고함의 한을 풀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는 조선 성종 13년(1482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29세에 진사시에 장원급제, 34세에 알성시에 급제 정 6품에 오른다.

그러나 주초위왕(走肖爲王) 같은 모함 속의 정치 생활에서도 그는 오직 도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위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주초위왕 사건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1519년 12월 30일 그토록 돈독했던 군신 관계의 중종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짧은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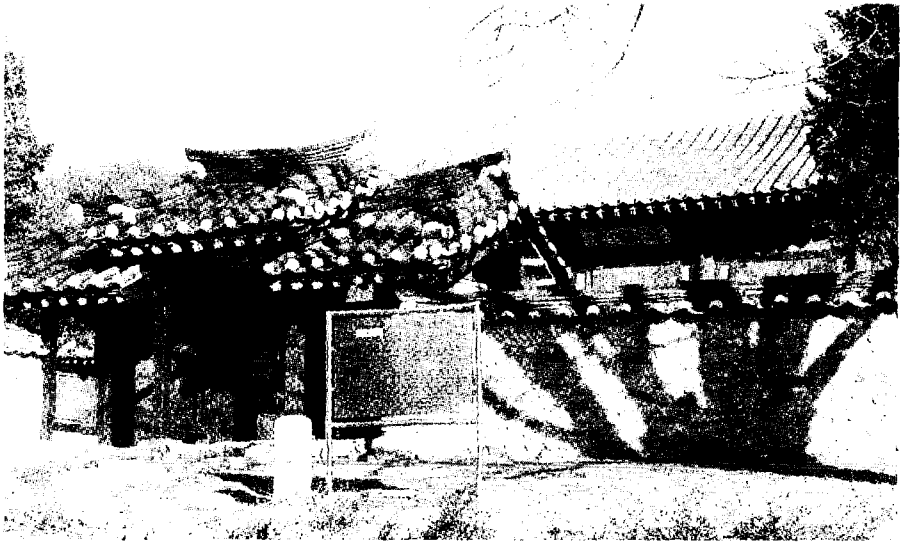
아쉽기만 한 개혁정치는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점 다시 한 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의 묘는 수지읍 상현리(서원말)에 있으며 부인 이씨와 합장한 합장묘이다. 묘 앞에는 대리석으로 묘 표와 평상석, 향로석, 좌우에 망주석,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지 맞은편 그를 배향하는 심곡서원은 처음에는 충렬서원에 있었던 것을 선조 38년(1605년) 무렵 옮겨오게 된 것이다. 이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 당시에 존속한 우리나라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심곡서원에는 재실이 없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교육 공간으로보다는 제향 위주의 서원으로 주목되면서 재실의 의미가 적어진 때문이다. 그래서 사당 중심으로 건물



심곡서원
수원에서 43번 국도를 이용 이의동 지나 20여분이면 다다를 수 있고, 서울 쪽에서는 신갈 인산 고속도로 동수원 인터체인지에 나와 마찬가지로 43번 국도를 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배치되었고 대신 주변에 장서각, 교직사 등이 마련되어 있다. 맞배지붕에 홑처마로 된 장판각에는 67종 486책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1985년 도난 당하여 현재는 『정암집』 외에 몇 권만 남아 있다.

'혼을 불러 장례 지내는 일은 옳지 못하다' - 오달제

심곡서원에서 느낀 삐아픈 아쉬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충렬서원을 찾아 나서는 길에서 만나는 3학사 중 한 사람인 추담 오달제(1609~1637)의 묘 및 대낭장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깊은 슬픔이라 아름답기조차 하다.

오달제는 조선 인조 12년(1634년)에 벼슬길에 들어,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청나라의 화의에 반대, 주전론을 폈으나 결국 화의가 성립되자, 중국 심양으로 이송, 홍익한, 윤집과 함께 처형당한 뒤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자 앞 두 학사는 그들의 의관만을 갖고 예장하였지만 오학사만은 그의 부인이 항상 오학사의 띠와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서 '혼을 불러 장례 지내는 일은 옳지 못하다' 고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부인이 죽은 뒤에야 예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양촌마을에 있는 그의 묘소에는 그가 평소 차고 있었던 요대와 주머니만 묻혀 있고 묘소 입구에는 그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대낭장비' 가 있다.

우뚝 선 대나무가 되어 - 민영환

민영환은 1861년 태어나 1878년 조선 말기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에 몸을 담다가 미국공사, 군부대신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와 삼정(參政)에 올랐다. 그는 서구 문명에도 밝아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으며, 외국에 가는 사람의 예복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침략이 심각해지자 나라의 운명을 바로 잡으려고 분투하였던 그는 독립당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대신의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하였으며, 1905년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와 함께 이 조약의 폐기를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해 11월

4일 새벽 국민과 각국 공사에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진하였다.



오달제의 묘
43국도 광주방면으로 가면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양촌마을에 닿을 수 있다.

민영환의 묘소
신갈 오거리에서 분당 쪽으로 가다보면 마북리에 있는 구성초등학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학교 뒷편 산기슭에 있다. 본래는 수지면 풍덕천리 토월마을에 봉분없이 평장되었던 것을 1942년 후손들이 옮긴 것이다.

슬프도다, 국치와 민욕이 드디어 이에 이르러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하여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살리니 모든 사람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영환은 다만 일사(一死)를 맺음으로서 우리리 황은에 보답하고 2천만 형제에 사죄하나니 영환은 죽었다 해도 죽지 아니 하며 여러분을 구천에서나마 기필코 도울 것이니, 다행히 동포 형제는 만분려 배가하여 뜻과 기운을 천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결심유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 마땅히 명명한 속에서도 즐겨 웃으리니 슬프다 하여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우리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노라.

민영환의 묘소 앞에는 1959년 신도비가 세워졌다. 거기에는 그가 자결했을 때 남긴 유서와 이승만의 친필 제자가 각자되어 있다. 1972년 10월 묘역 둘레에 곡담을 쌓았으며 1974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죽어서도 누이(허난설헌)와 함께 있는 - 교산 허균

조선국 세종때에 한 재상이 있었다. 성은 홍(洪)이요 이름은 모(某)라 대대로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어려서 급제하여 물망이 조야(朝野)에 으뜸이고 충효가 겸비하기로도 이름이 일국에 떨쳤다.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으니 맏아들의 이름은 인형으로 정실부인 유씨의 소생이요, 둘째아들의 이름은 길동으로 시비 춘섬의 소생이었다.

길동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한낮에 한 꿈을 꾸니 문득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진동하며 청룡이 하늘에서 달려오거늘 깜짝 소스라쳐 놀라 눈을 떴다.

공은 마음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용꿈을 꾸었으니 귀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소설인 『홍길동전』이 교산(蛟山) 허균(許筠)의 작품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터.

어릴 적 할머니 무릎 위에서 홍길동의 활약상을 듣다 그대로 잠들어 버렸던 기억 또한 누구나 하나씩은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없이 홍길동을 만나게 되는데, 어릴 때 감흥 그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도 그리 많지 않으니 『홍길동전』이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이 아니고 무엇이랴!

허균(1569~1618)은 5세 때에 이미 글을 배우기 시작해 8세 때에는 시를 지었다 한다. 일찍이 12세 때 아버지를 잃고 만형 허성 밑에서 자랐는데 비록 이복동생인 허균이었지만 구분하지 않았고, 둘째형인 허봉은 허균에게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그의 친구인 이달에게 허균을 맡겨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 주었으며,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두 형 못지 않게 다섯 살 위인 누이 허난설헌은 함께 공부하면서 극진히 보살펴 줘 형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1589년(선조22) 21세의 나이로 생원 시험에 급제한 허균은 기쁨보다는 누이 허난설헌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맛보아야 했다. 24세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피난 가기도 하였으며 26세 때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그는 29세 때 문과중시에 장원으로 급제, 이듬해 황해도 군수가 되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명문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성장한 그였기에 서울 기생을 끌어들여 별실에 숨기고 즐기는 방탕한 생활을 하여 6개월 만에 파직 당하고 말았다. 그후 춘추관기주관을 역임하였고 1604년 수안군수로 부임하였으나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으로 다시 파직 당하고 만다.

1606년에는 명나라 사신 주지번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그의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고, 그때 누이 허난설헌의 시를 주지번에게 주어 중국에서 출판하게 되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후 벼슬길과 파직의 연속되는 관직생활 중 1610년 전시의 시관으로 있으며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전라도 함열로 유배되기도 하는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는 결국 1618년 8월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사건으로 역적 모의의 죄명을 쓰고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 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의 저서 『성서복부고』는 자신이 편찬하여 죽기 전 외손에게 전하였다고 하는데, 그

부록에 『한정록』이 있다. 그가 25세 때 쓴 시 평론집 『학산초담』이 『성서복부고』 가운데 실려 있는 『성수시화』와 함께 그의 시 비평 안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시선집 『국조시선』은 반대파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그밖에 『허문세고』, 『고시선』 그리고 임진왜란의 모든 사실을 적은 『동정록』이 있으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처음 과천에 있던 그의 무덤은 도로공사에 인해 이장되었는데 지금은 용인시 원삼면 맹리 양천 허씨 종중산에 그의 아버지 허엽, 그리고 두 형인 허성, 허봉과 함께 나란히 묻혀 있다. 평지나 다름없는 묘역 오른쪽 끝에 있는 허균의 묘에는 양옆 문이석과 상석이 이끼를 입은 채 긴 세월을 지키고 있었고, 죽어서도 동생을 보살펴 주려는 듯, 묘역 초입에는 무덤 없는 허균의 누이 허난설헌의 시비가 외롭게 서 있다. 누구보다 허균을 사랑했던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 허난설헌(1563~1589)은 오빠와 동생의 틈바구니에서 어깨너머 공부로 글을 배웠고, 허균과 함께 이달에게서 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용모와 천품이 뛰어났으며 8세 때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을 정도로 문장 또한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그녀는 15세 때 안동 김씨 성립과 혼인하였으나 원만한 부부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도 심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사랑하던 남매를 잃은 뒤 설상가상 뱃속 아이까지 잃는 아픔에, 친정 집에 옥사까지 있었고 동생 허균마저 귀양가는 등 비극의 연속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책과 먹으로 그 고뇌를 달래며 생의 고달픔에 항거하다 27세의 너무나 짧은 세상살이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녀의 시 213수 가운데 속세를 떠나고 싶은 신선시가 128수나 되는 것을 보면 현세가 얼마나 참담하였는가를 짐작할 만하다.



허균 묘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양지사거리로 나와 17번 국도를 따라 약 9km 직진하면 오른쪽으로 원삼 방향 17번 시군도로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원삼휴게소가 나온다. 휴게소 100m쯤 못 미처서 굴다리 밑으로 좌회전해서 600m 정도 가면 양천 허씨 묘역이 나온다. 묘역 입구에 허난설헌 시비가 세워져 있다.



허균이 명나라 시인 주지번에게 주어 중국에서

펴내 널리 애송되었던 『난설헌집』의 초희 허난설헌, 그녀가 시비로 우뚝 서서 친정집 유택들을 지킬 줄이야.

1969년 6월1일 국어국문학회가 건립했다는 시비 앞면에는 '난설헌허초희시비'라고 굵게 새겨져 있고, 옆에는 그녀의 육필인 '한견고인서'(閒見古人書; 옛 사람의 글과 겨루어본다)라는 글귀가 생전의 삶처럼 희미하지만 수려한 글체로 각인되어 있다.

용인 지나는 길에 - 민영

저 신벚꽃 핀 능성이에
지친 몸을 쉴까
두고 온 고향 생각에
고개 젓는다

到被[illegible]에 무리지던
연분홍 빛 꽃너울
먹이도 허기지던
[illegible]

맵에 억겨운
[illegible]
구구 구국 울이대는
멧비둘기 소리

신벚꽃 진 능성이에
뼈를 묻을까
소태같이 쓴 입술에
불임 씹힌다
- 「용인 지나는 길에」

제목 그대로 어느 봄날 용인 지나는 길에 저절로 떠오르는 시상을 주체 못해 회한의 한숨처럼 토해낸 시다. 매일 변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땅, 특히 용인은 어느 곳보다 심히 변해버렸다. 아니 망가졌다. 그래도 용인 시내를 벗어나 와우정사 그 고갯길을 넘는 길은 아직도 옛 아련한 정취가 묻어난다.

시인 민영(閔暎)은 193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1939년 만주로 이주, 유년시절을 보냈다.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문단에 나와 1972년 첫시집 『단장』에 이어 『용인 지나는 길에』, 『냉이를 캐며』, 『엉컹퀴 꽃』 등 많은 시집을 출간하였다. 『용인 지나는 길에』는 그의 두번째 시집의 제호이면서 1997년 『월간문학』에 게재되었던 작품이다.

그의 시는 언제 읽어도 단아한 맛과 이 시대의 어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시혼을 느낄 수 있다. 대체로 짧고 간결한 시어를 가진 그의 작품들이지만 「용인 지나는 길에」에서도 극도로 절제된 가운데 토해내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너무 외롭기까지 하다.

끝까지 통일시인이기를 - 이기형



이기형

1917년 함경남도 함주에서 태어난 이기형 시인은 1933년 이후 한설야, 문석준, 여운형, 임화 등을 만나 조선독립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으며, 해방되기까지 항일투쟁으로 수차례 피검되기도 하였다. 1947년 정신적 지도자였던 여운형 선생 서거 후 칩거생활로 일관하다, 1980년 분단조국에서 절대 시를 쓰지 않겠다던 생각을 바꿔 시작활동을 결심한 후 시집 『망향』, 『설제』, 『지리산』, 『꽃섬』, 『별꿈』 등을 발표하였고 1999년에 사월혁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는 항상 우리 시대 중심에 있으며 통일시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요즘처럼 나약해질대로 나약해지고 상품화되어 있는 풍조에 비추어볼 때 북방출신답게 기풍당당하고 호방스런 그의 시풍은 우리 문학의 앞날에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일마 전까지만 해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에 거주하면서 수원, 용인지역 문학 단체에 큰 힘을 실어주다 최근 분당으로 이주,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신갈에서 생활할 때의 작품 한편을 함께 읽어보자.

그날 새벽
가는 비 댓은 늦가을 약수터
수북히 젖밟히는 낙엽
마지막 잎새가 반전(反轉)춤 나풀나풀 떨어졌다
때마침
대문 나뭇가지 사이사이 아득히
그믐밤이 기느란 노선줏날 원귤을 내비쳐
가슴은 두근댔다
그래, 예전엔 서럽기만 했지
세월, 세순 돌음도 미처 몰라
보름달보다 차 감도 미처 몰라
이 새벽 이 순간
북천 땅 끝 어머님도
저 실낱을 바라 눈물을 지으시겠지
와아들의 귀 빠진 날이라
마당에 정안수 떠다 놓고
내 아들 백년 세월의 무사를 빈다며
아,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
어머님 만나요, 꼭 만나요
세순 돌날 세 봄에
—「그날 새벽」

문학도 삶도 음악처럼 - 송영



송영 작품집

1940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67년 『창작과 비평』에 단편 「투계」가 발표되면서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설가 송영은 우리나라 몇 안되는 대표적인 전업작가이다.

또한 고전음악에도 깊이 심취한 그는 음악 전문지와 일간지에 꾸준히 음악산문을 발표함으로써, 고전음악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창작집 『선생과 황태자』, 『비탈길 저끝방』과 장편 『또 하나의 도시』, 『금지된 시간』, 『은하수 저쪽에서』 외에 음악 산문집 『무언의 로망스』와 『송영과 떠나는 클래식 음악여행』 등이 있다.

그의 작품 세계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의 삶과 주변세계에 대해 철저함 없이 주저하거나 조금은 저항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엄두조차 못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항했던 사람들도 후회하는 삶들이다. 그래서 더 정겹고 애잔한지 모른다.

그는 한동안 용인군 수지면에 터를 잡고 반 칩거상태에서 새로운 작품 구상과 수원, 용인 지역 문학단체 및 문인들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어려운 지역 문학운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현재는 분당에 이주하여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음악 산문집 『송영과 떠나는 클래식 음악 여행』에 실린 작가의 서문처럼 문학과 삶에 대해서도 관심과 열정을 아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남이 선택해준 음악을 스스로 선택한 걸로 착각하고 듣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는 남이 선택해준 음악에 매일 길들여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음악듣기라고 볼 수 없다.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삶과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스스로 음악을 선택하

어 듣는 위에 관심과 열정을 아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송영과 떠나는 클래식 여행』 서문 중에서

들꽃 같은 큰 누님 - 윤정모

1946년 경북 월성에서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나와 1968년 장편 『무늬져 부는 바람』을 펴내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윤정모는 1981년 여성중앙 중편 공모에 『바람벽의 딸들』이 당선된 바 있으며 창작집으로 『밤길』, 『님』, 『빛』이 있으며 장편 『그리고 함성이 들렸다』, 『고삐』, 『들』, 『나비의 꿈』, 『그들의 오후』 등이 있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면서 최근 창작집 『딴 나라 여인』을 출간하였다.

한동안 용인군 백암면 황새울에 낙향하여 시골생활로 자족하며 많은 문인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기도 한 황새울 시대에 본격 농촌소설인 『들』이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문단의 누님으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속 쓰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들꽃 닮은 큰 누님처럼 온갖 투정 다 받아주며 말벗, 술벗 톡톡히 해주던 그는 이제 머지 않아 다시 외로운 사람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황새울, 들꽃 같은 그는 없지만 황새가 떼를 지어 와 놀고 갔다는 1급수 냇물과 정겨운 텃밭, 그리고 밤새워 마시면서 맞는 새벽 상큼한 바람은 지금도 우리들 옷 소매를 붙잡고 있는 듯하다.

윤정모의 많은 작품들 중 우리들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것은 『고삐』가 아닌가 싶다. 거대한 환락 산업에 무참히 짓밟힌 여성들의 고통스런 삶을 생생하게 재현한 『고삐』는 특히 자전적 성장사를 숨김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당시 화제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 후, 여성문제, 분단, 농촌, 노동문제 등 현대사의 큰 사건들을 줄곧 다루어오면서 당대의 보고서 기능을 뚜렷하게 표명한 유일한 작가이기도 하다.

홀아비 아닌 홀아비로 『침묵의 집』에서 - 박범신

용인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며 홀로 학교 근처 독방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박범신은 1946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를 거쳐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1981년 『겨울강 하늬바람』과 뒤이어 무수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얼마 전 『흰소가 끄는 수레』, 그리고 최근에는 무섭도록 아름다운 남녀의 만남에서 파멸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 『침묵의 집』을 출간하였다.

그의 작품은 커다란 시련의 칼날 위에 서서 춤추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 인간 존재가 지닌 심상치 않은 내면 아득한 심연이 가로놓여 있음을 날카롭고 섬뜩한 문체로 보여주고 있다.

물레방아는 아직도 돌고 있는데 - 이하윤 시비

끝없이 도라가는 물레방아 발휘에
한닙식 한닙식 이내 추억을 걸면
물 속에 잠겼다 나왔다 돌 때 한업는
뭇기억이 닙닙히 나붓네
(중략)

나만흔 방아직이 머리는 흰데
힘없는 시선은 무엇을 찾는지
확 속이다 굉이소리 찌을적마다
요란히 소리내며 물은 흐른다
—시비 전면 「물레방아」



이하윤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나, 원래 전공은 영문학이었으나, 일본 유학 중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배우기도 한 이하윤(1906~1974)은 일제 때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하였고, 광복 후에는 프로 문학에 대항해 중앙문화협회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문학 활동은 1926년 시대일보에 「잃어버린 무덤」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으나 1930년 『시문학』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이하윤 시비
용인민속촌. 수원역에서 수시로 용인민속촌 가는 버스가 있다.

본격화하게 된다.

그의 시는 애조 띤 민요조의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39년 그의 첫시집 『물레방아』는 시상이나 리듬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같은 서정시 계열인 김소월, 김영랑의 그늘에 묻히버린 느낌도 적지 않다.

그의 시비가 용인민속촌 안 물레방앗간 곁에 아담하게 서 있다.

길손이 떠난 자리에 - 장만영 시비

길손이 말없이 떠나려 하고 있다
한 권의 조이스 시집과
한 자루의 외국제 노란 연필과
때 묻은 몇 권의 노우트와 무수한 담배꽁초와
닷없는 마음을 그대로 남은 다락방에 남겨놓고
지녀은 스러지듯이 길손이 말없이 떠나려 하고 있다
날새다 떼져 날아와 우는
검은 새들의 시끄러운 지저귐 속에서



장만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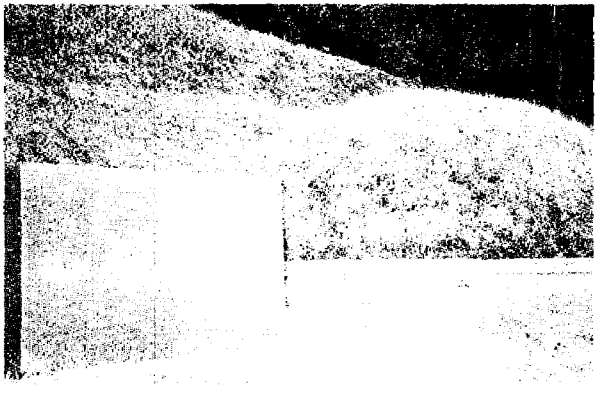
장만영 시비
용인군 모현면 용인공원묘원

아름다운 장미의 시 한편 쓰지 못한 채……
—시비 전면 「길손」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경성 제2고보 졸업 후 김억과 사제 관계를 맺고, 신석정, 박영희, 오장환 등과 친교를 가졌던 장만영(1914~1975)은 6 · 25때 종군작가단에 들어가 『전선문학』을 간행하였다.

작품활동은 1931년 『동광』에 투고작품이 실리면서 시작하였으나, 1932년 같은 잡지에 「봄노래」가 김억의 추천에 의해 발표되면서 본격화하였다.

그의 시는 전반적으로 전원적, 서정적 제재를 현대적 감성으로 노래한 이미지스트의 경향을 보인다. 후기에 들어서는



이범선 시비
용인군 모현면 용인공원묘원.



이범선

자연 및 현실에 대한 관조, 융화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의 시비는 묘지와 함께 영동고속도로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광주 방향의 경안천이 내려다 보이는 용인군 모현면 용인공원묘원에 있다.

학마을로 떠난 작가 - 이범선 문학비

평안남도 신안주에서 태어나 일제 말기 평안북도 풍천 탄광에 징용당하기도 했던 이범선(1920~1981)은 광복 후 월남하여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6 · 25 때 거제고등학교에서 3년간 교편생활을 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사 재직시 『현대문학』에 단편 「암표」와 「일요일」로 등단하였으며 그후 「학마을 사람들」, 「수심가」, 「갈매기」 등 많은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생활체험에서 얻은 사회의 단면과 무기력한 인간상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며, 담담한 필치의 서정적 묘사로 토착서민의 생활을 다루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후기 작품인 「오발탄」, 「피해자」 등에서는 사회고발의식이 깊은 리얼리즘 문학으로 전환하여 인간의 궁극적 모순을 추구하는 존재론의 회의적 허무가 깃들인 잔잔한 휴머니티가 짙게 깔려 있다. 그의 문학비와 묘지도 용인공원묘원에 있으며 문학비 후면에는

그의 작품집 「학마을 사람들」 후기에 쓴 글이 새겨져 있다.

『탄』의 작가 - 김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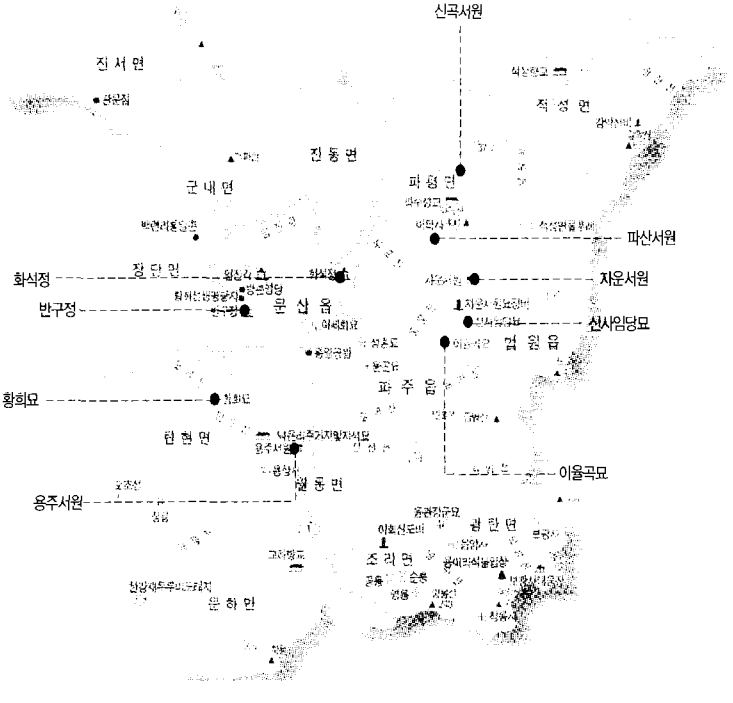
소설가 김종성(金鍾星)이 용인에 거주하게 된 역사도 이제 꽤나 오래된다. 그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 석유 송유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을 대변하여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벌이면서 용인과 더욱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중편 『먼 길』에는 이 사건의 유래와 처리 과정이 거의 실제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1953년 강원도 평창 출생으로 고려대 국문과를 나왔다. 1986년 『동서문학』 신인상에 중편소설 「검은 땅 비탈 위」가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한 그는 데뷔 작품 제목이 말해주듯 탄광에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유난히 탄광을 소재로 한 소설을 많이 써서 우리 문단에서 보기드문 소재를 마음껏 다루고 또한 힘있는 문체를 구사한다는 평을 받는 등 주목을 받았다. 창작집으로 『탄』(1988)과 『금지된 문』(1993), 『말없는 놀이꾼들』 등이 있다.



파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는 말 그대로 분단의 비극적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이다. 따라서 파주의 문학을 살필 때 민족의 아픔을 노래한 수많은 시인들의 시를 기억하면 오히려 흥미로울 것이다. 임진각, 통일동산, 통일전망대, 제3땅굴, 판문점 등이 모두 파주문학의 생생한 현장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황희 정승의 흔적이 짙은 여운을 남기기도 하며, 최경창과 홍랑의 슬픈 사랑이 방문객들의 가슴을 절절하게 적시는 곳이기도 하다. 김기팔과 김종문의 방송비와 시비, 주요섭, 이효석, 김동환의 묘가 파주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분단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이 이곳을 무대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파주시는 서울에서 제법 멀리 북쪽에 위치한 관계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그래도 시원하게 트인 들판과 아트막하나 산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일산에 신도시가 생기고 교하까지 개발의 바람이 불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소위 유럽풍이라는 국적불명의 모텔들이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카페니 가든이니 하는 것들이 갈 때마다 한군데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판에 통일이 된다면 투기꾼들이 이 경개 좋은 땅을 그냥 놔둘 리 없으니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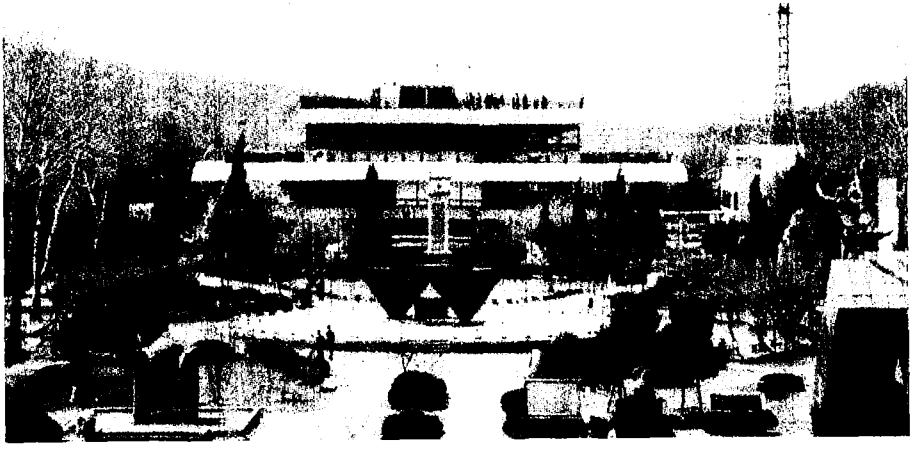
얼마 전에는 임진강을 따라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그 덕분에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시 있던 율곡 선생의 유적지인 화석정이 쌩쌩 달리는 차들로 먼지가 휘날린 도로변에 어정쩡하게 서있는 꼴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민들로 봐서는 그동안 분단 때문에 하락했던 재산가치가 올라가니 좋은 일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이라면 통일마저도 저어되는, 씁쓸한 기분이다. 이것이 도시민의 얄팍한 지역이기주의일까. 개발도 좋고 재산가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정작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늘상 오고가던 파주가 분단이 되기 전만 해도 얼마나 유서깊은 학문과 문학의 산실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서북쪽으로의 길은 고을 원을 나가는 관리가 지나는 길이었고 중국으로 가고 오는 사신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과객들이 많았고 그 과객들 중에는 관리 외에도 시인 묵객이 많아 역원이나 정자에 시가 많이 걸려 있었다. 또한 산수가 수려하여 고고한 선비들이 은거처로 삼기도 하였으니 여말 선초의 이첨이나 황희, 조선 중기의 이이나 성혼 등이 정치적 실의에 젖었을 때나 벼슬에서 물러난 만년에 이곳을 찾아 쉬곤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후에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망향의 슬픔이 짙게 서린 곳이 되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판문점, 임진각, 자유의 다리, 제3땅굴, 망배단, 철도중단점, 통일동산, 통일전망대 등 민족분단의 비극을 되새길 수 있는 유적 및 안보관광지가 무수히 널려 있다.

한 젊은 시인이 그 현장을 자꾸 찾아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빈손 들고
속절없이 애달아하는
세밑이면 늘 불현듯
임진강이 부르네
하여 임진강가 배회하며 검문받으며
새삼스레 강물과 나 사이의
쇠울타리 확인하라네
빙판에 부서지는 부신 햇살에
문득 눈시울 적시고
얼음을 지쳐 불어온 맵찬 바람에
뺨을 부비라네
강물이 밀물에 부딪혀 세운
얼음기둥 바라보며
얼음장 밑 도도한 흐름
가슴이 출렁이도록 여울지도록



임진강 일대 분단의 현장
개별적으로도 갈 수 있지만, 임진각 너머 인통선까지 가보고 싶은 이라면 휴전선 일대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여행사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게 좋다. 백마관광 02-2236-0110.

기어이 느끼리네
쇳소리로 웅웅대는
남북의 선전 음파 사이로
개알까왈 개알까왈
물오리 울음소리 들으리네.
—최두석, 「임진강 해넘이」,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에서

이제 저절로 쓸쓸해지는 가슴일랑 애써 잠시 접어두고 파주의 또다른 문학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화석정과 이율곡

자유로를 달리다가 문산쪽으로 접어들어 37번 도로를 타고 법원리 방향으로 가다보

면 율곡 마을이 나온다. 법원리에서 북서쪽으로 20여리쯤 가면 옛 임진나루 자리다. 파평면 율곡 3리. 지명에서 곧 어떤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다. 조선 중기의 큰 학자였던 율곡(栗谷) 이이(李珥,1535~1584)의 고향이 바로 여기다. 그는 어렸을 적 이 마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벼슬자리에 오른 뒤에도 황해도 해주의 경치좋은 석담과 이곳을 자주 찾았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뒤로도 이 율곡 마을과 석담을 오가며 지냈는데, 지금 그 자리에 화석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다.

화석정 아래로 내려다보면 임진강이 시원하게 흐른다. 4백 여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엄청나지만 그래도 이곳 정자에 앉아보면 그의 체취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다. 화석정 아래로는 막 공사를 끝낸 4차선 도로 위로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임진강을 따라 달리는 도로가 시원하게 보였지만, 화석정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율곡 마을의 북쪽에 장단 쪽을 바라보고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올라서 있는 화석정은 본디 고려 말의 학자 야은(冶隱) 길재(吉再)가 살던 곳이었는데 율곡의 증조부가 물려받았다고 한다.

율곡은 49세라는 짧은 삶을 살면서 500여 편의 문장과 487수의 시를 남겼다. 그의 문학관은 도문일치(道文一致)로 문학을 예술적인 점보다 옛 성현의 문장, 곧 경전을 정통 문학으로 인식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시에 나타난 서정성이나 서경시의 아름다움은 그의 시적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던가를 알게 해준다.

흔히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진 이이는 문학 방면에도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주자의 「무이구곡가(武夷九谷歌)」를 본받아 해주 석담구곡의 경치를 읊은 「고산구곡가(高山九谷歌)」는 잘 알려져 있거니와, 『정언묘선』이라는 시학서는 사림파 시학의 교과서 구실을 하였다.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중종 36년(1541) 율곡이 여섯 살 때 강릉 외가로부터 서울 수진방(서울 청진동 부근)으로 옮겨와 살면서 가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선조가 사시던 고향인 파주 율곡리에 자주 내왕했던 것 같다. 여덟 살 때 화석정에 올라 지은 오언율시(五言律詩) 「화석정」이란 시를 읽어보자.

수풀 속 정자에는 가을 빛이 짙고
시인의 시상은 끝이 없구나.
하늘 닿은 물빛은 더욱 푸르고
서리맞은 단풍은 마냥 붉어라.
산 위에는 둥근달 솟아오르고
강물은 바람결에 일렁이는데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나.
날 저문 구름 속에 울음 끊겼네.

여덟 살 어린 아이의 시라고 하기에는 놀랍기만 할 따름이다. 이 시는 지금도 화석정 입구 현판에 새겨져 있어,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화석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동시에 율곡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한다.

율곡의 문학은 16세의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에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의고 무르익었던 것 같다. 한때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금강산에 들어갔으나 다시 속세로 나오게 된다. 이때 금강산 기행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600구 3000언으로 된 「풍악행(楓岳行)」은 금강산을 그림으로 보는 듯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사실성을 자랑한다.

한편, 율곡의 정치 역정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왜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율곡의 진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율곡의 부인 노씨는 왜병에 쫓겨가다 자결하고 원주로 피난갔던 두 아들은 왜병의 손에 죽는다.

율곡의 준비성은 화석정에 얽힌 일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의주로 피난길에 오른 선조가 화석정 부근을 지날 때였다. 마침 날이 저물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가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화석정을 태우는 불빛이었다. 율곡은 아랫사람들에게 일러 틈나는 대로 화석정에 기름을 발라두라고 했다고 하니, 미래를 예측하고 늘 그에 대비한 혜안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화석정은 그로부터 80년만에 복원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되었고 그후 파주 유림들이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써서 걸었다.





화석정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다. 법원리나 문산에서 자운서원행 버스를 타고 선유리 독서동 삼거리에 있는 삼거리 상회 앞에서 내리면 된다. 화석정까지는 걸어서 가야 한다. 승용차로는 화석정 앞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잘 쓴 글씨인지 어떤지는 한번쯤 가서 살펴볼 일이다.

한편 1987년부터는 이이의 얼과 사상을 현대에 재조명하여 군민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정착시키고자 파주문화원과 파주군이 주관하여 율곡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 내용으로는 정숙한 아내이자 훌륭한 어머니로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되어온 신사임당의 덕행과 얼을 기리기 위하여 신사임당 여성상을 수여하며, 퇴조해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경로잔치가 베풀어진다. 또한 문예행사로 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 한시 백일장이 열리고,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극제, 음악제, 노래자랑 등의 종합예술제가 거행된다. 이밖에 농악, 부채춤, 그네, 씨름, 팔씨름, 널뛰기, 윷놀이 등의 민속행사가 개최되어 전통 문화의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성혼

화석정과 지척의 거리에 우계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율곡과 같은 시기의 성리학자 성혼(成渾, 1535~1598)이 살았다. 그는 원래 순화동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 성수침이

처가가 있는 우계마을에 옮겨 살았으므로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성혼은 율곡보다 나이가 한 살 위였으나 서한을 보내어 스승이 되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30여 년을 친한 문우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사사로운 정리에서부터 정치 문제나 학문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26회나 서신을 주고받았다.

함박눈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 날에 율곡이 소를 타고 성혼의 집을 찾아 담소와 토론으로 긴긴 밤을 지새운 일도 있을 정도였다. 1577년 율곡이 임진나루를 건너 해주 석담으로 가서 잠시 머무른 일이 있었다. 이때 성혼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지은 한시가 전해진다.

열흘 비로 마주앉아 대화 못하고
헤어짐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네
내 떠난 뒤에 하물 많을 것이니
이따금씩 소양으로 글 보내주오

그다지 멀지 않은 강 건너 지척인 땅에 잠시 작별하면서도 애틋한 정을 나타낸 율곡의 또다른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율곡은 해주 석담리에서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썼으며, 그 외에도 성혼의 부친 성수침과 삼당시인(三唐詩人) 백광훈의 서거를 애도한 시를 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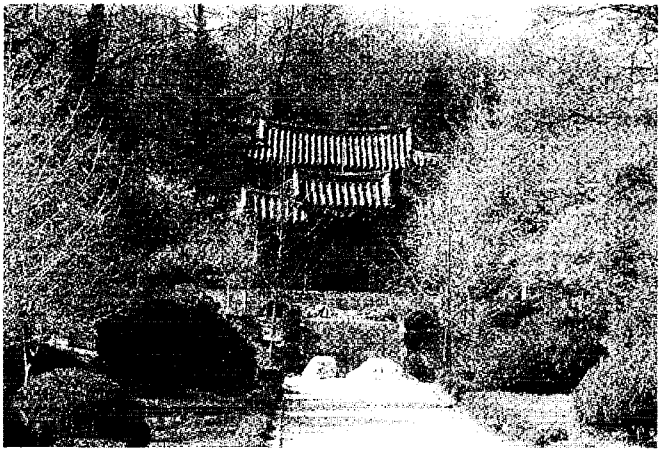
성혼의 시조 한 수를 감상해 보자.

말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라
이 중에 병(病)없는 몸이 분별(分別)없이 늙으리라

자운서원

법원읍 동문리 자운산 자락에 자리잡은 자운서원은 율곡 이이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

되어 있는 곳이다. 1615년(광해군 7년)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창건했으며, 자운(慈雲)이라는 사액은 효종이 내렸다. 서원 내에는 율곡 일가의 유택과 유물기념관이 있다. 자운서원 묘정비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당대 명필 김수증이 썼으며, 일대기를 담은 금석문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는 율곡 사후 47년이 지난 1631년(인조 9년)에 건립, 이항복이 비문을 짓고 신익성이 글씨를 썼다.



자운서원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 문산에서 파평, 연천 방향으로 난 3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316번 지방도로를 타고 법원사거리쪽으로 접어들어 약 6km쯤 가면 한성직영슈퍼마켓과 자운서원으로 가는 마을길이 나있다. 이 길을 따라 2.1km 가면 자운서원에 닿는다. 법원읍에서 자운서원까지는 버스가 다니지 않으니 걸어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입장료 어른 1,000원 중고생 500원, 어린이 300원

유물전시관에는 율곡 이이와 특히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일곱 살 때 산수도, 포도 따위를 그렸다는 신사임당의 섬세하고 능란한 필법을 볼 수 있고, 사건문, 유산 분배기록, 율곡의 누이 매창이 그렸다는 매화 그림도 있다. 매창은 사임당의 맏딸로 율곡보다 일곱살 위 누님으로, 재능이나 영특함이 어머니를 닮아 '작은 사임당'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림도 잘 그려서 「달과 매화」, 「참새와 대」라는 작품을 남겼고 한시도 한편 남아 있다. 매창은 시와 그림에만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경전이나 사기에도 통달하여 율곡이 나라의 중책을 맡은 후에도 국가 대사를 누님에게 자문하거나 의논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자운산 깊숙이 들어가면 율곡의 부모, 율곡 내외를 비롯해 한 가계의 묘 13기가 집결해 있다.

한 가문의 묘가 같은 지역에 족분을 이루는 것은 성리학의 주자가례 영향으로 고려부터 행해져 조선시대까지 일반화되다시피했다. 맨 위에 율곡 내외 묘가 앞뒤로 자리

잡고, 그 앞에 율곡의 맏형 부부의 합장묘, 그 앞에 율곡의 부모 이원수와 신사임당의 합장묘, 율곡의 맏아들 부부 합장묘가 세로 일자로 자리잡은 다음, 좌우로 다시 누이, 매부, 5대손, 8대손까지 집결해 있는 광범위한 가계 묘역이다.

율곡의 부모 묘가 율곡의 묘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역장(逆葬)이라고 하는데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김장생

자운서원에는 또한 율곡의 학문을 이어받은 김장생(金長生)과 박세채의 위패를 함께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다. 그 중 사계(沙溪) 김장생(1548~1631)은 율곡이 특히 아끼던 제자였다. 그는 조선조 명종 때의 학자이며 파주 교하 심학산 아래 궁동에 살다가, 구봉 송익필에게서 예학을 배우고 후에 율곡에게서 성리학을 배워 유학의 거두가 되었다.

당시 나라의 예전이나 모든 행사의 의문이 있으면 사계에게 문의해왔다고 할 정도였다. 또한 성품이 너그럽고 순박하며 글씨도 명필일 뿐 아니라 시문에도 뛰어났다. 저서로 『의례문해』 등 주로 의전에 관한 저서를 남겼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어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淸風)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연을 사랑한 그의 고결한 인품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시조이다.

조선 16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세하고 왕이 되었을 때 생부인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대하고 싶어 사계에게 문의해왔다. 그러나 왕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법에도 왕실의 법도에도 어긋난다'는 강한 반대를 하고 벼슬을 미련없이 버리고 고향인 충남 연산으로 돌아간다. 이때 지은 시도 전한다.

대 심어 물을 삼고 솔 가꾸니 정자되더라
백설 덮인 네 날 있는 줄 제 뉘 알리

정반(庭畔)에 학 배회하니 그 벗인가 하노라.

예절과 도리에 어긋나면 뜻을 굽힐 수 없다는 절개와 학처럼 고고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가.

반구정과 황희묘

자유로를 달리다가 '평양' 이라는 입간판이 보일 무렵이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된다. 언젠가는 그 길이 평양까지 뚫릴 것을 기대하며 오른쪽으로 난 문산 IC로 나간다. 맞은편 주유소를 보면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저 유명한 재상 황희(黃喜, 1363~1452)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낸 반구정(伴鷗亭)이 나온다. 우리에게 청렴결백의 상징이 된 황희 정승의 동상이 멀리 북쪽을 굽어보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민족의 슬픔마저도 함께 하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곳에서는 강건너 장단 땅이 손에 닿을 듯하고 멀리 개성을 둘러싼 산악이 아스라하게 눈을 찌른다.

황희는 원래 개성 가조리 출생으로 호는 방촌(厖村)이다.

반구정은 앙지대(仰止臺)라는 팔각 정자가 쌍둥이처럼 서 있는 이 임진강변에 터를 잡아 방촌 선생 영당, 경모재, 동상 등이 황희 정승의 치적과 덕망을 기리는 유적지로 공원을 이루고 있다. 필자가 반구정을 찾았을 때는 공원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전에는 대문이 없었는데, 담을 두르고 대문을 세워놓아 공사가 끝나면 한층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될 듯했다. 그러나 황희 정승의 영당 앞에 있는 아름드리 은행나무 아래를 거닐던 허물없던 친근감은 사라질 것이다. 방치하게 되면 망가지고, 단장이 지나치면 역사를 박제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 중간의 어느 지점을 절묘하게 찾아내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할 터.

황희의 이름에 정승이라는 직호가 자연스레 따라붙는 것은 그가 영의정을 무려 18년간이나 지냈음에 연유한다.

그의 문집에 탄생설화가 전한다. 어머니 용궁 김씨가 아기를 임신하자 개성 송악산에 있는,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용암폭포가 뚝 그쳤다가 열 달이 지나 아기가 탄생하자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21세에 사마시에 급제,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

왕조에서 입신양명이 약속되는 터였으나 30세 때 이성계의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망하자 그는 고려의 유신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조선조를 세워 태조가 된 이성계는 황희의 학문과 인품이 그대로 썩이기에 아까운 재목임을 알아보고 두문동에서 끌어낸다.

선비로서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의 욕됨을 모를 리 없는 황희로서는 다시 정사에 참여하는 일에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 머리 속에 가득 채운 지식과 쌓아둔 능력을 새나라 건설과 백성들의 삶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더 무게를 두었을 것이다.

이성계의 눈이 틀리지 않았고 황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이후 황희의 청렴결백하면서도 역사에 남는 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이익을 멀리한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태종 재위 18년 동안 병조, 예조, 공조, 이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했는데 태종 16년에는 이조판서로 있으면서 양녕대군의 세자 폐출을 반대하다가 공조판서로 밀려났고 두 해 뒤에는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를 반대하다가 교하로 유배되었다가 전라도 남원으로 다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된다.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신하라도 왕권을 계승하는 세자 책봉을 반대하는 일은 여간한 용기와 소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로 임금이 될 세자를 반대하는 일은 자신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생명까지도 거는 일이기 때문이다.

황희가 목숨을 내놓고 세자 책봉을 반대한 충녕대군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세종임금이었으니, 뒷날 황희를 그토록 중용한 세종은 어떤 임금이었으며 황희 또한 어떤 신하였기에 자신이 반대한 임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세계사를 다 뒤져도 없는 일이거니와 권력의 속성으로 미루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황희 정승이 처음 반구정으로 온 것은 68세인 세종 12년때였다. 성품이 너그럽고 소박한 그는 태석균의 죄를 감해달라고 사헌부에 부탁한 것이 화근이 되어 벼슬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온 것이다.

큰 사람이 늦이 지은 정자

속세를 끊고 노니는 자취 뚜렷하다

산은 제 모습을 감추려는 듯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갈매기는 뜻을 아는 듯 물을 차며 날아오르는구나
굽이쳐 흐르는 물은 안으로 소리를 내고
저물녘 뜬 구름은 그림자 속을 헤맨다
여생을 세속에 맡긴들 무엇을 얻으리요
한가로운 곳을 찾아 함께 떠돌고 싶구려

황희가 지은 이 시는 「이경(李瓊)의 반구대운(伴鷗臺韻)을 차운(次韻)한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제목으로 미루어 반구정은 원래 반구대로 불리웠고 이는 황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 아닌가 싶다. 비록 벼슬에서 쫓겨났지만 이곳에서 여생을 지내려 했던 황희는 불과 1년만에 다시 세종에게 영의정의 벼슬을 받고 불려간다. 그로부터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자리에서 무려 18년간이나 오직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편다.

겨우 뼈만 남은 늙은 몸이
아직도 벼슬을 그만 두지 않고
관가의 밥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얼굴 두꺼운 일이냐
임금께 늙고 병든 사정을 아뢰어
청산을 바라보며
백발을 보내도록 해주구려

도승지 김돈에게 보낸 이 시에는 다시 반구정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다. 세종은 자신이 죽기 1년 전에야 황희를 풀어주었고 걸해골(乞骸



반구정

문산읍 사목리에 있다. 자유로를 따라가다가 임진각 못 미쳐서 문산 인터체인지로 빠져나와 LG정유 문산주유소에서 왼쪽 23번 시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가 자유로 교각 밑을 지나면 나타난다. 문산에서 사목리행 시내버스로 반구정 앞 하차. 황희 묘는 탄현면 금승리에 있는데, LG정유 문산주유소에서 23번 시도로를 따라 문산쪽으로 2km쯤 가면 길 왼쪽에 새길공인중개사 사거리가 나온다. 거기서 꺾어지는 310번 지방도로를 탄현쪽으로 약 6km쯤 가서 월롱 방면으로 가는 3번 시도로를 타고 0.7km를 가면 묘소 가는 안내판이 나온다.

뜸)의 꿈을 이룬 그는 곧장 반구정으로 돌아와 3년 남짓 갈매기와 짝지어 시를 지으며 유유자적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다.

황희는 반구정에서 십리 남짓 떨어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뒷산에 묻혔다. 그의 장례에는 분종이 다녀갔는데 그가 절하고 갔다고 해서 붙여진 오봉이라는 야산이 황희의 묘를 마주보고 있다.

파산서원

파평면 늘노리 마을에 소처럼 생긴 조그만 산이 있는데, 이 산 아래 파산서원이 있고 그 앞을 흐르는 냇물을 우계(牛溪)라 한다.

이곳은 성혼의 아버지 성수침(1493~1564)이 죽우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파산서원
율곡리를 지나 적성으로 가는 길에 늘노리라는 마을을 지나게 된다. 파평우체국 조금 못 미쳐 경향수양관 쪽으로 접어들면 마을로 접어드는 다리가 나온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오른쪽 제방도로를 타고 조금만 가면 바로 파산서원의 기와가 눈에 뜨인다.

또한 이곳에서는 성수침과 그의 아들 우계 성혼(1535~1598)과 동생 절효 수종(1495~1533) 및 절친하던 동문 휴암 백인걸(1497~1579)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원내의 경현당에는 청송 성수침의 손자 창랑 성문준(1559~1626)과 창랑의 장인 옥천 조감(1503~1586), 사위인



화당 신민일이 다정하게 모셔져 있다.

성수침은 아우 수종과 함께 조광조의 문인으로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 스승 조광조가 처형되자 일체의 벼슬을 사양하고 처가가 있는 파평 우계에 우거하며 후진의 교육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학문과 덕망이 높고 효성이 지극했으므로 많은 제자들이 운집했으니, 이들이 기호사림의 문인들이다.

성수침의 시조 6수가 전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한 수만 소개한다.

이리도 태평성대 저리도 성대태평(聖代太平)
요지일월이오 연지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에 놀고 가려 하노라.

1552년 명종이 예산현감, 토산현감, 적성현감에 임명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집안이 너무 청빈하여 그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를 지낼 양식이 없었다고 한다. 문장과 글씨에 재능이 뛰어났고 『대학』과 『논어』 등 경서 공부에 전념하였다. 후에 백인걸, 이율곡 등이 발의하여 1568년 파산서원을 지어 그를 제향하고 유생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이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존속했던 47개의 사당 중 하나로 당시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근대에는 여운형, 조소앙, 이승만 등을 배출한 유서깊은 서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그만 야산 아래 초라하게 서 있을 뿐이다.

용주서원

월롱면 위전리에서 월롱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덕은리에 용주서원이 있다. 지금은 비록 조그마한 서원이지만, 그 옛날 이곳은 당대의 성리학의 대학자요 청백리로 추앙을 받던 휴암 백인걸(1497~1579)의 집터이기도 했다. 후에 이 자리에 그의 덕행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세웠으며, 제자이며 사위인 옥천(玉川) 조감, 장포(長浦) 김행, 낙금당 신제현, 아들인 당산 백유함 등 5위를 봉안하고 있다.

젊은 날 휴암은 조광조 집 근처에 서당을 짓고 사사하였으며 섬기기를 부모와 같이 했다. 기묘사화 이후 한때 금강산에 들어가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속세로 돌아와 스승

의 가르침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학문과 인격에 있어 사람들의 사표가 될 만했다고 한다. 그의 저서와 시문은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많이 인멸되었으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록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휴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하였다. 여덟 살 때, 당시 인산군의 폭정이 극심하고 민심이 흉흉하던 중 관원들이 민가를 닥치는 대로 철거하였는데 그의 집도 헐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길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니,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어린 나이에도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밤 늦도록 일을 하는 어머니 곁에서 책을 읽고 학문 연마에 전력했고, 어머니 역시 혹시나 아들의 건강이 상할까 등불을 가리고 잠을 재운 후 다시 길쌈을 시작했다는 일화가 있다.

조광조가 처형당한 후 파주 우계에 은거하던 성수침의 영향으로 파주에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두 사람이 정암에게 동문수학한 막역한 지기였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나중에 휴암의 외손녀가 성수침의 손자 성문준에게 출가했다는 것으로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면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시는 휴암이 성수침을 배웅하고 쓴 것이다.

적막하고 쓸쓸한 마을
별하니 숨겨있네
거친 길 돌길 지나
사립문에 닿았구나
마음은 물과 같이
바람으로 빠져가고
생각은 백학되어
강물 위를 날고 싶네.
산은 객창에 어리고
구름은 방안에 드는데

비는 뿌리고 낙엽은 휘장에 치네.
초연한 마음으로
벼슬길 진토된들
어이 옷깃에 물이 들리……
—「成仲玉(수침)의 환산을 전송하며」

이에 화답하여 성수침의 아들 성혼은 월롱산으로 돌아가는 휴암을 배웅하며 시를 썼다.

일만산이 중첩한 곳
외롭고 쓸쓸한 마을,
복숭아꽃 맑은 물은
洞門밖에 아름다운데
이제부터 돌밭길은
깊고도 가늘구나.
말없이 오신 어른
참뜻의 근원되리.

정암의 개혁정책이 좌절되고 수많은 신진사류가 수난을 겪은 중종조 치하에서 성수침은 초연히 벼슬을 버렸으니, 이에 그 뜻을 높이 칭송하는 휴암의 참우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말없이 잠시 우계 마을에 들렀던 휴암을 보내는 송구한 마음을 이처럼 글로 쓰니 은근한 시심으로 전해지는 두 사람의 그윽한 교류의 향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다.

휴암은 1547년 양재역 벽서사건과 연루되어 안변으로 귀양을 갔다가 4년 후 명종의 세자가 탄생하자 대사면령이 내려 석방되어 파주로 돌아오게 된다. 이로부터 오랫동안 전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비록 집은 가난하고 가솔들은 많았으나 사사로운 걱정은 하지 않고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다. 『태극도설』, 『주역』, 『사서』와 같은 책을 항상 곁에 두고 성현의 글이 아니면 일절 읽지 않았다는 그는 후진 양성에도 남다른 정열을 보였다.

이 무렵 성혼이 휴암을 찾아 뵙고 『상서(尙書)』를 공부했으니 그의 나이 17세때였다.

율곡 역시 휴암 문하에 드나들며 학문을 논하고 도의 근원을 얻었다고 한다. 휴암의 인격과 학문을 존경한 이들이 파주의 대학자이자 문장가로 추앙을 받게 된 데에는 이렇듯 휴암의 교육적 힘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휴암의 묘소는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에 있다. 원래 휴암은 월롱 능산리에 유택을 정해놓았으나 사위 조감이 먼저 세상을 뜨자 사위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효촌리에 묻힌 것이다. 산마을의 숲속에 재실이 있으니 그곳이 휴암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최경창과 홍랑

다율리에 선조 때의 시인 최경창(崔慶昌, 1539~1538)과 홍랑의 묘가 있다. 여기 세워진 시비 앞면에는 최경창의 시, 후면에는 홍랑의 시조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애절한 사랑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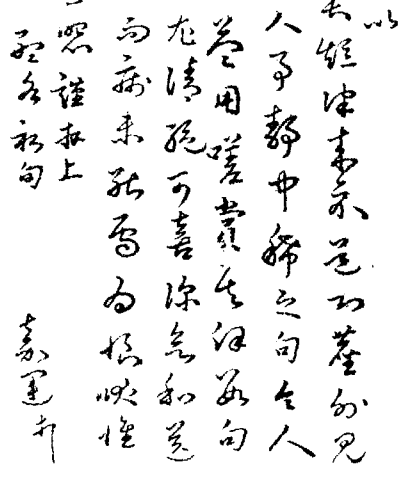
최경창은 무인이었으나 당대의 백광훈(白光勳), 이달(李達) 등과 더불어 삼당(三唐)의 시인으로 불릴 정도로 탁월한 시를 남겼다. 그는 전라남도 영암 출생으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글공부도 잘하고 피리도 잘 불었다. 한번은 해변에 침입한 왜구들에게 마을이 포위되자 달밝은 밤에 피리를 어찌나 구슬프게 불어댔는지 왜병들이 향수에 젖어 전의를 상실한 틈을 타서 탈출했다는 일화까지 있다. 이때가 명종 10년 (1555년)이었다.

1568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573년 함경도 북평사로 부임해가는 중에 홍원 기생 홍랑을 만나게 된다. 홍랑은 용모도 출중하고 시도 잘 짓고 피리, 가야금 등 음률도 뛰어난 다재다능한 기생이었다. 그녀는 오래 전부터 최경창의 인품과 문장을 듣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된다. 꿈결같은 며칠이 지나고 임지로 떠나는 임을 보내며 시 한수를 지어바쳤으니, 그 제목이 「송별」이다.

> 고운 밤에 흐르는 두 줄기 눈물
> 서러운 이별이라 꾀꼬리도 우누나.
> 떠나면 길 정든 님 보내는 마음
> 홀로 가는 그 길이 아득하여라.

다음은 행여 임이 나를 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뭣버들가지를 꺾어보내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뭣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에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최경창의 글씨



최경창과 홍랑의 묘
파주 시청이 있는 금촌에서 서남쪽으로 2킬로미터쯤에 교하면 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문발리 쪽으로 4킬로미터 남짓한 곳의 다율리에 있다.

이 시에서 두 사람의 정리가 얼마나 깊고 애절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홍랑의 전송을 받으며 떠난 최경창은 함경도 경성에 도착하였다. 그곳 변방을 지키는 병마절도사는 이선삼이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는 병약하여 군무를 수행하는데 소극적이었고 따라서 최경창의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경창은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잡고 맹훈련을 시키는데 앞장서 독려했다.

마침 양명곤이라는 장수와 마음이 맞아 군대를 혁신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최경창의 인격과 능력에 감화받은 군사들은 최강군이 되어 있었다. 강한 부대를 만드느냐 못 만드냐는 무릇 지휘관의 노력에 달린 것을 증명한 것이다. 그 무렵 한동안 잠잠하던 오랑캐들이 이웃 부령지방을 침공하여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즉각적인 반격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이선삼은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밤을 새워 고민하던 최경창은 군령을 어겨서라도 오랑캐를 물리치고자 결심하였다. 어두운 밤, 군령을 어기고 북쪽의 오랑캐를 무찌르러 나가기를 결심하며 남쪽의 임금을 향해 시를 한 수 지어 바쳤다.

흰 구름 한 자락에
임에게 보내는 글

달빛 아래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없다지만
대궐에 계신 임은
내 마음 알리……

이튿날 새벽 군대를 이끌고 나간 최경창에게 적장 누루하치는 혼비백산 달아났다. 혁혁한 전과를 세웠지만 아군의 전상자 역시 많았다. 또한 아끼던 장수 양명곤이 전사한다. 이에 그는 군사들을 애도하는 시 한 수를 지었다.

어둔 밤 횃불들고 산을 넘히며
오랑캐 녹둔관에 쳐들어갔네.
장군은 혼자 오랑캐 천명을 휘몰아치고
강 건너간 그대는 오지 못하네.

오랑캐와의 싸움에서는 이겼으나 군령을 어기고 부하들을 잃은 과실은 최경창에게 돌아가고 공은 모두 이선삼에게 돌아갔다.

이후 1575년 최경창은 벼슬이 바뀌어 서울에 있었는데 큰 병을 얻어 앓아눕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은 밤낮으로 7일간을 걸어 최경창을 갖은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 장안에 퍼지자 최경창은 면직되고 홍랑은 함경도로 쫓겨갔다. 당시 함경도 사람은 서울에 오지 못하는 금족령이 내려 있던 때였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가진 그는 파주 월롱 다락 고개 장자에서 시도 읊고 문우와 교류도 하며 때로 홍랑을 찾아 함경도까지 다녀오는 여유를 누린다.

그러나 이후 다시 절도사로 임명되어 국경을 수비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서울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때 지금의 왕십리 부근에서 자객의 칼에 맞으니 그의 나이 45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의 비통함은 어떠했을까. 홍랑은 사랑하는 이의 무덤을 지키며 삼년 시묘살이를 했다. 거문고를 타거나 시를 읊으며 가신 님의 영혼을 위로하던 중,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홍랑은 최경창의 시문을 모두 챙겨서 떠나니, 그리하여 우리에게 최경창의 시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후 홍랑은 "내 유해를 남편 곁에 묻

어달리"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하직했다.

원래 최경창의 묘는 영태리에 있었는데 후손들에 의해 다율리 홍랑의 묘 곁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당시 기생의 신분에 갇혀 한 여인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한이 죽어서나마 풀리게 되니 이는 절개 높은 여인이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다.

신곡서원

파평면 파평산 북서쪽 기슭 임진강 폭포어장 못 미처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으니, 이곳이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尹莘達, 893~973)의 발상지 용연(龍淵)이다.

신라 진성왕 때, 하루는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진동하고 비가 쏟아지며 돌상자가 솟아올랐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쫓아가 열어보니 그 상자에는 예쁜 어린아이가 들어 있는데, 오색빛 깃털과 해와 달 모양의 어깨점과 북두칠성 모양의 반점이 있고 손바닥에는 '윤(尹)' 자가 새겨져 있어 성을 윤씨라 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의 후손으로 여진 정복의 명장이며 문장가인 묵제 윤관(1040~1111) 장군이 있다. 그는 파평면 금파리에서 출생하였으며, 광탄 분수리에 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있다. 그가 일곱 살 때 지었다는 뽕나무를 소재로 한 시를 보자.

뽕잎은 누에를 길러
추위를 막게 하고
가지는 굳센 활 되어
오랑캐를 쏘게 한다
비록 초목일지라도
참으로 국보로다
혹시나 자르거나 꺾지 못하게
아이들을 훈계하리

어린 나이에 이미 오랑캐를 무찌를 용기를 북돋우는 선견지명이 놀랍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도 비화가 있는데 아버지 문정공이 용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태기

가 있어 낳았다고 하며, 무인이면서도 시문에 뛰어나 많은 선비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처럼 파평 윤씨 가문은 대대로 수많은 학자, 문인, 고관대작, 특히 많은 왕비를 배출하여 참으로 놀라운 양반가로 행세해 왔다.

그 중에서도 파평면 늘노리 갯말돌에 택지가 있는 팔송 윤황(1571~1639)은 우계 성혼의 사위가 되며, 학문과 글씨가 뛰어났고 사람됨이 강직하고 기절이 있어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았다. 또한 병자호란 때는 강력히 척화를 주장했다.

그의 아들로서 선거(1610~1669), 문거, 순거 등 삼형제는 당시 삼문장(三文章)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들 중 윤선거는 탄현면 법흥리에 묘가 있으며, 금촌, 학령산 남맥, 굽어보면 곡릉천 맑은 물이 굽이굽이 넘실대는 경치좋은 봉우리에 아담한 정자를 세우고 제자들을 지도하였으니, 이른바 청은정(淸隱亭)이었다.

1636년 청나라 사신 용골대가 입국하자 성균관 유생들을 규합하여 "사신의 목을 베어 대의를 밝힐 것"을 주장하였으나 정작 병자호란 중에는 가족들과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그후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인 이씨는 자결했으나 자신은 평복으로 위장하고 도망나와 금산과 파주 청은정에 우거하며 교하 향교의 훈도와 학문 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자신의 부친 윤황은 화친파의 처벌을 주장하다 귀양을 가고, 연약한 아녀자인 부인도 목숨을 끊어 나라의 치욕을 부끄러워했건만…… 강화도에서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죄를 씻을 수 없다며 효종의 부름에도 사양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년을 보냈다.

심성이 어질고 정의를 강론함에 명성이 나자, 유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갔다. 이곳이 신곡서원이다. 이곳에서는 윤선거뿐 아니라 김장생, 송시열 등 당시의 대학자들이 강론을 펼쳤다. 그의 아들 명재 윤증(1629~1711)은 이들에게 사사하여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났고 기호학파의 형성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황진이

뭇남성들의 사랑을 받은 불세출의 명기이며 총명하고 매혹적인 예인이었던 황진이의 시비가 임진강 망배단 곁에 있다. 그녀의 묘는 비무장지대인 장단 구정리에 있어 가볼 수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개성편 참고)

강신재

강신재(康信哉)는 재혼한 남녀 사이 이복 남매간의 애틋한 연애감정을 세련된 감각으로 그린 단편 「젊은 느티나무」로 알려진 작가이다. 그녀의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는 1962년 신문학사상 처음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기획한 전작 장편소설이었다. 한국전쟁이 평화롭던 한 가정에 미친 영향을 그린 이 작품은 상황보다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의 개성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황진이 시비
임진각 맞배단 길, 문산에서 임진각으로 93번 버스가 다닌다. 승용차로는 자유로를 타고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김기팔 방송비와 김종문 시비
파주시 조리면 장곡휴게소.

김기팔과 김종문

파주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직선도로인 통일로를 달려 벽제를 지나 조리면에 이르면 개천과 인접한 곳에 왼쪽으로 장곡 휴게소와 장곡 체육공원이 나오는데 이곳에 김기팔 방송비와 시인 김종문의 시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

극작가 김기팔은 평남 용강군 온정리 출생이다. 1963년 서울대학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대학 재학 중인 195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에 「중성도시」가 당선되었다. 이듬해에는 KBS 라디오 100만환 현상 장편 연속극 모집에 『해바라기 가족』이 당선되었다. 이후 주로 방송극을 쓰기 시작하여 많은 작품을 남긴 그는 방송극의 개척자로 유명하다. 특히 정치 비사를 발굴하여 드라마화하여 그 전범을 보여주었던 사람이다. 방송비는 평소 그의 인품을 존경했던 방송인들의 손으로 건립되었으며, 그의 육필 원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김종문은 시인이며 군인이었다. 해방된 뒤 군에 투신하여 주로 정보와 정훈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1957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그런 중에도 작품활동을 꾸준히 해서 『벽』을 비롯해 『시사시대(詩史時代)』, 『인간조형』, 『신시집』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남겼다. 문총 사무국장, 『자유문학』 주간 등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자유문협상과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 1988년 세워진 그의 시비에는 『소망』 중 일부가 새겨져 있다.

주요섭

문산을 지나 자유로 방향으로 가다보면 통일전망대가 있는 탄현면이 나온다. 이 일대는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분단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삼엄함이 감돌고 있다. 탄현면 법흥리에 가면 기독교 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작가로 유명한 여심 주요섭(朱耀燮, 1902~1972)이 잠들어 있다. 묘지 입구 건너편 산자락에 자리한 묘소 옆에는 그의 12주기를 맞아 세워진 주요섭 문학비가 서 있다.

문학비에는 대표작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낮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안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쓸어 보고는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 옷을 다 넣은 때 장롱문을 닫고 쇠를 채우고 나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모시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한층 이쁘게 보였습니다

시인 주요한(朱耀翰)의 동생이기도 한 그는 평양에서 나서 주로 평양에서 성장하였다. 중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유학갔던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지하신문을 발간하다 10개월의 형을 받기도 했던 의협남아였다. 1921년 『개벽』 10호에 단편 「추운 밤」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여대생과 밍크코트」에 이르기까지 40여 편의 단편과 장편소설 『첫사랑』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그는 기성 윤리나 사랑의 좌절,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인간다운 삶의 문제를 다루며 근대적 리얼리즘의 일반적 성격과 보편적 태도와 기법 등이 한국 문학에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주요섭 문학비
파주시 탄현면 기독교묘지

천승세 「황구의 비명」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 땅에 들어온 미군과의 갈등을 고발한 천승세(千勝世)의 「황구의 비명」은 한때 불온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 해서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작품의 무대는 파주의 용주골이다. 양색시들에게 이자를 받아 살아가는 아내의 요청으로 '나'는 은주, 지금은 담비 킴이라고 불리는 양색시에게 돈을 받으러 떠밀려나간다. 그러나 결국 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돈을 쥐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작품의 큰 얼개이다.

작품 속에는 당시 미군들에 의해 '점령' 당한 도시의 풍경이 암담하게 묘사된다. 버스에서 만난 양색시, 집나간 손주딸을 찾기 위해 비내리는 솔밭길에 하염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는 노파, 은주의 방 앞에 있던 묵중한 워커와 한 뼘이나 될까말까 한 하얀 고무신, 황구(똥개)들의 교미, 그리고 도시의 몰풍경.

용주골의 한낮은 무척 덥게 끓고 있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십원짜리 하드로 마른 입술을 적시며 서 있었다.

기세 좋은 더위 탓인지 용주골의 시가는 서부영화의 흔한 피날레처럼 한산했다. 흉한을 쓰러뜨린 정의한처럼 백인 병사 한 사람이 샛노란 머리털을 휘날리며 멍청하게 서 있었고, 그 병사는 잠시 후 허리에 얹었던 양팔을 서서히 내리고는 길 모퉁이로 사라져갔다. 이따금씩 사복한 두서너 명의 미군들이 간판을 채운 무료한 상가들의 쇼윈도가 지나치는 그들을 잠시 담았다가 다시 흘려보내고 있었다.

용주골의 거리는 마술의 거리처럼 금세 꽉 찼다가 곧장 텅 비워져 버리기 일쑤였다. 양색시들이 목적도 없이 도로의 횡단을 반복하다가 거리 모퉁이로 사라지면 예의 하릴없는 미군 떼거리들이 갑자기 거리를 부산하게 하다가, 그녀들의 뒤를 쫓아 금세 사라지곤 했다. 한동안 거리는 텅 비는 것이었다.

1939년 목포에서 출생한 천승세는 성균관대학에 재학 중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점례와 소」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이어 『현대문학』에 「내일」, 「견족」이 추천되



용주골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 작품 무대인 용주골 일대. 파주시 연풍리 용주골 연풍3리 연풍천변에 기지촌이 자리잡고 있었다.

었으며 1964년에는 경향신문에 희곡 「물꼬」가 당선되었다. 같은 해 국립극장 장막 희곡 현상 모집에 「만선」이 당선되었다. 「만선」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김포펀 참고)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은 작가 이효석(李孝石,1907~1942)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 그 무대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향수적 서정이 넘치는 가운데 자신의 특이한 성적 모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단편의 하나인 이 작품으로 봉평은 무척 유명해졌다. 원래 이효석의 묘도 그곳에 있었다. 아직 생가도 남아 있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작가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며 마을 입구에는 이어령 교수가 문화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만든 물레방아간과 문학비가 있다. 그러나 후손들이 그의 묘를 파주 통일전망대 동화경모공원으로 옮겼다.

이효석이 초기에 발표한 작품 「도시와 유령」, 「기우」, 「행진곡」 등은 경향 문학의 동반작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돈(豚)」을 발표한 이후 작품 경향이 변모하기 시작했다. 즉, 자연과 인간 본능의 순수성을 시적 경지로 끌어올리는 작품들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 한편 향토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서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 세계를 지향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효석



이효석 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동화 경모공원. 자유로를 타고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성동인터체인지 이용.

「메밀꽃 필 무렵」은 과거의 사회의식적 소설을 지양하고 한국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 포함된 순박한 인간상을 주제로 그들의 애욕 문제를 그리기 시작할 무렵 발표된 것이다. 이 작품 속의 배경 즉 메밀꽃 핀 개울가는 단순히 자연적인 정경에 그치는 배경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인생의 인연, 그 매체의 상징이다.

이 작품은 일생을 길 위에서 보낸다는, 결코 행복하다 할 수 없는 한 인물을 설정하여, 자연과 동양적인 인연을 매개로 한 한국적인 허무주의의 밑바닥에, 첫정을 맺은 여인이 살고 있

는 제천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애정에의 향수를 짙게 깔고 있다.

허생원은 장돌뱅이로 늙었다. 곰보인데다가 재산마저 날려 장으로 돌아다니기만 했다. 봉평장이 서던 날 허생원은 조선달을 따라 충주집으로 간다. 그는 동이라는 애송이 장돌뱅이가 충주댁과 농짓거리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뺨을 때려 쫓아버린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 셋은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걸어갔다. 허생원은 그의 일생에 단 한번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이의 나이만큼이나 오래 전, 봉평 장을 보고 잠을 자려 했지만 더워 잘 수가 없었다. 달밤이었다. 메밀꽃이 핀 개울가 물레방앗간으로 갔다. 뜻밖에도 웬 처녀가 울고 있었다. 예기치 않았으나 거기서 밤을 같이 지새게 되었다. 그 뒤 그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동이도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아버지의 성도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어머니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른 채 동이를 낳고, 친정에서 쫓겨나 어떤 남자와 살았지만 지금은 헤어져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늙은 허생원은 냇물을 건너다가 빠져 동이의 등에 업혀야 했다. 허생원은 자기와 똑같이 왼손잡이인 동이를 보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동이의 어머니가 있다는 제천으로 동행하기로 하고, 새벽길을 걸어간다.

김동환

탄현에서 금촌 쪽으로 가다가 문산종고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서울 감리교 공원묘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김동환(金東煥,1901~?)의 묘와 시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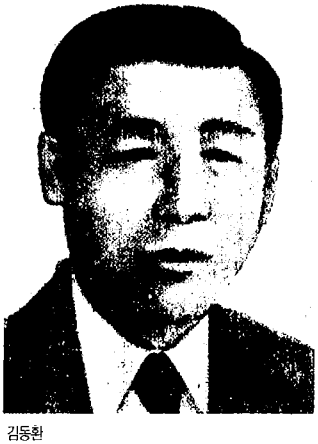
파인(巴人) 김동환 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사시라는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국경의 밤」으로 유명한 시인이다. 그러나 화강석 기단에 새겨진 시는 「봄이 오면」이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내 피네
진달내꽃 피는 곳에 내 맘도 피네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봄이 오면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로도 널리 알려진 시이다. 그는 함경북도 경성에서



김동환 묘
파주시 서울 감리교 공원묘지. 탄현에서 금촌 쪽으로 가다가 문산종고 앞에서 좌회전.



김동환

출생해서 서울 중동중학교를 거쳐 일본 교토대학 문과를 수료했다. 처녀 시집 『국경의 밤』이 발간된 것은 1924년으로 당시 신경향파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단의 흐름과는 이질적인 향토색 짙은 민족 정서의 시풍을 보여 주었다. 또 「산넘어 남촌에는」 등의 작품에서 보듯 북국적인 이국 정서를 빌어다가 향토색 짙은 민요적 시풍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질은 백조파와 신경향파의 중간에 위치하여 낭만파와도 통하며, 야성적이고 소박한 시적 격정은 하층 계급의 생활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는 관점에 따라 민족주의적이면서도 소시민적인 이상주의 시인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첫시집 발표 후 한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9년에는 종합잡지 『삼천리』와 『삼천리 문학』을 주재하면서 경영에 진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폐간의 비운을 맞고 말았다. 그러나 해방 후 다시 『삼천리』를 복간하였으며 시론을 쓰기 시작했으나 6.25 때 납북되었다.

최정희

최정희(崔貞熙,1912~1990)는 함북 성진에서 출생했으며 숙명여고보를 거쳐 중앙보육학교를 졸업한 여류소설가다.

『삼천리』의 여기자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경향파 문학이 활발하던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그의 작품들도 대부분 경향적인 것들이었다. 1935년 잡지 『조광』에 「흉가」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는데, 초기 작품들은 자기고백적이거나 자기폭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인맥」, 「지맥」, 「천맥」 등은 해방 전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해방 후에는 초기의 주관성을 깨뜨리고 객관적으로 시대 풍경을 다루었다. 그의 작품들은 평론가들로부터 비교적 좋은 평판을 받았는데, 그것은 감상에 젖어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 즉, 그의 작품 속에는 강렬한 사회의식이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데 특히 1930년대 초기 작품들에는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 조용한 항의가 서려 있고, 여성으로서의 섬세함보다도 주제성이 항상 앞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많이 변모돼 서정적 묘사를 통한 휴머니즘이 짙게 풍기게 된다. 대표작으로 장편 『인간사』 등이 있다.

그는 『삼천리』 기자 생활을 할 때 김동환과 알게 되었는데 김동환은 이미 기혼자였지만 나중에는 주로 최정희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지원과 김채원 두 자매가 있다. 최정희의 묘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러한 인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곁에 나란히 누워 있지는 못하고 조금 떨어진 뇌조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최정희의 작품 중 김동환과의 삶을 소재로 쓴 단편으로 「지맥」이 있다.

박봉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195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박봉우의 시 「휴전선」 중 일부이다. 극악스런 전쟁은 끝났지만, 포성이 멈춘 폐허에서 막막하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휴전의 의미를 새삼 충격적으로 되새기게 만든 작품이다.

이 시가 수록된 첫번째 시집 『휴전선』은 그가 어떤 정신적 자세로 시를 쓰는지 잘 보여준다. 그는 주로 전쟁과 휴전과 조국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느 작품에서도 구김살이나 냉소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억센 리듬을 통해서 온몸을 내던지듯이 마치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이처럼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다 쏟아놓고 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른 강과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을 별일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미빛 무늬로 타는 큰 눈의 창을 열어……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벽, 벽……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날으면 我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

이런 마즈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旗여……

—「나비와 철조망」 전문

1934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출생한 그는 전남대 문리대학 정치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전남일보 기자로 활약했는데 서울 특파원 시절 목포에 취재차 갔다가 그 고장 폭력배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생겼다. 그 일로 그는 정신장애를 일으켜 1990년 사망할 때까지 줄곧 정신병원을 들락거려야 했다.

60년대에 정신장애를 일으켜 전남대 부속병원과 최신해 청량리 정신병원 등 요양원을 전전하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시작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병원의 아침은/ 건강한 신문이/기다려진다.

편지도, / 얼굴들도,/마음 터놓고 찾아오지 못하는
정신병동엔/ 그리움만 머금는다……

—「소묘 26」

때로는 온전한 정신 상태로 때로는 정신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그는 시를 자신의 운명처럼 부등켜안고 있었다.

1986년,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남편을 수발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던 그의 아내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등지고 만다. 그때도 정신병원에 있던 그는 의사에 손에 이끌려 아내의 출상을 보기 위해 집에 들러 "아름다운 꿈을 꾸어라, 아름다운 꿈을 꾸어라"고 되뇌이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아내를 잃은 그는 세 아이를 남겨둔 채 정신병동에 누워 있다가 1990년 3월 세상을 뜬다.

신화보다
아름다운 나의 작업을
남들은
정신병이라 한다.

「신화」의 한 구절이다. 이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마저도 시로 형상화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주시 탄현면에 조성되고 있는 통일동산에 그의 시비를 세우려는 계획이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중심으로 진행중에 있다. 전쟁으로 인한 슬픔, 조국과 분단에 대한 시를 주로 쓴 그의 시비가 세워지기에는 적절한 장소라 할 것이다.

어데로 가야 하나 / 어데로 날아가야 하나
피흘리며 찾아온 땅/ 꽃도 없다
이슬도 없다/ 녹슨 철조망가에
나비는/ 바람에 날린다
남풍이냐/ 북풍이냐
몸부림 몸부림친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고층빌딩이 아니다/ 그보다도 더 가난한 노래다
심장을 앓은/ 잔잔한 강물이다
바다이다/ 한 마리 나비는 날지 못하고
피투성이 된 채로/ 확 트인 하늘을 우선
그리워한다
—「휴전선의 나비」 전문

이밖에도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문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시인들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주 지역의 시인들은 서울과 파주에서 출간되는 『파주문학』을 비롯한 문학잡지와 개인 작품집, 그리고 동인지 등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개인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김광림

1929년 함경남도 원산 출생이다. 구상의 추천으로 연합신문에 「문풍지」, 「벽」 등을 발표하였고 1954년 박남수가 주재하는 『문학예술』에 「상심하는 접목」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언어의 탁마에 관심을 기울여 아름다운 시세계를 펼쳤지만 후기에는 아이러니의 묘미가 생동하는 뉘앙스의 시를 시도했다. 1973년 작품 「갈등」 등으로 한국시인협회상을, 1985년 시집 『천상의 꽃』으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원희석

연풍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그는 1987년 『문학사상』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정식으로 시인이 되었다. 이후 1990년 「바늘 구멍 앞의 낙타」로 대한민국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이와에도 『물이 옷 벗는 소리』 같은 시집을 계속 발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는 1998년 8월 19일 과로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무크 『현대시문학』(1999년 봄호)에서는 고 원희석 시인에 대한 추모특집을 마련하여 그의 시정신을 기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 장례는 파주저널 신문사장으로 거행되었는데, 빈소가 마련된 금촌도립병원에서 유가족과 친지, 동료 문인 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승 시인이 조시를 낭독하고 은사 정진규 시인이 회고사를 했다고 한다.

여기 그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급행이란 말보다는 완행이란 말이 내겐 좋다 늘아와 뿌리를 내린다 빨갛게 물오른 단풍나무 잎사귀 뜨거운 여름속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온 까닭에 오래도록 제 생명의 빛깔로 타오른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폭을 좁게 가질 것, 천천히 걸을 것,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완행으로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할 것, 빗물 속 달팽이도 그렇게 가고 있다 개울물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달팽이」 전문

김재황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한 김재황은 1993년 『민통선이여, 그 살아 있는 자연이여』라는 독특한 현장보고 시집을 출간하였다. 그는 이 시집 외에도 『거울 속의 천사』, 『바보 여뀌』 등의 시집과 시조집 『내 숨결 네 가슴 스밀 때』, 『비 속에서 꽃피는 꽃치자나무』 등을 통하여 주로 자연을 노래하였다.

이대형

파주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율곡문화제 백일장에서 입상한 경력을 바탕으로 『문학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의 시에서는 고단한 삶의 길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 체념하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송광택

파주저널 제 1회 문학상 시부문 수상자인 송광택은 현재 목양교회 교양목사로 활동중이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신앙 생활에서 얻은 점을 예리한 시각과 정감 어린 언어로 묘사한 것들이 많다. 이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보고 느낀 점을 시인의 감각으로 노래하기도 한다. 『미래의 아침』이라는 그의 시집에는 일상 생활에서 느낀 단상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박정엽

순수 이념을 통한 통일에 대한 지향을 시작의 주제로 삼고 한 실향민이 통일을 향하여 부르는 지적 고뇌의 노래를 그리고 있는 박정엽은 『통일로 가는 길』을 비롯하여 현재 다섯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진경이

『시대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한 진경이는 환상과 고독한 꿈꾸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꿈과 이상과의 괴리감을 좁히기에는 인간의 힘이 상대적으로 너무 나약하다는 것을 신모더니즘 기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

진준섭

1960년 파주에서 태어나 『불교문예』 창간호(1995)에 「잡초」 외 여섯 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97년에 『세기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첫시집 『어서 난을 치우시오』(1996)와 이어 『겨울 간이역』(토방)을 펴냈다.

이외에도 김명섭, 김영애, 백경학, 유순희, 홍승희와 같은 시인들이 파주의 시문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동륜

1986년 첫 시조집인 『노을이 흐르는 강』을 출간한 이동륜은 최근 『내 부르면 산이 오고』를 도서출판 임진나루에서 출판하여 왕성한 창작욕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파주지부장을 맡고 있는 그는 특히 파주에 대한 지명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시정을 시인의 맑고 투명한 시심으로 형상화하여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고향인 파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피어나게 하는 향토시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곳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파주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깊은 시인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그곳 출신 작가들의 발자취를 기행문 형식으로 엮은 『파주여, 찬란한 문향(文鄕)의 고장이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 책은 조선조부터 학자나 문인들의 문학적 자산이 그 어느 곳보다 풍요로운 곳이 파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 책의 「서시」에서 그는 자신의 파주 사랑을 시로 읊었다.

누가 나에게
왜 坡州에 사느냐 물으면

임진강 강노을이 너무 고와
坡州에 산다 말하리라.
그래도 다시 한 번
왜 坡州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산빛 물빛 하늘빛 닮은
아름다운 詩가 있어
坡州를 사랑한다 말하리라.

文鄕의 고장 坡州 땅에
文香이 꽃피는 날
아 그날을 위해 --
이 한 권의 글을 바친다.

양만규

시조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양만규는 『시조생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남대문 중학교 교사이기도 한 그는 『내 인생의 다리를 놓고』라는 시문집을 통하여 생활에서 얻은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홍승희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파주문인협회 부회장 일을 맡고 있는 홍승희는 중앙일보 시조백일장에서 장원으로 뽑혀 문단에 데뷔하였다. 그는 시조 이외에 수필 창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필문학진흥회 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소설과 수필, 평론 분야에서도 여러 문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호영송

시인으로 등단했지만 소설분야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인 호영송(扈英頌)은 1942년 파주에서 태어났다.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1962년 시집 『시간의 춤』으로 데뷔한 뒤

『60년대 사화집』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시집 『호영송 시집』을 펴낸 바 있다. 1973년에 『파하의 안개』를 발표하면서 소설쪽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적 구조 속에서 적절하게 재해석해내는 데 탁월한 면모를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작품집으로 『파하의 안개』가 있으며, 1990년대 추계예대와 동원전문대에 출강하기도 했으며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로 있다.

황명숙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작고 사소한 기쁨과 슬픔, 고통과 좌절, 심지어는 허무감까지도 원고지에 옮겨 거기서 인간 삶의 의지와 희망을 찾고 싶어 소설을 쓴다고 한다. 현재 문산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그는 1992년 제 30회 『문학사상』 신인 발굴 중편소설 부문에 「유예된 시간」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다. 1993년에는 『파주문학』 창간호에 「밀원지대」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경휘

지금은 파주를 떠나 인천에서 살고 있으나 파주에서 태어나 금촌초등학교를 졸업한 조경휘는 파주 출신의 많지 않은 소설가 가운데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작가이다. 「제트 포인트」, 「서울무지개」, 「푸른 도적」과 같은 시나리오와 「제일버드」, 「조직」 등의 번역 소설을 통해 일찍부터 명성을 날린 바 있다.

윤모촌

한국일보 신춘문예 수필부문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하였고 한국 수필문학상과 동포문학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3년 『파주문학』에 「뒤늦게 새기는 할아버지 발씀」이라는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 수필집으로 『정신과로 가야 할 사람들』과 『서울뻐꾸기』 등 두 권을 출판하였다. 그리고 『수필 쓰는 법』이라는 저술이 있는데, 이는 실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수필 문학의 작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김복태

『문예사조』 신인상 수필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한 뒤 『파주문학』 창간호에 「똥묻은 개

와 재 묻은 개」를 발표하는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응백

수필가라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어학자라는 명칭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 권의 수필집을 출간한 그의 경력에서 전문수필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의 네번째 수필집 『고향길』은 "고향의 후진들에게 구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어야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출간한 것이기에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수필집에는 파주인이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파주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조병춘

『현대시학』 신인상 평론 부문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2회 노산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의 활동을 『한국현대시사』라는 평론집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이기현

파주문예진흥회장이기도 한 이기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주유림보감』, 『교하향교지』, 『의례해설전서』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과 관련된 저술활동에 참여한 바 있으며, 파주의 전설과 민담 등을 조사하여 『전설의 향맥』이라는 전설집도 출간하였다. 그는 "파주는 본래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문향의 고장으로 이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으나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 기억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하루바삐 문헌으로 기록하여 후손에게 훌륭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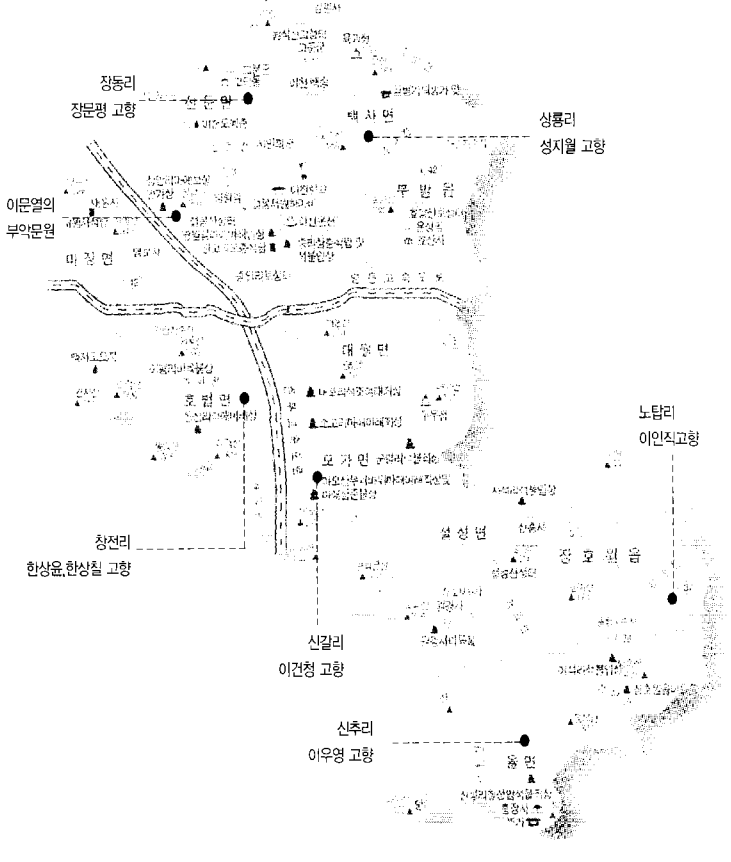
이렇듯 파주의 문화유산을 찾고 정리하려는 그의 노력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파주의 전투사를 정리하는 일로 이어져 『파주전투사』가 곧 선보일 예정이다.





이천

좋은 물만 흘러 땅을 이롭게 하여라





좋은 물만 흘러 땅을 이롭게 하여라

어제의 이천이 쌀의 고장으로서 이름이 높았다면 오늘의 이천은 도자기의 고장으로서 이름이 더 높다.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혈의 누」를 쓴 이인직으로부터 시작된 이천의 문학은 오랫동안 침체기를 보내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김영희, 장문평, 성지월, 이건청 등이 「현대문학」 등을 통하여 작품활동을 활발히 했고 1980년대 이후 등단한 한상윤, 이우영 등이 이천 문학의 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이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이제 이천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작가 이문열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천은 경기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원래부터 토질이 농사짓기에 적합하여 『동국여지승람』에도 이천을 가리켜 '넓고 기름진 땅'이라고 칭할 정도로 땅이 찰지고 기름지다. 특히 남한강 줄기에 펼쳐진 농경지는 쌀 농사에 더없이 알맞은 곳이다. 그래서 이천미는 지금도 다른 여느 고을 쌀보다는 훨씬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개발 계획으로 이천지방에도 공업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농공 복합형의 도시로 바뀌어 임금의 수라상에 제일 먼저 올랐던 지난날 이천 진상미의 명성을 얼마나 더 지킬지 의문이다.

어제의 이천이 쌀의 고장으로서 이름이 높았다면 오늘의 이천은 도자기의 고장으로서 이름이 더 높다. 조선시대에도 이천의 도자기를 나라에서 보호하기 위해 관요를 둘 정도로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여겼던 이천의 도자기 문화는 그 뿌리가 깊다.

이천은 도자기의 대표적인 산지로 이름나 있고, 300여 개의 도자기 가마가 모여 있는 신둔면 일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예촌으로 유명하다. 이천이 도자기의 명산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이나 그것을 굽기 위한 땔나무를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전통도자기를 재현하여 계승발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둔면, 백사면 일대의 선사시대 유적지나 설봉산성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유적지의 발굴을 통해 이천지역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토기제작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둔면 수광리와 백사면 조읍리 점말, 장호원 노탑리 등지는 6.25사변 이후 60년대 초까지도 옹기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둔면 수광리의 칠기제품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품이었다. 1950년대 전통도예를 부활시키고자 한국조형연구소(성북동가마)와 한국미술품연구소(대방동가마)가 문을 열고, 이후 근거지를 이천으로 옮기면서 고명순, 김완배, 지순택, 윤석준, 박수만, 현무남, 유근형 등 실력있는 도공들이 신둔면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천은 명실공히 연구와 창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도자기의 고장이 되었다. 이천에서는 전통도자기와 생활도자기가 함께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작품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옛 도예가들이 가지고 있던 비법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도자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이천도자기는 색깔이 은은하면서 곱고 섬세하여 다른 지방에서 따를 수 없는 전통이 있다. 한국의 맛을 내는 도자기는 이천에 가야 구한다는 말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명성 있는 많은 작가들이 활동중이다. (『이천상의 십년사』 참조)

이렇게 전통적인 농경문화의 뿌리 속에서 형성된 이천의 문학은 19세기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혈의 누」를 쓴 이인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랫동안 문학의 황무지로 침체기를 보내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김영희, 장문평, 성지월 등과 이건청이 『현대문학』을 통하여 작품활동을 활발히 했고 1980년대 이후 등단한 한상윤, 한상칠, 이우영 등이 이천 문학의 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이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이천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작가 이문열이 있다.

이문열은 1987년도에 번잡한 서울을 떠나와 새로운 창작실을 찾던 중 이천시 마장면 장암 2리 319번지에 둥지를 틀어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1998년 부악문학연구원을 개원하여 한국문단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혈의 누」 이인직을 찾아서

개화기 신소설 작가이며 언론인이었던 국초(菊初) 이인직(李人稙)은 1862년 음력 7월 27일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노탑리에서 태어났다. 이인직은 1906년 2월 장년의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동경 정치학교에 입학하여 뒷날 매국 7적의 하나로 합방 이후 자작의 칭호까지 받은 조중응과 함께 공부했다. 어찌되었던 이인직이 조중응을 동경에서 만난 것은 그를 평생 친일 매국의 길을 가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906년 만세보의 주필이 된 이인직은 만세보에 한국 최초의 신소설인 『혈의 누』, 『귀의 성』 등을 발표하고 경영난에 빠져 폐간 직전인 만세보를 이완용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인수하였으나 2년 후 다시 『대한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이때부터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를 지내는 등 친일 행위를 많이 했다.

1908년 원각사를 중심으로 신극운동을 전개, 『설중매』와 같은 신소설을 신극으로 각색하기도 했으며, 『은세계』를 직접 무대에 상연했다. 1910년 한일합방이 조인될 때 이완용을 도왔고, 왜왕인 이른바 타이쇼천황의 즉위식에 헌송문을 바치고 경학원 사성을 지내는 등 친일적인 과오를 범했으나, 신문학사상 근대소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구상력과 성격묘사에서도 능했으며, 최초로 사실적 산문문장을 구사하여 신소설을 개척한 공로가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인직이 남긴 작품으로는 『귀의 성』, 『치악산』, 『은세계』, 『모란봉』 등의 장편과 단편 「빈선랑의 일미인」이 있다.

이처럼 일제를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쳤던 이인직도 1916년 11월 21일 신경통으로 총독부 의원에 입원, 나흘 만에 허무하게 이승을 하직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에서는 그가 죽기 하루 전 이인직의 연봉을 1000원으로 특별 인상했다 한다.

당시 매일신문 1916년 12월 2일자 신문기사는 이인직의 최후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천리교식의 장의—

경학원 사성 이인직씨의 장의는 본월 28일에 고양군 용강면 아현화장장에서 거행하였는데, 장의의 제반의식은 동씨의 평일 신앙하던 바 천리교식으로 행하였는데, 당일 참회한 회원은 경학원 부제학 박제빈남 이하 경학원 직원 일동과 천리교 신도 다수와 이완용백, 조중응자, 유성준 제씨와 총독부의 다수한 관리가 호종하였으며, 씨의 평일 공로를 위로하기 위하야 당국에서

는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450원의 금액을 하부하였고, 대제학 자작 김윤식씨는 부제학 자작 이용직 씨를 대리로 명하여 일반직원을 대동하고 제권을 행하였더라.

현재, 그의 묘소는 화장으로 치른 때문인지 아니면 이인직의 친일 매국 활동을 부끄러워한 후손들의 염려 때문인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지상에 눈빛 청정한 시가 있네 -이건청 시인을 찾아서

시인 이건청은 1942년 이천군 모가면 신갈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그는 설성초등학교, 백사초등학교, 마장초등학교 등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이천의 소읍에서 보냈다. 특히 설성면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 풍광은 뒷날 이건청 시인의 시적 정서에 중요한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건청은 한양대 국문과를 졸업, 혹독한 방황과 좌절의 문학 수업기를 거쳐 196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목선들의 뱃머리가」가 입상되었고, 1968년 『현대문학』에 「손금」, 「후시가의 밤」, 「구약」 등이 추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 창작을 하게 되었다. 그의 시집으로는 『이건청 시집』, 『목마른 자는 잠들고』, 『망초꽃 하나』, 『하이에나』, 『청동시대를 위하여』, 『코뿔소를 찾아서』 등이 있고, 시론집으로 『초월의 양식』, 『한국 전원시 연구』, 『문학 개론』 등의 저서가 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보팔시에서는 미국 유니언 카바이트사의 살충제 원료 메틸이소시아네이트 유출로 2,500명 이상이 죽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이 머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은 환경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시를 드린다 —

1984년 12월 3일/ 보팔시의 소들은 들판을 가로질러 / 우리에 들어왔다. 문이 닫히고 / 목초더미가 먹이로 주어졌다./ 눈을 껌벅이며 지순한 짐승끼리 / 꼬리를 휘저어 파리를 쫓거나 / 암소의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기도 하였다./보팔시의 말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 달

더갑 들판과 언덕을 생각하면서 / 저부는 황홀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부 다야 램은 야채밭을 생각하였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다야 램은 / 배추잎에 깃드는 푸른 빛깔과 나에 깃드는 / 땀냄새 속 생각하였다./ 사상의 모든 빛깔들이 들판의 배추와 당근을 박어지우고 / 마이산의 푸른빛에 들어있어 웃고 있었다./ 이 밤, 미국 유니언 카바이트사의 보팔 공장엔 / 쌀인 살충제 테믹과 키 마닉이 빙부와 캡 속에서 수군거려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탱크의 곡지를 돌리고 있었다./ 자연은 유순하게 주어진 것이므로 / 빈대는 빈대의 희망과 바램로 / 빈부는 빈곤의 대낮이 밝아야 한다고 / 수군거리며 곡지를 돌리고 있었다./ 아, 살충의 음모를 꾸미는 / 인간이여, 야만이여, 메틸 이소시아네이트여, 탱크여 / 야만들의 탱크속, 그 곡지를 돌리는 / 안 보이는 손들이 있었다./ 가스의 유출이 시작되자 흘러나온 / CH3NO, CH3NO, 휘발성이 강한 가스는 / 물을 만나 불이 되었다./ 물을 만나 불이 되었다./아, 불이 된 사람들의 눈이 타오르는 늦안 / 늦부 다야 램은 딸 아브람 칸을 안고 달린다./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하늘이 가까운 곳으로 / 소와 말들이 울고, 묶인 끈을 당기면서 울고 / 눈이 아픈 사람들은 먼 곳으로 탈렸다.

다야 램의 한 살짜리 딸, 아브람 칸은 죽기 전에 눈이 멀었다. 두 손으로 따가운 두 눈을 비비다 죽었다. 자상의 저 많은 꽃들과 풀잎을 마주보기도 전, 피는 꽃과 지는 꽃의 짧은 다하기 전, 잇몸에 이빨이 채 솟아나기도 전 아브람 칸은 죽었다. 작은 가슴엔 사탕알처럼 응고된 작은 심장, 아,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칸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가슴을 터뜨려 피를 응고시켰다.

아버지 다야 램은 작은 주검 위에 빨간 수건을 덮었다. 아기를 위해 마련한 최후의 전별은 타월 한 장이 보두였다. 연기 자욱한 회장장을 향해 다야 램이 앞장을 서고 바로 뒤에 빨간 수건에 덮힌 아브람 칸을 안은 눈 먼 아내 산즈 비가 남편의 남편의 손에 의지해 가고 있었다.

노팔시의 말들은 고삐에 묶인 채 죽었다. 꿈속에 스며든 CH3NO, CH3NO, CH3NO, 폐 속에 피가 차올라오는 동안 말들은 묶인 채 울었다. 말들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뒤덮인 40 ㎢ 안에서 묶인 채 죽었다. 말들은 비밀구와 더불어 죽었다. 굵고 튼튼한 다리를 지녔으나 묶여 있어서 달릴 수 없었다. 달릴 수 없었다. 묶인 채 눈이 멀고, 묶인 채 심장이 터졌다. 아, 말똑이여, 자상에 박힌 나무여, 말들은 너른 들판을 꿈꾸면서 작은 말뚝에 매여 죽었다. 들판이 기울어지다 허공에 떴다.

죽은 자 위에 죽은 자가 눕혀졌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의 육신을 베고 누워 / 인간의 지평을 엄습해오는 / 백, 천 개의 유니언 카바이트사를 보았다./ 건물을 에워싼 철조망엔 / OFF LIMITE, OFF LIMITE / 팻말이 걸려 바람에 흔들렸다./ 폭발을 목전에 둔 것들은 / 도처에 있고 / 메틸 이소시네이트뿐이랴 / 인류의 멸망도 가능케 할 / 백 메가톤 천 메가톤의 核 옆에서 / 어린것들의 입술과 눈망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 고기값과 두부 한 모의 크기를 생각한다./ 백 메가톤 천 메가톤의 核 옆에서 / 잠들고 유방과 Sex를 꿈꾼다./ 무심히 나는 잡자리를, 어둠 속으로 / 숨어드는 비퀴벌레를 본다./ OFF LIMITE, OFF LIMITE / 접근하지 않는 한 안전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보라 지금 안 보이는 손이 / 지하로 숨어든다. 안 보이는 손이, 안 보이는 손이……

보팔시의 눈먼 아이가 / 보팔시의 눈먼 엄마와 아빠를 찾아 / 눈먼 할아버지와 함께 / 야채밭 옆을 가고 있다./ 이젠 보이지 않는 새 두 마리가 / 끼룩끼룩 울었다.

보팔시의 푸른 벌레들은 / 일거에 박멸되었다./ 한 잠 허물을 벗기도 전 / 누출된 메틸 이소시네이트 가스가 / 보팔시를 엄습하였다./ 날개를 달기도 전 / 보팔시의 푸른 벌레는 / 배추잎에 붙은 채 죽었다./ 배추잎에 더듬이를 댄 채 죽었다.

보팔시의 당근밭을 달리는 눈먼 아이들이 있다./ 당근을 밟고 달리는 눈먼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다./ 당근밭을 건너 감자밭을 가로지른다./ 아이들은 길을 잃었다./ 눈 없이 달려가야 할 지평에 해가 진다.

시체안치소 앞마당엔/ 뒹구는 시체들이 그득하다./ 몸집 하나 가릴 휘장도 시트도 없이/맨땅에 눕혀져 있다./ 아직도 혼백이 육신과 헤어지지 못하고/ 혼백이 육신을 껴안고 있다./ 육신을 벗어난 혼백들도 / 아내와 아들딸을 찾아 / 돌아보며 돌아보며 간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생각나 / 머뭇거리며 간다./ 골목마다 / 눈먼 육신을 벗어두고 떠난 사람들이 가고 있다.

눈뜬 시신이 가는/ 행렬의 뒤쪽에/ 해가 하나/ 얼굴을 가린다./ 풀들이 길섶에 무너져/ 푸르름이 된다. 풀내음도 형체도 버리고/ 눈뜬 시신을 부르는/ 목이 쉰 푸르름이 된다./ 눈뜬 시신이

가는 지상/ 비탈들이 비탈이기를 그만둔다./ 땅에 누운 채 비탈들은/ 높이를 버리고 구부도 장갑도 버리고/ 맨살이 된다. 고단한 치장들을 버리고!/ 맨살이 된다./ 눈뜬 시신이 가는/ 행렬의 뒤쪽에/ 해가 하나 따라오며/ 풀들의 푸르름을 지우고/ 낮게 뜬 두서너 개/ 구름과 새들의 흔적도 지운다.

눈을 잃은 자들이 가고 있다./ 눈을 잃은 자들의 길에/ 풀들이 다시 자라리라./ 눈뜬 자의 길을 버리고!/ 눈뜬 자의 어둠을 버리고!/ 눈먼 자들이 딛고 선 자리/ 아, 풀씨가 다른 풀을 부르듯/ 조금씩 옮겨가며 이슬에 젖으리라./ 풀들이 풀들끼리 어깨를 마주대듯/눈먼 자의 길에/ 10만…… 20만의 푸르름이 푸르름끼리/ 푸르름이 되리라.

…「눈먼 자를 위하여」 전문

헌사에서도 이건청이 밝혔듯이 1984년 12월 3일 인도의 보팔시에서는 인간의 평범한 상상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사가 있었다. 그것은 문명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 자본주의의 탐욕과 무분별한 이기심이 빚어낸 세기의 비극이었다.

물론 20세기는 '보팔의 비극' 말고도 '체르노빌 핵 유출 참사' 같은 과학의 비극이 더 필요한 세기였다.이건청이 헌사에서도 밝혔듯이 '보팔시의 비극'은 미국의 유나이트 카바이트 회사의 살충제 원료 유출로 25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죽어야 했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눈을 머는 1980년대 최악의 재앙이었다. 또한 수백만 평의 기름진 농토가 황폐화되고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풀벌레와 들짐승과 말, 소, 가축들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어야 했다.

이건청은 이런 슬픔들을 오늘날의 세기말 환경생태시를 이미 예감이라도 하듯 「눈먼 자를 위하여」 165행 장시에 담아 생생히 증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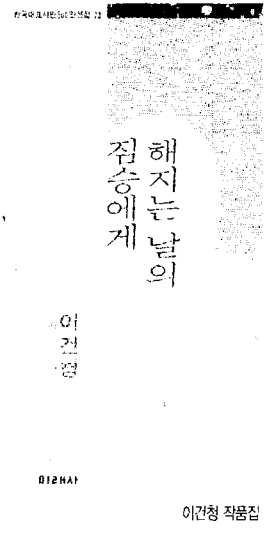
당시 이건청은 1985년 『현대문학』 8월호에 「눈먼 자를 위하여」를 발표함으로써 인류와 더불어 공존해야 할 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리고 시인의 눈물은 살아남은 자들, 두눈 갖고 있는 '눈뜬 자들'에게 소원하고 있다. 이는 약소국 시인의 슬픔이기도 하다.

'눈뜬 자의 길에 / 풀들이 다시 자라리라. / 눈뜬 자의 길을 버리고 / 눈뜬 자의 어둠을 버리고 / 눈먼 자들이 딛고 선 자리 / 아, 풀씨가 다른 풀들을 부르듯 / 조금씩 옮겨

가며 이슬에 젖으리라. / 풀들이 풀들끼리 어깨를 마주대듯' 대자대비한 자연과의 새로운 친화를 노래한다.

정신병동 담장 안의 망초들이
마른 꽃을 달고
어둠에 잠긴다.
선 채로 죽어버린 일년생 초본
망초앞에 붙은 곤충의 알들이
어둠에 덮여 있다.
발을 묶인 사람들이 잠든
정신병원 뒤뜰엔
깃을 웅크린 새들이 깨어
소리없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윗가지로 윗가지로 옮겨가면서
날이 밝길 기다린다.
망초가 망초끼리
숲을 이룬 담장 안에 와서 울던
풀무치들이 해체된
작은 흔적이 어둠에 섞인다.
모든 문들이 밖으로 잠긴
정신병원에
아름답게 잠든 사람들
아, 풀무치 한 마리 죽이지 않은
그들이 누워 어둠에 잠긴
겨울, 영하의 뜨락
마른꽃을 단 망초.
—「망초꽃 하나」



시인은 1978년에 이천군 마장면 양천리에 2400여 평 땅을 마련, 서울 집을 팔아 집을 짓고 채 마도 가꾸면서 서울을 오르내리며 생활하고 있다.

이건청은 시집 장시 『먼자를 위하여』로 1986년 녹원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시집 『하이에나』로 1990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시집 『코뿔소를 찾아서』로 1996년 한국시협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면서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장과 한국시학계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학교육과 창작의 산실 부악문원을 찾아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한 부악문원(負岳文院) 연구원은 작가 이문열이 사재를 털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문학에 관한 수학기관이자 창작공간이다. 약칭 부악문원으로 부르는 이 기관의 부악이라는 명칭은 근처에 있는 설봉산의 이칭이며, 문원이라는 명칭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창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선대의 서원과 비교 차별된다.

부악문원은 이러한 교육만이 아니라 작가 이문열의 주거와 집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다. 네 동의 건물로 된 문원은 창작실과 강당을 마주하고 이문열 일가의 자택과 서재가 서 있다. 현재 개원한 지 일 년 반이 지난 문원에는 일곱 명의 숙생과 기숙하지 않는 세 명의 연구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세 명의 소설가가 기숙하고 있다. 매년 초 네다섯 명의 숙생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습작원고로 이루어진 문건과 면접심사로 선발하고, 이미 등단한 신진작가는 수시로 기숙을 허락받을 수 있다.

기왕에 등단한 소설가는 나름대로 소설 쓰는 소임 이외의 다른 의무가 없으나 숙생이나 연구생으로 선발된 소설가 지망생은 매주 삼일간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루는 사서삼경 강독, 하루는 희랍철학을 영문원서로 학습하고, 나머지 하루는 창작품에 대한 합평회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이문열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지만 때로는 외부 강사가 초빙되기도 한다. 합평회에서 다루어지는 창작품은 물론 소설을 위주로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희곡, 시나리오, 방송대본과 같이 대개 산문 분야의 작품이 대상이 된다. 또한 문원의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소설가나 문필가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는 없다.



이문열 작품집

문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기본 교양과목으로 사서사경과 희랍철학을 익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문학인에게만 소용되는 교양은 아닌 것이다.

문원에서의 생활과 수업에 있어서 비용 부담은 물론 없다. 각자 욕실과 벽장이 갖추어진 방은 집필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 할 만하다. 이곳에는 현재 남학생만이 아니라 여학생도 숙생과 연구생으로 있다.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세 가지 수업을 받을 자질만 갖추면 누구나 입학 자격이 있는 것이다. 정규 교육은 이 년 동안이지만 이후 일 년은 창작에 몰두할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으므로 이곳의 교육기관은 삼 년인 셈이다. 이외의 교육적 생활이나 고유한 문학적 세계관은 그 독창성의 가치만큼이나 지극히 존중된다.



부악문원
이천시 마장면 장암 2리 319번지.

부악문원은 시나 소설을 쓰는 비법을 전수하거나 단순하게 작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학관련 지식을 전달하거나 작가 이문열의 개인적 문학관을 훈육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창작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문학도를 더 깊고 너른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 내동댕이쳐버리는 지경이 날마다 벌어진다고 한다. 뭍에 기어오르든 익사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각오와 투쟁의 결과다. 아마 이러한 체제가 숙생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모양이다. 문학 창작이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설사 도움을 준다손치더라도 소설가나 시인 자격증을 수여할 수는 없는 법이다.

부악문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문열의 교육은 숙생들에게 먼 바다에서 뭍으로 기어올라 당도해야 할 높고 아름다운 산정을 일러주고, 기어이 그 아름다운 산정에 도달해야겠다는 집념을 강화하고, 수련의 기간을 마련하여 불굴의 투지를 배양한다는 점이다.

이곳 부악문원에 들어온 지가 2년여 가까워 온다는 작가 심상대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소설 쓰는 양질의 조건을 제공받은 점 이외에도 한두 가지 값진 교훈을 이

곳에서 얻었다. 우선은 선생이 부악문원을 근거로 보여준 선비의 자세다. 문학을 통해 이룬 재산이라 하여 모든 이들이 문학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후진 양성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부악문원이 일반인들에게 홍보되어, 아, 글 쓰는 이들은 돈 쓰는 방법에도 품격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칭송이 회자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 한 가지 덕목을 통해서라도 문학에 몸담은 여러 사람의 품위가 더불어 고양되리라 믿는다. 어지러운 세상을 힐난하고 잔반한 재주로 이재를 좇아 날뛰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이만한 여유와 헌신도 보여주 지 못한다면 글 쓰는 이들의 명예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선생의 문학에 대한 겸손한 태도다. 언젠가 선생은 한 숙생에게 자신의 문학관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독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독은 위와 아래가 다 뚫린 독이다. 이 독의 오점은 하나가 아니다. 독이 뚫렸다는 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밑을 막아야 하겠지. 그리고 다른 경우를 생각하자. 위와 아래가 다 막힌 독이 있다고 하자. 이 독도 오점은 하나니까 위를 뚫어야 하겠지? 이번에는 위는 막히고 아래는 뚫린 독이 있다고 하자. 이 독은 오점이 두 개야. 위도 잘못됐고 아래도 잘못됐거든. 그러나 이 독은 뚫거나 막을 필요가 없이 뒤집어 바로 세우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마무리하였다.

"나는 문학인이나 예술가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려 쓸모없는 독을 뒤집어 바로세워 쓸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문열의 이 짧은 강의를 작가 심상대는 깊은 감동으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서 또한 자신과 함께 부악문원에서 문학이라는 화두를 앞에 놓고 고뇌했던 숙생들과, 앞으로 부악문원에서 문학에 몰두할 많은 젊은 문학인들에게 그 뜻을 꼭 전해주고 싶다고 했다.(위 「부악문원을 찾아서」는 소설가 심상대 씨가 보내준 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글이다)

「설봉산은 얼마나 높으신가」- 성지월을 찾아서

1932년 이천군 백사면 상용리에서 태어난 성지월은 1959년 『시와 시론』 동인지에 시

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성지월은 이천문학의 산 증인으로 이천을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 시인이다.

그래서 그는 이천의 영산인 설봉산을 누구보다도 더 흠모하고 우러르는지 모르겠다. 성지월에게 설봉산은 그 어떤 높디높은 산보다도 더 컸고, 인자하신 할아버지 품처럼 따뜻했을 것이다.

설봉산 산자락에/ 걸터앉은 해
앞자락을 불태우고/ 노을진 그늘의 주변
채색되어 찬란하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억겁을 두고 반복해온
너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의 역사가 잠들고/ 인간의 삶의 행로가
고요한 밤으로 잠적해 갈 때마다/ 누적된 인간의 고락이
세월의 나이테를 만들고

영웅호걸들의 호화로운 발자취/ 뭇백성의 한많은 세월
누적된 인간의 고락/ 설봉산 산기슭에 쌓였던 수없는 사연들
저녁노을과 함께 사라져간다/ 피를 토하는 저녁노을과 함께
—「설봉산 노을」 전문

그가 한낱 속진을 털어내려고 설봉산을 오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삶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르는 고갯길' 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한 고비 고갯길 넘어서면 위태롭고 더 가파른 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가.

성지월의 제 7시집이며 최근작 시편을 모은 『인간의 미로』에 설봉산을 노래한 시편이 여럿 있다. 시인은 노을과 더불어 세월의 나이테를 만든 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설봉산 산자락에 / 걸터 앉은 해 / 앞자락은 불태우고 / 노을진 그늘의 주변 / 채색되어

찬란한' 옛 산의 저녁노을을 호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인은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세상을 조망하는 설봉산의 지긋한 눈초리'를 감지하는 것만으로 산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를 변함없는 일과로 여기나보다.

우주 십리만상/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 장날의 이모저모를 보고 들으며/ 장꼴목을 삽살이 뒤지다 보면/ 사람들의 삶의 체취가/ 여기 저기서 풍겨온다

산나물을 벌려놓고 있는 아주머니/산골냄새가 절로 풍기고/ 어물전에서 싸구려를 외치는 사람/ 늦해 서해 남해의 비린한 냄새/ 감자 양파 마늘장사/ 땅과 흙내가 주변에서 진동한다

어린이 장난감/ 사정없이 북을 두드리는 원숭이/ 제 세상인 양 빵빵도는 자동차/ 팔짝 팔짝 뛰는 개구리/ 신기한 듯 모여 조잘대는 아이들

—「이천 장날의 향기」 전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이는 시인의 말처럼 산골 냄새와 바닷가 비릿한 냄새, 그리고 갓 캐이내와 흙이 묻어 있어 땅내음이 향기로운 시골 장날의 풍경이 정겹다. 깨끗한 가난이 그리워진다.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부대낌으로 저절로 길이 열려지는 이천장날의 장꼴목은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고향이 아닌가.

성지월은 시집으로 『석상』, 『타계』, 『사막길』, 『길의 소묘』, 『인간의 미로』 등 일곱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이천문화에서 간과해선 안되는 작가들로 남매 작가인 **한상윤**과 **한상칠**이 있다. 그리고 시인의 고향인 「신추리」 연작시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다가 시의 꽃을 만개하지 못하고 급서한 시인 **이우영**이 있다.

문학평론가 **장문평**은 1939년 중국 만주 해륜에서 출생했지만, 청소년기를 이천 신둔면 장동리에서 보내 이천농고를 나와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3년 『현대문학』에 평론 「한용운의 님」, 「현대시의 비밀」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어 「드라이한 시에 관하여」, 「조지훈의 좌절」, 「광장의 시에 대한 각서」, 「개화기의 정형

시」 등의 시평론과 백로기와 김주영의 소설을 비평한 「비극적 인식의 대조적 조명」과 「반문명적 인간상」, 「동정, 연민, 연대감의 문학」 등의 소설 평론이 있다.

그리고 중편소설 「벙어리들」, 단편 「열병」 등을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현대문학지에 연재한 「현대시 형태론」은 현대 자유시의 생성원리와 본질을 규명한 한국시 비평을 한 단계 높인 명문이었다.

한상칠과 한상윤은 남매 작가로 이천 호법면 창전리에서 태어났다. 1938년생인 한상칠은 이천농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나와 197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개의 아픔」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거울」, 「무서운 얼굴」, 「독불장군」, 「잎지는 여름」 등의 작품이 있고 창작집으로 『겨울 백치』가 있다. 그는 일신상의 피치못한 사정으로 1987년 이후 거의 절필하다시피 했는데 그동안 수집한 자료로 장편소설을 구상중이라 한다.

1941년생인 한상윤은 이천 양정여고와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85년 『월간문학』에 소설 「어머니의 불빛」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주요작품으로 「해탈문」, 「고리」, 「헛구역질」, 「능」, 「열매를 맺는 가지」, 「바람꽃」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는 『고리』와 『메마른 숲』이 있다.

한상윤은 『고리』로 1989년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추리」 - 이우영

이천군 율면 신추리에서 1941년에 태어난 이우영 시인이 있다. 1980년 『현대시학』지를 통해 등단한 이우영은 간결한 문체를 구사하며 어릴 적 고향의 원체험을 낮은 목소리로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정서를 노래했다. 이우영은 시집으로 『대합실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를 위한 서곡』, 『귀향일기』, 『하나씩 지우면서』 등을 남기고 1997년 급서했다.

안산밭엔/ 고추, 가지가 한창이다
드문드문/ 수박포기도 보인다
이랑을 오가는 삼촌의 이마는/ 이미
해를 넘고 있다

올 가을 농사 피하면/ 이젠 / 끝이란다
고희가 겹도록 흙고르기/ 오늘 따라 유난히
호미끝이 무디다

진눈 내며 부래미/ 가래산을 돌아나가는 자동차의 경적
서울 간 누이는 아직/ 소식이 없다.
—「신추리 15」

중앙대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우영은 한국체육대 국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문체연구회 회장으로 헌신하기도 했다. 시론집으로 『시와 언어학』을 남겼다.

이천에는 문협 이천지부가 1997년 결성되어 기관지 『이천문학』을 3호째 발행하고 있다. 참여 회원들로는 성지월, 이용연, 김상직, 이관재, 김학성, 성홍환, 신배섭, 임혜봉, 정종극, 김용, 박재호, 한기석, 손길순, 김혜원, 조인희, 송병탁, 정영자, 김옥희, 이병례, 김효진, 오민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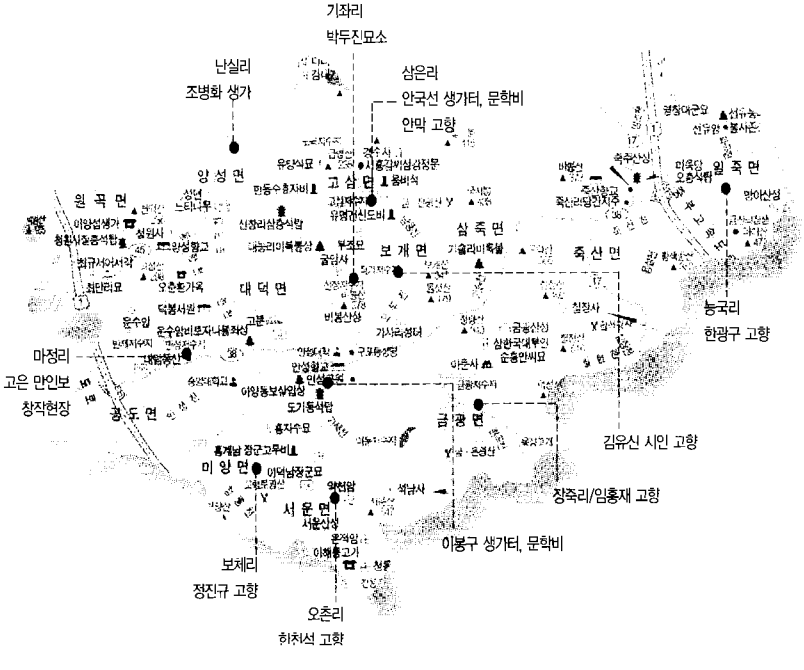
그리고 이천에는 농민시인 장상현이 있다. 자주적 농민운동단체인 '전농' 활동에도 열심이었던 장상현은 1989년 시집 『농군의 노래』를 상재하여 농촌의 구조적 모순과 농민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현재 경기남부지역의 진보문학공동체인 『사람과 땅의 문학』에 참여하여 활발한 시작 활동을 하고 있다.





안성

시인 묵객들이 많아 노래로써 편안하여라





안성에는 우리 역사소설의 대간인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과 황석영의 『장길산』과 깊은 인연을 지닌 대찰이 있는데 칠장사와 청룡사가 그곳이다. 19세기 개화기 신소설의 첫장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우화소설 『금수회의록』의 작가 안국선을 비롯하여, 카프 문학운동의 이론가 안막 등이 있고, 해방 이후 한국 문단의 큰 별들인 박두진, 조병화, 이봉구, 고은을 비롯하여 정진규, 김유신, 한광구, 한천석, 임홍재, 공석하, 김완하 등 많은 문인들을 길러낸 고을이 바로 안성이다.

시인 묵객들이 많아 노래로써 편안하여라

안성은 경기도의 남동쪽 끝에 자리한 지역으로서 옛 문헌에도 물산이 풍부하고 산수가 온화하여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우리 속담으로 더 많이 알려진, 안성 지방의 특성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안성맞춤'의 유래인 안성유기(놋그릇)는 이 고장만의 자랑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유기문화로서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은 또한 3.1운동때 여러 의인들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방보다 유달리 많은 향교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대표적인 향교로 안성향교, 양성향교, 죽산향교가 있다.

그리고 안성에는 우리 역사소설의 대간인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과 황석영의 『장길산』과 깊은 인연을 지닌 대찰이 있는데 칠장사와 청룡사가 그곳이다. 차령산맥이 문득 멈추어 선 칠현산 깊은 곳에 있는 칠장사는 임꺽정의 스승인 갖바치가 수도하던 사찰로 임꺽정과 그 수하들이 스승을 찾아와 많은 가르침을 받는 등 명종조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들이 잘 그려져 있는 소설 속 무대로 유명하다. 이조 숙종조가 시대 배경인 장편소설 『장길산』에서 작품 속의 주요 골격인 광대 안성 사당패들이 기거했던 재인촌

어름이 청룡사다. 안성 남사당패 탈춤이 무예에 능통한 의적이요 또한 걸출한 예인이었던 장길산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잘 어우러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안성은 허다한 예술인들을 길러냈다.

19세기 개화기 신소설의 첫장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우화소설 『금수회의록』의 작가 안국선을 비롯하여, 카프 문학운동의 이론가 안막 등이 있고, 해방 이후 한국 문단의 큰 별들인 박두진, 조병화, 이봉구, 고은을 비롯하여 정진규, 김유신, 한광구, 한천석, 임홍재, 공석하, 김완하 등 많은 문인들을 길러낸 고을이 바로 안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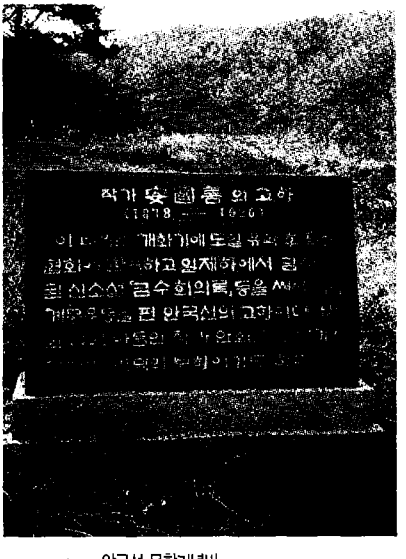
『금수회의록』– 우리 문학 최초의 판매금지 소설
개화기 작가 안국선을 찾아서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삼은리에서 1878년 12월 5일 양반 세도가인 죽산 안씨 동지공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안국선(安國善)은 일찍이 개화기 신문화에 눈떠서 일본에 유학하여 1899년 도쿄 전문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안국선은 1907년 친일단체인 대한협회에 가입하여 1908년 탁지부 서기관, 1911년에는 청도군수로 임명받는 등 정관계에서 활동했으나 정치 활동은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1908년 발표한 『금수회의록』은 길짐승, 날짐승, 풀벌레 등의 동물들을 등장시켜 인간 세계의 비리와 모순을 고발한 우화소설이다. 동물의 의인화와 인간 세계를 야유하며 풍자하는 반윤리적 묘사 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음은 물론, 한국문학 최초의 판매금지 소설로서 우리 문학사에 기록되고 있다.

안국선은 1913년 청도군수를 사임한 후 다시 소설 창작에 관심을 기울여 1915년 단편소설집 『공진회』를 발표했는데 작품집에 실려 있는 「기생」, 「인력거꾼」, 「시골 노인 이야기」 등 3편 모두 일제의



안국선 문학기념비
고삼면 삼은리 초입

식민지 통치 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이는 안국선의 문학적 정신적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만년에는 고향으로 낙향, 전원생활을 즐기다가 1926년 7월 사망했다.

안국선의 묘소는 유실되어 알 길이 없고 그의 고향인 고삼면 삼은리 초입에 1994년 '우리문학기림회'가 세운 '안국선 문학기념비'가 지나가던 나그네의 발길을 잡아끈다.

카프의 맹원이었으며 1930년대 뛰어난 단편작가이기도 한 안회남은 안국선의 아들이기도 하다. 안회남은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또한 고삼면 삼은리의 한 동향이고 동갑내기이면서 똑같이 해방 이후 북쪽을 택한 문학평론가 안막은 안회남과 가까운 일가 친척이다.

안막 - 사라진 예술가를 찾아서

안막(安漠)은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삼은리에서 1910년 4월 18일 태어났다. 경성 제2고보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30년대 초 와세다대학 노문과를 수학하고 귀국하여 임화, 김남천 등과 함께 카프 제2차 방향전환을 주도한 사상 문예운동의 이론가였다.

안막은 1920년대 말 동경의 무산자사와 깊게 관련을 맺으면서 계급문학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조선문학』 1930년 3월호에 발표한 안막의 첫 평론이기도 한 「프로예술의 형식-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의 길로」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예술의 내용과, 생산적 노동과정으로 인하여 먼저 부여된 형식적, 방법론적 기능과의 변증법적 교호관계가 형성되고, 그 결정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이란 예술적 태도가 생겨난다고 주장하며 문학주의에 입각한 김기진 등의 대중소설화론을 비판했다. 기존 카프 예술가들이 소부르조아 의식의 완벽한 청산은 물론 인텔리성을 극복한 연후 라야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고 안막은 확신했던 것이다.

이런 볼셰비키적 창작방법론의 대두는 김기진, 박영희 등의 초기 카프 이론가들의 퇴조와 카프의 주도권이 이들 소장파 이론가들인 안막, 임화, 권환 등에게 전이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이 조직운동으로서의 실천적 역할만이 강조되고 문학작품 이 지켜야 할 예술적 근거를 스스로 버리는 과오를 빚게 되

기도 했다.

안막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초까지 「프로 예술의 형식문제」「막스주의 예술 비평의 기준」, 「조직과 문학」, 「조선 프로 예술가의 당면의 긴급한 임무」, 「조선 프로 예술가의 당면의 긴급한 임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운동 약사」, 「1932년 문학활동 제과제」, 「창작 방법 문제의 재토의를 위하여」, 「중국 문학론」, 「문예지 부진, 편집 방침의 재토의를 위하여」, 「문예시평 담의」 등 카프 문예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평론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안막은 해방 이후 카프계열 작가들과 함께 월북하였는데, 당대를 풍미했던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는 안막의 부인이기도 하다. 안막의 본명은 안필승이고 필명으로 추백을 쓰기도 했는데, 안국선의 아들이며 같이 카프문학을 했던 동갑내기 안회남의 본명도 안필승이고 보면 그들은 참으로 기이한 운명의 소유자들라고 할 수 있다.

안막이 북한에 올라가서 쓴 시 한 편을 소개한다.

마을 뒷산에
백년이나 살았을
복사나무

눈먼 폭탄이
허리에 떨어져
복사나무 불에 탔건만

그 나무가지에
꽃이 피었다 꽃이
불속에서도
죽지 않는
이 나라의 억센 붉은 꽃아……

—「복사나무」, 『문학예술』 1951년 7월호, '북한의 대표적 서정시'에서

삶이 시였고, 시가 삶이었던 시인- 박두진을 찾아서

시인 박두진(朴斗鎭)은 1916년 3월 10일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남리 마하골에서 태어났다. 박두진은 1939년 5월 정지용 시인에 의해 『문장』지에 「향현」, 「묘지송」, 「낙엽송」, 「의」, 「들국화」 등의 작품이 추천되어 시인으로 등단하였다.

박두진 시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청록파 시인이라 하는데, 이는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1946년 시집 『청록집』을 함께 펴낸 연유 때문이다.

박두진을 시단에 내보낸 정지용의 당시 평에 의하면 "박두진의 새로운 자연의 발견은 삼림에서 풍기는 식물성의 체취를 풍겨 어떤 법열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경지를 보여준다"라고 한 것은 장차 박두진의 문학과 삶을 지켜주는 신성한 생명력 같은 것이었다.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 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뻐꾹기……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날이 그리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찌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릴 날이 고운 나의 사람. 날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맑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날이 그리운 나의 사람.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꾹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청산도」


박두진

박두진이 일제 식민지 암흑기에서 「해」, 「묘지송」, 「향연」 등 자연을 예찬하며 노래한 것은 자연과의 친화 속에서 미지의 이상향으로서의 새로운 나라를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 외피에 드러난 시어만으로는 그의 초기 시작품들을 관념적 추상의 세계로 좁혀 읽을 수도 있겠으나, 박두진의 관념은 삶에 근원에 뿌리를 둔 실존적 관념이었다.

"아랫도리 다박솔 깔린 산 넘어 큰 산 그 넘어 산 안 보이어,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고" 그러나 "산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냐"는 그 청산은 우리가 빼앗긴 산하의 아픈 마음이었을 것이다.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꿈틀거리며 생동하는 현실 속에서 대지의 역동성을, 원초적 생명력을 노래하는 그의 시세계를 '청록파'로 일괄 분류하는 것은 교과서적 편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박두진 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닐 것이다.

내게로 오너라. 어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 불이 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푸른 동산, 난만한 꽃밭이 타고,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울며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이리들이 으르댄다. 양떼가 무찔린다. 이리들이 으르대며, 이리가 이리도 더불어 씨운다. 살점 들을 물어 뗀다. 피가 흘른다. 서로 죽이며 작고 서로 죽는다.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싸우다가, 이리는 이리로 더불어 멸하리라.

처참한 밤이다. 그러나 하늘엔 별 – 별들이 남아 있다. 날마다 아직은 해도 돋는다. 어서 오너라. ……황폐한 땅을 새로 파 이루고, 너와 나와 씨앗을 뿌리자. 다시 푸른 산을 이루자. 붉은 꽃밭을 이루자.

정정한 푸른 장생목도 심그고, 한철 났다 스러지는 일년초도 심그자. 잣나무, 오얏, 복숭아도 심그고, 들장미, 석죽, 산국화도 심그자. 싹이 나서 자라면, 이어, 붉은 꽃들이 피리니……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 새가 날아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떼가 날아들면, 너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섧게 흩어졌던 이웃들이 돌아오면, 너는 아아 그때 나와 얼마나 즐거우랴.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아래 난만한 꽃밭에서, 꽃밭에서, 너는, 나와, 마주, 춤을 추며 즐기자.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자. 울며 즐기자…… 어서 오너라……

—「푸른 하늘 아래」

박두진에게 시는 곧 삶이었고, 그의 삶이 곧 시였다.

생애의 도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일제시대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여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이룬 그의 예술과 학문은 외경에 가깝다. 선인들이 글을 가질 때 늘 염두에 두었던 '글은 곧 사람이다' 라는 명제는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일생을 보낸 박두진에게 잘 부합되는 말이다.

박두진과 함께 살아간 당대의 많은 시인들이 현실에 영합하여 굴절된 삶 속에서 교언영색의 잘 빚어진 아름다운 시를 썼을지는 모르겠으나 박두진 시세계가 도달한 궁극의 구경에 어찌 닿을 수 있으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였던 6.25 전쟁을 통해서 시인이 오랜날 묵시록의 기도 속에 확인한 것은 사랑이었다.

피흘림 속에서도 하늘엔 아직 푸른 별들이 남아 있고 황폐한 땅의 씨앗을 움트게 한 해가 떠오르고 '새로 푸른 동산에 금빛 새가 날아오고, 붉은 꽃밭에 나비 꿀벌떼가 날아들면……섧게 흩어졌던 이웃들이 돌아오면……푸른 하늘 아래 난만한 꽃밭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즐기자. 울며 즐기자.' 어떤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절대사의 지극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비극적 서정에 시의 육신을 조용히 의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젊은 날 떠오르는 해에서 뜨거운 세계를 갈구했듯, 뒷날 박두진은 또 별들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오래오래 잊고 살았던 어린 날의 고향을 수시로 찾아가곤 했다.

바람에 쓸려가는 밤하늘 구름 사이
저렇게도 파릇한 별들의 뿌림이여

누워서 반듯이 바라보는
내 바로 가슴 내 바로 심장 바로 눈동자에 맞닿은
너무 맑고 초롱한 그 중 하나 별이여
그 삼빡이는 물기어림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려 하지만
무심하게 혼자 누워 바라만 보려 하지만
오래오래 잊어버렸던 어린적의 옛날
소년쩍 그 먼 별들의 되살아옴이여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있으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 없는 시름
죽음일지 이별일지 알 수 없는 시름
쓸쓸함도 몸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의 다시 솟는 가슴 맑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울고 싶음이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소리지름이어
—「별밭에 누워」

그는 참으로 의로운 시인이었다. 시인은 그의 의로움 때문에 또한 외로움도 많았을 것이다. 소년적 그 먼 별밭들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면 글썽거려 가슴에 와서 솟구치는 시름/ 외로움일지 서러움일지 분간 없는 시름." 저 외로움과 서러움이 박두진을 더 의롭게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고난을 당할 때 박두진은 시인으로서, 때로는 뜨거운 논객으로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글을 많이 남겼다. 그의 시는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서 읽어도 서늘하다.

박두진은 참역사 옳은 역사의 광장에 늘 시와 함께 있었다. 예술이 옳은 역사의 편에 서지 못할 때, 예술이 참역사의 길을 포기하려 할 때 그의 시는 단호했다.

문학이 부패한 정치에 종속될 때, 문학이 부패한 정치와 검은 유착의 고리를 가질 때, 박두진은 예술원 회원 가입도 마다한 그런 시인이었다.

한국문학사에서 박두진 같은 의로운 시인 하나를 갖는 것은 후학들에겐 영광이면서 또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남을 것이다.

어느 때는 불타는 해로, 어느 때는 푸른 벌밭으로, 어느 때는 자유의 깃발로, 빛으로, 어느 때는 겨울 나무의 고독으로, 또 어느 때는 절벽이 절벽끼리 매달려 서 있는 곳에 그의 시는 학처럼 고결하게 정좌해 있다.

그러나 시인도 고향 앞에서는 수줍음 많이 타는 영원한 소년이었다.

남으로 별을 받는/ 서재 바로 창 밖에,//
옮겨다 심은 소나무 한 그루/ 늠름하고 청초해라.//
고향 산, 저 차령산맥,/ 청룡산 그 맑은 정기,//
우릉우릉 끓는 햇발/ 산의 얼의 용솟음.//
달의 별빛, 별의 달빛/은빛으로 빨아 당겨,//
소나무 너 언제까지/ 홀로 청청하거라.

—「남으로 별을 받는」

젊은 날 '말갛게 씻은 일굴 고운 해가 떠오르면 묵중히 잎드린 산' 이었던 어린 날들의 크신 산이었던 청룡산에게, 그리고 차령산맥에게도 시인은 빌었을 것이다. 늘푸른 소나무의 이름을 빌려 또 빌었을 것이다. 백년 후에도, 천년 억겁의 세월에도 저 별빛처럼 달빛처럼 고향은 정다운 곳이어야 한다고, 어머니 따스한 품 속 옛마을 첫사랑처럼 그냥 그 자리에 계시라고 노시인은 기구했던 것이다.

붉은 부리 파랑날개 하얀 앞가슴
산의 샌지 바다의 샌지 알 수 없는 새여.
해가 뜰 때는 햇살의 선율
해가 질 때는 노을빛 선율로 혼자서 우는 새여.
어느새 왔다가 어느새 가는지 알 수 없는 새여.
모처럼만에 개였던 하늘에 진눈깨비 천둥,
이상한 침묵 이상한 불안의 피로 번지는 꿈,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있을까, 보고 싶은 새여.
붉은 부리 파랑날개 하얀 앞가슴 너.
높게 높게 새파란 하늘로 내게로 와 다오.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넋에 선뜻 불질러,
영원 영원히, 불탈 수 있게, 돌아와다오 새여.
—「파랑날개 새」

'당신의 크나큰 사랑' 앞에서 시인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 '당신의 가없는 빛' 앞에서 시인은 끝내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누운 목마른 존재인가.

시인 박두진은 1998년 9월 18일 뜨거운 햇덩이 속으로 별의 나라 푸른 넋으로 돌아갔다. '곱디 고운 꽃이 되어 흔들리고 싶었던' 시인은 '꽃과 별, 별과 꽃의 하나로의 부둥킴' 으로 승천하였다. '붉은 부리 파랑날개 하얀 앞가슴 새' 의 자유였던 시인은 높게 높게 새파란 하늘로 비상하여 시인이 그리던 새 하늘 새 땅의 영원한 노래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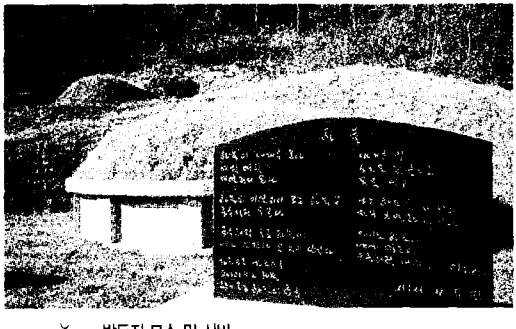
혜산 박두진의 묘소는 보개면 기좌리에 있고, 묘소 앞의 시비에는 시인의 평생 화두였고 박두진 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절대 고독의 시편 「하늘」이 새겨져 시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럿 여럿
머얼리서 온다

하늘은 머얼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박두진 묘소 및 시비
보개면 기좌리

소미어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별
초가을 햇볕으론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늦금처럼 내 마음이 익는다
—「하 늘」

「고독한 시의 나그네」- 조병화를 찾아서

시인 조병화는 1921년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사범학교에서 이과를 수학하여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조병화가 시인으로 등단한 것은 1949년 그의 처녀시집인 『버리고 싶은 유산』을 발간하고서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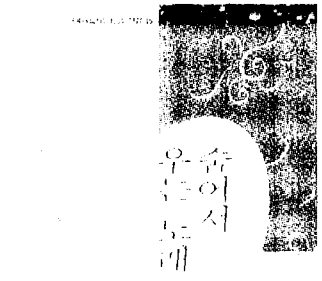
그는 두번째 시집인 『하루만의 위안』을 발행했던 1950년 이후 1999년 현재 제 45 시집인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을 발간하기까지 그칠 줄 모르는 넘치는 정열로 시의 고독한 나그네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지금은 누구던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온 생명은 모두 흘러가는 데 있고
흘러가는 한 줄기 속에
나도 또 하나 작은
비둘기 가슴을 비벼대며 밀려가야만 한다
눈을 감으면
나와 가까운 어느 자리에
싸리꽃이 마구 핀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에 누워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있어 나는 살고
그날을 위하여 바쳐온 마지막 내 소리를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 잊어버려야만 한다
오고가는 먼 길가에서
인사 없이 헤어진 시방은 누구인가
그 사람으로 잊어버려야만 한다.
—「하루만의 위안」

시인의 고독한 나그네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반복구의 진술은 나그네인 시인의 집착을 버리기 위한 다짐으로서 인간의 존재는 언제나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무소유를 강조한다. 흘러가는 나그네에게는 정착지가 없듯이 고정된 소유물도 없다. 그래서 '잊어버려야만 한다'는 시어는 잊을 수 없는 필연의 사람들까지도 낯선 타인처럼 잊어버려서 늘 새로운 삶을 영위하자는 시인의 소망이 들어 있을 것이다.

운수행각의 떠돎 속에서, 잊음과 잊혀짐의 무수한 반복 속에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루만의 위안은 천년의 위안이 되고도 남으리라.



조병화 작품집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목
아름다운 손목
서로 다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면서니
인생이 그러하거니와
세상에 와서 알아야 할 일은
'떠나는 일' 일세

실로 스스로의 쓸쓸한 투정이었으며
스스로의 쓸쓸한 노래였으나

작별을 하는 절차를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사세
작별을 하는 말을 배우며 사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정, 아름다운 말

두고 가는 것을 배우며 사세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사세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아! 우리 서로 미지막 할
말을 배우며 사세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시인의 고독한 여행은 여기에 이르러서도 헤어지는 연습과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숙명을 노래한다. 살아 있는 동안의 아름다움이 사랑이 곡진한다 해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작별이라니…… .

시인의 예지가 빛나던 「가슴의 램프」가 또한 그렇게 쓸쓸하였을까. 차마 못다한 사랑을 남겨두어서 시인은 두고 가는 것을 배우라고 나즈막한 소리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인생은 인간들의 옛집 / 아! 우리 서로 마지막 할 / 말을 배우며 사세.' 우리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모든 만남은 작별의 시간이 있음으로서 그 인연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헤어지고 떠나는 것은 삶의 회자정리를 통한 더 큰 만남을 위하여 소용되는 아픔이 아니겠는가.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 생명을 만드는 쉬임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오면 /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벗에게 다시 하는 말이 /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해마다 봄이 오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는 그는 누구일까? 해마다 봄

이 되면 그분은 또 당부하신다. 항상 봄처럼 부지런하고 꿈을 잃지 말고 늘 새로우라고 재삼 부탁하신다. 시인의 어린 시절 절대고독의 신이신 '그분'이거나, 아니면 시인은 늘 염려하며 보살펴주던 부모님이신 '그분'의 말을 빌려 이제 시인은 뒷사람들에게 새로운 봄의 참의미를 잔잔히 일깨워주고 있다.

돌아오고들 있습니다/ 훨훨 손털고/ 빈 손으로 돌아오고들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뿔뿔히/ 겨울에 떠났던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고들 있습니다//

구름 밖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수초 가에서/ 먼 봉우리 고갯길에서/ 먼 바닷가에서/ 도달치 못한 소망의 종점에서/ 상한 가슴으로/ 소리 없는 생각으로 내가, 다시/ 텅 빈 내게로/ 돌아오고들 있습니다//

떠날 때 품었던 거/ 풀지 못하고//

떠날 때 찾으려던 거/ 찾지 못하고/ 떠날 때 그리던 거/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이 흙으로//

가을 이 귀향/ 깔린 햇살/ 묵묵히/ 여기저기서/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고들 있습니다//

이제 버려야지요/ 피곤합니다//

이 가을엔 버리며, 버리며/ 돌아온 나와 내가/ 다시 떠날 겨울 채비/ 그 가벼운 여정을 추려야지요//

그 흰자욱.

—「가을 편지」

겨울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몹시 바람이 세차던 가파른 고갯길 너머 끝내 도달하지 못한 종점을 떠나 가을날 돌아오고 있다. 고독한 나그네의 꿈이 너무도 깊었기에 '떠날 때 품었던 거 / 풀지 못하고 / 떠날 때 찾으려던 거 / 찾지 못하고 / 떠날 때 그리던 거 /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다. 시인은 젊은 날 가숙(假宿)의 시간이 아니라, 어느 먼 원숙(原宿)의 공간으로 돌아갔다.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에서 1921년 조두원의 5남으로 태어난 그 마을이 시인이 고적한 원숙의 세계로 귀소하는 도정 중 하나였으리라.

고향에 와서 무슨 말이 있으리

먼 조상들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희노애락같이 사시며 우릴 키운 곳

자연과 세월이 바뀐들
흙이야 바뀌리

아, 이 흙이 나의 살, 나의 피,
나의 뼈, 나의 얼이로다.
—「난실리, 내 고향」

난실리에 가면 고독한 시의 나그네 조병화를 만날 수 있다. 몇 년전 난실리가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시인의 자택과 '편운동산'이라는 시인의 도서관 겸 서재가 있다. 그는 또 한국시인협회상, 서울시 문화상, 예술원상, 한국문학대상, 한국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명동의 예술가–작가 이봉구를 찾아서

1916년 안성군 안성읍 대촌동에서 태어난 이봉구는 안성보통학교를 거쳐 중동학교를 중퇴하여 1934년 중앙일보에 단편 「출발」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38년에 김광균, 오장환, 서정주 등과 함께 『시인부락』, 『자오선』 동인으로 활동했다.

이봉구 작품의 배경은 거의 다 명동의 다방이나 선술집, 주점에서 전개된다. 당대의 내노라 하는 실명의 예술가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애환을 소설 속에 살려놓았다. 이런 류의 여러 실명소설에서 작가 이봉구 자신은 화자의 역할만 충실히 하고 주인공인 시인, 소설가들의 조금은 특별한 삶을 보통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전해준다.

"소월이 살았더라면……"
해방이 되자 김광균의 입에선 늘 소월 이야기가 나왔다.
그도록 그는 소월을 좋아했고 소월의 죽음을 서러워했다.

"언제 죽었더라?"

"10년이 넘었어."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 누가 세월을 유수와 같다고 했더라, 정말 어이가 없게끔 세월은 살같이 달아났다고 서로 눈만 크게 떴다.

'삼수갑산 내 왜 왔노' 만 연거푸 부르다가 아편을 먹고 소월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술잔을 놓을 적마다 소월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어디서 죽었더라?"

"산 입술도 없는 벽촌 남시라는 산골에서."

고독이 정말 어떻게 무섭고 서러운 것인지 소월만이 알고 세상을 떠난 것만 같아 그 무렵 우리는 웃기를 가다듬었다. 식구 몰래 아편을 먹고 죽어 간 김소월을 해방된 하늘 아래 주점에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소중한 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광균은 술이 취하면 눈을 스르르 감고 금시 눈물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표정으로 '삼수갑산'을 뜨내기 목소리로 불렀다.

서른세 살을 일기로 해방되기 10년을 앞서서 그리움과 외로움에 지쳐 우리 김소월은 떠나간 것이다.

김광균은 잡지 『민성』에 「소월의 생애」라는 장문의 추모문을 쓴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남시라는 전등 없는 벽촌은 소월에게 있어 삼수갑산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였다.

분단 전후를 가운데서 그 무렵 김소월을 가장 이해하고 아까와하는 데서 서러워한 사람은 시인 김광균이었다.

좀 뒤에 오장환이 잡지 『신천지』에 소월론을 썼지만 이때는 벌써 오장환의 머리가 본 뒤의 일이라 노트에 소월의 모습을 상처나게 하였다.

추모회를 열자고 만나면 떠들어댔으나 해방 직후라 모두 얼떨떨하고 바빠서 기분만 내다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스크랩북을 보면 소월이 죽은 1934년 이듬해 겨울 서울에서 그의 1주기 겸 추모회가 12월 24일 오후 5시 종로 관철동 백합원에서 열려 40여 명의 문단인들이 모여 그를 추모하는 시낭독이 있었다.

회비는 그때 돈 50전이고 발기인은 김기림, 김동인, 김동환, 김억, 유도순, 박종화, 박팔양,

정지용이었다.

해방 이듬해 가을 추석도 지난 어느날 소슬한 바람 속에 모시 홑단 두루마기를 입고 명동에 나타난 문학청년이 있었다.

"시골서 왔습니다."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올리는 이 문학청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알 필요도 없게끔 그 무렵 명동 거리엔 이채로운 시골 문학청년들의 순진하고도 초조한 얼굴들이 클로즈업되었다.

"문학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돈을 좀 장만해가지고 비장한 결의 아래 상경한 사람이니 푸대접을 하지 말아 달라고 술을 강제로 사는 것이었다.

"시골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죽는 날까지 문단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한번 올라왔습니다."

말마다 비장한 울분의 고백이었다.

"서울에 온다고 문학이 됩니까."

입빠른 친구가 술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나 제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썼다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썩어버릴 수밖에. 첫째 선배들을 많이 알아야 작품 발표의 기회를 얻잖습니까."

지당한 그의 하소연이었다.

"뭐요?"

대체 소설이냐, 시냐,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이냐고 물으면

"시지요, 소월이 같은 시를 써볼 작정입니다."

"소월이 같은 시!"

"네."

거침없이 서슴치 않고 그는 대답을 하고 나서

"소월이도 저처럼 시골구석에서 고독했지요, 임만 그리워하며 목메어 불렀지요."

자기 자신을 소월에다 비기는 엄청난 시골 문학청년이었다.

"뜻이 장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소금을 뿌려 군 아지를 안주 삼아 추켜 세우자

"글쎄올시다. 제 시를 알아줄 사람이 어디 몇 사람 있을 상싶잖아서여."

점점 어이없는 말을 토하는 것이었다.

"고향은."

"전라도요."

"먼 곳이로군요."

"지척도 천리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고향이 전라도라는데 사투리가 없어 우리는 신기했다.

"사투리가 없군요."

놀랍다고 하자,

"태어나기는 전라도 땅이지만 서울에서 자라나다시피 해서 서울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기분을 돋구기도 하였다.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넘어도 입고 왔다는 모시 홑단 두루마기를 그대로 입고 명동 거리 대폿집에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들어 아는체하였다.

"옷은 단벌뿐이요?"

팔이 짧아 후줄근해진 두루마기 자락을 보고 물었을 때

"소월이가 좋아했다는 모시 두루마기라 저도 입어 보는건데 이렇게 객지에 떠돌아 이 꼴이 되었습니다."

대포 서너 잔에 취하고 나면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가네
오다 가다 약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둡네
—「주점의 김소월」

모시 두루마기의 문학청년은 애수 서린 목청으로 술집 손님들을 반하게 하였다. 돈이 떨어져 자금을 조달키 위해 고향을 내려갔다 온다고 그 어느날 작별인사를 하고 떠난 후 그는 눈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소식이 묘연했다.

소월 때문에 해방 직후 명동 거리 주점엔 이런 이야기가 꽃피우고 삼수갑산의 창이 무심한 행인들의 귓전을 울렸는가 하면 모시 홑단 두루마기를 떨쳐 입고 상경한 서글픈

문학청년도 그 무렵 있었다.

김소월 추억담인 이 짧은 이야기 속에도 김광균, 노장환, 김동인, 김억, 박종화, 정지용, 박팔양 등이 등장하고, 그들의 언사가 정겹게 드러나고 있다.

1983년 작고한 이봉구는 창작집으로 『명동비 내리다』, 『명동 이십년』, 『도정』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 『서울의 연인』, 『인생신록』, 『여수』 등이 있다.

이봉구의 묘소는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다. 그리고 안성시 공원에 작가를 기리는 이봉구 문학비가 있다.

「언어의 政府」 - 고은을 찾아서

소설가 이문구는 고은을 한 시대, 문화의 집대성이라고 일컬으면서 '파옹(波翁)은 안성땅 마정리에 있는 한 숲속의 시옹(詩翁)' 이란 칭호 이외 달리 부를 무슨 이름이 또 있겠느냐고 물은 적 있다.

그러나 고은은 마정리 숲속의 신선한 새벽 서정에 취하였으되 한가로이 시를 농할 틈이 없어 문장 속에서 삼천리 국토를 종횡무진해야 했다.

그가 이 땅의 참담한 역사를 관념이 아니라 온몸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현실의 화두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 박혀서 /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고 단도직입적으로 발언한다.

그렇다, 소멸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제 몸을 불살라서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화중생련(火中生蓮)의 아픈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0세기 한국 문학사는 시인 고은의 존재만으로도 풍요롭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그가 걸어온 문학과 삶의 내력이 한국 현대사와 아프게 맞물려서 그는 이 땅에서 운명적으로 시인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고은은 시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시로 말미암아 이 땅 격동의 현대사는 시라는 이름의 고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시인은 시인이기 전에 수많은 날을 울어야 합니다.

시인은 세살 때 이미

남을 위하여 울어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순결입니다 어루만져야 합니다
아픈 이
슬픈 이
기나긴 이에게서 제발 손 떼지 말아야 합니다
고르지 못한 세상
시인은 불행한 이 하나하나의 친족입니다

시인은 결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민중의 온갖 직관입니다

마침내 시인은 시 없이 죽어 시로 태어납니다
즈믄 날 밤하늘의 거짓 없는 별입니다
--「시인」

한 시대의 시인은 불행한 이웃 사람들의 다정한 벗이며 어둠을 밝히는 예언자임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시인은 시인이기 전에 수많은 날을 홀로 울어야만 해서 아직 서너살 때의 천진한 울음소리로 세계를 열망할 때 그 세계야말로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두손 모아 학수고대하는 용화세계였으리라.

그리하여 시인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인은 시 없이도 죽어서 다시 전혀 새로운 시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시인의 민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실천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1970년대 유신 긴급조치시대 이후 탐미주의적 추상을 불길 속에 던져버리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결성 주도했던 고은은 시인이 소용없는 시대의 시 자체였다. 그의 시는 독재 권력에 예속된 몽롱한 정신의 무정부시대, 시의 거룩한 정부였던 것이다.

그의 '한번 날아가선 과녁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는 비장한 서원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정수리를 관통하는 정의의 화살이었던 셈이다. 당시 유신 체제를 찬양하고 호국 문예를 주도했던 대다수의 반공 어용문인들에게 고은의 문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과격한 좌경이나 금기 따위로 불온시되었었다.

우리는 유사 이래 / 하늘보다 / 황토 위에서 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를 / 이와 반대로 써 왔습니다
민중이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 날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든 쇠스랑 박고 바라보면 / 재 너머로 넘어가는
끝없는 황토길이 우리 절경입니다
저만치서 / 말없이 살고 있는 / 아버지 황토무덤이 우리 절경입니다
우리가 먹을 황토 있는 한 / 상여 떠나 / 우리가 송두리째 묻힐 황토 있는 한
한 삽으로 가득 뜬 황토 들어올려서 / 아메리카여 시베리아여
우리는 여기에 진리 있습니다
—「 황토 」

그는 시인을 '고르지 못한 세상' 의 버림받은 사람들의 피붙이 친족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시인' 이 역사와 연대함으로서 거듭나는 공동선의 존재라면 '황토' 에 이르러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참다운 슬픔의 경계 속에 새날이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곳에 시인의 장엄한 비극미가 있다. 그렇게 그는 민족통일문학의 새 단초를 조심스럽게 열어갔다.


고은

아득한 '재너머로 넘어가는 끝없는 황토길이 우리 절경' 이며 그리하여 '아버지 황토무덤' 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옛 단군 할아버지적부터 숭상해마지 않았던 백의민족의 원형이 되고 시적 직관의 통일론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 넋이라도 '묻힐 황토 있는 한' 이데올로기 따위 뛰어넘어 분단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사 이래 비로소 황토 위에서 참되었다'는 미망을 깨는 참된 죽비소리도 동시에 듣는다.

재돈이 어머니가요
방아달 큰논배미 모 심으니
밥 먹으러 꼭 오라기에
점심때 맞춰 염치없이 나갔지요
그랬더니 일꾼들하고
일꾼네 아이들하고
저 건너밭에 나온 아낙까지도
어서 와 어서 와 불러다가
모두모두
논두렁 한 마당 밥 먹었지요
먼 산도 하늘도 와 함께
고봉밥 한 그릇 다 먹었지요
—「들밥」

물론 고은의 고향은 안성이 아니다. 고은은 1933년 8월 1일 전북 옥구군 미면 미룡리 138번지 용둔부락에서 태어났다. 1952년 불문에 입도하여 일초라는 법명으로 정진수도하던 중 195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다가 1962년 환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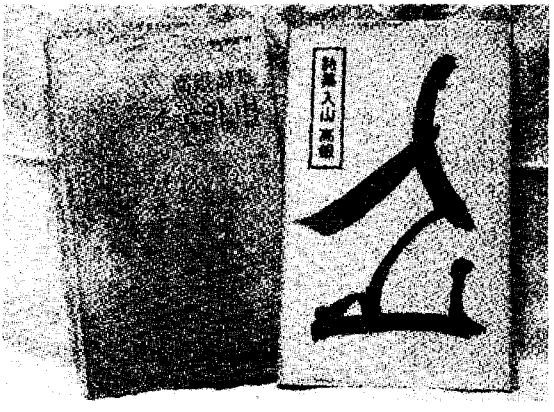
고은은 1960년대 내내 허무의 바다를 유영하며 몇번인가의 자살체험을 갖는다. 그러나 1970년대 유신이라는 악령은 그를 허무의 바다에서 화엄의 땅으로 전이하는 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 민중 항쟁때 체포되어 1심 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1982년 8.15 특사로 사면 석방되기까지 그는 독거수 감옥 안에서 우리 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어 대하실록서사시 『만인보』 집필 구상을 하였다.

감옥 안에서 건강을 많이 해친 고은은 1983년 5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로 주거지를 옮겨 장광설의 유장한 노래들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마정리 어디 외진 논배미

에 모를 내는 날 재돈이 어머니가 내온 새참 들밥 정경이 삼삼하다. 아아, 논두렁에서 먹는 고봉밥은 얼마나 맛나던가. 모내는 농민들이나 이웃 건너밭 아낙네나, 그리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길손이 함께 나누는 논두렁 들밥 속에서는 아름답고 미더운 한겨레 통일공동체가 이미 이룩되고 있다.

「안성장 할머니 몇 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은 작품집

안성장 닷새장 서면 /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나와 앉아 계시옵지요
얼굴은 요순시절 그대로인데 / 그게 아니옵지요
천연덕스러이 / 논마을을 밭마을이라 척 속일 줄 아시옵지요
아침나절에는 / 벌써 몇접 팔고 나서도
맨 마수걸이라고 / 한 접 떠넘기시옵지요
저녁나절은 / 떨이다하고
넘기고 나서 / 또 한 접 받아다가 / 떨이다 하옵지요
허허허 일흔 여든 이런 할머니한테 / 잠깐 속아넘어가는 하루도 있어야 하옵지요
그러고 보니 돌아오는 길 / 무궁화를 부용꽃으로 잘못 본 바
이것도 오랜 무궁화께서 / 이 미련한 사내 하나 속이신 것이옵지요
-「안성장 할머니 몇 분」

안성장날 할머니들이 난전에 펼쳐놓은 마늘이나 푸성귀 푸른 잎새 속에서, 시인은 우리나라 착한 어머니들의 마음을 찾아내어 그까짓거 한번쯤, 아니 수천번 속아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 말한다.

그리하여 안성장날 닷새장은 시인이 진작 노래한 바 있는 '황토 위에서 참되었다'는

깊은 속내와도 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먼 산들을 좋아하지 말자/ 먼 산에는 거짓이 많다/ 시인이여/ 이제 먼 산들을 좋아하지 말자/ 우리나라의 씨짐승인 시인이여/ 좀더 가까운 변단 곁은 늘도/ 캐다본 땅거미 속으로/ 우리에게 맡아야 할 재난이 또 오고 있다/ 이제까지의 오랜 오욕으로/ 어리석음으로 기뻐한 것들이/ 먼 산들이 되어 저물고 있다/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차와 백운 서운산으로/ 천안의 작성 흑성산으로 저물고 있다/ 이어서 솔버덩의 청양 보령에서 장항제련소까지/ 하나의 긴 역사로 이어짐에/ 산맥이여 너 어찌 시인 하나 낳지 않겠느냐/ 온갖 거짓으로부터 뛰어나지 않겠느냐/ 시인이여/ 먼 산들을 좋아하지 말자/ 6 백리 산맥으로 이어지는 어둠조차/ 저 기나긴 어둠의 힘조차 알고 있다/ 우리에게 재난이 온다/ 우리에게 재난을 찬미할 때가 온다/ 그 어떤 사악한 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시인이여 이제 먼 산들을 좋아하지 말자/ 아무리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일지라도/ 흐르는 사이 마음 에어내는 안성천이/ 그 모든 서러이 독실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해 넘어간 이산만도/ 평택의 무덕 늘평만도 안다/ 재난 속에서 그때 나에게 무엇이 사이겠느냐/ 시인이여 먼 산으로부터 눈을 놓리자/ 마침내 시인이여 결단하자/ 너에게 올 초토를 거부하며 쓰러질 것을/ 너에게 올 또 하나의 악령을 타도하며 솟아날 것을/ 젊은 시인이여/ 우리나라 마지막 산사다야 시인이여/ 밤에는 어이할 수 없이 불빛인 시인이여/ 하나하나 엄연하게 불을 밝혀라/ 그리하여 먼 산들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지워버리자

–「차령산맥」

시인은 자전적 성격의 이편 글 말미에서 '조국의 산천이 나같은 사람까지도 시인으로 일하게 해준 이 기막힌 친은(親恩)은 아무리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근원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비와 이슬을 먹고 자라난 사람이고 이 땅에 내려쪼이는 햇빛을 받아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진대 과연 나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무한시편을 바쳐야 마땅할 것이다' 고 고백한 바 있다.

그리하여 시인은 '오렌 오욕으로 / 어리석음으로 기뻐한 것들이 / 먼산들이 되어 저물고 있다' 면서 먼산을 버리라고 소리친다. 서립도록 새벽을 향해 흐르는 어머니 강의 어둠을 재난을 우리가 결코 비켜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의 영원한 씨짐승인 시가,

시인이 어떻게 감히 저 고난들을, 광주의, 5월들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또 물었던 것이다. 먼 산의 추상들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불빛이어야 하는 시들, 활활 타는 불꽃이어야 하는 시인들의 가슴으로 오늘을 노래할 때만이 '재난을 찬미' 하지 않을 수 있고 '사악한 것' 들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길을 보면
나에게 부랴부랴 갈 데가 있다
신영리나 내리 마을을 보면
나에게 저 마을을 지나서 갈 데가 있다
그렇도다 마정리 에움길 하나에도
장호원 이백리 길도
나에게 그냥 잠들지 못하게 한다
길을 보면
나는 불가피하게 힘이 솟는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아라
저 끝에서 길이 나라가 된다
그 나라에 가야 한다
한평생의 추가령지구대
그 험한 길 오가는 겨레 속에
내가 살아 있다
남북 삼천리 모든 길
나는 가야 한다
기필코 하나인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나는 가야 한다



고은 작품집

나는 가야 한다
—「 길 」

'시인은 결코 저 혼자가 아니라고' 이미 스스로 밝혔거니와, 즉,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가야 할 길의 피치못할 운명에 관하여 부연하기를 '길을 보면 / 나에게 부랴부랴 갈 데가 있다' 고 한다. 그러나 시인은 길을 묻지 말라고 당부한다. 다만, 길은 마땅히 가야 할, 헤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큰 당위인 것이다. 한평생인 것이다.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길을 보면 그냥 힘이 솟구쳐서 일어설 수 있는 길. 슬픔이면서 기쁨이 되어주는 이 겨레의 '소원' 인 통일을 시인은 길에서 보았다. '기필코 하나인 나라에 이르는 길' 을 향한 대장정의 발자국들이 시 속에 영롱하다.

고은은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민예총 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기대학교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하버드 교환교수로 1999년 미국에 체류한 바도 있다. 시집에 『피안감성』, 『문의마을에 가서』, 『부활』, 『입단』, 『새벽길』, 『조국의 별』, 『고은 시전집』, 『백두산』, 『만인보』 외 『화엄경』 등 소설, 『이중섭 평전』 등 13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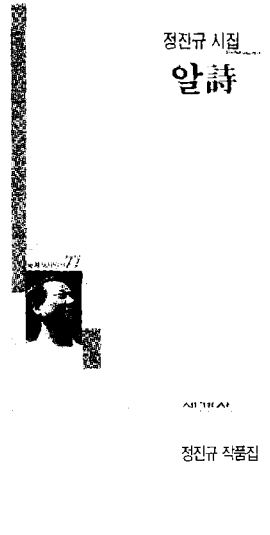
「가장 맑디맑게 물꼬를 터 주던 것은」 - 정진규를 찾아서

정진규는 어떤 시론의 행간에서 '시는 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적은 바 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시가 시를 기다리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댈 곳이 거기 있어 시라는 한 담화가 태어날 따름이라 믿는다' 고 시를 정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어떤 대상에게 기댄다는 것은 마음의 지극한 몸 한가운데를 따뜻하게 히락한다는 보시의 행위로 파악하여 그는 시를 쓰고 또한 한국현대시의 한 문법을 드러낸다.

새벵이, 모래무지, 미꾸라지, 구구락지, 얼게미, 고무활, 반패연, 잣치기, 말똥이, 옥천이, 기계총, 육무기, 쇠똥벌레, 비단벌레, 물방게, 땅개비, 구멧골, 구수머리, 낭우제, 도구머리, 읍내, 회다리, 쇠전거리, 사거리, 양조장, 농업학교, 향교, 천주교회, 면분당, 십덕포도원, 이발소집 셋째딸 김미자, 시거리 책방 허씨네 딸들, 신생보육원 영숙이, 우편 집배원 최종재, 탁구를 잘 치던 광선

이, 공부를 잘하던 코주부, 칠장사, 청룡사, 팔사당 바우덕이, 시인 임홍재, 내 고향의 말씀들

향기다
꽃이다
별빛이다
내 어머니의 자궁이다
지금은 또 어떤 말씀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되도록 시치미를 떼기로 한다
이 말씀의 별빛들 별빛들이
흐려질까 때묻을까 두려운 탓이다
가장 캄캄하고 캄캄할 때
어렵게 어렵게 나를 비춰 주던 것은
장리쌀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어 주던 것은
오직 이들이었다
이 말씀의 별빛들뿐이었다
가장 맑디맑게 물꼬를 터 주던 것은
—「가장 맑디맑게 물꼬를 터 주던 것은」



정진규는 1939년 안성군 미양면 보체리에서 태어나 보체초등학교와 안성중학교, 안성농고를 나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그는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나팔서정」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세상의 모든 시인들은 시인을 태어나게 해준 흙의 속마음을 우러러 고향의 아름다움을 천년처럼 노래해야만 했다. 그 길만이 시인의 숙명이었을 것이다.

시인은 지난날 유년시절 '말씀의 별빛들이 흐려질까 때묻을까 두려운 탓'에 아주 조심하면서 동정같은 옛 이름들을 불러본다. 새뱅이, 옥천이, 기계총, 구렛골, 봉우재, 회다리, 쇠전거리, 이발소집 셋째딸 김미자, 사거리 책방 딸들, 신생보육원 영숙이, 광성이, 칠장사, 청룡사, 시인 임홍재…… 얼마나 사무치는 이름들인가.

따지고 보면 저 그리운 이름들과 헤어진 보상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겨우 다다른 것은 아닌가. 그렇다. 「가장 밝디맑게 불꼬를 터 주던 것은」 다함 없는 말씀의 별빛들이 시인의 고향에 이머니처럼 영원히 머물고 있기 때문이리라.

칠장사 가보면 대웅전 뒤켠 한참을 비켜서서 비늘옷 부처은 늙은 소나무 아래 졸한 글씨로 낡은 현판 하나 이마에 달고 삐딱하게 기울고 있는 아주 작은, 너무 작아 사람들은 들어가 살 수가 없는 나한전 한 채가 있다 몸이 점점 작아져 아기처럼 웅크리고 있는 처음엔 부처님의 강패들이셨던 거한들이셨던 지금은 동자들이신 나한 열곱 분께서 그 작은 집 안에 살고 계시다 그 작은 집 안에는 요즈음 박하사탕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 박하사탕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다 놓아드린 박하사탕 봉지가 가득가득 넘치고 있다 박하 내음이 나는 어린이의 집 한 채가 있다 실은 세상에서 제일로 큰 절 한 채가 거기에 있다

—「알 10」, 『큰 절 한 채』

이죽면 칠장리에 가면 차령산맥의 한 줄기에 고졸한 현판이 세월을 쫓고 있는 칠장사가 있다. 7명의 악인이 부처의 감화를 받아 어진 사람이 되었다 하여 칠현산이라 불렀다 하는데, 바로 그 산허리에 고려조 혜소국사가 1308년 창건한 절이 칠장사다.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서 비승비속 갖바치가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다가 정착하여 임꺽정과 그의 수하들과 당시 부패한 사회를 탄식하기도 하여 대자대비한 부처의 말씀을 설한 곳이기도 한 명찰이기도 하다.

'늙은 소나무 아래 졸한 글씨로 낡은 현판 하나 이마에 달고 삐딱하게 기울고 있는 아주 작은' 나한전에 계신 동자님들이 박하사탕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시사철 박하내음이 환하게 나는 어린이의 작디작은 집이 칠장사다. 시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절 한 채가 보궁처럼 저만치 있어서 정진규 시의 아름다운 살을 붙여주셨으리라.

그동안 정진규는 시집으로 『마른 수수깡의 평화』, 『유한의 빗장』,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매달려 있음의 세상』, 『비어 있음의 충만을 위하여』, 『연필로 쓰기』, 『뼈에 대하여』,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몸 시』, 『알 시』 등을 상재했고 한국시인협회상, 월탄문학상, 현대시학 작품상 등을 시상했다.

현재, 그는 월간 『현대시학』 주간을 맡아 시로 지은 『큰절 한 채』를 지키고 있다.

세월이라는 이름의 「뿌리와 가지」를 찾아서 - 한천석

소설가 한천석은 1935년 안성군 서운면 오촌리에서 태어났다. 1963년 『소설계』에 단편 「빈정」이 추천되고 1970년 『월간문학』에 「물굽이 소리」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의 작품은 리얼리즘에 입각한 감정묘사와 토속적 농촌 정서를 적절히 배합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잃어버린 모성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서정적 문장으로 자연 도태되어 소리없이 와해되어가는 쓸쓸한 도정을 담담하게 그려나가는 1980년대 한국농촌의 풍경화는 한천석 산문이 거둔 우리 문학의 큰 수확이기도 하다.

산골짜기에는 달빛이 은하처럼 흘렀다. 바람도 잠이 든다. 참묵들이 짜부룩하게 덮어 올라간 산속에는 물간 듯한 적막이 깔렸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자리에서 불끈 일어나 앉았다. 주위가 어슴프레하였지만 역시 어둡다. 플래시를 켜서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열시 삼십분. 잠시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윽고 머리맡에서 담뱃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두툼한 텐트의 한쪽자락을 슬며시 들치고는 밖으로 나왔다.

산자락을 타내리는 교교한 달빛이 눈에 시리다. 그는 가슴을 쭉 펴고 두어번 크게 심호흡을 했다. 늦은봄의 야기가 청량하게 전신을 휘감아왔다. 열흘 전보다 한기가 훨씬 덜 느껴지는 밤이다.

고요히 잠든 산간 저수지에 잠시 홀린 듯 눈을 주었던 그는 잔디가 새파랗게 자라는 둑 위에 두다리를 죽 뻗고 앉았다. 담배를 피워물었다. 쌀랑한 밤의 대기 속으로 파르스름한 연기가 명주실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하염없이 앉아 있는 그는 멀리 내려다보이는 갈매울의 빨간 등불들을 눈어림해 보았다. 집이래야 조개껍데기 같은 초가가 스무남은 집 납작납작하게 엎드린 가난한 산촌이다.

이토록 궁벽한 산마을이었지만, 여기에 전혀 봐줄 것 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을 삼태기에 싸담듯이 타내려오는 임립한 월출산의 풍치도 일품이려니와 그 산골짜기에 거울처럼 박힌 직경 백여미터의 이 갈매울 저수지는 백번 눈씻고 봐도 똑떨어진 명소였다.

밤이 얼마쯤이나 더 깊었을까. 그는 천천히 마을의 등불에서 고개를 돌려 바로 사오미터 앞에

있는 방죽물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흑공단 같은 물속에는 창백한 달이 내려와 고요히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따금씩 뒤늦은 산란에 몸을 뒤채는 붕어가 첨벙 하고 수면을 가르면 세하얀 달빛은 마치 잔고기 비늘처럼 부서진다.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불끈 몸을 일으켜 텐트 속으로 들어가 반쯤 남아 있는 소주병과 무우 말랭이 그릇을 들고 나왔다. 병째 찔끔찔끔 마시고는, 카아 입맛을 다시면서 손가락으로 안주를 집었다. 그는 소주를 몇모금 더 마시고 나서는 그냥 뒤로 벌렁 까졌다.

"애, 달두 우라지게 밝다!"

벌써 구렛나룻이 시커멓게 자란 그의 길쭘한 얼굴 위로는 하얀 달빛이 쏴아 쏟아져내렸다.

그가 이 갈매울 저수지에 반해버린 것은 바로 일년 전이었다. 그때도 그는 출조하기에 앞서 '낚시터백과'라는 조그만 책자를 뒤졌다. 그때는 갈매울이 아니라 선풍저수지였다.

선풍저수지는 서울에서 사오백리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선풍읍에서는 4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원체 교통이 불편해서 비교적 대도시의 맹렬한 낚시꾼들에게는 덜 잘알려졌으리라는 짐작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가 한창 붕어들의 산란기였으므로 그는 구미가 당겼다. 그는 곧 조구를 챙겨가지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부풀었던 기대는 그가 선풍읍에 도착하기 무섭게 어이없이 무산돼버렸다. 여기에도 현대화 바람이 불었는가, 선풍저수지는 작년 가을부터 잉어를 방류한 양어장으로 변했다는 지방민의 말이었다. 수하를 막론하고 낚시는 전면 금지된다. 그는 짜릿한 낭패감과 피로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길'이라는 조그만 시골 다방에서 코오피 한잔으로 목을 적시고 나오던 그는, 그래도 끈적거리는 미련을 달래볼 겸 지나가는 한 오십대의 사내를 불러세웠다.

"저어,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선풍저수진 양어장이 됐다면서요?"

"글세, 그렇다드만요."

사내는 그의 울긋불긋한 낚시 복장에 눈을 주면서 멈칫거렸다. 그는 선뜻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한 대 권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럼 말씀입니다. 좀 먼데서 낚실 하러 왔는데,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는 뭣하구, 어디 좀 담궈볼 만한 덴 없나요?"

"글쎄유……"

은하수 한 개비를 받아 피우면서 자못 눈꼬리가 부드러워진 사내는,

"있긴 있죠만, 길이 좀 멀구만요. 읍에서 택실 대절하면 되지만, 갈매울이라구 예서도 한 이십 리는 더 들어가쥬. 지가 바루 그 갈매울 저수장 근처에 근처에 사는데유."

"아, 그러십니까?"

그는 얼른 모자를 벗고 인사를 나눴다. (중 략)

—「大魚」

농수로 쓰기 위하여 잠시 물을 가두어 둔 저수지의 밤풍경이 새하얀 달빛과 어울려서 수줍은 신부처럼 정답다. 마치 그리운 사람들이 합방을 고대하는 것처럼 산란기를 맞은 붕어떼의 움직임들이 적요를 끌어안으며 밤이 무르익은 저 공간은 농촌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우리가 버려야했던 어머니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대저 물이란 무엇이겠는가. 저를 저버려 수없이 흘러감으로써, 스스로 방류함으로써 물은 세월이라는 이름의 뿌리와 가지를 촉촉히 적셔주어 꽃을 피우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하여 일찍이 노자는 가장 착한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뒤에 오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리라.

한석천은 창작집으로 『꿈은 낮에 피다』,『가로등과 새』,『벙어리 매미』, 『흔들리는 상하』, 『선녀를 업어라』, 『실명씨의 땅』, 『뜨거운 감자』, 『원심을 파기합니다』 등이 있다. 그리고 중편 「뿌리와 가지」로 제 1 회 경기문학상을 수상했다.

『프로메테우스의 간』 - 공석하를 찾아서

1960년 『자유문학』지에 시 「노을」이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한 공석하는 1941년 안성군 서운면 신촌리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서운초등학교, 안법중고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시집으로 『상의 주문』, 『사물의 빛』, 『겨울 서정』 등을 간행한 바 있고 1960년대에 들어서는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적 사회현실에 천착하여 장편소설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부선 안성 인터체인지를 나와 안성방향으로 차를 돌리자, 나는 이상한 동요와 따스함이 마음에 서려드는 것을 느끼었다. 하늘은 쾌청했고, 확 트인 아스팔트길 위로 몇 대의 승용차가 4

월의 봄을 가득며 달리고 있었다. 엑셀레이터에 힘을 낮추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멀리 청룡산(일명 = 서운산) 기슭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따뜻하게 느끼어졌다. 길가에 피어 있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개한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공도를 지나는 길도 좀전에는 면사무소 앞을 통했던 것을 외곽도로를 따로 놓아 차는 한결 쉽게 빠지고 있었다. 나는 나즈막하게 휘파람을 불며, 엑셀레이터에 다시 힘을 가했다. 차가 중앙대학교를 지나 안성에 들어서자, 내가 다니던 중고등학교가 멀리 보였다. 옛날에는 초라했던 교사가, 새로 지어져 언덕 위에 솟은 모습이 보였다. 안성의 외곽도로를 지나 차를 천안과 진천 쪽으로 돌리었다. 거기에 안성군에 속하는 서운면이 있고, 청룡산 기슭에 청룡리라는 마을이 있다. 거기가 바로 내가 유년시절부터 초등학교시절까지 보낸 장소이다. 차가 서운면쪽으로 향하면서 바람마저 향기로워졌다. 이 길이 내가 걸어서 6년여 기간 다닌 길이다. 중·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안성읍내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서 다니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아스팔트도 안 깔리어 있었고, 자전거가 다니거나 군용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10㎞가 넘는 이 길을 당시 나는 꼬박 걸어서 다닌 것이다. 길 옆으로는 포도과수원이 줄을 이었고, 또한 안성공단 공업지대의 공장이 거대한 빌딩숲을 이루고 있었다.

차는 청룡산 줄기를 돌아 몇 개의 마을을 지나고, 고개를 넘고, 어느 옛 사람의 효성을 기념하는 정문을 지났다. 정문 옆으로 청룡산 기슭을 끼고 내가 6년간 다닌 초등학교 교정이 있다. 일요일이라 운동장에는 몇몇 아이들이 공차기를 하고 있었다. 교실 옆에서는 어린 계집애 몇이서 줄넘기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교실도 옛 모습 그대로였다. 내가 다닐 때는 일제시대 낡은 목조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벽대는 그대로 두고 지붕과 마루만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나의 유년의 기억이 배어 있는 곳이다. 여기서 나는 이혜경 선생을 만났고, 김홍구와 함께 생활했으며, 홍원석, 김기영 그리고 박순미, 이정애…… 그렇게 만났다. 그리고 여기서 6·25 전쟁을 겪었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國父)라고 배웠었고, 한때 공산치하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나는 여기서 사람에 눈뜨기도 했고, 미움에 몸서리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도 했고, 이별이 얼마나 큰 상처인가도 알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청룡산은 나의 유일한 위안처였다. 학교에서 꿀밤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나는 산에 가서 울었고, 이혜경 선생님이 떠났을 때도, 김홍구가 떠났을 때도 산에서 혼자 울었다. 그때마다 산은 나를 항시 일깨워 주었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 유년의 봄부터 이 글은 시작된다. (중 략)

—『프로메테우스의 간』 중에서

장편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불을 훔쳐 인간을 도운 죄로 평생을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혀야 하는 천형의 신이다.

이 소설은 안성을 고향으로 한 주인공들이 겪은 6.25 전쟁, 4.19 혁명과 5.16 군사 쿠테타,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을 잠시 통과하며 피눈물로 감내해야 하는 5.18 광주 민중항쟁과 이후 김대중 정부의 태동까지를 실록체로 서술하여 통한의 현대사를 증언하고 있다.

공석하는 작품집으로 『소설 이휘소』, 『거지 화가 최북』, 『공자를 찾아서』, 『참성단을 찾아서』 등을 발간하여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그는 덕성여자대학 사회교육원 교수로 재직중이고 계간 문예지 『뿌리』를 발간하고 있다.

「안성 장날」-임홍재를 찾아서

1. 유기전

끗발 좋던 안성유기가 / 스텐레스에 밀려

허름한 전 구석에 앉아 / 파리를 날리고 있다.//

진종일 기다려도/ 떠나간 허생원은 돌아오지 않고

동녹만 번진다.//

한파수에 열 두 벌씩 깎아도 / 동이 나서 미리 맞춰야 하던

전성시대는 가고//

진상할 님조차 없어 /쭈그리고 앉아

돌아오지 않는 장꾼을 기다린다.//

색시 고운 달무리 아래/ 남사당 춤바람에

풍물 울리던 님.//님들은 가고 돌아오지 않아도

홀로 장마당을 지키고 있다.

안성마춤 안성마춤/ 퍼렇게 녹난 이마 위에 비가 내린다.

2. 옹기전

안성장 장날마다/ 비가 내려도 / 옹기전으로 오라.
투가리 속에 된장은 끓지 않아도 / 장맛보다 구수한 흙냄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지러진 낮달 아래/ 익을 대로 익은 숫섹시가
뽀얀 분가루를 날리며/ 가슴을 여는 안성 유기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 장날이 오면 신바람 난다.
몇 피수만인가 이 사람아/ 토주에 목을 축이고
마음이 풍성한 얼굴들이 / 옹기전을 누비면
곶감처럼 익은 인정이 / 향독에 그득 넘친다.
옹기전으로 오라. / 옹기전으로 오라.
고만고만한 정을 지니고 / 고만고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 옹기전으로 오라.

3. 쇠전 마당

길마 벗는 날이/ 천당가는 날.//
그래서 장마당 소들이 저래/ 코뚜레를 부비며 울까.//
열두 달 머슴살아/ 간신히 붙든 어스레기조차
고리채에 밀려/ 끌려 나오고.//
진천, 음성, 충주, 죽산 등지에서 / 가난을 떠받치던 볼골들이
쇠전 마당에 와 매이면 / 왜 그리 장마다 비가 오는지……//
쇠전 다리 아래/ 울긋불긋 꽃불 켜지고
난장이 서면/ 하나 둘 소들은
천당행 표를 받고 / 저무는 영승재 고개를 넘는다.
—「안성 장날」

시인의 처녀시집이자 유고시집 되고 만 『청보리의 노래』에서 울먹이며 반문을 쓴 송수권 시인은 시인의 변고를 '이 땅의 한 저항적 순수가 가다' 라고 표현한 바 있다.

안성장날의 대명사이기도 한 놋그릇 유기와 투가리 옹기의 생애를 통하여 시인은 사라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장터 외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 돌아오지 않는 장꾼을 기다리' 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끌어내어 '고만고만한 정을 지니고 / 고만고만한 마음으로 /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고 사람들에게 권고하기도 한다. 시인이 죽어서도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운 시들은 끝내 사라질 수 없는 것인가 보다.

1942년 안성군 금광면 장죽리에서 태어난 임홍재는 안성농고를 거쳐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9년 『시조문학』지에 「토속 이미지 촌」으로 등단하였다. 또 그는 197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 시인으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하였으나 1979년 9월 26일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인의 묘소는 그가 태어난 향리 장죽리에 있고 유고시집으로 『청보리의 노래』가 있다.

「산허리에 몇 평의 그늘이」 - 한광구 시인을 찾아서

이 나라 광주산맥 끝머리 / 차령산맥을 마주보는 산허리에
하늘을 우러러 묵중하게 늘어선 조선소나무/ 모질고 서러운 삶 푸르게 견뎌왔네.
척박한 식민지 시절 가파른 삶의 비탈에 뿌리박고
총칼의 바람 어지럽게 불던 6.25 전쟁도 용케 견디어
가난을 이기자고/ 오직 땅으로 땅으로 깊이 깊이 뿌리내려
꿋꿋하게 하늘을 우러렀네.
휘어지고 / 옹느라진 허리 /꼿꼿이 펴고
그래도 묵향을 같아 /송진액을 흘리면서
하늘 뜻을 감지하는 지혜 하나로/ 비탈진 산허리에 몇 평의 그늘을 마련하고
해마다 송화가루 날리며 / 솔방울 떨어뜨리며
물려받은 내 나라 내 땅을 지키려는 / 옹골진 신념으로
새끼 낳고 키워온 조선소나무 / 조선소나무들 서 있는 산허리에
아버지, 내 아버지 푸르게 살아 계시네
—「아버지, 내 아버지」

한 소년이 외경처럼 우러러 보았을 차령산맥 산허리에 어찌 묵중한 조선소나무만 자라고 있었으랴. 참나무, 물푸레나무, 밤나무들 온갖 생명 가진 풋것들이 서로 공생하며 '모질고 서러운 삶' 푸르게 견뎌' 가파른 삶의 질곡을 묵묵히 헤쳐나가야 했을 것이다.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도 버거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하늘 뜻을 감지하는 지혜 하나로 / 비탈진 산허리에 몇 평의 그늘을 마련해야' 했으리라.

그렇다. 몇 평의 산허리 그늘 속에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 내내 무고하셨을 것이다.

그대, 우리가 나란히 누워 잠자리에 들면
검푸른 강물이 이렇게 흘러 드는구려.
젖어드는 강물에
설핏 설핏 스치우는 당신을
꿈결인가 확인하려 손을 뻗으면
당신은 잠결에 강물을 만지는구려.
그대, 어느새 모두 벗고 강물이 되었구려.
물살의 흐느낌에 그대 숨결 느끼며
설핏설핏 스치는 그대의 살을 만져보는구려
무엇을 새삼 말하려하오.
알 수 없는 말소리 아스라히 흐르고
그대,
그대,
어느새 깊고 푸른 이 강물에
우리들이 물거품처럼 흘러 가는구려.
—「강물이 되어」

시인은 그의 고향 일죽면 능국리를 흐르는 작은 실개천 속에서 삶의 깊고 푸른 강물을 무수히 목격했을 것이다.

한 번 흘러가서는 돌아오지 않아 서해 만조가 되었다가 다시 '살'이 되어 강물 속 침묵같은 '알 수 없는 말소리 아스라히 흐르는' 그대는 정녕 누구이신가. 그러나 깊고 푸

르른 강물을 흘러가는 물거품 속에서 소멸을 읽지 말라고, 시인이 새삼 당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광구는 1944년 안성군 일죽면 능국리에서 태어나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74년 『심상』지를 통해 문단에 등단하였고, 시집으로 『이 땅에 비오는 날은』, 『찾아가는 자의 노래』, 『상처를 위하여』, 『꿈꾸는 물』, 『서울처용』, 『깊고 푸른 중심』 등이 있고, 현재 추계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어미새의 노래」 - 김유신을 찾아서

1944년 안성군 보개면 동문리에서 태어난 시인 김유신은 안성농고를 나와 1975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와 동향선배이기도 한 혜산 박두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김유신은 안성을 지키면서 고향의 아름다움을 수채화처럼 담담히 노래하고 있다. 시집으로 『바람에 기대어』, 『칼과 씨앗』, 『꽃들의 잔치』, 『뿔』, 『산새와 일기』, 『청류재 봄뜰』, 『출렁이는 마음』, 『나는 안성 얼레지꽃』 등을 상재했다.

황토 맥칠한 논두렁에 / 콩나물콩이 송긋송긋 열지어 나오다.//
새벽이면 산비둘기 / 백로 두어마리 긴 목을 뽑아 먹이를 찾다.
꼬불꼬불 따비로 일궈놓은 / 우리네 주름진 논두렁
오랫동안 이어온 / 완벽한 선.//
베잠뱅이 적시며 물꼬 머리를 찾는/ 헛기침 속에 허기의
그 울림 / 휘파람새 꾀꼬리란 놈이 채워주는가.//
안개는 자욱 / 뙤약볕이 열리는
논두렁 물꼬머리.
—「학마을 노래」

학마을이라고 불리는 궁벽한 마을의 정경이 한눈에 쏘옥 들어오고 있다. '꼬불꼬불 따비로 일궈 놓은' 논두렁들이 어머니 주름진 얼굴처럼 인고의 세월을 살아 하나의 '완벽

한 선' 이 되고 자식도 낳고 다시 그 자손들이 장성하여 학마을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다.

시인은 농촌을 단순히 순수한 인정을 지키고 있는 자연 동경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흙의 진실이 철저히 외면되는 오늘의 농촌을 괴로워한다. 그러기에 그는 '물꼬머리를 찾는 헛기침 속에 허기의 그 울림' 이 못내 안쓰러워 휘파람새 꾀꼬리를 불러내어 답답한 농민 현실을 토로한다.

물론 김유신은 산비둘기나 백로 두어 마리가 날아와 지켜주는 새벽 논에서, 불화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크나큰 비나리같은 자연과의 친화를 꿈꾸기도 했을 것이다.

일찬이 지나고 우수가 가까우면 / 나의 가슴은 안달이 오른다
볕바른 나무 숲속을 강아지를 앞세우고 / 산비둘기 떼를 날리기도 하며
봄의 언덕을 살펴보게 되는 / 내 안에 꽃바람을 일으킨다
뜨겁게 달아오른 / 내 안의 뜰
봄맞이 찾아나선 / 나의 발길따라 어머니 손길이 사무쳐 온다
오늘 따라 서럽게 다가오는 것은 / 이승을 떠나가신 하얀 어머니 말씀
내가 죽거들랑 새가 되어 / 이 자식 저 자식 꽃핀 정원수에 찾아주시겠다는
꽃이 핀 나무에서 아름다운 노래 불러주마 하시던
오늘 볕바른 정원수 가지에 / 전지 가위질을 하며
어미새를 기다려지는 마음 / 어미새를 기다리는 자식들도
어느새 하얗게 탈색된 머릿결
오늘 봄바람에 휘날리는 / 한세월 바람결이여
어미새 노래 가락을 기다리는 / 봄 언덕에 서 있나니
—「봄 언덕에 어미새」

들림에 걸린 것인양 온몸이 들떠서 봄볕바른 숲속을 망연히 바라보거나 산비둘기떼에게 수심깊은 눈빛을 던져 푸드득 날아가게 하는 시인의 조바심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승을 떠나 지금은 아니 계신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 때문이다. '내가 죽거들랑 새가 되어 / 이 자식 저 자식 꽃핀 정원수에 찾아주시겠다는' 어머니 말씀 때문이다.

무릇 새들은 울음이 바로 그들의 길이었다. 새들은 앞서간 새의 긴 울음을 따라 일렬종대로, 횡대로 무리지어 길을 만든다. 또한 그 울음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시보다도 더 간절한 노래였을 것이다. 문득 시인은 봄 언덕에 기대어 어미새를 기다리며 새봄의 다복하신 설법을 듣고 싶었으리라. 김유신은 현재 향리 동문리에서 청류재 농원을 지키며 활발한 시작활동을 하고 있다.

「길은 마을에 닿는다」 - 김완하 시인을 찾아서

갑자기 겨울비 몰려와 / 무를 뽑아 묻는다
얼리지 않기 위해 / 알무우를 포개 흙을 덮는다
산다는 것은 버리는 것,
잔뿌리 끊어 내고 / 뽑히는 청무우
어머니는 무를 뽑으시며 / 굵게 내린 뿌리가 잘리면
안쓰러워하시기도 한다.
미물들이 때는 먼지 안다고, / 뿌리 깊이 박힌 겨울은 유난히 춥다시피
어머니 주름살은 더욱 깊어진다
무우밭 두둑엔 / 겨울이 노을처럼 번져 가는데
골똘히 삽질하는 나는 / 때 이른 함박눈을 맞으며
청무우 싱싱한 빛깔을 되새긴다
—「 입동 」

겨울 바람이 맵고 찬 것은 봄에 싱그럽게 피어날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을 위함에서이다. 그래서 시인은 '산다는 것은 버리는 것' 이라고 단호한 어투로 말하고 있다.

실핏줄 같은 잔뿌리들 아프게 끊어져 청무우는 찬 땅위로 나와야 한다. 뿌리 뽑힘의 아픔너머 고단한 삶의 무게들이 어머니 주름살로 더 깊어가지만 시인의 비극적 낙관주의는 '때이른 함박눈을 맞으며 / 청무우의 싱싱한 빛깔' 로 되살아남으로써 그래도 세상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 땅 어디에 / 산 없이 봉우리 없이 새벽인가 / 강 없이 어찌 아침이겠는가' 고

반문하면서 다만 '산은 그 품안에 빈들을 끌어 / 이 세상 가장 먼데서 / 길은 마을에 닿는다' 고 길의 법을 깨우쳐준다.

본명이 창환인 김완하는 1958년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문기초등학교와 공도중학교 평택고를 졸업하고 한남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1987년 월간 『문학사상』으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길은 마을에 닿는다』가 있고 『큰 시』 동인이며 현재 모교인 한남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높새 부는 바다」 - 작가 원명희를 찾아서

소설가 원명희는 1952년 안성군 양성면 미리내에서 출생했다. 1990년 장편소설 『바늘반지』와 같은 해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중편 「먹이사슬」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한 원명희는 빈민운동과 저인망 어선의 어업노동자로서의 생생한 체험을 형상화시켜 1990년대 민족문학 해양소설의 한 지평을 열었다.

그의 소설 속에는 뱃사람들의 고단한 일상과 노동에서의 열악한 조건 속의 애환, 그들 버림받은 자들의 우애와 사랑이 고통스럽게 펼쳐진다. 그러나 원명희의 소설이 돋보이는 것은 다양한 삶의 편력과 소위 '소설책으로 써도 몇 권이 될' 뿌리 뽑힌 자들의 개인사적 체험들이 때로는 휘몰이로 박진감있게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득한 수평선 너머 꿈처럼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진보랏빛 하늘에 물 속에 수정처럼 별들이 빛나고 있다. 어떤 별은 멀리서, 어떤 별은 더 멀리서 가물가물 깜빡이고, 어떤 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반짝인다.

노(북쪽)의 산마루에서 저 마(남쪽) 끝 수평선으로 은가루를 부려놓은 듯 미리내가 흘러가고 그 끝을 움켜쥔 산마루의 검은 그림자 한결으로 언뜻 한 줄기 은빛이 미리내를 가로지른다. 헛것을 보았나 하늘을 더듬으면 저쪽 끝에서 희멀쑥의 은빛이 또다시 미리내를 가로질러 수평선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라진 밤바다에선 하얀 물꽃을 만들어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파도의 흰 물꽃 속에는 또 하나의 검은 하늘이 펼쳐지고 말갛 노랑빛의 야광충이 출렁이는 파도와 함께 무수히 떠다니며 어두운 바다를 점점이 밝힌다.

검은 바다는 밝은 것이 싫은지 거센 바람을 불러모아 자신을 뒤엎지만 야광충들은 검은 파도

에 덮였다가 다시 떠오르고 또 떠오르며 실낱 같은 빛을 검은 바다에 던진다. 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검은 바다에 어느덧 야광충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어김없이 새날이 다가온다. 새로운 시간 ! 새 여명을 검은 바다는 어찌할 못하고 받아들이고 만다. 거센 바람은 조용히 자기의 본모습을 찾으며 둘로 나누어진다. 진보랏빛은 연보라로…… 진보라 속에서 반짝이던 작은 별들은 슬며시 연보라 속으로 자신을 지워버리고 만다. 어느덧 흰 물거품은 분홍빛으로 변해가고 아침해는 분홍을 진한 빨강으로 물들이며 새(동쪽)의 수평선 위로 붉은 몸을 드러낸다.

바다는 하늘로 오르고 싶은 듯 붉은 해를 끌어잡지만 붉은 해는 자신의 몸을 더욱 불태우며 하늘로 치솟는다. 어둠은 새벽안개 속에 파고들며 자신을 숨기지만 넘실 떠오른 둥근 해는 온 세상을 붉은빛으로 감싸 안아버리고 만다. 그리고 천천히 또 다른 밝은 빛을 뿌리며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붉은색을 금빛으로, 금빛을 은백색으로…… 어느결에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또다시 변하고 만다.

—「높새 부는 바다」

원명희는 작품집으로 『바늘반지』, 『높새 부는 바다』, 『신들의 초상』, 『달개비꽃』 등이 있다.

「입속의 검은 잎」 - 기형도 시인을 찾아서

안성에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시인이 또 한 명 있다. 1960년 3월 13일 경기도 웅진군 연평도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시흥, 광명 등지에서 보낸 시인 기형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

기형도 시인은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 「안개」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 그는 세기말의 여러 갑갑한 징후들을 묵시의 언어로써 표현하여 시의 지평을 넓혀가던 중 1989년 3월 7일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심야극장에서 뇌졸중으로 숨졌다.

만 29세가 되기 6일전의 그의 죽음은 우리 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기형도는 생전에 시집 한 권 갖지 못했었으나 유고시집으로 『입속의 검은 잎』과 산문집 『짧은 여행의 기록』,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등이 있고 1999년 3월, 10주기에 맞춰 문학과 지성사에서 발간한 『기형도 전집』이 있다.

기형도 시인의 유택은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산 49-1 천주교 안성공원묘지 10단

지에 있어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 집에 갇혀' 가없는 생을 바라보고 있을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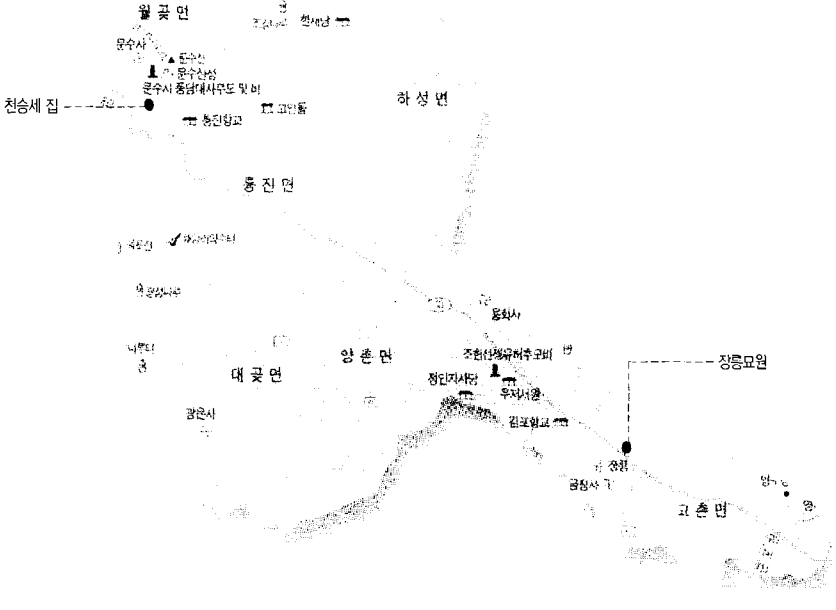
안성에는 1995년 창립한 문협 안성지부가 있어 향토문학의 초석이 되고 있다. 기관지인 『안성문학』을 1999년 현재 5집까지 발간하여 안성의 문학정신을 드높이고 있다. 주요 회원 문인들로는 서정학, 김유만, 박경원, 이옥진, 이안순, 이은옥, 김순자, 이광구 등이 있다.





김포

너른 들만큼이나 넉넉한



너른 들만큼이나 넉넉한



질좋은 김포미로 유명한 김포평야는 평화로운 들판과 아울러 북쪽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애기봉 등의 군부대가 많은 곳이다. 슬픈 역사는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조시대부터 끊임없이 외세의 침범을 받아왔던 강화도가 가까이 있어 주로 산성 등의 전적지가 많은 것이 또한 김포이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 시대의 걸출한 소설가 한 사람이 둥지를 틀고 살고 있으니 그가 천승세이다. 비록 고향은 목포이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 택시 기사에게 '천승세 씨 집으로 가자' 고만 하면 데려다 준다는 그가 있어 김포의 문화는 새로이 쓰여질 것이다. 또한 문둥이 시인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하운 시인이 평생을 구름처럼 떠돌다 이곳 김포에서 영면에 들었으니 그곳이 장릉묘원에 있다.

경기도 북서단에 위치한 김포반도의 동쪽은 한강을 건너 파주군, 고양군 서쪽은 임하를 건너 강화도, 북쪽은 조강을 건너 개풍군에 접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인천직할시, 부천시, 서울특별시와 접한다. 남동에서 북서로 길게 돌출한 김포반도는 오랜 침식작용을 받아 낮아진 준평원과 토사 매립으로 인한 충적지가 합해져 매우 평탄한 김포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으로 문수산, 계양산 가현산이 있으며, 월곶에는 애기봉이 솟아 있다. 애기봉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북한의 하늘을 밝히는 대형 트리가 설치돼 성탄절 때마다 기독교인들과 북녘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애기봉에 얽힌 전설이 매우 애처롭다.

병자호란때의 일이다.

기생 애기(愛妓)는 평양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모질고 슬프게 만든 변란이 일어났다. 북쪽 오랑캐(후의 청나라)의 침략과 노략질로 급기야 감사와 애기는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걸어서 먼 길을 가야만 했다. 연약한 여자의


애기봉 정상의 전망대

몸으로는 참으로 힘겨운 노릇이었지만 감사를 따르는 애기는 참고 견디며 개풍까지 왔다. 그런데 감사는 오랑캐들에게 그만 붙잡혀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감사와 생이별을 한 애기는 혼자 강을 건너 월곶면 조강리에 머물면서 감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 하루하루 더해지는 감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쑥갓머리산(하성면 가금리 소재) 정상에 올라 임 계신 북녘을 향해 눈물로 소리치며 애타게 기다리다 병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애기는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산정(山頂)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다. 애기의 유언에 따라 동네 사람들은 애기를 쑥갓머리산 꼭대기에 장사하고 그 산을 애기봉(愛妓峰)이라 불렀다는 것.

지금 애기봉 정상에는 강건너 북녘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서, 실향민들이 향수를 달래려 자주 찾는 망향(望鄕)의 동산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애기봉은 북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한으로 맺힌 곳이라 하겠다. 그리고 문수산에 있는 문수산성은 병자호란 뒤에 강화도 방비책의 하나로 1694년(숙종 20년)에 축조되었는데, 병인양요(1866년) 때에는 한성근이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이는 요새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문수산성에 올라가면 임진강과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조망을 볼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서도 유망한 곳이다.

서울과 근접해 있어 교육에 관한 열기도 대단한데, 김포의 최초 교육기관으로는 1127년(인종 5년) 월곶면 군하리의 통진향교와 김포향교가 세워졌으며, 현재 조헌을 기리는 우저서원(1648년 설립)이 남아 있다. 이 우저사원은 장릉(사적 제 202호. 김포읍 풍무리에 위치하고 조선 원종과 그의 비인 인헌황후의 능이 있다)과 더불어 경치가 좋아 많은 사람들의 휴식터가 되고 있다.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도 이어지고 있는 민속놀이로서 통진면 옹정리의 농성패놀이가 있는데, 김포평야답게 논김을 맬 때 농사반을 구성하여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대가 7

채 길군악을 치면서 신나게 놀이를 한다. 선소리꾼의 긴가락, 자진가락, 휘몰이가락 등 주고받는 농요가 이어져서 듣는 이로 하여금 절로 흥이 나게 한다.

더불어 김포에 구전되는 민요는 타령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노동요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마도 유행이 빠른 서울과 근접해 있어 다른 지방보다 일찍 전통 문화가 상실된 까닭이 아닌가 한다. 타령 중에는 임을 그리워하는 연정을 매월 명절 때마다 읊는 '달거리 창부타령'을 비롯하여 '각설이 타령', '어랑타령'이 대표적이다.

김포평야답게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 여전히 질이 좋은 김포미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갈수록 주변이 공단으로 조성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변해 생산량도 줄고 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쌀 이외에 특용작물로서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근교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편리한 교통과 낮은 구릉지, 넓은 초지로 인해 많은 농장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강화도로 연결되는 김포 도로가 확장되어 그동안 심한 체증을 일으켰던 교통난도 많이 해소된 편이다. 주변 일산과 더불어 아파트들도 많이 생겨 김포는 명실공히 새로운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더불어 문화적 관심도 많이 생겨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니, 서울과 근접한 김포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한하운

천형 때문에 문학적 대성을 이룬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문학가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이다. 독일 최고의 전기문학가인 스테판 츠바이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 대성을 그의 고질병인 간질병 때문이기도 하다고 감히 단정한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발작을 통해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인간 내면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 더 깊이 통찰했다는 뜻이리라.

그런 문학가가 우리 한국 문학사에도 있으니, 그가 바로 시인 한하운(韓何雲, 1920~1975)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고
쑤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全羅道) 길.
-「전라도 길」



한하운

『신천지』라는 잡지에 1949년 첫 시를 발표하면서 한하운은 문단에 데뷔했다.

이 시집이 나올 무렵 한하운은 전국을 유랑하는 나병환자였다. 자신이 처한 기구한 운명을 받아들이며, 삶을 노래하듯 그는 시를 읊는다. 그래서 시는 모든 이의 삶 속으로 던져지고 시인의 운명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입도 코도 문드러져 한으로 가득한 삶이 꺼질 때까지 가야만 하는 전라도 길. 그 길은 바로 소록도로 가는 길이다. 그에게 소록도는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한하운 시인의 본명은 한태영이다. 함경남도 출신인 그는 1932년 함흥제일 공립보통학교와 이리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동경 세이케이 고등학교 2년을 수료했다. 유

북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그후 1943년 북경대학 농학원을 졸업하였다. 1944년 함경남도 도청 축산과에 근무했으나 해방되던 해에 나병이 악화돼 그만두고 서점을 경영하기도 했다.

그렇듯 많은 학식을 쌓고 세상 이곳 저곳을 둘러본 그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연작 「명동 거리」를 읽으면 그가 세상의 무질서와 놀고 먹으며 향락에 취해 있는 이들에게 서정적인 그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추잡하고 직설적인 용어들이 사정없이 송곳처럼 나열돼 있다.

'세상이 삶이/ 혼나간 미친년 웃음 같아서' 라던가 '수캐 같은 계집과/ 돼지 같은 사내가' 라고 그는 세상의 혼탁함을 비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의 주류는 민요조 운율을 담은 서정시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든다는데 그는 자신의 천형을 시로 승화시켜낸 것이다.

나 하나 이쩔 줄 몰라 서두르네
신도 안식도 나무가지도.

이거나 뜯 세상
죽음에 주인이 없어 허락이 없어
이처럼 이쩔 줄 몰라 서두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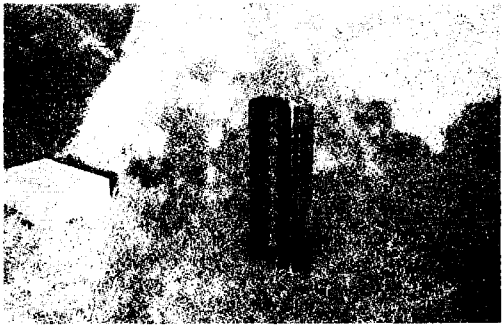
매양 벌레는 저 바다인들
풍덩실 내 자무리지면

수많은 어족(魚族)들의 원망이 넘칠 것 같다.

썩은 육체 인지리에
내 희과 균(菌)과 비(悲)와 애(哀)와 애(愛)를 위이
뗏목처럼 창공으로 흘러 보고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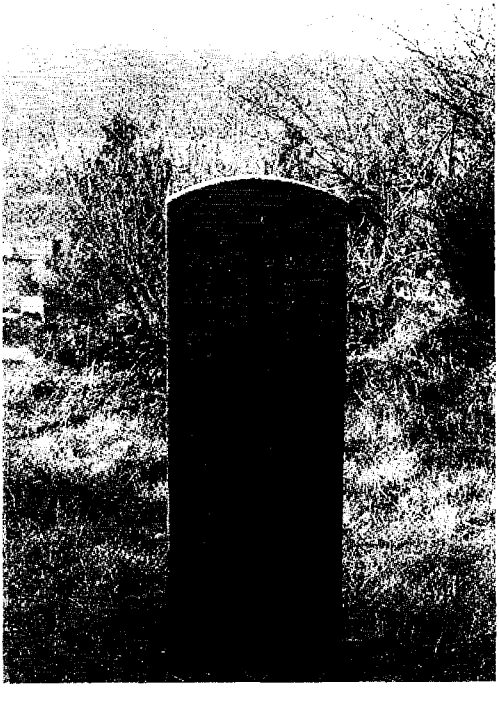
아 구름 되고파
바람이 되고파

어이 없는 창공에
섬이 되고파.
—「何雲」 전문



한하운 묘소
김포군 김포면 장릉묘원. 묘들이 작고 시비가 조그마한 묘비처럼 보여 매우 찾기 힘들다. 묘지 관리인에게 물어볼 것.

구름이 되고 싶고, 바람이 되고 싶고, 하늘 한 곳에 두둥실 떠나가 구름섬이 되고팠던 시인 한하운. 그는 자신이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시로 노래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 감동을 일으켰다. 훗날 그런 시인의 마음은 육체적인 제약을 이겨내게 하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일을 하게 한다. 1950년 성혜원, 1952년 신명보육원 등을 설립, 운영하였고, 1953년 대한한센연맹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나환자 구제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뒤 1966년에는 한국사회복귀협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무하문화사라는 출판사도 경영한 바 있다.



몸이 완쾌됐지만 그 한이 여전히 남아서였을까. 아니면 시인을 생각하며 많은 나병환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시인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장릉묘원에 누워 하늘을 보며 여전히 노래한다.

이제 그의 무덤가엔 잡초가 무성하지만 시인의 곁에 앉아 있노라니 절로 「파랑새」란 시가 가슴을 저미게 한다.

나는 / 나는 /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 푸른 울음
울어 예이리,//
나는 / 나는 / 죽어서
파랑새가 되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더욱이 어려운 시절이어서 그 모습은 자못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하운 시를 읽어보라. 세상은, 목숨은 그렇게 쉽게 버리고 취할 것이 아니다.

천승세

김포 월곶에 가서 소설가 천승세 씨 댁에 가자고 하면 택시가 군말 없이 스르르 움직인다. 하얀 머리칼, 콧수염, 턱수염이 깊게 패인 얼굴 주름과 함께 어우러져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강인한 인상을 풍기지만, 그를 만나면 세상살이 속에서 만나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잔칫집 국밥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구수한 냄새만큼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렇듯 소설가 천승세의 작품세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민중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의식적으로 민중을 추켜세우거나, 민중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삶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와 희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살기가 나소 외롭다. ……타고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는 소설을 쓴다. 나의 삶 속에서

의 소설은 매일의 해돋이와 같다.

—첫 소설집 『감루연습』 후기에서



천승세

초기작 「견족」(1959)을 보면 고향을 떠나 도시의 변두리 인생으로 전락한 젊은 두 청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뒷골목의 개를 도둑질해다가 개장국집에 넘겨주고 숙식을 해결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같이 소설가 천승세는 당대의 민중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절망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타고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설을 쓴다고 말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중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민중의 삶이 늘 권력 혹은 자본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음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찌 외롭지 않겠는가.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한 이래 '양공주'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70년대 천승세의 빛나는 작품 중의 하나인 『황구의 비명』을 보면 시골에서 올라온 여자아이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미군들의 '똥치'로 전락해 고통받는 모습이 섬뜩할 정도로 생생히 묘사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내'가 용주골로 간다. 용주골은 미군들이 여자들을 돈으로 사는 곳이다. 용주골 양색시 은주를 찾아간 나는 여인숙 방 앞에서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어마어마하게 큰 군화와 한뼘이나 될까말까 한 작은 고무신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 두 신발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받으러 온 돈보다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 그는 은주에게 용주골을 떠나라고 설득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수캐와 왜소한 황구가 벌이는 비극적인 교미 장면을 목도하면서 듣게 되는 황구의 비명.

나는 바보처럼 가쁘게 내뱉었다.

"은주! 황구는 황구끼리····· 황구는 황구끼리 말야····· ."

"·····언젠간 떠나긴 떠나겠죠····· ."

은주는 : 눈을 뜨고 있었다.

은주의 짙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는 뜻한 바가 있어 체취가 풍겨왔다. (중략)

"..... 구차한 생각이야 ....향수가 뱃속에 썩게버리고 나니까 고향 냄새가 나잖아. 보리밭 냄새가 난단야..... ."

작가는 70년 수출 드라이브 정책 위주의 사회 속에서 민중이 외세에 의해 어떻게 수탈되었는가를 잔인하리만치 보여주고 있다. 살기가 너무도 힘들어 떠나온 고향, 하지만 떠나온 곳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상점에 놓여진 과자봉지와 같게 만든다. 누구든지 돈만 있으며 살 수 있는 물건, 그게 그녀의 삶이 되어버렸다. 끝내 돌아가야 할 고향도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없는 곳이며, 돌아가야 또다시 고통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 전반적인 밑그림에 외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난 너 아부지를 생각해서라두 절대 낙월섬은 뜰 때! 그여코 억척같이 원해서는 취부자구 석보구 양서방이구 다 딛구 설 테! 그여코 배를 장만할 테!"

—「낙월도」 중에서,1973

천승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낙월도」를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낙월도는 양서방과 최부자, 석보영감이 지배하는 60여 호가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런 낙월도가 흉이를 맞아 비극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다.

뱃바닥이 썩어 가고, 곡기 구경을 못하고 사레풀즙으로 겨우 연명하는 섬 처녀들은 목숨붙일 곳을 찾아 최부자나 석보 영감들의 시앗으로 들어앉는 수밖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한다. 물론 처음부터 낙월도 여자들이 이런 삶은 순순히 수긍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세도가들의 횡포를 꿰뚫어보면서 지옥 같은 섬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배꾼인 사내들과 모험을 무릅쓰기도 한다. 그러나 삼출목 물살을 건너 새 삶을



천승세 작품집

찾으려던 용배와 상님이, 팥례와 덕주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귀덕이가 연모하고 의지하는 종천이는 섬 안에서의 새 삶을 꿈꾼다. 그러나 종천이의 원망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참하고 영악한 처녀 귀덕이에게도 비극은 시시각각 다가온다.

아버지 제삿날이 당도하여 제상 차림을 구하러 나간 귀덕이는 널줄에 걸린 가라지 두 마리를 훔치려다 석보 영감에게 봉변을 당하고, 귀덕의 어미 장성댁은 바로 남편의 젯날에 홀아비 용문이와 관계를 가진 후 말 못할 아이를 배는 것이다. 장성댁은 마침내 최부자가 보낸 곡식 세 가마를 받아들고, 최부자의 첩으로 들어앉게 된 귀덕이는 나루로 종천이를 찾아간다. 거역할 수 없이 옥죄어 오는 완강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두 남녀는 사랑의 몸부림을 친다.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도 그들의 안타까운 몸짓으로 끝나고 만다. 쌀 두 가마니를 보내 딸에게 줄 비단필을 사들인 장성댁은 음독 자진하여 욕된 생을 마감하고, 첫눈을 머금은 하늘 아래 귀덕이는 최부자의 뒤를 서럽게 따라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듯 소설가 천승세는 잔인하리만큼 그 시대의 민중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70년대의 민중의 삶은 사실 지독하리만큼 잔인했다. 농촌의 피폐해지고, 도시로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잊어야만 했다. 빈익빈 부익부를 낳은 자본주의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타고 더욱 기승을 부리며, 민중을 이윤을 위한 철저한 도구로 전락시킨 때였다.

알다시피 70년 12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하루 열네 시간 일하고, 졸음이 오면 졸음 오지 않는 '타이밍' 이란 알약을 먹으며, 14살 15살짜리 어린 여공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한 그는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지만 언론을 비롯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소설가 천승세는 1958년(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점례와 소」가 당선되면서부터 줄곧 우리의 토속세계를 통찰하면서 줄기차게 그들의 삶을 표현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것이다.

나의 삶 속에서 소설을 빼라고 신이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감루연습」 후기 중에서

그의 소설이 민중의 삶에 천착하고 있다면, 윗글의 의미는 민중과 더불어 끝없이 그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요즘 문단 안에는 문예보수주의가 갈수록 득세하고 있어."

—월간 『말』 11호

"역사가 진보하려면 먼저 이것이 정의냐 사도냐에 대한 확고한 판단력이 필요해. 그런 다음 그릇된 사도의 길에 맞서 뚫고 나갈 때 역사는 완성되는 거지. 근데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운동권들 요즘 뭐하고 있나. 용기가 없어 싸우지 못하는 것은 큰 죄가 아냐. 진짜 비열한 짓거리는 어떤 장애라도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할 때 쉽게 돌아서 버리고는 지금은 돌아가는 게 진보라고 떠벌리는 거야. 전사의 삶은 한 번 싸움 걸어보다 수틀리면 도망가는 단순한 도전에 있지 않아. 목숨 걸고 끝장을 보는 투쟁에 있는 거야. 이런 강한 심장과 정신의 소유자들, 이들이 내 희망의 근거지."

—월간 『말』 11호

그는 그 희망의 근거지를 문학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80년대 들어 많은 후배들이 민민소설, 민중소설들을 앞다퉈 발표했었지. 하지만 생명력 있는 작품은 거의 없더군. 정치적 혈기는 있는데 예술적 혈기가 없어. 그래선 감동이 나올 수 없지. 민족의 통한을 원목째 안고 쓰러져야 돼. 민족문학의 생명은 거기에 있어. 그게 없으니 십년도 못 가서 죄다 나자빠지잖아."

—월간 『말』 11호

오랜 세월 삶을 소설로 소설을 삶으로 살아온 대가답게 그는 민중의 삶을 함부로 미화시키거나, 함부로 추락시키지 않는다. 미처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 민중의 삶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비극이든 희극이든 삶의 크나큰 바다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내 문학의 본령이 뭔지 아나. 바로 고난을 자청하는 문학이야. 예술은 편할 수 없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만족감이 스며들면 그것으로 끝장이야. 문학의 정의에 시달리며 세상의 모순을 응징하는 이 고난을 난 죽을 때까지 자청할 거야."

술을 좋아하고, 낚시하기를 좋아는 소설가 천승세. 그는 자신의 삶이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는다.

1988년 어머니 박화성 씨(한국 최초의 여류 소설가)가 별세한 이후 칩거 중인 그는 요즘 「빙등(氷燈)」을 완성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빙등」은 『한국문학』에 1부를 끝냈으나 84년 당시 안기부에서 반체제적 작가의 작품을 싣지 말라는 압력으로 중단되었던 작품인데, 이제 그 작품을 그가 다시 꺼내놓은 것이다.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195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그는 참으로 빛나는 작품을 우리에게 많이 남기고 있다. 1964년 3월 국립극장 장막극 현상모집 희곡에 당선된 「만선(滿船)」은 한국일보사가 제정한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에 수상되었고, 1975년에는 창작과 비평사에서 만해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82년 성옥문화상 예술부분 대상도 수상하고 1989년 제1회 자유문학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가 이제 다시 긴 침묵을 깨고 용트림을 하니 그 기대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문익환 목사와 시인 김남주, 평론가 채광석이를 사랑했던 소설가 천승세.

"당대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욕망은 버려. 빈 망태기나마 그 속에 역사의 현장을 담고 간다면 그것으로 족해."

외세를, 독재를, 권력지상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천승세의 탁월한 작품은 바로 빈 마음, 민중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지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된다.

월곶에 가보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설가 천승세의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소박한 삶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문학세계를 펼치고 있는지 듣는 것도 이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말한다면 그는 아직도 젊은이들과 팔씨름을 해도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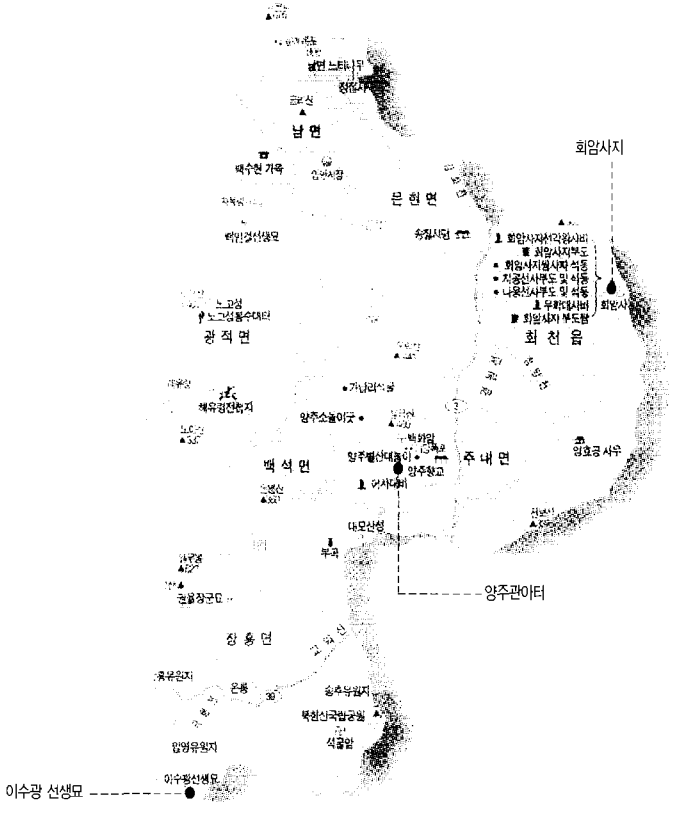
김포는 또한 80년대에 등단한 청년시인 **박철**이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고 중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몸을 담고 있는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김포행 막차』, 『밤거리의 김과 을』과 같은 시집을 통해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 김포를 쓸쓸한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

누군가 그랬다
이별과 눈물의 김포가도
술 취한 내 친구 걷고 걷다가
어둠 속 지동차에 날아간 거리
오늘 화곡동에서 선배 시인과 헤어지고
가로등 하나둘 잠아내오며
유행가 읊조려 걷고 걷는다
(중략)
이런 시절 할아버지 소 불고 마장동 황이장터로
웅이위이 질척질척 걷던 그 자리
거슬러올라가다 뒤돌아본다
차들은 가는구나 미련도 없이
별들은 지는구나 약속도 없이



양주

큰 고을의 자부심으로



큰 고을의 자부심으로



양주는 옛부터 큰 고을이었다. 그런 만큼 역사적 유물이 무수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옹선사의 흔적이 짙게 배인 회암사터가 유명하다. 일제시대 말엽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가 이곳에 머물렀고, 방랑시인 김삿갓이 또한 여기 출신이다. "구만리 장천 높다 해도 머리 들기 어렵고/ 삼천리 땅 넓다 해도 발 뻗기 힘들구나!"고 읊었던 김삿갓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양주의 문학은 의미있다.

양주는 들녘이 적은 대신 거의 산지로 이루어진 곳이다. 금강산에서 뻗어내린 광주산맥이 곁가지를 치고 내려와 양주 땅 곳곳에 나지막하지만 험한 왕방산, 감악산, 칠봉산, 도락산, 불국산 등을 떨구었다. 그 사이 북서에서 남서 방향으로 형성된 좁은 저지대로 중랑천과 청담천이 흐른다. 중랑천은 남쪽으로 흘러 한강에 닿고, 청담천은 북쪽으로 내려가 한탄강과 만나면서 이 고장의 역사를 함께 이룬다.

특히 동두천시의 서쪽에 솟은 감악산은 골짜기가 험해 조선시대에 의적 임꺽정이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이 산의 꼭대기에는 빗돌 대왕이라고 불리는 산신이 살았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감악산 서쪽 꼭대기에 가물거나 장마가 져도 물이 불거나 줄지 않고 비를 빌면 비가 내리는 용지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데, 빗돌 대왕이란 아마 그 연못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양주군은 역사가 500여 년에 이른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양주군의 중심부였던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허리가 잘려버렸다. 이후 양주의 남부였던 지금의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의 최북단이었던 동두천시까지 내주

고 말았으니 양주땅은 더이상 작아질 수 없게 줄어든 셈이지만 문화와 역사에 있어서만은 아직도 넉넉한 곳이다.

회천읍 회암리의 회암사 터를 비롯해 양주를 대표할 문화 유적이 여러 곳에 있다. 또한 양주 지역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나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김병연 같은 학자와 시인들이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양주별산대 놀이 등의 문화의 흔적이 넉넉한 곳이다.

회암사지와 나옹선사

의정부를 지나 경원가도를 달리다보면 동두천 못미처에 덕정리 삼거리가 있다. 여기서 동쪽으로 접어들어 20여리 쯤 들어가면 양주와 포천 땅을 가로질러 우뚝 서 있는 천보산이 나선다. 연이은 바위봉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수려한 경관을 이루며 빈 절터를 감싸고 있는 천보산 자락. 역사의 거친 회오리를 겪고 폐허 속에 침몰해버린 회암사터가 있다. 향화가 꺼진 지 오랜 세월, 만여 평의 절터에는 땅에 박힌 채 거친 세파를 말없이 견뎌온 석재들만 고스란히 남아 그 옛날의 식어버린 온기를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회암사는 천마산 기슭의 서남쪽에 남향으로 앉아 3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전방이 툭 트여 시원했을 터이나 지금은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앞을 가로막고 있다. 고려시대 불교를 크게 일으켰던 3대 사찰이었으며, 지공화상, 나옹선사, 무학대사로 일어지는 걸출한 선승들이 머물면서 명성을 드날리고 번창했던 회암사. 고려 충숙왕 15년(1328) 인도에서 들어온 지공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절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우왕 2년(1376) 지공화상의 제자이며 고려 말의 뛰어난 고승 나옹화상이 중건 불사를 하게 된다. 지공화상의 뒤를 이어 회암사를 전국의 중심 사찰로 만든 혜근 나옹화상은 고려 말 불교의 찬란한 거목으로 첫손에 꼽히는 분이다. 그는 불교 천년의 절정에서 마침내 시로 불법을 다 파헤친 큰 선시인이었다. 나옹은 고려가 끝나가는 충숙왕 7년(1320) 선환서령이라는 벼슬을 하는 서구의 아들로 영해부에서 태어났다.

20세 때 친구의 죽음을 맞이한 나옹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문경에 있는 공덕산 묘적암의 요연선사를 찾아가 불문에 들어서게 된다.

죽음에 대해 묻는 나옹에게 요연은 대답한다.

"나도 아직 모르고 있다. 다른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요연선사는 이미 나옹의 그릇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옹은 큰 절의 이름난 스님을 두루 찾아 돌아다니게 된다.

25세 때 나옹은 마침내 양주 회암사에 이르른다. 어느날 이 절에 있던 일본 중 석옹 화상이 설법을 하다가 소리를 질렀다.

"대중은 듣느냐."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는 이가 없었다. 이에 나옹이 시로서 대답한다.

부처님을 그리는 방 가운데 앉아
눈을 밝히고 보라
보고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본래 옛 주인인 것

회암사에서 나옹은 4년을 머물며 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 넓은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 28세 때 원나라의 북경에 가서 법원사에 있는 인도의 중 지공을 만난다. 그는 시를 지어 올렸다.

산과 물과 돌은 눈 앞의 꽃이요
삼라만상 또한 그러한 것
불성은 본래
깨끗한 것임을 깨달았거니
티끌마다 세계가 다 부처네

지공은 나옹과의 선문답에서 공부가 깊음을 알고 받아주었다. 이렇게 중국의 큰 절을 찾아다니며 고승들과 선문답을 하면서 선사상의 큰 산맥을 일군 후 나옹은 39세의 나이로 고려에 돌아온다.

공민왕은 나옹을 청평사에 머무르게 한다. 그곳에서 스승 지공이 보내온 가사와 편

지를 받고 50세에 회암사로 돌아와 주지를 지내게 된다. 두 사람의 선시 문답을 한번 보자.

선은 안이 없고
법은 밖이 없다
뜰 앞의 잣나무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것
청량대 위의 맑은 날에
동자 세는 모래알도 동자가 안다

나옹은 답한다.

들어가도 안은 없고
나와도 밖은 없네
타끌마다 세계는
모두 부처가 되는 길이네
뜰 앞의 잣나무가 잘 보이니
오늘은 사월 초닷새 날





회암사 터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 의정부 전철역에서 3번 국도를 따라 동두천, 연천 방면으로 12. 7km 가면 회천읍 입구 덕정사거리가 나온다. 오른쪽 316번 지방도로를 따라 포천 방면으로 5km쯤 가면 율정휴게소가 나오는데, 거기 왼쪽에 회암사 안내 표지판이 보인다. 의정부에서 30번 시내버스가 회암시 입구까지 다닌다.



회암사지 맷돌

나옹이 회암사에 온 지 3년 후 지공선사가 열반에 든다. 나옹은 스승 지공의 영골과 사리를 모신 부도를 세운다.

회암사는 나옹이 태어나기 5년 전인 충숙왕 15년(1328)에 지공선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장엄한 빛을 심은 것은 나옹이었다. 나옹은 회암사를 다시 짓고 낙성법회를 연다. 고려 땅 사람은 누구나 이 무차대회를 보고자 했다. 회암사로 가고 오는 길은 행렬이 그치지 않았다.

회암사는 수많은 승려대중이 머물고 수천의 대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대찰이 된다.

그러나 4년 여에 걸친 불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열려는 순간 나옹은 갑작스런 왕명을 받는다. 밀양 영원사로 떠나라는 것이었다. 나옹화상의 법력에 매료된 전국의 수많은 아녀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길이 막힐 지경으로 모여들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산문을 막고 회암사에 오르는 백성들을 돌려보냈으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옹선사는 왕명이 떨어지자 예견했던 일로 여기고 담담히 회암사를 떠나 여주 신륵사에서 열반에 든다. 선사의 나이 57세였다. 그의 영골과 사리는 스승 지공의 부도 뒷자리에 탑으로 안치되었다.

나옹선사의 제자 각전 스님이 회암사의 남은 불사를 마쳤을 땐 집이 무려 262간에, 15척 되는 불상이 7구나 되었고, 10척의 관음상이 모셔졌다고 한다.

'집과 그 모양새가 굉장하고 미려하여 동방에서 첫째' 였다고 목은 이색은 『회암사 주조기』에 전하고 있다. 대찰의 규모를 갖춘 회암사는 전국 사찰의 총 본산이었으며 3천 명의 승려가 머물렀다고 한다. 그 뒤엔 나옹화상의 제자 무학대사가 중창한다.

나옹선사는 자신의 깨달음을 한문표기의 불교가요로 남겼다. 「완주가(翫珠歌)」, 「백납가(百衲歌)」, 「고루가」 등 3수를 아울러서 '나옹삼가' 라고 이른다.

이 3수의 노래는 혜근 자신이 수도의 계제에서 터득한 바를 가요화한 것이다. 「완주가」는 염주를 자성(自性)에 비유하여 읊었는데 총 60구로 되어 있다. 자성이란 신령하고 영롱한 구슬이 인간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읊은 것으로, 구슬을 불성에 비유해서 노래한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어두움에 헤매이고 있지만 본래 구족한 불성을 되찾을 때 무명을 벗어나게 됨을 밝히고 있는 노래이다. 일명 「영주가(靈珠歌)」라고도 한다.

「백납가」는 출가와 수행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다. 100번이나 꿰맨 누더기를 걸치고 수행하는 행자의 무소유를 노래한 것이다.

달도 잊은 채 홀로 산에 산다
한 해가 다 가도 산은 싫지 않고
고사리 캐고 땔감 줍고 밥 지으며
해어진 누더기 옷을 즐겨 입는다

어느 해인가 모르고 해를 보내며
늙고 젊은 것, 무상한데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겠느냐
이 몸 늙은 것도 아랑곳없이
누더기 옷 속에서 해를 보내고 해를 보낸다

세속의 잡사에서 벗어나 초인의 정신, 그의 시정신과 선사상의 극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루가」는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수척해진 몸이 보기(寶器)임을 말하고, 불타와 여러 조사들도 이에 의지하여 성도하였음을 노래하였는데, 총 52구로 되어 있다. 인생 무상을 깨닫고 참된 도를 깨달을 것을 권고하는 노래이다. 수없이 많은 생을 자각 없이 살다가 마른 뼈로 변하여 진흙 속에 버려져 있는 해골을 통하여, 무상의 이치를 밝히고 불도를 수행하도록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근은 이밖에도 여러 편의 한문 표기의 불교 가요를 실은 「나옹화상가송」을 전하고 있으며, 또 국문가송 및 불교가사 작품도 여러 편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옹삼가'는 그의 심오한 수도의 세계를 형상화한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나옹화상이 지은 이 노래와 그의 법어집은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호암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고승 나옹이 신이 도운 인물이라고 하는 설화가 전해온다.

나옹이 태어날 때 상서로운 기운이 있었는데, 그의 출생지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현지의 구전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설화 유형의 변모를 살피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가난해서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못하는 형편이라 어머니가 관가에 잡혀가는 도중에 나옹이 태어났다고 한다. 무도한 관속들이 어머니를 끌고 가자 핏덩이인 채로 거기 버림받았던 아이는 날짐승이 날개로 덮어주어 살아났다. 태어나자 버림받는 영웅의 일생을 되풀이하였다고 하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참혹하고, 미천한 백성에 대한 관가의 횡포를 나타낸 점이 달라졌다. 세부적인 사정은 이야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디서도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없었으며 도선(道詵)의 경우처럼

어머니가 외를 먹고 나옹을 잉태했다고도 한다.

열살 쯤 되었을 때, 외를 동냥하러 온 스님을 따라 나서서 출가를 했다는 데서 생명의 상징인 외가 다시 등장한다. 나옹은 득도해서 자기 고장을 떠나면서 지팡이를 꽂고, 지팡이가 나무로 자라나 가지가 무성하면 자기가 살아 있는 줄 알라고 하였다. 그 나무는 지금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에서 반송으로 크게 자랐는데, 최근에는 시들기 시작해서 나옹이 이제 죽었다고들 한다.

반송삽화는 최치원이 해인사에 꽂아둔 지팡이나, 유정이 표충사에 꽂은 지팡이, 의상이 부석사에 꽂은 지팡이 등과 같이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지만, 고목의 모습을 지팡이를 꽂은 도인의 생사와 연결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이수광

이수광(1563~1628)은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로 성균관 대사성, 대사헌 등을 지냈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여러 번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인물이다. 그는 이미 16세에 초시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 중요한 관직을 모두 지냈다. 특히, 그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겪고 광해군 때의 정치적 갈등과 인조 때의 이괄의 반란을 치렀던 어려운 정국에 살면서도 당쟁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언제나 강직하면서도 온화한 입장을 지켜 성실하고 양식있는 관료요 선비로서의 자세를 지켰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면모는 사회적 변동기에 새로운 사상적 전개 방향을 탐색하고 개척한 학자로서의 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조선 사회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게 될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사상사 내지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다.

특히 그는 종래의 주자학적 이기설의 관념철학에서 벗어나, 심성의 수양론적 실천 방법을 탐색한다는 실천철학적 성격을 존중하였다. 그의 대표적 저작인 『지봉유설』에서는 백과전서적 지식 체계와 실학을 집대성하였고, 북경에서 이탈리아인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 등을 가져와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소개했다.



이수광 묘

현재 이수광의 묘는 그의 부친과 아들의 묘가 나란히 있다. 그러나 아쁜 일인지 묘비는 탄 지국이 심하여 이름자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지경이다. 349번 도로에서 오른편으로 꺾어 들어가 10여 미터쯤 들어간 장흥면 삼하리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홍명희

소설가, 언론인, 사회운동가, 정치가.

호는 가인(可人) 또는 벽초(碧初), 충청북도 괴산 출생.

어린 시절에 한학을 수학하다가 일본에 유학하여 다이세이중학을 졸업하였다. 경술국치 직후 귀국하여 오산학교, 휘문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고 1920년대 초반에는 한때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 시대일보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1927년에 민족 단일조직인 신간회의 창립에 관여하여 그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사회운동에 적극 투신하였고, 1930년 신간회 주최 제1차 민중대회 사건의 주모자로 잡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좌익운동에 가담하고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장이 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월북하여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을 도우면서 부수상 등 요직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최대의 장편 소설의 하나로 손꼽히는 『임꺽정』을 발표함으로써 문학사의 주목을



양주관아터

홍명희는 1939년 시국이 악화되면서 양주로 이사왔다. 예전의 주소는 노해면 창동 244번지. 임꺽정의 아버지가 갇혔던 양주 관아터는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으로 가다가 삼거리 검문소를 지나면 새 군청사가 나타나는데 그 왼쪽이 양주관아이다. 그 바로 곁에는 한때 양주 감옥터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데 푯말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받고 있다.

이 작품은 1928년 조선일보에 첫 연재를 시작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중단되었다가, 광복 직후 미완의 상태로 전 10권이 간행되었다.

조선 중기에 지방의 도둑으로 실록에 그 행적이 단편적으로 기술되기도 한 임꺽정의 이야기를 방대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이 밝힌 바 있듯이, 반봉건적인 천민 계층의 인물을 내세워 조선시대 서민들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 속에서 귀족 계층의 계급적 우월성이 배격되고 오히려 하천민의 활약을 당위론적인 측면에서 그려보이고 있는 것은 작가가 지니고 있는 계급적 의식과 세계관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작품이 식민지 현실의 모순 그 자체보다도 봉건적인 체제 모순에 더욱 비판적인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 소설에서 다양한 삽화를 처리하는 서사적 기법과 풍부한 토속어의 구사력은 조선시대 사회상과 풍속을 재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문학적 태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글로는 「신흥문예의 운동」(『문예운동』, 1926. 1.)이 대표적인데, 이 글에서 계급문학운동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명희의 생가는 충북 괴산군 괴산면 인산리에 있는데, 지금 그 집은 빈집으로 남아 있고 사랑채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가 문학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라 집을 관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엉뚱한 사람들이 이 집을 사려고 하고 있다. 충북 민예총 문학위원회는 1996년부터 매년 가을 '홍명희 문학제'를 주최하며 작가 홍명희의 문학을 새롭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생가터에 세워진 그의 문학비의 작가 연보 중 월북해서의 활동상이 보훈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바람에 결국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을 지었다.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 반봉건적 시각에서 당시 민중들의 생활상을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념을 떠나 한 사람의 작가로 조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중의 풍속과 언어의 보고라 할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 그는 「임꺽정을 쓰면서」라는 글에서 자신의 작품관의 일단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기에 어찌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조선 문학이라 하면 예전 것은 거지반 支那文學의 영향을 만히 밧어서 사건이나 담기어진 정조들이 우리와 유리된 점이 만헛고, 그러고 최근의 문학은 또 구미 문학의 영향을 만히 밧어서 洋臭가 잇는 터인데 임거정만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묘사로나 정조로나 모다 남에게서는 옷 한 벌 빌어입지 안코 순조선거로 만들려고 하엿슴니다. '朝鮮情調에 일관된 작품' 이것이 나의 목표엇슴니다.

김삿갓

김병연이라는 본명보다는 한평생 구름따라 물따라 떠돌아다니던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시인. 풍자와 해학과 기지로 어우러진 파격적 시와 기행을 가는 곳마다 뿌리고 홀연히 사라진 김삿갓. 집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운명의 족쇄에 묶인 죄인처럼 얼굴을 가리고 기구한 생애를 보냈던 그.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는 한 사람의 시인으로 남아 있다.

그의 생애가 널리 알려져 있던 것과는 반대로 그의 묘와 집터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았기에 그가 출생한 곳이 양주라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이곳에서 났다는 것, 그가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었던 그 시초가 되는 곳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김삿갓의 한많은 운명의 시초가 강원도 영월의 동헌에서 실시한 백일장의 장원을 했던 그 영광과 함께 했다는 데서 그의 인생의 비극성이 더욱 증폭된다. 백일장은 예비 과거 격으로서 선비들의 학업을 권장하기 위해 시골에서 베풀던 시문짓기 시험인데, 이날 시제는 '논정가산충절사, 탄김익순죄간천(論鄭嘉山忠節死 歎金益淳罪通于天: 가산군수 정시의 충절을 논하고 김익순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한탄한다)' 는 것이었다.

김병연은 약관 20세의 나이로 장원을 차지하였다.

대대로 이어온다고 일컫는 나라의 신하 김익순아
정공은 하찮은 벼슬아치에 지나지 않았다.

로 시작된 그의 시는 장장 18수 250자에 달하는 것이었다.

죽은 흰뼈이라도 저승에 가지 말라
지하엔 먼저 가신 임금이 계신다.
신하가 임금을 잃은 날 어버이 또한 잃었으니
한번 죽음은 가볍고 만번 죽음이 마땅하다.
너는 충추필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일을 바로 적어 우리 역사에 전하리라.

이처럼 매몰차게 매도하고 질타했던 김익순이 바로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는 장원이 된 후에야 알게 된다. 만일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그는 글공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시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토록 한맺힌 생애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더라면 김삿갓이라는 걸출한 시인 또한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김익순은 누구인가. 안동 김씨, 그의 집안은 순조, 영조 이후 대원군이 집권하기까지 60여 년간 조선을 쥐고 흔들었던 당대 제일의 세도가였다. 세도정치 때문에 왕권은 약해지고 그 통에 득세한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또한 해마다 계속되는 홍수와 기근에 역병까지 겹쳐 온 나라가 백성들의 신음소리로 들끓었다. 그때, 평안도 용강 사람이었던 홍경래가 썩은 세상을 뒤엎고 새 세상을 만들자며 무리를 모아 떨쳐 일어난 곳이 평안북도 가산군 다복동이었다. 2000명의 민군을 모아 혁명의 불길을 드높인 홍경래군은 창고를 열어 쌀과 피륙을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여세를 몰아 함흥까지 올라갔다.

그때 김익순은 약 3개월 전 선천부사 겸 방어사로 있었다.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식솔들과 기생들을 끌고 검산성으로 도망쳐 숨었다가 생포되었다. 겁쟁이였던 김익순은 항복을 하고 혁명군 군관 감투를 얻어쓰고 치욕스럽게 목숨을 구하였다.

맹렬한 기세로 여세를 몰아 점령의 기세를 늦추지 않았던 홍경래는 그러나 정주성에서 끈질긴 저항을 벌이다 아쉽게도 그만 무너지고 말았다. 홍경래를 비롯한 수뇌부는 전사하거나 생포되어 목이 달아나고 3,000명에 이르던 반란군은 겨우 800명 정도가 목숨을 부지했을 뿐 모두 처형당했다.

난이 평정되자 부역자 김익순은 다시 목숨을 보전하고자 꾀를 부려 농민을 시켜 홍경래 군사의 목을 사서 바치고 죄를 사함받으려 했다. 그러나 농민의 고발로 모두 밝혀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영원히 욕된 이름을 남기고 처형당했다.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뿔뿔이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삼족을 멸하는 끔찍한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안동 김씨라는 가문의 덕이었을 것이다.

비로소 집안의 내력을 알게 된 김병연은 「자탄(自嘆)」이라는 시에서 눈앞이 캄캄한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구만리 장천 높다 해도 머리 들기 어렵고
삼천리 땅 넓다 해도 발 뻗기 힘들구나!

천지간을 바람처럼 떠돌기 시작한 때가 그의 나이 22세. 그야말로 구만리 같은 앞길이 막혀버린 데다 할아버지를 두 번 욕되게 하였으니 하늘을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누구에게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가쁜한 나의 삿갓 빈 배와 같고
한번 쓰니 49평생 다 가는구나
소먹이 아이 들에 나서며 쉽게 걸치고
고기잡이 노인 갈매기 벗삼으며 드러내는 것
술 취하면 비라보던 꽃나무에 벗어걸고
흥 오르면 달뜬 누각에도 걸치고 오른다
세상 사람 의관은 겉꾸밈 한결같지만
하늘 가득 비비람쳐도 삿갓 홀로 걱정 없어라.
—「삿갓을 노래함」

그렇게 그는 평생을 주유천하한다.



고은의 장편소설 「김삿갓」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이대로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붙이는 저대로
손님 접대는 가세대로
시정 매매는 세월대로
만사가 안되네 내 마음대로
그렇고 그렇고 그런 세상 지나가는 대로.
—「대나무시(竹詩)」

부평초처럼 떠도는 그의 입성이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그는 푸대접하는 스님과 선비들을 향해 자독한 욕설로 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중 가장 알려진 것이 「이십수하(二十樹下)」이다.

이 씹할 나무 아래 서러운 나그네 (二十樹下三十客)
망할놈의 마을에 드니 쉰 밥만 주는구나 (四十村中五十食)
인간세상에 어찌 이런 일 있으랴 (人間豈有七十事)
집에 돌아가 설은 밥 먹는 것만도 못하구나. (不如歸家三十食)

그러나 없는 찬이지만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인정에 대해서는 한없이 고마워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네 다리 소나무 소반에 죽이 한 그릇
하늘과 구름이 함께 떠도네
주인장, 제발 무안해하지 마우
물 속의 청산을 나는 사랑한다우.

그는 시를 아는 기생들과도 성적 은유가 질펀한 시를 주고 받기도 했으며 비어, 속어

등으로 기성의 권위를 비웃고 선비들을 농락하였다. 개성에서는 하룻밤 재워주기를 거절하자 이런 시를 읊었다.

고을 이름은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아걸며 (邑名開城何閉門)
산이름은 송악인데 어찌 나무가 없다 하느냐 (山名松岳豈無薪)

이런 시는 해학적이면서도 한시를 대중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문을 천시하는 선비에게는 이런 시를 써서 농락하였다.

靑松은 듬성듬성 立이요
人間은 여기저기 有라
소위 언뚝삐뚝 客이
평생 쓰나다나 酒라

진정 민중과 함께 숨쉰 민중 시인이며 참여시인의 면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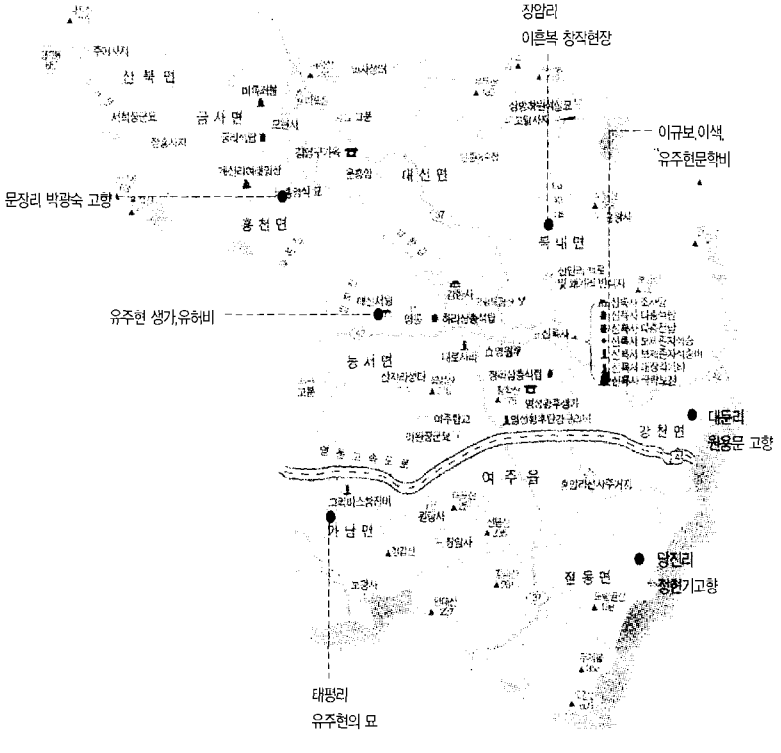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다. 둘은 첫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둘째부인이 있어 그에게 아들을 하나 두었다는 것은 나중에 밝혀진 것이다. 어쨌든 둘째아들 익균은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갓난아이 때 집을 떠난 아버지를 장성해서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김삿갓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한밤중에 모두 잠든 틈을 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후, 익산에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익균이 다시 아버지를 찾았다. 김삿갓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따라 길을 나섰다. 귀가 길에 김삿갓은 "너 먼저 천천히 가거라. 나는 여기서 뒤 좀 보고 가마"하였다. 그렇게 수수밭으로 들어간 김삿갓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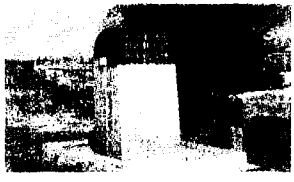
그렇게 사라진 그의 묘가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여주

여강이 들을 품어 큰 고을 하나 만들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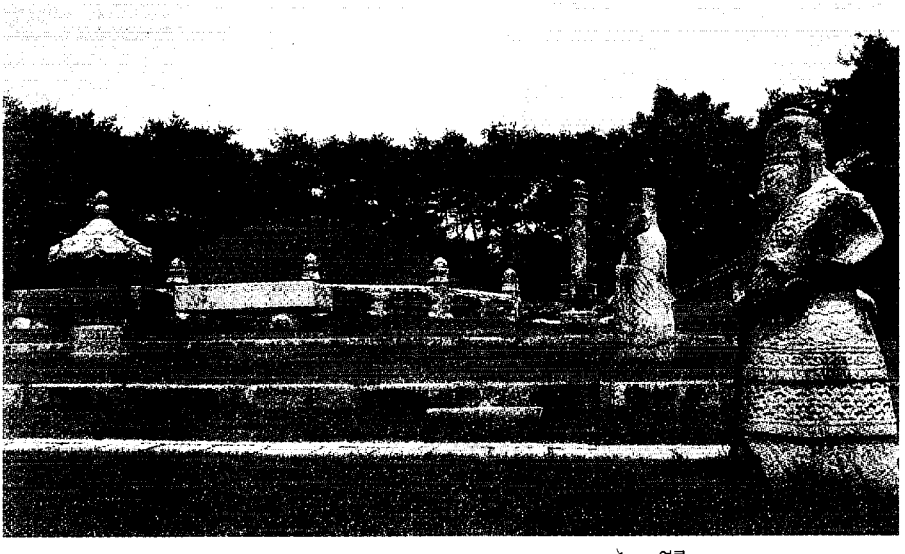
여주에는 유명한 사찰 신륵사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모시는 영릉이 있다. 여주군이 배출한 문인으로는 고려시대의 문인으로서 『동국이상국집』과 『백운소설』을 쓴 이규보가 있으며 여말 선초의 목은 이색이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역사소설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준 작가 유주현과 문학평론가 정현기, 시인 안금식, 정길남, 원용문, 이일섭, 박찬수, 박광숙, 이혼복, 경규희, 송길자 등이 있다.

여강이 들을 품어 큰 고을 하나 만들었으니

경기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여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한강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농업이 발달한 평야 지방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서거정이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강의 좌우로 펼쳐진 숲과 기름진 논밭이 멀리 몇 백리에 가득하여 벼가 잘 되고, 기장과 수수과 잘 되고, 나무하고 풀 베는 데에 적당하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는 데에 적당하여 모든 것이 다 넉넉하다' 고 했듯이 여주는 먹고 사는 데 참 좋은 승지임에 틀림없다. 새삼 남한강의 흐름을 정확히 짚은 선인들의 지정학적 식견에 감탄할 따름이다.

또한 청화산인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대동강 유역의 평양과 소양강 유역의 춘천과 남한강 유역의 여주를 조선 팔도 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촌으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여주에는 유명한 사찰 신륵사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모시는 영릉이 있다. 여주 군은 세종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뛰어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취지에서 '세종문화 큰잔치' 를 매년 10월 9일 한글날 성대하게 치러내고 있다.





영릉
능서면 왕대리. 영동고속도로 여주 나들목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여주읍으로 4. 4km 간 뒤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간 뒤 오른쪽 365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여주군이 배출한 문인으로는 고려시대의 문인으로서 『동국이상국집』과 『백운소설』을 쓴 이규보가 있으며 여말 선초의 목은 이색이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역사소설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준 작가 유주현과 문학평론가 정현기, 시인 안금식, 정길남, 원용문, 이일섭, 박찬수, 박광숙, 이흔복, 경규희, 송길자 등이 있다.

『백운소설』 - 이규보를 찾아서

고려시대의 문신인 백운거사 이규보는 1168년 여주에서 태어났다. 경전, 사기, 시문에 두루 능하여 호탕한 이규보의 시풍은 당대를 풍미하였다. 도연명의 영향을 받아 빼어난 시의 기운으로 고려 문학사의 큰 봉우리를 이루었다.

이규보의 시는 생활과 일치하여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의 사후 아들 이함이 1241년 간행한 이규보의 대표적인 저서인 『동국이상국집』은 고구려의 건국 서사설화를 오언시로 쓴 장시 「동명왕편」과 「국선생전」, 「천마산시」, 「고시 십팔운」, 「초입한림시」 등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 국문학사의 귀중한 보고이다.



이규보 문학비

또 시화평론집의 일종인 『백운소설』은 이규보의 뛰어난 시문 비평집이기도 하다. 백운거사 이규보는 1241년 운명했는데 그의 묘소는 강화도에 있다. 또한 여주 신륵사 향토문화 박물관에 이규보의 시비가 있다.

비람 부드럽고 햇볕 따뜻하여 새소리는 지저귀는데
수양버들 그늘 속에 반쯤 문이 닫겨 있네.
뜰에 가득 떨어진 꽃, 스님은 꽃 향에 취해 누웠나니
절에는 아직 그대로 태평스런 흔적이 남아 있구나.
—「봄날에 절을 찾다」



목은 이색 시비

『목은집』 - 이색을 찾아서

목은 이색은 1328년 여주에서 태어났다. 여말 삼은 중의 지조 높은 선비로서 오늘날 후세에도 충의와 절개의 상징으로 추앙받는 문인이다. 목은 이색은 정몽주, 김구용 등과 함께 명륜당에서 학문을 강론하며 성리학의 바른 체계를 세우기도 하였고 빼어난 시문으로 여말 선초 한문학의 일가를 이루었다.

조선 개국 후 이성계는 그의 학문과 인재를 아끼어 출사하기를 수차 종용하였으나 망국의 사대부는 오로지 육신을 고산에 묻을 뿐이라며 고사하였다.

목은 이색은 1396년 고향 여강으로 가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여서 후세까지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문하에 권근, 김종직, 변계량 등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했다. 저서로 『목은집』 55권이 있고, 여주 신륵사 향토문화 박물관에 목은 이색을 기리는 시비가 있다.

술이 사는 흥취가 늙을수록 더욱 많아
새로운 시를 쉬이 얻어 눈앞에 펼쳐지네.

바람이 자도 나머지 꽃이 스스로 떨어지고
구름이 옮겨가도 가랑비는 활짝 개지 않았네.
담 머리의 나비들은 꽃가지를 떠나가고
짐 모서리 비둘기는 깊은 숲에서 우네.
재물과 소요는 내 할 일이 아니지만
거울 속의 그 형색이 못내 분명하여라.
—「卽事 (오늘의 노래)」

실록대하소설 『조선총독부』 -유주현을 찾아서

『대한제국』, 『대원군』, 『조선총독부』, 『통곡』, 『황녀』 등 실록 역사소설을 써서 1960년대 독서계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든 작가 유주현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 2리에서 1921년 태어났다.

유주현은 와세다대학 전문부 문과를 수학한 후 1948년 『백민』지에 단편 「번요의 거리」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했다. 등단 초기 그가 1950년대에 발표한 「강건너 정인들」, 「기상도」, 「허구의 종말」, 「권태」, 「임진강」, 「장씨 일가」 등에서 작가는 단편소설에 치중하여 리얼리스트의 번뜩이는 시각으로 인간과 현실, 인간과 역사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상황 설정을 유려한 문장으로 그려서 문학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유주현은 1960년대 이후 우리 역사의 비극성에 심취하여 역사의 참담한 현장 속에서 소재를 찾아 실록 대하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유주현

『조선총독부(1964년)』, 『대원군(1965년)』, 『대한제국(1968년)』, 『통곡(1971년)』, 『황녀(1973년)』 등의 역사소설은 종래의 야담을 줄거리로 한 흥미 위주의 야사 소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역사관에 대한 심오한 깊이가 소설을 관통하는 자기 성찰들은 유주현 문학의 큰 미덕이었다.

작품집으로는 『자매계보』, 『태양의 유산』, 『장미 부인』, 『신부들』, 『백마산으로』 등이 있고 전 10 권의 방대한 『유주

현 역사소설 전집』을 1972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유주현은 1958년 『인덕을 향하여』로 제8회 자유문학상을 수상했고 1968년 『조선총독부』로 한국출판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은빛의 진아

백산이 만산홍하여 산도 늘도 취하도 한설같이 제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겨울에 내려 쌓인 눈을 보고 서설이라 하여 모두들 즐거워하면 오죽 좋을까. 이 땅의 백성들은 아주 오래한 예부터 겨울에 첫눈이 내려 쌓이면 서설이라고 기뻐해왔다. 다음해의 연사가 대풍일 것이라고 좋아들 해왔다. 인심이 더욱 순후하고 강산이 더 한층 기름지며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뻐들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내린 눈에 대해선 왜 아무도 그런 즐거운 감정을 못 느끼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일에만 오직 긴장하고 흥분해 있었던 것 같다.

곳곳을 관서 땅이고 유서 깊은 산천역이었다.

대한 추위를 불고 오는 북국의 눈발이 이틀째 소담히 내리다가 자금은 멎었다. 하지만 하늘은 우중충하게 찌뿌린 채 차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들 몹시 술렁거렸다.

밤새 내린 눈을 쓸고 또 쓸어 역구내는 지푸라기 하나 없는데도 역졸들은 싸리비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달리고 했다. 역구 밖 광장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서서 웅성거렸다.

이따금 삼륜보다도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요란했다. 붉은 테의 제모를 깊숙히 내려 쓴 일본인 역장은 초조한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곳은 군모자목를 쓰고 서 있는 군복차림의 사나이한테 다가서서 뭔가 조심스럽게 속삭이기도 했다.

한 손에 군모를 쥔 사나이는 흰장갑을 눈앞에 갖다대며 입을 한번 씰룩 하고는 또 아랫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 고장의 치안 경비를 도맡고 있는 헌병대장인 것 같다. 또 아랫수염을 연방 쓸어대는 품으로 보아 그도 역시 초조한 모습이다.

일본군 헌병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이는 사이에는 감히 틈기없이 어깨를 늘어뜨린 한국정부의 지방관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기차가 정주역을 떠났다는 전갈을 받은지가 벌써 한시간이나 된다. 막중한 귀빈들을 태운 경정열차가 곧 선천역 플랫폼으로 들어서기 직전이다.

때는 19_9년 12월.

남서순행이라는 이름 아래 조선왕조 최후의 국왕인 순종 황제를 비롯한 정부의 원로 대관 백여 명이 시체말로 민정시찰차 부산, 대구, 개성, 평양을 거쳐 선천, 의주로 거창한 여행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 여행은 민정시찰이라는 허울좋은 순행이면서, 실은 기울어진 나라의 마지막 등불인 서른한 살의 청년 국왕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려는 서글픈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왕위순은 이십칠대, 조선조 오백년 동안 병란을 피하는 몽진 이외에 지엄한 국왕의 거가가 구중궁궐의 두터운 문을 나서서 이런 변경에까지 온 일이 달리 또 몇 번이나 있었던가.

—『조선총독부』 중에서

『조선총독부』는 월간 『신동아』에 1964년부터 장장 3년여 동안 독자들의 열광리에 연재한 장편소설로 한국 문학사에서 본격적인 서사기록문학의 서장을 화려하게 연 작품이다.

19세기 초, 일본의 고도의 치밀한 계획 아래 조선을 합병 흡수하려는 음모 속에서 일제 36년 동안 전개되는 비극의 역사를 작가는 냉철한 눈으로 응시한다. 조선총독부의 주인공은 국가와 역사의 갈등 속에서 목숨을 잃는 애국자들이다. 또한 이름없이 쓰러지고 초개처럼 사라져간 민중들이 당당한 주인공들이다. 이 소설은 이등박문이 순종황제를 모시고 지방시찰을 하는 간교한 행각을 첫 출발점으로 하여 일제의 패전까지의 암흑 속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유주현은 새로운 역사 소설의 집필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지병으로 1982년 운명했다. 유주현의 아호는 침묵의 역사를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이 들어있는 묵사(默史)다.

그의 묘소는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선영에 있고 유



유주현 시비와 생가유허비
유허비는 여주군 능서면 번도2리에 있고 신륵사 향토문학박물관에 유주현 문학을 기리는 시비가 있다.

주현 문화을 기리는 유허비가 능서면 번도2리에 있다.또한 여주 신륵사 향토문화박물관에 목사 유주현 시비가 있다.

「돌의 고백」, 시조시인 원용문을 찾아서

비바람 온갖 풍상/ 세끼 밥 먹듯 했고//
어디서 굴러왔는지/ 뿌리조차 모르면서//
모질고 무참하나 목숨 /보도 위에 박혀 있나.//
오는 이 가는 사람 / 심심하면 걷어차고//
욕증한 차바퀴는 / 천둥 번개 치게 하고//
가슴에 치솟는 불은/ 무언으로 끄며 산다.//
전생의 화려한 삶/ 까맣게 잊어버려//
뛰지도 날지도 못하는/ 신세 한탄해가면서//
자켜온 양심 하나로/ 삶의 보람 느껴본다.
—「돌의 고백」

여주를 동서로 관통하며 억겁의 오랜 세월을 지켜보았을 남한강가의 돌은 수석가들에게 단연 으뜸으로 치는 존엄 같은 존재다. 그러나 돌은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돌의 고독을, 돌의 아픔을, 돌의 침묵을…… . '어디서 굴러왔는지 / 뿌리조차 모르' 는 어떤 버림받은 삶처럼 존재하는 침묵의 돌은 천둥 번개소리에게 저의 본성을 의탁하여 소리치게 하지만 돌은 '가슴에 치솟는 불' 을 이찌 주체하지 못하고 '무언으로 끄며 산다.'

시인은 돌의 얼굴 속에서 강천면 대둔리에 뿌리 내렸던 옛 조상들의 가여운 삶을 보았던 것일까. 그렇기에 '뛰지도 날지도 못하는' 신세가 아니라 모진 비바람에도 뛰지도 날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대지의 고독을 감내하는 미륵 같은 돌의 심성을 닮고 싶은 시인의 꿈이 「돌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다.

고향을 떠나 살 때 / 당신은 찾아왔지요//
음력한 얼굴에다 / 정글정글한 목소리//

골백 번 지워버려도 / 지워지지 않는 환영.//

눈 뜨면 멀리 갔다 / 눈 감으면 다시 와서//

가슴 속 파고들어 / 오장육부 다 녹인다//

너보다 더 지독한 친구 / 어디 가서 또 만나랴.//

둥글지도 모나지도 / 곱지도 않은 것이//

밤이면 집요하게 / 찾아와서 괴롭히고//

때로는 불질러 놓고 / 도망가는 비겁자여.

—「고독」

원용문은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에서 1938년에 11월 10일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 강천초등학교와 문막중학교를 졸업했다.

"고향을 떠나 살 때 당신은 찾아왔다."

원용문이 강천면을 떠나 낯선 객지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 그의 가슴에는 시(詩)라는 짐승이 한 마리 자란다. 시라는 이름의 고독한 짐승은 때로는 '음흉한 얼굴로 때로는 골백번 지워버려 지워지지 않는 환영' 으로 원용문을 찾아와 괴롭히지만 끝내 그 짐승은 내 가슴속을 파고 들어 오장육부까지 다 녹여서 시인은 지독한 친구 같은 짐승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었으리라.

처음부터 시인은 내심, 어서 그 짐승과 한몸이 되기를 고대하였을 것이다. 원용문의 세번째 시조집 『그리움의 미학』은 그런 산고 속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원용문은 서울대 국문과와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1975년 『월간문학』에 「사슴기」가 당선되어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 시조집으로 『여름일기』, 『신록 앞에서』, 『그리움의 미학』 등이 있고, 그는 현재 한국교원대학 인문사회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평의 어둠걷기」 - 정현기를 찾아서

문학평론집 『비평의 어둠걷기』로 제 3회 김환태 평론문학상을 수상한 문학평론가 정현기는 1941년 1월 3일 여주군 점동면 당진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점동면 당진리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점동초등학교, 점동중학교, 점동공고를 나

오고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와 연세대학원을 졸업하여 해직, 복직 등의 여러 곡절을 겪고 현재 연세대학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현기는 1978년 문학사상에 「인간이라는 욕망의 늪 - 김유정의 노다지론」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다. 그러나 저 1980년 5월의 참극과 광기와 폐악이 판치는 역사 앞에서 이 땅의 문학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었듯 정현기도 1982년 모교인 연세대학 강단을 강제로 떠나야 했다. 정현기의 해직은 실천적 삶과 치열한 문학정신이 숙명적으로 조우해야 할 도정이었을 것이다. 1980년대 폭력의 어두운 질곡 속에서도 그의 붓은 더 깊고 유장했다.

1990년대 들어 비관적인 지구 생태계의 위기의식과 관련하여 정현기가 발언한 「한국현대문학이 다룬 환경문제」를 들어보자.

잘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편리하게 먹이를 구하고 편리하게 오고 가며 편리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물품을 갖고, 그리고 안락함과 쾌락이 보장된 삶만이 과연 잘사는 삶인가? 참고 견디며 꿈꾸고 기다리는 마음을 키우는 삶,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가꾸고 즐기는 삶은 잘사는 삶 축에 들지 못하는가?

근대화란 결국 석유라는 화석 연료를 신으로 믿는 사제들과 그 신도들이 염원하는 삶의 행진이다. 석유 미신의 광신자들인 그들에 의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은 파괴 훼손되었고 그리하여 풍요로운 삶을 급속하게 실현하려는 속악한 욕망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20년대에 이미 영국의 칼라일이 경고하였고 여러 생태학자들이 염려하던 이 석유 미신에 의해 탄생한 현대 문명의 자기 파멸의 발걸음을,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우쳐야 한다고 시인들은 노래한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만드는 문명은 우리의 희망이 절대 아니다. 생명은 절대 경외되어야 한다.

생명 / 한 줄기 희망이다 / 캄캄 바닥에 갇힌 이 목숨 / 한 줄기 희망이다 // 돌이킬 수도 / 빌어볼 수도 없는 이 자리 // 노랗게 쓰러져 버릴 수도 뿌리쳐 솟구칠 수도 없는 // 이 마지막 자리 // 어머가 / 새끼를 짜안고 울고 있다. / 생명의 줄기 / 한 줄기 희망이다.

내 평생 노래를 한들 / 저 산에서 생각난 듯이 흘리는, / 생명 바다 깊은 심연을 분늑 열어 제치는 / 경

소리 근처에나 갈까. / 빌레와 흙과 그늘이 / 목에 찬 허스키. / 무슨 창법 따위커녕은 / 그냥 제 생명에 겨운. / 도무지 말 같지도 않은 / 굉소리 근처에나 갈까. // 만물 속에서 타오르는 / 저 생명의 아지랑이를 / 내 노래는 숨쉬느니 / 말이여, 바라건대 / 생명의 아지랑이여.

위의 시는 김지하의 「생명」 전문이고, 다음 것은 정현종의 「생명의 아지랑이」이다. 벼랑에 선 듯한 현대 문명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자연 환경이며, 만물의 생명을 경외하고 그것을 되살려줄 지구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김지하가 읊조리고 있는 동안, 인간이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저 인위적인 문명의 모든 것은 생명이 자발적으로 내지르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다는 점을 정현종은 힘주어 주장하고 있다. 나무 한 그루 (「나무여 : 생태시 1 」), 시멘트에 묻혀 숨 못 쉬고 있는 흙 (「흙냄새」)에서 느끼는 정현종이 근래 들어 부쩍 이 지구상의 생태계 현실을 걱정하는 시편들을 쓰고 있다. 김지하가 생명사상을 부르짖으면서 지구 환경을 걱정해온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이제 우리들 생명을 지탱시켜줄 근원이 더는 '잘살아보자'는 구호 속에 묻혀서는 안됨을 시인들은 꿰뚫어보고 있고 우리들 주변에서 음모되고 있는 생태 파괴 현실을 그들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산야를 무턱대고 파헤쳐 오래 묵은 나무를 캐고 바위를 캐며 흙을 뭉개어, 거기 잔디를 심고 농약을 뿌리며 시멘트 건물을 세운 다음 휴식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저 비정한 생명 파괴자들, 물신 숭배를 부추기는 무모한 사제들, 지구를 파먹는 도굴꾼들, 음모꾼들, 민중의 생명을 담보로 치부하는 파렴치한 돈놀이로, 저들은 결국 아름다운 우리 산야는 물론 지구를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흉물로 만들어놓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그 파괴된 자연이 내뿜는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말 것이다.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을 놓고 작가나 시인들은 어쩌면 더욱 치열한 가락으로 생명을 노래할 것이며 그것의 파괴자들을 매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시작(詩作)은 시작되었고 산이나 내나 강, 바다는 중병을 앓게 되었으니 말이다. 모두 눈여겨볼 일이다.

—「삶의 모든 것에 관한 마음 바꾸기가 가능할 것인가?」 중에서

정현기는 만 7년만인 1988년 연세대학교 강단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정현기는 『비평의 어둠걷기』, 『한국문학의 해석과 비평』, 『이태준』, 『한국문학의 사회사적 의미』,

『소설로 열리는 사람들』 등의 비평집을 상재했고 『비평의 어둠걷기』로 제3회 김환태 평론문학상을 1991년 수상한 바 있다.

「빈들에 나무를 심다」 - 작가 박광숙을 찾아서

1950년 여주군 흥천면 문장리에서 태어난 작가 박광숙은 고향의 넉넉한 자연을 배우며 문장초등학교와 이천 양정여중에서 꿈많은 소녀시절을 보냈다.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교사생활을 했으나 1970년대 유신 폭정에 항거하는 '남민전'에 가입 활동 중 김남주 시인을 만났다.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서도 박광숙의 문학적 열정은 안으로 더 다져져서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왕성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낯선 곳에서의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다시 봄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는 막막한 마음으로 뜰을 서성입니다.

지난번 그곳을 다녀온 이후 봄살을 좀 하였습니다. 고달픈 여정도 아닌데 봄살을 하는 자신이 싫어 밖에 나가 일을 해보기도 하고, 가구와 그릇들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밤늦도록 책을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의 갈피에 박혀 있던 아픔이 웬만큼 사라진 줄 알았는데, 봄이 먼저 알고 대신 앓아주는 모양입니다.

햇살이 한없이 따뜻합니다. 남향뜰이 뜰에 봄빛이 가득 쏟아져 내리자 법통 안에 갇혀 있던 벌들이 모두 밖으로 나온 듯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겨울을 무사히 견디고 난 작은 생명들이 벌이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의 비행이 경쾌한 춤과 음악 같아 덩달아 마음이 들뜹니다. 윙윙거리는 가벼운 떨림과 비행에 실어 며칠 동안의 몸살을 털어내고 봄빛이 채비할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지난 2년 동안의 생활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생활이 주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위안으로 우리는 상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몸을 둘러싸고 있는 딱지를 조금씩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처럼 흐르고 바람이 불면 바람처럼 흔들리고 안개가 끼면 안개처럼 산아왔다는

것을 선생님은 아시겠지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3개월 동안 벌였던 암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조용히 손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우리 두 모자에게 매어져 있던 곤도 풀어졌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우편함은 텅 비었습니다. 그림자같이 산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고 돌아 마침내 강화의 옛 집에 돌아왔고 벌써 2년이 지나 아이는 3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흙을 딛지 않고 사는 도시생활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이냐며 도시생활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의 말에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항변했는데, 지금 저 자신이 흙을 파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 요량도 없이 무턱대고 내려와 산 지 2년. 그동안 땅은,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우리를 변모시켰습니다. 어미 잃은 어린 강아지같이 칭얼대고 보채며 제 성질에 못 이겨 몸부림치던 아이도 이제 흙살이 올라 아이를 끌어안으면 풋풋한 흙냄새가 납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고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일까요. 처음 이곳으로 내려왔을 때를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죽어도 못 살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절망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 흔히 하는 말처럼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되었고 그가 없어도 둘만으로도 행복을 엮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가 생각납니다. 타르코프스키인가 하는 소련에서 망명한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희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암으로 망가져 가는 몸을 끌어안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영화를 만들고는 세상을 떴다고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살던 집이 활활 불에 타버리지만 나무에는 싹이 돋아났던가, 어쨌든 이 영화는 꺼지려는 생명을 끌어안고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이 영화를 너에게 바친다' 하는 유언을 자막으로 흘려보내며 끝을 맺습니다.

마당가에 서 있는 이파리 하나 매달고 있지 않은 느티나무를 보며 때때로 예전에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어쩜 그 영화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 영화를 보며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혼신의 힘을 모아 만든 작품이라는 것보다, 일곱 살 난 아들이 언젠가 바짐지도 모를 좌절의 늪에서 건져올릴 구원의 나뭇가지를 던져주고 떠나는 감독의 부성애보다 더 진한 무엇이 그 영화에는 있었습니다.

허무보다 진한 삶의 욕구가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바닷가 외딴 집, 그곳에 사는 어린 아들과

한 늙은 아버지. 영화를 본 것이 그가 세상을 뜨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도 했지만, 아주 깊은 감동과 위안을 받았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크나큰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영화였지만 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희망의 싹이 메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싹을 살려내려는 끈질긴 의지의 봄부림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어 살려내겠다는 헛된 망상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지만, 이곳에 와서 산 지난 이태동안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와 꽃들과 풀을 심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다 심기도 하고 산과 들에서 캐다 심기도 하고 이웃에서 얻어다 심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하늘이 눈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놈을 데불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아빠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엉덩이로 하지?

이제 갓 네 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을 어이없이 듣고 나서
나는 야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쓰윽 훑어보았다 자미담 고추밭에서
아니 셋이 하얗게 엉덩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신마늘에 갈린 초승달이 입이 귀밑까지 째지도록 웃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추석 무렵」이라는 시입니다. 「희생」의 감독이 자신의 조국에서 쫓겨나 본 타국에서 메가폰을 잡고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영화를 찍었듯이 그는 자기의 땅에서 쫓겨나 10년 동안 유폐되었다가 돌아와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 아들의 종알거림에 문득 시상이 떠올라 고향에서 돌아와 시 한 편을 써놓고, 그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남긴 마지막 시에 나오는 초승달처럼 입이 째지게 살 웃고 까부는 넘쳐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고향의 들길은 아니지만, 자전거 바퀴에 잔뜩 흙덩이를 매달고 달릴 수 있는 논둑길 밭둑길이 아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메마른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갑니다. 죽어 있던 나뭇가지를 흔들어 깨우는 미세한 떨림과 땅속 깊은 곳에서 수액을 길어올리는 뿌리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들릴 듯 말 듯 부산한 봄뜰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토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입 안에서 웅얼웅얼 독백처럼 하던 혼잣말을 입밖으로 풀어내어 길고 긴 이야기를 엮어내고 싶습니다.

-「죽은 나무에 물을 주다」 중에서

본문 속의 '그'는 토일이의 어진 아버지이며 작가 박광숙의 지아비인 민족시인 김남주 시인을 가리킨다. 10여 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김남주 시인은 옥중에서 키운 암으로 큰 뜻을 다 펴지 못하고 1994년 2월 13일 끝내 운명했다.

박광숙은 역사와 사회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고 있다. 그의 산문집으로는 『빈들에 나무를 심다』 등이 있다.

「길, 잇닿은 길일수록 아득하여라」 - 이흔복을 찾아서

예로부터 시인을 일러 길(道)을 구하다가 길에서 떠돌다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노자가 노래했던가.

시인 이흔복은 1963년 용인군 모현면 갈담리에서 태어나 이천 신둔면 도암리에서 도암초등학교와 이천북중을 마치고 또 그곳을 떠나 여주 북내면 장암리에 둥지를 틀어서 떠돌이 삶을 보내 여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곳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길의 사람이었다.

그는 경기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1986년 문학 무크지 『민의』에 시작품을 발표하며 등단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청년시인들로 구성된 『1980년대』 동인으로 활동했다.

이흔복의 시는 화려한 꽃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 씨앗에서 어린 꽃이 피어난다는 지극한 생명론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시대 야만과 어둠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언 땅을 뚫고 나와 새잎을 틔우는 수줍음 많이 타는 민들레처럼 그의 시는 다정하고 순정하다.

산 너머엔 또 산이 있고 강 건너 플라타너스 숲 밖은 끝없는 억새밭, 그곳에서 많은 날들을 함께했던 우린 참으로 진실했다.

꽃 피고 지면 한 잎 한 잎, 잎새의 초록은 차츰 농색이 되어 나무를 풍성하게 하듯이 바람도 없이 나직한 움직임만으로도 낙엽이 지고 세찬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소담스런 눈꽃이 피어나듯이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의 꿈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길, 앳날은 길 일수록 아득히 멀나 하지만 그 먼 길을 함께 걸노라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풍경을 배경으로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풍경을 배경으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고산은 심산 산중에 있고 여강의 흐름이 제법 유유한 그곳은 내가 사는 곳, 나는 사람을 만든다.
—「서로서로」

이흔복은 그의 무정처 길의 숙명들을 노래하면서 "세월은 추억 속의 어린 나를 삼십대로 만들어버렸다/어제가 오늘 같고/내일 또한 오늘 같은 삶/ 거듭 살다보면/ 벌리 아름다운 길들/ 언제나 변함없고/ 나는 빗방울치는 나무들 울창한 길을 따라/ 십여년이 훨씬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버스를 탔다." 필시 시인은 낯선 길위에서 갈담리, 도암리, 장암리 따위 그리운 이름들을 불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흔복은 시집 『서울에서 다시 사랑을』을 1998년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했다. 현재 그는 모교인 경기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또한 여주에는 초대 여주문화원장을 역임한 시인 안금식, 정길남 등이 주도하여 모인 여강문학동인회가 있는데 그들은 여주가 낳은 한국문학사의 큰 일꿀인 묵사 유주현의 문학을 기리는 묵사문학제를 개최, 거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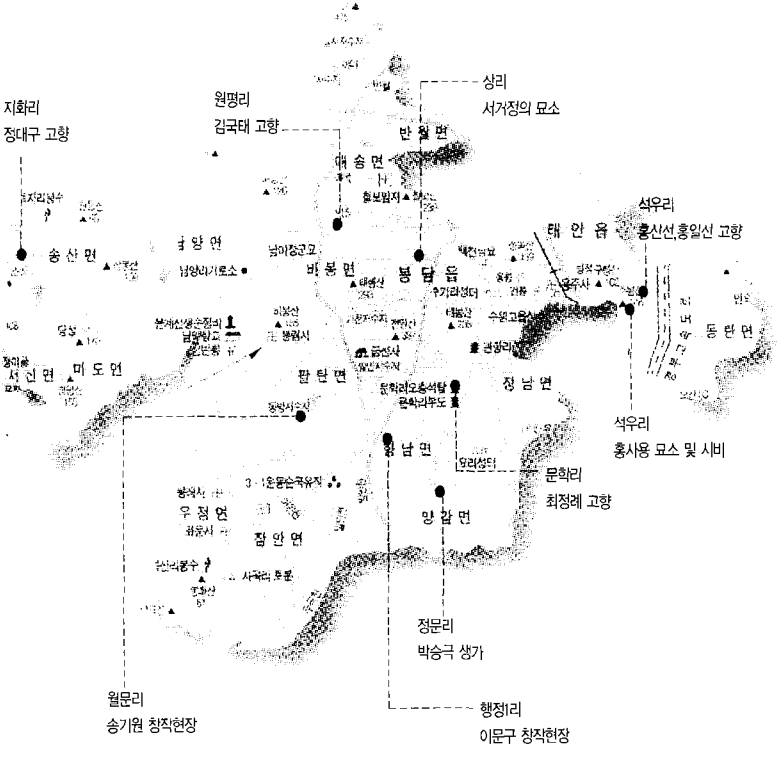
그리고 여주에는 문협 여주지부가 1995년 창립되어 기관지 『여주문학』 5호를 발간하여 향토문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 회원문인들로는 이일섭, 강태희, 정기명, 홍은숙, 박찬수 등이 있다.





화성

기전문화, 화성의 마음을 찾아서



기전문화, 화성의 마음을 찾아서



근대문학 개념으로서의 화성문학을 거론할 때 일제강점기의 문학인으로는 난파 홍영후와 노작 홍사용이 중앙 문단을 통한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고,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공간까지 카프의 맹원으로서 프로문학의 입장을 고수한 박팔양, 박승극의 문학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 화성문학은 상당기간 내적 침체기를 보내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홍신선, 김국태, 정대구 등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등단한 홍일선, 김우영 조석구 등에 의해 새로운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화성군은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여 경기도의 서남해안과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드넓지는 않으나 포근한 평야를 아우르면서 '기전' 지역의 중요 거점으로 자리잡아 오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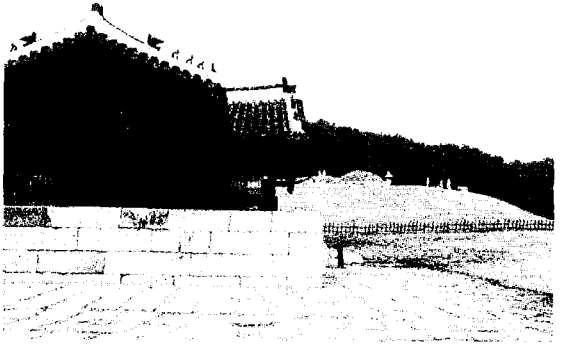
『택리지』를 지은 청화산인 이중환(李重煥)에 의하면 수원(정조가 화성을 축성하기 이전 화성군의 이름)은 예로부터 농상업의 발달과 물자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라고 하였듯 사람이 비교적 살기 좋던 땅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정조시대에 축조한 화성(華城)은 실학사상의 요체인 민본주의 과학사상의 결실이었으니, 이로부터 화성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기전문화의 근원으로 이해되어 마땅할 것이다. 화성군은 이런 문화유산의 소중한 보고이면서도 1970년대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인 산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이라는 거대한 비만의 그늘에 가려서 본모습을 한동안 저버리고 살아야 했다. 이 또한 뒷사람들이 숙명처럼 치러야 할 업보였으리라.

화성의 유적으로는 단연 용주사가 손꼽힌다.

태안읍 송산리 성황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년)에 갈양사

로 창건되어 고려 광종 때에는 혜거국사가 불도를 닦던 곳으로 조선 정조대왕이 양주군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지금의 화산으로 이장하고 사찰을 중건하여 융릉(사도세자의 묘)의 원찰로 삼았다. 정조의 효성은 지극하여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긴 뒤 자주 행차하면서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하였다. 용주사에는 국보 제120호인 범종을 비롯하여 정조의 애절한 효심이 깃든 '불설부모은중경'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사찰 명칭은 낙성식날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꾼 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융건릉



용주사



용주사와 융건릉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와 송산리. 수원역에서 오산쪽으로 난 길을 따라 약 5백 미터쯤 가면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이중 오른쪽 43번 국도를 따라 5km쯤 가면 길 오른쪽에 쌍용정유 광명충전소가 나온다. 그곳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난 306번 지방도로를 타고 수원대학교를 지나면 곧 융건릉이고, 거기서 용주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주사 관리사무소 0331) 234-0040

한편 근처에 있는 융건릉은 비운의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경의왕후를 합장해 모신 융릉과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릉인 건릉을 함께 부르는 이름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야사를 통해 수없이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문학작품이나 방송극 등으로도 널리 소개되었다. 특히 융릉에 묻힌 경의왕후는 『한중록(閑中錄)』의 지은이로 우리 국문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혜경궁 홍씨이기 때문에, 문학기행을 하는 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다. 『한중록』은 정조의 생모이자 사도세자의 빈이었던 혜경궁 홍씨의 자전적 회고록으로서, 그가 회갑을 맞이하여 쓰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의 참살사건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한많은 생애를 순우리글의 유려한 문체로 쓴 것인 바, 『시궁록』, 『인현왕후전』 등과 더불어 궁정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한글 연구와 국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조선 여성의 불우한 이면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근대문학 개념으로서의 화성문학을 거론할 때 일제강점기의 문학인으로는 난파 홍영후와 노작 홍사용이 중앙 문단을 통한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고,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공간까지 카프의 맹원으로서 프로문학의 입장을 고수한 박팔양, 박승극의 문학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 화성문학은 상당기간 내적 침체기를 보내다가 1960년대 중반 이후 등단한 홍신선, 김국태, 정대구 등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등단한 홍일선, 김우영 조석구 등에 의해 새로운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고향은 이곳 화성이 아니지만 한때나마 화성 고을에 정 붙이고 살아서 한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을 집필한 작가들이 있으니 김용운, 이문구, 송기원 등 제씨들이 그들이다. 특히나 이 작가들은 소설 속에서 화성의 실제 향토명을 쓰기도 하고 근기(近畿) 지역의 빼어난 풍광을 묘사하여 화성문학을 빛내주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왕전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 – 노작 홍사용을 찾아서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막실 불당골에 가면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 누워 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라고 했던 슬픈 시인이 있다.

어머니 뱃대에 남모르게 소리없이 혼자 울도록 버림받은 그는 정말 누구인가. 그는 정말 실패한 시인이었을까. 일찍이 시인 두보가 썼던가. 시인의 운명은 시인을 저주한다고. 그리하여 홍사용(洪思容, 1900~1947)은 불행해져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었다. 오직 문학을 위하여 수백석지기 전답을 다 팔아 1920년대 낭만주의 자유시 운동에 뛰어

들었던 홍사용은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느 시대에나 시인은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시인의 실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가시면류관이 아니냐고.

당대 자유시 운동의 근거지였던 『백조』를 발행, 주재하고 일제에 적극 항거하는 내용들의 희곡 「벙어리굿」과 「김옥균 전」을 집필하고, 민족정신의 회복을 위해 신민요운동을 제창해 도처에 흩어진 조선의 민요를 발굴 수집하여 새로운 창작 민요를 발표했던 홍사용은 1900년 음력 5월 17일, 석우리 돌모루에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바로 나오는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용수골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서울 재동에서 보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1907년 군대 해산을 당해 대한제국 통정대부 헌병 부위였던 부친 홍철유와 함께 향리인 돌모루로 낙향했다.

돌모루 서당에서 공맹을 비롯한 『통감』, 『사기』 등을 마치고 1916년 휘문의숙에 입학한 홍사용은 그곳에서 일생의 시업을 함께 도모할 벗들을 만났으니 박종화, 정백 등이 그들이다. 이들과 함께 1918년 소책자 유인물 『피는 꽃』을 펴내 문학적 정열을 키웠으나 1919년 3.1만세운동의 참담한 패배는 홍사용의 초기 시세계를 낭만적 허무주의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그때 지친 몸을 문학 속에 의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928년 『별건곤』지에 창작민요론 「조선은 메나리 나라」를 발표하면서 민중성 현장성을 갖춘 구비문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부흥하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홍사용의 창작민요시는 건강한 낭만주의적 서정시로 진일보하게 된다. 그리하여 홍사용은 『백조』 동인이면서도 1920년대 문학의 주류였던 탐미적 퇴폐주의에 감염되지 않은 순수한 서정시인이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사왕전에서도 쫓기어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맨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님께 받은 것은 사랑이었지요마는

그것은 눈물이더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것도 많지요마는……

"맨 처음으로 네가 나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어머니께서 물으시면은

"맨 처음으로 어머니께 드린 말씀은 '젖 주세요' 하는 그 소리였지요마는

그것은 '으아!' 하는 울음이었나이다" 하겠나이다 다른 말씀도 많지요마는……

이것은 노상 왕에게 들려주신 어머님의 말씀인데요

왕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어머님의 흘리신 피를 몸에다 휘감고 왔더랍니다

그 날에 동네의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모두 "무엇이냐"고 쓸데없는 물음질로 한창 바쁘게 오고갈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기꺼움보다도 아무 아무 대답도 없이 속이픈 눈물만 흘리셨답니다.

빨가숭이 어린 왕 나도 어머니의 눈물을 따라서 발버둥질치며 '으아' 소리쳐 울더랍니다.

그날 밤도 이렇게 달 있는 밤인데요.

으스름 달이 무리 서고 뒷동산에 부엉이 울음 울던 밤인데요 길게 쉬시며 웃으시는 듯한 얼굴을 얹는 숙이시더이다

왕은 노상 버릇인 눈물이 나와서 그만 끝까지 쉽게 울어버렸소이다 울음의 뜻은 도무지 모르면서도요.

어머니께서 조으실 때에는 왕만 혼자 울었소이다

어머니의 지우시는 눈물이 젖 먹는 왕의 뺨에 떨어질 때에는 왕도 따라서 시름없이 울었소이다

열한 살 먹던 해 열나흗 날 밤 멘잿더미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인데요 병이나 긴가 찌른가 보려고

왕의 동무 장난꾼 아이들이 심술스럽게 놀리더이다 모가지 없는 그림자라고요

나무꾼의 산타령을 따리기다가 건넛산 비탈을 지나가는 상두꾼의 구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

그 길로 왕달 우물로 가자면 지름길로 들어서면은 잘레나무 가시덤불에서 처량히 우는 한 마리 피랑새를 보았소이다

그래 철없는 어린 왕 나는 동무라 하고 좇아가다가 돌부리에 걸리어 넘어져서 무릎을 베이며 울었소이다

할머니 산소 앞에 꽃 심으러 가던 한식날 아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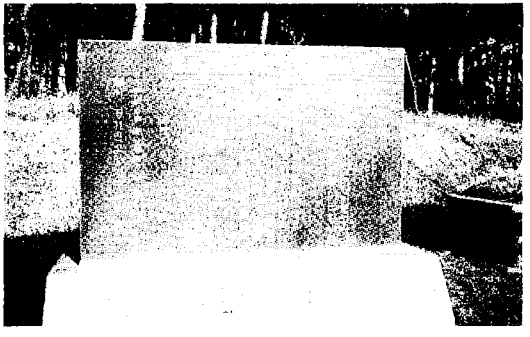
어머니께서는 왕에게 하얀 옷을 입히시더이다

그리고, 귀밑머리를 단단히 땋아주시며

"오늘부터는 아무쪼록 울지 말아라"

아! 그때부터 눈물의 왕은!

어머니 몰래 남 모르게 속 깊히 소리없이 혼자 우는 그것이 버릇이 되었소이다.





홍사용의 묘 앞의 시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먹실 물당골.

누우런 떡갈나무 우거진 산길로 허물어진 烽火둑 앞으로 쫓긴 이의 노래를 부르며 어슬렁거릴 때에 바위 밑에 돌부처는 모른 체하며 감중련하고 앉았더이다

아아 뒷동산 장군바위에서 날마다 자고 가는 뜬구름은 얼마나 많이 왕의 눈물을 싣고 갔는지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설움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홍사용의 문학세계를 감상적 허무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많이 읽히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는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슬픔과 한을 노래한 빼어난 서정시다. 시왕전(十王殿: 시왕을 모신 법당)에서도 쫓겨난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 눈물의 왕은 나라 잃은 힘없는 민중의 또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빼앗긴 조국을 상징하는 어머니께서, 오늘부터는 그만 울으라며 아들에게 입혀주시는 흰옷의 비의야말로 내일의 당당한 백의민족을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물론 아들은 차마 눈물을 거둘 수 없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남모르게 숨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토적인 소재에 민요가락을 운율로 차용한 홍사용의 시는 다소 감상에 기울어 나약한 심상을 드러내는 듯도 하지만 아들의 슬픔은, 왕의 눈물은 식민지 피압박 조선민중 모두의 것이었기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홍사용은 『백조』 발간과 극단 '토월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생존까지 위협받을 만큼

극도의 가난 속에서 심신이 많이 상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홍사용의 신극 운동은 실패였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집필하고 연출한 「할미꽃」, 「출가」, 「벙어리굿」, 「김옥균 전」 등은 근대 희곡문학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1937년 「김옥균 전」을 썼으나 총독부 사전검열에 걸려 주거제한을 받는 등 일제의 폭력은 극에 달했다. 특히 「벙어리굿」과 「김옥균 전」등은 검열에 삭제되어 실전된 희곡인데 원로 연극인 박진은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3.1운동 이후에 소문도 없이 눈치껏 종로 인경이 울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비밀히 비밀히 인경이 울리면, 서울, 시골 할 것 없이 방방곡곡에서 서울 종로로 모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서로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이다. 굿은 굿인데, 큰 굿인데,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굿이야. 일경이 눈치채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하는 내용이다" 라고 회고했다. 이러한 줄거리만 보고도 식민지 현실에 대한 홍사용의 날카로운 인식과, 연극을 전통 제의적인 굿으로 파악하는 그의 민족주의적 안목에 경탄할 따름이라고 문학평론가 최원식은 상찬한다.

홍사용은 『백조』 폐간 이후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다가 창작민요론과 그가 직접 지은 창작민요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문학의 새로운 득의처로 삼았다.

밤 빌어 죽을 쑤어서/열흘에 한 끼 먹을지라도/바삐나 돌아오소
속 못 차는 우리님아/타는 애 썩는 가슴도/그 동안 벌써 아픔 해주려니
내 나이 서른이면/어레벅은 삼십이라/아무려나 죽더라도
임자의 집 귀신이나/넋불이 푸르러지니/피릿소리 어찌나 불으라오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을/눈물에 젖어 드새울 적에
마음을 나스리고/ 이를 갈며 별렀어요
꿈마나 지척 같던 길/ 마나사 얼마나 멀리/ 설움이 앞을 서니
까마아득 주저앉소/ 님의 별 어떤 별이뇨/ 내 直星 하마 배틀할미
은하수 마를 때까지/예 앉아서 사위라오
—「離恨」

홍사용은 창작민요 「이한(離恨)」에서 일제의 강제 이주, 징용, 징병 정책 등에 의한 이동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애환과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어 오직 집안

의 기둥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두손 모아 비는 이농민 아내의 간절한 눈을 통하여 당대 칠흑같은 일제 치하 농촌 농민 현실을 핍진하게 드러낸다. 큰 비극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이 숨어 있듯 창작민요 「이한」에는 홍사용 특유의 비장한 비극미가 읽는 사람을 압도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감이 풍년이라고
짚신 한아비 그것을 지키며 좋아합니다.
씨많은 속소리 떫기만 하여도
소꿉질 가음으로 그나마 놀라고
다팔머리 이웃애들 날마다 꼬여요
"요것들 어린것이 감 따지 말아라"
"당신이 죽으면 가지고 갈 테요"
"요녀석 죽기는 왜 죽는단 말이냐"
"그러면 마음대로 오백년 사오"
아이들은 지껄이고 몰리어 가는데
모른 체 한아범은 짚신을 삼으며
"첫서리가 와야지 감을 딸 터인데."
—「그러면 마음대로」

한아비가 감나무에 열린 감을 지키기 위해 동네 철부지 아이들과 서로 말꼬리를 잡으며 벌어지는 정경을 해학스럽게 그려낸 위 민요시는 홍사용이 1922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유년기를 고향 돌모루에서 보낸 홍사용의 농촌 체험을 적절히 배합하여 오늘날 다시 읽어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켜 준다.

그리고 그는 「조선은 메나리 나라」라는 논문에서 민요를 철저히 민중의 노래로 규정하면서 무가, 불교가요, 판소리, 배뱅이굿, 탈춤 등에서 민요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작 홍사용의 투철한 민족정신은 흑심한 가난 속에서도 일제의 강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창씨개명 거부는 물론, 친일의 글을 단 한 자, 단 한 줄 쓰지 않았으니 당대의 내노라하는 대다수 훼절 문학인들을 크게 부끄럽게 했을 것이다.

시인 조지훈은 「홍노작론」에서 "몇 년을 하루같이 흰모자에서 흰신만 신고 다니던 그 깨끗한 모습, 술은 마실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날 샐 무렵까지 앉은 자리에서 벽에 한번도 기대지도 않던 그 단정한 모습이며 불기의 민족 감정 때문에 글 쓸 자리를 고르다 못해 남 먼저 붓을 꺾고 만 그 정신이 역력히 살아온다. 이 땅의 시인으로서 가난하고 한많고 다정하고 예리함이 노작 같은 이 몇 사람이 되라만 가난해도 가난을 말하지 않으며 괴로워도 괴로운 것 같지 않고, 술을 즐겨도 술을 마시는 이 같지 않으며, 알아도 아는 것 없는 듯한 이가 바로 인간 노작이다. 그의 씻은 듯한 청빈, 서릿발 같은 지조는 언제나 옳은 선비의 거울이 되려니와 어둔 곳에서 모해하고, 권세에 아첨하며 (중략) 머뭇거리는 세속의 못된 선비에게 그는 또한 뼈아픈 채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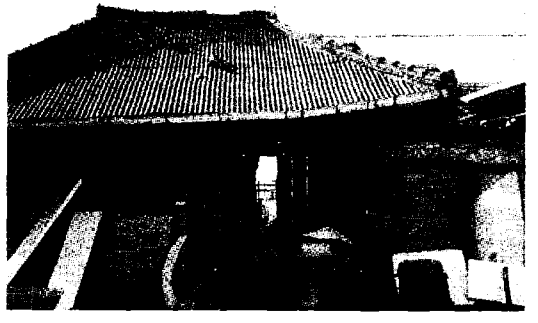
수백석지기 재산을 『백조』 발행과 극단 토월회, 산유화 운영에 다 써서 노작이 작고하던 해 1947년경에 고향 돌모루에는 적빈의 누옥 삼칸이 겨우 남아서 1970년대 중엽까지도 부인 원씨와 딸이 기거하여 이따금 노작 홍사용의 문학을 연구하는 문학도들이 찾던 집터도 남의 손에 넘어가 웃자란 망초꽃 잡초만이 세월의 무상함을 달래주고 있었다.

그렇게 황량하게 빈터로 남아 있다가 최근 몇해 전 동네사람 중 지인이 집터를 사들여 새로 집을 짓고 오손도손 살아가니, 그것 또한 따뜻하게 가슬을 거느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떠돌아야 했던 눈물의, 설움의 시인 홍사용의 운명이 아닐런지.

현재 노작의 묘소는 수원, 화성 지방의 문인들에 의하여 1984년 5월 24일 화강암 배석을 두른 봉분으로 개사초된 것으로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새겨져 있는 시비와 함께 그가 자란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돌모루 주봉 기슭 먹실골에 위치하여 '이 세상 어느곳에든지 설움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 라고 오늘도 애닯게 노래하는지 묘소 초입 길가 원추리꽃들이 가녀린 몸을 바람에 내주어 흔들리고 있었다.

숨죽여 숨어서 듣는 노래 - 작가 박승극을 찾아서

그 마을 양감면 정문리에 가면 풍우에 잘려나간 불두(佛頭)처럼 외로운 사내가 있다. 살아 있어도 죽은 듯 숨죽여 숨어 있던 사내, 박(朴)자 승(勝)자 극(極)자, 이름 석자가 분명 있어도 이름 붙여지기를 거부당한 사내. 그랬다. 분단 조국에서 반세기 동안 그의 이름은 하나의 금기였다. 일제 강점기 카프의 맹원이었던 문학평론가요 소설가인 박승


박승극 생가

극은 1909년 12월 14일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정문리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박승극은 고향인 화성군을 비롯하여 수원 평택지방에서 조국해방운동과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3년여 감옥생활도 한 바 있는데, 그의 문학활동은 카프 가맹 이듬해인 1929년 『조선지광』 6월호에 일제치하 농민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단편소설 「농민」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에 쓴 작품 「재출발」, 「풍진」, 「백골」, 「술」, 「눈」 등은 그가 농민운동 현장에서 얻은 체험이 바탕이 되어 뛰어난 사실성을 얻을 수 있었다. 중앙대 이명재 교수의 언급처럼 1930년대에 발표한 「풍진」, 「백골」이나 해방 직후 1947년에 발표한 「별도 성내다」 등의 문학사적 의미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카프 문학의 동지이면서 같은 근기지역의 반남 박씨 문중 한 항렬 위 종씨이며 동향 선배시인인 박팔양이 비평활동을 동시에 했던 것처럼 박승극 역시 소설창작과 비평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당대의 임화와 김남천의 저 유명한 논쟁에도 참여하여 두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여 문학평론가로서도 입지를 탄탄히 굳혔다. 「농민문학 진흥론」, 「농민문학의 신과업」등에서 박승극이 주장한 토지 분배, 토지개혁 등의 이슈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는 당대 조선문제의 핵심을 토지개혁에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나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문학가동맹과 같은 독립된 농민문학 단체를 만들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농촌, 농민문제를 주요 계급모순으로 이해하면서 당대 농민의 굶주림, 공출, 징용, 소작인과 지주 계급간의 첨예한 갈등을 작품화하여 1946년 발표한 단편소설 「떡」, 1948년의 중편 「밤」 등에는 해방공간 조선의 현실이 잘 그려져 있다.

또한 문학적 열정에 비례하는 조국애로 해방공간에서 박승극이 수행한 민주주의 민족전선 경기도 지부 활동 및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상무위원 활동이나 건국준비위원회 수원지부의 핵심적인 활동이 그의 '뜨거운 문학'을 지우거나 폄하하는 전제가 된다면,

이는 결국 역사에 대한 모독이고 폭력이리라.

박승극이 1947년 『문학평론』 3호에 발표한 단편소설 「길」을 읽어보자.

기차는 좁처럼 탈 수 없고, 트럭을 타는 일도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었다. 통히 체면과 염치불고하고 악을 써 덤벼들어야만 겨우 타거나, 그것도 까딱하다간 타지 못하는 것이 예사다. 보통 사람들처럼 버젓이 들어내놓고 다니는 몸이 못 되고 보니 더욱 거북살스러웠다.

바람은 매웁고, 해는 서산에 기울어졌다. 마침 공교롭게도 트럭이 '독촉지부' 사무소 근방에 머물러 버린 까닭에 용배는 슬쩍 뒤편으로 내려 지름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이 지방에서 가장 반동 테러가 심하기로 이름난 곳도 이 조그만 장터이다.

"어느 놈이든지 덤빌 테면 덤벼 보라!"

말로써 덤비는 자는 말로써, 폭력으로써 덤비는 자는 폭력으로써, 대하리라 했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그들 무지몽매한 도배를 말로써 타일러 설복시키리라 했다.

마침내 장터를 다 나올 때까지 어느 한 사람 아는 눈이 띄우지는 않았다.

눈쌀인 겨울이라 그럼직도 하겠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황량한 풍경일까. 나무 하나 없는 산(이른바 '해방' 은 이 나라 산에서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빼서갔다) 공동묘지 뫼처럼 엎인 납짝납짝한 초가집, 활기 없는 마을, 이십 년이나 삼십 년을 두고 매양, 마찬가지인 좁은 길……울퉁불퉁 얼어붙은 길이 한결 더 원망스러웠다.

감자기 쓸쓸한 생각이 치밀어올라 가슴이 써늘했다. 이십여 년 전부터 오고가는 이 길! 눈물과 한숨과 희망에 아로사겨진 이 길! 八一五 해방의 환희에 날뛰던 이 길! 그러나 웬일인지, 그렇게도 오매불망턴 고향길이, 발자국이 자꾸자꾸 늘어짐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름없이 살다 이름없이 죽자'

한때 괴롭게 되씹던 이런 체념이 다시 머리를 들지나 않을까 싶어 스스로도 두려웠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쓸쓸해짐을 금키 어려웠다.

'해방 전에도 밤길을 걸어야 하고, 해방 후 오늘에도 밤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인가'

그는 얼어붙은 밤, 얼어붙은 길을 대중잡이 걸어 내를 건넜다. 이 적은 내를 건널 때마다 제법 오강의 한우가 생각키어지는 용배였다.

혹자는 배설을 위해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사람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八·一五 해방 직후, 용배가 집을 떠났을 때 한면에 사는 선불을 송상하는 탈속한 노

응이 있어, 자진해 그의 집을 찾아와 일장의 의식을 갖춘 축원을 드린 일이 있었다고 하거니와, 이런 양반들은 녁녁히 그렇게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솔직히 말하여, 용배는 벼슬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정치운동을 하되 '정치'를 질기지 않는 사람이다. 만일 단지 그 벼슬을 따기 위해서라면 총독정치하 캄캄한 암흑시대의 벼슬은커냥 목숨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운동' 제일선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어느 구녁을 뚫든지 벼슬 한 자리쯤 딸라면 못 딸 것도 아니었다. 권세와 영화를 의미하는 벼슬을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이름없이 살다 이름없이 죽자— 의 그 고독한 생활을 다시 계속할 용배의 속임없는 심정이었다. (중략)

음력 섯달 그믐날, 끄나풀의 연락으로 경찰은 용배의 귀향을 탐지하고, 그를 체포코자 했다. 그러나 용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체포령이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이십 년 전부터 다시는 찾지 못할 아까운 청춘을 바쳐온 '죄'일까? 전시하 총독경찰의 끊임없는 주시 가운데서도 깨끗이 살라고 애쓴 '죄'일까? 해방 후 조국의 장래와 인민대중을 위해 혈투해 온 '죄'일까? 될 수 있는 대로 극소수의 반동분자만을 제외하고는 광범위의 각층을 관대히 포용하려 한 것의 '죄'일까?……그 파렴치한들은 도리어 이들더러 '민족반역자'라고 서슴없이 말한다니, 대체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사람이 된 이 세상이 아닌 담에야 하늘이 무서워 그럴 수 있을까?……

용배는 이 엄연한 사실, 경찰이 자기를 잡을라는 그 사실을 완강히 부인할랴 했으나, 사실은 사실대로 닥쳐오고야 말아 집을 탈출치 않으면 안되었었다. 옛부터 섯달 그믐달은 나갔던 사람도 들어와 자는 법이라는데, 용배는 이완 정반대로 되었다.

한 집에서 그를 반가히 맞아주었다. 부께미떡도 주고 일부러 쌀밥도 지어주고 했다. 몇 사람 농민이 모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제공출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주인은,

"대체 요새는 우떻기 되겐는가? 여기두 테러라나 하던 부랑자놈덜이 도라와서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패넘겼다네. 또 열아믄 명이나 잡혀가서 경을 팥다발치듯 치구 나오구……참, 세상이 우떻기 되넌건지?……"

하면서 용배의 대답을 기다렸다.

용배는 어느 편이 정말로 민주주의로서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어느 편이 가짜 민주주의로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대자본가, 대지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북조선의 민

주개혁을 실례로 들어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었더니,

"참, 그 말이 꼭맞네. 독립촉성회가 뭔가 하는 데는 죄다가 그런자들뿐인데그려. 마치 전의 경방단이나 국민총력련맹처럼, 하는게 걱 그와 비슷하데그려, 지번엔 그놈들이 공출을 하라고 위협하며 돌아댕겼지……"

입에 물은 담뱃대를 빼고 다시 숨을 돌려

"……그래, 미소공동위원회는 운제쯤 열릴 것인가?……암, 어서 속히 되야지. 그래서 하루바삐 정부가 서야 백성들이 살지, 온 이대루넌 전보다 날써 죄끔 읍네. …… 참 자네같은 사람들이야 조선독립을 위해 여간이나 애를 썼나 고생두 많이 하구. 암, 도딱은 보람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암, 성공하야구말구……"

그리고서는 극히 정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단편소설 「길」 중에서

1946년 10월 1일 대구 인민항쟁 실패 이후 좌절과 실의의 나날을 보냈을 작가 박승극이 1947년 2월에 발표한 단편소설 「길」에는 당시 혼란에 찬 해방 조국의 정치적 현실과 피폐한 민중의 생활 현실이 잘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는 수원, 오산, 양감면 등을 지칭하는 소읍과 작은 면 소재지를 오가며 활동한 주인공 용배의 삶을 통하여 당대의 상황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어 오늘 다시 읽어도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이다.

물론 박승극은 정든 고향땅에서, 그리고 수원지방에서 누구보다도 큰 좌절과 아픔을 다스려야 했다. 미군정하에서 건준, 인공의 강제해산과 민전의 불법화는 박승극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을 것이다.

그는 1948년 8월 입북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문화선전성 문학예술 부장, 국립출판사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1960년대까지 창작에 정진했다고 한다. 이후 박승극은 개성시 당 고급 행정책임자로 1970년대 중엽까지 복무했다는 전언이 있으나 분단상황하에서 그 이상 소상히 확인할 길은 없다. 남한문학사에서 문학인 박승극은 공식적으로 1988년 복권, 해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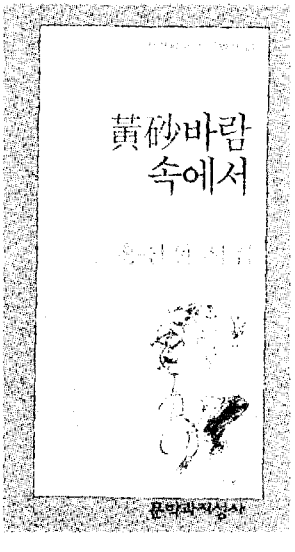
박승극이 한창 나이때 일제로부터의 가열찬 해방투쟁과 분단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때 힘들면 잠시 쉬어 흐드러진 찔레꽃을 바라보며 노독을 풀었을 정문

리 황톳길도 지금은 2차선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시도때도없이 자가용 행렬로 막히는 그 길에서 먼산 흰구름이나 바라보는 일은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다.

박승극의 고향마을 정문리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너무도 많았다. 긴 싸움에 지친 듯 힘들게 서 있는 저 빈집이, 작가 박승극이 살았던 집이었음을 확인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민족의 아픔이 분단 50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도 더 길고 긴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아닐 것이다. 정녕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동시대에 활동한 카프 계열의 여느 작가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작품들을 써냈건만 박승극에게 작품집이 없다는 것도 후학들에겐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다.(수원편 참고)

「황사바람 속에서」 부르는 노래 - 홍신선을 찾아서



홍신선 작품집

토요일이나 아니면 방학이라도 되면 고향을 찾는 야윈 소년이 있다. 소년이 병점에서 내려 길을 재촉하여 독새울 지나 먹실 지나 서편말에 다다르면 희뿌윰이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가 주봉뫼 속으로 사라지고 어느새 고운 노을도 숫기 없는 동무처럼 슬며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아까부터 자꾸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아 소년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빈 논에는 큰 허기같은 산그림자나 하나 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이 조바심하며 조금더 걸어가면 근심어린 눈빛으로 물러나 앉은 능안 마을이 나올 것이다. 아마 소년의 어머니는 사랑채 군불을 지피고 계실 것이고 아버지는 아직도 들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것이다.

노작 홍사용 시인의 일문이기도 한 홍신선은 1944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16번지 능안 마을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5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여 『서벽당집』, 『겨울섬』, 『삶, 거듭 살아도』, 『우리 이웃 사람들』, 『다시 고향에서』, 『황사바람 속에서』 등 여섯 권의 시집을 상재하고 『현실과 언어』, 『우리 문학의 논쟁사』, 『한국시의 논리』

등 다섯 권의 비평집을 펴낸 그는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가 고향의 노모를 그리다가 눈 붉히며 적었을 '내 고향엔 아직도 어머니/ 무색 두루마기같은 인고를 입고/ 홀로 남아 계시다……어머니는 아직도 남몰래 접어둔 마음 갈피의 빼아픈 사연들을/ 행구어 빨아널며/ 묵묵한 먼동처럼 남아계시다.' 밭일을 하다가 호미에 미물이 몸을 드러내도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보아 어여 어여 부정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흙을 덮어주던 우리 어머니들이 아니신가. 어머니의 속내 깊은 저 마음들이야말로 시에 지치서 힘들어질 때 그가 찾아가고 싶은 곳은 석우리 능안 마을 고향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어느새 서른해 남짓 시 쓰는 것의 덧없음을 어찌하지 못하여 고향의 겨울 들길을 걷다가 말라비틀어진 찔레꽃 덤불에 한참 눈주어서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서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는 요즘 그에게 시를 허락해준 고향 마을의 슬픔, 가난 따위가 어떻게 과거를 빠져나와 오래된 희망으로 늙어가는가를 「황사 바람 속에서」 시편에서 토로하고 있다.

너와 나에게 젊음은 무엇이었는가
수시로 입 안 말라붙던 濕한 욕망은 무엇이었는가
아직도 눈먼 황소들로 불려와서는 노략질하는 것, 잣대기나 무릎 꿇고 넘어지는 것, 나동그러지기도 하는 것,
낡은 집 고향의 쓸쓸한 門前에서 내다보는 黃砂 바람이여
오늘은 너의 자갈 갈리는 목쉰 사투리들이 유난히 거칠다.
깨진 벽틈 속 실낱의 좁날개바퀴 울음은 들리지 않는다
그 소리들은 외침들은 왜 그리 미미한가
쥐오줌 얼룩든 천장 반자들이 무안한 듯 과거로 내밀려 있어 있다.
너는 사막한 하늘 안팎을 뉘우침처럼 갈팡질팡 늘릭이는데……

최추 디스크를 앓는 아내와
지방에 내려간 자식은
밀리 네 옷깃에 자위져 보이지 않는다

씨앗에서 막 발 뺀 벽오동나무의 발뿌리에다 거름 똥 채워주고
연탄재 버리고 깊은 낮잠 한 잎.
내일 모레쯤
살 속에 밤톨만한 멍울을 감춘 박태기나무들이
종기 짜듯 화농한 꽃들을 붉게 짜낼 것이다.
나이 들어 심은 어린 나무들이 한결 처연하다.
落髮처럼 날리는 센 햇살 몇 올, 저녁 해가 廢鑛처럼 비어 있다

運命은 결코 뛰쳐나갈수 없다는 것
장대 높이뛰기로도 시대의 담벽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렇게 생각 안채로 들여보내고 하루를 네 귀 맞춰 개어 깔고
무심히 흑백 TV의 플온을 당기면 떠오르는 화면,
곳발 딛고 아득히 넘겨다보는
흐린 화면 너머의 더 흐린 그곳엔 무엇이 있었는가
黃紗 바람이여 지난 시절 그 4.19 5.16 5.17 속에
누가 장대 높이뛰기를 하였는가
나는 어디에 고개를 묻고 있었는가
비닐 씌운 두둑에 고추모 옮겨 심고 멍석딸기꽃 밑에 마른 짚 깔기
젖먹이 기저귀 갈아주듯 갈아주며
언젠가 풋딸기들이 뾰족한 궁둥이로 편히 주저앉을 것을 생각하는
나날의 이 道와 窮行은 얼마나 사소한가 거대한가
풀먹여 새옷 입듯이
마음 벗고 꺼입는.
—「黃紗 바람 속에서」

시인은 옛 시간의 어느 지점을 걷다가 누군가에게 이런 진술을 남긴다.

"삼십 년이지 아마."

"시를 업으로 살아온 게 벌써 그렇게 됐나."

"생강은 묵을수록 맵다던데……"

그 文靑은 아직도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안에 살면서 지난 삼십년 동안 많은 일들에 혼을 빼앗겼다.

홍신선은 그의 안에 야윈 몸 숨긴 채 살고 있는 文靑의 사내를 앞으로도 계속 그리움처럼 만날 작정인가보다.

서울 중부 대설주의보/병점서 둘로부터 십여 리 길,/도로 확장 사업으로
한복판 논밭의 빛부성이 농업 한복판으로/시멘트 입고 간다.

방범초소 지날 때/ 이 놈네 사십니까?
검문 일지를 440213~1047……비뚤대는 숫자로 빠져나오면
직장 따라 생각 피해 있던/몇 해가 비겁함이 씨늘하고
신고 온 길/문득 회리바람에 날려가 없다.
어느 길은/남쪽 솔잎 끝에 옮겨앉은 가루눈들로 끊어져 날고
어느 길은 시간 속에 자취 끊고 분혀 삭고/ 이승을 이승 큰 보자기에 싸들고
내 몫의 죽음을 찾아가는 당당한 길에/나서면
그래도 빠뜨린 게 있는가,/남에서 북으로 남은 신발짝 몇 마리
아픈 꿈으로/엎어져 있다.

미처 부리지 못한 몇 트럭분의 눈 짐지고/검은 구름들 달리고
원경으로 날아간/산줄기 몇 줄 소리없이 지어진다/
들쥐처럼 젖은 털 떨며/웅크린 산.
이제 찾을 수 있을까,/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판수나 곰보 춘길이
제 마음에다 구리거울 같은 보름달 걸어두고/다니던 길,
으슥한 본성의 알려지지 않은 길을/기억의 지도에 겹쳐놓으면
보인다, 눈 속 깊이 뒤엉킨 콩세 발자국/이쪽일까 저쪽일까

망설인 그놈의 발바닥이 발 밑바닥 금이/불 들어오듯/켜진다.

—「길」

시인은 삼십년전 길에서 맞딱뜨린 사내의 인상을 검정물 들인 야전 잠바 속의 야윈 몸의 신체를 지닌 사내라고 적었는데, 아마 그 사내도 나이가 들어 지금은 지천명을 훨씬 넘어 마음이라는 그림자가 남긴 발자국을 찾아 여행을 하는 듯하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미물은 길에도 있다가 어느새 수미산 골짜기에 머물기도 하고 중음신처럼 천지간 허공을 해매기도 한다는 소문이어서, 하여튼 그 발자국이 너무도 묘연해서 앞날의 길이 순조로울지……허허, 도(道)라, 궁행(窮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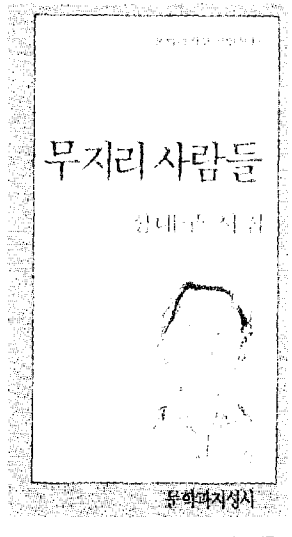
그러나 시인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몇 행짜리 무지를 철 늦게 읽는 것' 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다시 길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만나러 가는 길 - 정대구를 찾아서

남양만은 예로부터 수산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다.

시인 정대구는 화성군 서북부 해안지대, 뭍의 끝인 송산면 지화리에서 1936년 6월 25일 태어났다. 지화리는 작은 마을이지만 선감도와 대부도를 오가며 바닷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마을이었을 것이다.

정대구는 유년시절을 들꽃이 더 아름답다는 芝花里에서 보냈다. 고향의 마산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며 작은 면 소재지에 있는 송산중학교를 서울의 어떤 명문학교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시인. 정대구의 등단작이며, 1972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나의 친구 우철통씨」의 주인공인 사강 우체국장 우철통씨를 만나볼 겸 사강을 경유해서 지화리로 곧장 들어가보자.



정대구 작품집

1. 복 면

우체국장 우철통씨는

토처럼 공휴일을 집에서 아이들과 즐기다가 / 갑작스런 전화에 불려나왔다.
누구인가, 이렇게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 불러내게 하는 그는.

우리는 여름을 철거하고 / 이층의 베란다는 불안과 만난다.
어디서 돌발된 긴급사태가 / 우리의 낡은 지붕을 두드리고
뜨거운 코피잔 속에 /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난다.

누구인가, 이렇게 급살로 / 우리의 풍경을 바꾸어 놓은 그는.
저기 저 비실 비실 /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복면의 사내가 / 키득키득 웃는다.

여성적인 나의 친구 우철통씨는 / 그리고 오늘 그의 긴 침묵은
요즘, 주소도 없이 우표도 안 붙이고 / 갑작스레 날아 들어온 / 편지를 받게 된다.
누구인가, 이렇게 발신인도 없이 / 무례한 편지를 띄워서
우체부장인 우철통씨를 / 떨게 하는 그는.

나는 대방 이층에서 / 거리로 나온다.
여기 저기 번뜩이고 / 숨어있는 눈초리들
그리고 기습으로 비켜서는 얼굴들 / "여보시오" "여보시오"
음, 그 사내는 / 아주 생면부지의 사내도 아닌 것 같다.

저 녀석 저 녀석은 /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불러 내어
낡은 생철 지붕을 두드리고 / 코피를 마시던 우리를 엿보던 녀석
발신인도 없는 엽서를 띄워 보내고 / 내 친구로 하여금 수시로 몰라보게 한 녀석
내 녀석을 정면으로 잘 만났다. /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아끼는 / 그릇을 깨뜨리게 하고
너는 잠자를 빛게 하고 / 너는 나의 뒤통수를 치고

이마에 돌을 부딪치게 하고 / 너는 나의 여인을 / 2층 계단에서 돌아서게 했다.
그리고 너는 / 장차 나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 우리 어머니시고 / 오늘 80회 생신을 기념했다.
그리고 여인은 나를 아주 떠난 게 아니라 / 나의 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다만 땅에는 사과가 떨어지고 / 뭇거리에서
나의 흰 와이셔츠가 더러워질 뿐이다.

2. 미지의 아이들
제대 상병 김군은 / 나의 제자
월남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 나를 알아보고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보라,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고 / 내일 아침 8시 반에
사강 우체국장 집무실에서 / 어김없이 전화를 받고
알맹이가 봉해진 무수한 우편물을 처리하는 /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그리고 미지의 아이들을

내가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만나러 갔을 때 / 그의 헐어빠진 의자 옆에서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아이가 /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웃음을 웃고 있다.

과연 나는 우철통씨를 만날 수 있을까. / 우리를 앞세우기도 하고
우리들 앞을 지나가기도 하는 / 무수한 X의 빛나는 / 아이들 사이에서
그의 눈짓에서 / 새로이 밀려드는 파도 사이에서
그 순간마다 / 북면의 사나이는 킬킬거리고
우철통씨의 헐어빠진 의자만 / 때로는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다.

3. 증 언
우리들은 오늘에 있었다. / 어디를 가나 / 현대의 구조와 조직과
우리들의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 1970년대의 선거와 스포츠와

바람과 빈 병이 소리를 지른다.
텔레비를 켜놓고 / 개탄하는 우철통씨는 / 이제 우철통씨 개인 문제가 아니다.
왜, 왜, 왜리고 하며 / 축구왕 펠레가 거리를 휩쓸고
우리들의 흥분과 고함을 / 차 넣는다.

저마다 열심히 자기를 내세우고 / 말하고 주장하는
거리에 광고는 살아있고 / 차들는 불줄기는 / 아무도 끄지 못한다.
아무도 진정한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

아, 누가 나의 이 괴로운 가면을 벗길 것인가. / 우리들의 우철통씨는
왜, 왜, 왜리고 하며 / 아침마다 피붓는 햇살을 받으며
우리들의 거리에 뛰어오르는 의분의 / 허름한 넥타이를 풀지 않는다.

우철통씨 일가의 밥술같은 무겁고 / 어디를 가나 바람은 쉴새없이 분다.
누가 우리들의 세대를 부인하고 / 나와 나의 친구 우철통씨를 부인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부인하는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 지금 여기에 없다.

누가 우리들을 말고 있는가. / 다만 우리들은 / 지금나 유다의 주머니와
로마의 스모그와 바람과 스캔들을 지껄이며
우리들은 식사를 마치고 / 얼어붙은 거리를 지나야 한다.
-「나의 친구 우철통씨」

바로 지화리로 들어가기 전 송산면사무소 소재지이기도 한 사강리 사강우체국의 가상 인물인 우체국장 우철통씨의 고단한 일상 속에 내재하는 1970년대 희망과 꿈을 노래한 작품이다.

복잡한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를 단순하고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꾼의 입심이 운명의 희롱을 신랄하게 추구하고 미지의 세계가 갖는 불안과 가면의식 따위를 가

차없이 비판한 솜씨는 새로운 신인으로서 정대구 시인에게는 큰 재산이었을 것이다.

십수년까지도 사강은 갯가와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놀이오는 사람이나 강태공이 자주 찾는 마을이었다. 그중에서 우철통씨를 꼭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취객을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다는 마산 포구의 허름한 주막집들도 지금은 찾을길이 없다.

자연에 의한 수난이 아니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무분별한 이기심이 빚어낸 재앙의 대표적 사례인 시화호 방조제 건설 때문이다. 정대구의 고향 지화리 앞 바다에 광대하게 펼쳐있던 갯벌을 지금 찾을 수는 없다. 염생식물인 칠면초나 퉁퉁마디풀이 옛날 갯가를 조롱이라도 하듯 늠실거리며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시화호에 가로막혀 밀물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고향을 그래도 못 잊어서 정대구는 아예 주소지를 지화리로 옮겨놓고 서울집과 고향집을 오가며 살고 있다.

정대구는 그 동안 『나의 친구 우철통씨』, 『겨울기도』, 『무지리 사람들』, 『우리들에게』, 『두귀에 바퀴를 달고』, 『수색쪽하늘』, 『남촌에 전화를 걸며』, 『뿌리의 노래』 등의 시집을 상재했는데 그의 지화리의 애틋한 소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겨울 기도」 속의 내면으로 들어가보자.

강짜로 부는 바람이
남북으로 뻗친 산맥을 달려가며
경기도 화성군 용머리 뒷산
새파란 솔가지를 뚝뚝 부러뜨려서
그 솔나무 아래 집 짓고 혼자 사는
내 제자의 어린 가슴을
후려패는 건 아닌지.
저 미운 바람아 네 비록 미울지라도
이 서울의 대문을 재빠뜨리고
골방 안으로 쳐들어올지라도
나는 너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등을 밀어내지는 않을 테니
제발 내 비나니

내 골방에다 네 강짜를 죄다 퍼붓어 버리고!
너 이상 남쪽을 따라가서
어린 내 님의 가슴에
쓸쓸한 못을 쳐지는 말아다오.
아직 내 님은 놀라기 잘하는 어린 양인 것을.
-「겨울 기도」

바람이 몹시 부는 겨울 밤.

용머리 뒷산 푸른 소나무 아래 혼자 사는 '내 재자' 이며 '내 님' 이신 한 그리운 사람을 염려하여 폭풍 몰아치는 밤의 어지러운 심사를 조용히 내 안으로 다스려 쓴 헌시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내 님' 이 아니라 강짜로 부는 바람인 '저 미운 바람' 이다. 시인의 노련한 득의가 거친 바람을 밀어내는 그 힘은 어디서 생성된 것일까? '남북으로 뻗친 산맥을 달려가며 / 경기도 화성군 용머리 뒷산' 물론 그 산은 고래 엣적부터 여직까지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존재하며 시인의 고향을 지켜주는 가여운 마음이었을 것이다. 혹은, 어머니의 가여운 마음들이 모여서 용머리 뒷산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시인은 바람에게 말한다. 아직 내 님은 어려서, 어린 양이어서 네 미친 바람을 물리칠 수 없지만 나도 내 님도 너를 잘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삶과 앎은 한 몸이라고 말했던 것인가.

정대구는 자신의 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시의 아름다움은, 시인의 진실을 꾸미지 않는 데 있다. 어떤 종류의 꾸밈도 시는(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시는 성실한 삶의 진솔한 표면 그대로라야 한다. 여기에 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의 따뜻하고도 다정한 시의 숨은 뜻이 그 고백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는 모교인 명지대학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우리 동네 김씨, 이씨, 최씨, 정씨」 諸氏들- 이문구의 창작현장을 찾아서

1941년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대천리 관촌에서 태어난 작가 이문구는 고향에 돌아



이문구 작품집

갈 수 없는 떠돌이 유민의 심사를 어떤 글에서 이렇게 적은 바 있다.

"비로소 터회하거니와 대저 이백 같은 문림도 산에 달이 있으면 고향이 그리워 머리가 숙었다 한다. 하물며 불천적족(不天赤族)으로 성안의 뒷그루를 떠돌은 초오(草伍)이랴."

객지로 떠도는 삶이 괴로운 것은 가솔들을 이끌고 먹고 자는 것만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거니와 제사가 돌아와도 조상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불효자의 자괴감이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단심으로 관산에 깃들이려 하는 정을 근 스무해 남짓 가슴에 묻어두었다가 1977년 5월 15일 봄 이문구가 찾아간 곳이 발안이었다. 물론 발안이 그의 영원한 정착지가 될 수는 없었을 터이다. 그가 1950년대 말 어쩔수 없이 아프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대천 관촌마을을 차마 어찌 잊을 수 있었을 것이랴. 그럼에도 이문구는 비록 관산이 바로 눈앞에 있고 종친 일가들이 옆에 있지 않아도 "나는 마땅히 기묘에 남향의 두어칸 초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북망도 아닌 어느 방향모를 돌너덜 가시덤불에서, 비바람 눈서리를 사초 삼아 한줌 흙보탬으로 마치 외로운 넋들에 하루 쉴터를 장만함은 연래의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마침내 화성고을 외진 구석에 다 되어가는 토담집 하나를 얻어 잡초와 거미줄을 치우며 읍내를 물으니 향남이라 한다. 번거로움을 꺼리고 개짖는 소리를 멀리함도 뜻한 바의 그 외일 수가 없지만, 실로 향사(享祀)를 받듬이 어떤 내용보다도 우선임을 새삼 되뇌어본다. 이것이 내가 여기로 들어와 초목과 더불어 살게 된 시말의 대강이다, 운운"

이문구는 이런 곡절을 통하여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1리에 정착하여 「우리 동네」 연작 소설들을 발표하니 우리 동네 김씨, 이씨, 최씨, 정씨, 유씨, 강씨, 장씨, 조씨, 황씨 등의 諸氏들이 이문구가 소설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어찌 작가가 그들 제씨들

만을 만났을 것이랴.

시인 고은이 단군 이래 오늘의 간난한 시절까지 일만 명이나 되는 인종들을 동무하겠다고 다짐하며 쓰고 있는 시가 「만인보」라면, 이문구의 『우리 동네 諸氏』들은 장터 주막에서, 시월 콩타작 마당에서, 초겨울 벼 수매 공판장이나 민방위 훈련날이나 혹은 반상회날 이장집 사랑채에서 만나 그들 제씨들이 서로 부딪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농촌의 애환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작품집이다.

이문구가 1980년 10월 31일, 향남면 행정리를 떠나올 때까지 네해 남짓 그곳에 살면서 이웃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작가와 동갑내기인 유병부씨, 정낙호씨, 최창학씨, 그리고 당시 이장일을 보았던 김건기씨, 새마을 지도자인 이용주씨, 이은국씨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후덕한 인심과 마음 씀씀이를 지금도 잊지 못해 행정리 어느 댁 어른이 상을 당했거나 회갑일이나 결혼식 등의 대소사에 참례하는 등 이문구가 기묘 발안땅에서 맺은 「우리 동네」 사람들과의 끈끈한 인연은 아직도 소중히 계속되고 있다. 이문구는 발안의 그 동무님들과의 정을 못 끊겠어서 집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이따금 심신이 고단할 땐 찾아가곤 한다.

「우리 동네 김씨」 등 연작소설의 창작 산실인 그 집을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이가 지금의 행정1리 이장인 박광규씨다.

작가가 어느 지면에서 밝히기를 '자기는 인덕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고, 그게 큰 재산이라고' 흐뭇해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이문구가 주위에 인덕을 음양으로 알게 모르게 베풀고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무술히 부락으로 뚫어나간 고내를 따라 개울녘 둔치에 늘어선 미루나무 잎새들이 반짝거리고 볶이며 내뿜는 훈김에도, 피슬피슬하게 타들어간 불길 옆의 갈빌에서는 빈차 지나간 장길처럼 익은 흙이 일었다.

전부터 묵힐 땅은 있어도, 놀릴 터는 없다던 동네가 놀미라고 일렀으니, 사람 골리느라고 그 세 소나기 한줄만 있었더라도 봄짓 거둔 터에 뒷그루로 푸성가리를 부쳐, 벌써 여러 못 솎아 가용푼이나 해 썼을 거였다. 그러나 못자리 버무리며 무살미 하기 앞서, 그나마 날포를 못 넘기며 궂던 가랑비만 서너물 한 뒤, 보리누름에서부터 입때껏 그름마저 드물었으니, 일 반찬하게 열무라도 베어본다고, 아무리 씨앗을 배게 부어도 푸서리름에 개똥참에 움나듯 씨 서는게 드물어,

아예 한갓지게 버립치로 돌려 묵정이 만들고, 그 위에 호랑이 새끼쳐도 모르게 깃고 욱은 바랭이 개비름 따위나 베어다가 돼지 참 주는 집만 해도 여러 가구였다. 그럼에도 밭 놀리기를 남우세스러워하던 사람은 없었다. 버린 자리로 볼라라 했다가 칠석물이라도 비치면 그때 가서 갈아엎고 김장이나 갈라고 미뤄 두었던 것이다.

"날이 워낙 이러닝께 흐르는 물두 밍근헌게, 홀랑 벗구 뒤집어쓰면 때는 잘 밀리겠다."

참이랍시고 불어터진 수제비 한 양재기만 호박잎 덮어 달랑 들고 온 아내가 물길 뚝셍이, 뺑쑥 덤불에 글축스럽게 쭈그리고 앉아, 물을 빨아올리는 호스 끝에 허벅지를 감기고 나서 들으란 사람 없이 중얼거렸다.

"원체 논바닥에 들앉어서 게좀 벅벅 닦구 가. 아만 더워두 슬 때는 문 닫구 쓰야 개운헌디, 나오기 전버텀 찐덕거리니 워디 쉰내 나서 허겠더라."

젓가락 끝에서만 헤엄치는 멸치 서너 마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떠다밀며 국물만 뒤적대던 서방이 덜미를 조이며 말했다.

"논물이 들어가두 상관않구?"

아내는 고개를 저리 조아리며 볼때기로 웃었다.

"날이 가물면 사람두 가뭄니께 거기루 물대면 더 좋지."

김승두는 먹고 난 것들을 거듭거려 접어 놓으며 담배를 찾았다.

"저니는.……말을 해두 꼭 두엄데미에서 고리삭은 말만 입에 바르더라……저니 말 뫼 놨다가 거름 허면 비료 안 사두 베 됨새가 보기 좋을겨."

아내는 짐짓 진저리치는 시늉을 해 보이더니

"암두 안뵈는디 이냥 입은 채루 먹이나 감구 갔으면.……저녱 내가 선녀노릇(선일방 직 여공살이) 헐 때는 포장과 등산부것들하구 주말마두 등산 댕기메 그짓두 숱허게 했더니……"

할 때, 그녀의 눈망울은 이미 지룡산 잿마루로 넘어가고 있었다.

(중략)

김은 시계를 보았다. 겨우 아홉 시 반. 기껏 세 시간 남짓 끌어올린 셈이지만, 아맘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를 일이었다.

내 남적 없이, 양식거리나 하는 집은 눈만 뜨면 논에 파묻혀 살았다.

놀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척굴 앞벵이 저무니 무솔이 너르내 조브내 하여, 안그런 동네 따로 없이 천동면 안팎은 죄 그 지경이었다. 바깥주인이고 안사람이고 동네마다 눈 안뒤집힌 사람이

없었고, 집집에 손 빌리러 나서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미 지어져 금이 안가고, 파근파근한 논바닥이었지만, 관정을 뚫고 양수기를 사들여 에멜무지로 저수보기라도 하려면 무슨 비용하는 돈이 됐건, 이자가 높고 야멸을 따질 겨를 없이, 앞을 다투어 당겨다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늘리는 밭이 이번 가뭄으로 빚을 진 집은 늘 미만 해도 반반이나 된다는 것 같았다.

이제는 가무네 가무네 해도 오늘 내일 하며 하늘이나 쳐다보다가는 낭패나 지도소에서 양수기나 호스 따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만 바라던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TV나 라디오에서 어느 고을의 기우제 지낸 얘기라도 들리면, 그 터무니없는 짓에 어이없어 하거나 딱하게 여겨, 안스러움을 부여안는 여유까지도 보이던 것이다.

김장부도 그랬다. 김은 대개 살아온 경우에 비춤으로써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 가물면 하늘 탓, 물대지면 관청 탓 하던 묵은 버릇을 우선하여 고치고, 제 힘으로 재변을 이겨낼 줄 알아야만 흙의 종신이에서 벗어나 흙을 부리는 농군이 되는 거라고 믿었다.

한두 번 속아봤던가. 제구실 하는 농군이라면 하늘이건 관청이건 원찌기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었음을 터득하여, 자기 농토는 자기 요량으로 다스려 보겠다는 정신부터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던 것이다.

김도 이번 가뭄으로 장터에서 택시 굴려 돈놀이하는 척굴 조충범이한테 오부 이잣돈 12만원을 썼다. 니중 고추만 붉으면 바로 주게 되려니 하고 그 돈으로 호스 2백미터를 샀던 것이다. 1미터에 6백원까지 호스였다.

그가 없는 돈에 그 비싼 것을 사들이자 동네 사람들은 불퉁이가 미어질까봐 얼굴을 저리 놀리며 웃어제끼고, 아내도 환장하지나 않은 것인가 하고 여겨보며 종주먹을 들이대고 그 쓸모 없음을 따졌다.

원래 늘미만큼 메지고 지대 높은 부락도 드문데다, 그 중에서도 개뚝배미는 자갈 투배기 가 풀마 배덩을 일군 층층다랑이로, 지용산 골가지 개망물이 아니면 두더지 한 마리 얼씬 않을 개자리였다. 게다가 결에 붙은 서말 가웃지기 더운갈이 논만 해도 남냉만이가 단위조합 돈을 얻어 대가며 일곱 군데나 아흔여덟 자씩 뚫어봤지만, 지하수는 고사하고 갈물 한 모금 뽑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도 지하수를 찾는다거나 들 가운데에 고인 둠벙을 퍼올릴 공상 따위는 숫제 근처에도 안가려고 했다. 그러나 개뚝배미 층층다랑이가 생계의 전부인 김으로서는 혼곤망이 난 무

녀리처럼 먼산 바라기만 하고 앉아있을 수만도 없었다.

(중략)

부면장이 얼굴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사실은 이 시간이 교육시간입니다마는, 가만히 앉아서 자리 흐틀지 말구 담배들이나 피셔유. 지 자신이 교육에 대비하여 학습에 둔 게 있는 것두 아니구 해서 베랑 헐 말두 옵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지가 예서 뭬라구 떠들어 봤자 머릿속에 담구 기억허실 분두 옵슬 줄로 알구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죄용히 담배나 피시며 시간을 채우시도록 허서유. 그런디 퇴비들을 쌓실 때는 지 멧가지 유의를 해주시라 이겝니다. 위에서 누가 원제 와서 보자구 헐는지 알 수 옵스니께, 퇴비장 앞에는 반드시 패찰과 척봉을 꽂으시구, 지붕 개량 허구 남은 썩은새나 그타 여러 가지 찌그레기루 쌓신 분들은 흔해터진 풀좀 벼다가 이쁘구 날씬하게 미장을 해 주서유. 정월 보름날 투가리에 시래기 무쳐 담듯 허지 마시구, 혼인때 쓸 두붓모처럼 깨끗허게 쌓주시라 이겝니다. 퇴비가 일 핵타(1ha)당 멧키로이상이라는 것은 잘들 아시구 기실중 믿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식전에 두 짐 저녁에 두 짐씩, 반드시 비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김은, 퇴비는 지저분할수록 거름이 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는 무심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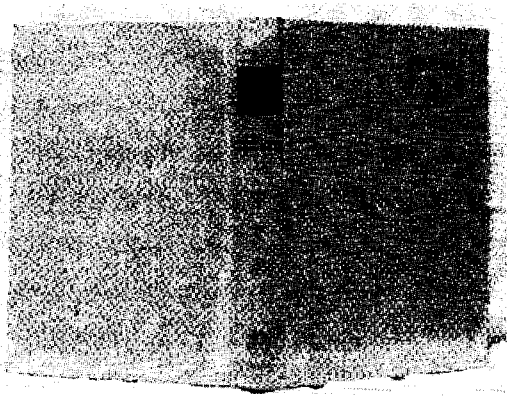
"모냥 내구 있네. 멧평이 일 핵타른지 워치기 알어."

하고 두런거렸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였지만, 순전히 남의 말에 토 달기를 예사로 해온 입버릇 탓이었다. 그러나 좌중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다. 김의 음성이 너무 컸던 것이다.

"뭐유? 이봐유. 뭘 모른다는 규? 구식 노인네두 다 아는 상식을 당신 증말 몰러서 헌 소리유?"

하며 부면장이 따져들기 시작했다.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남고 쳐져 심란하던 중 계제에 잘 됐다는 눈치가 역연했다. 부면장은 마이크 쥔 손을 뒷짐 진 채 육성으로 떠들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워디를 가봐두 으레껀 한두 사람씩 있어. 그러나 여기는 그런 농담 헐 디가 아녀."



『우리 동네』 창작의 산실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김은 남의 눈이 수백이라 구세부은 삭정이 부러지듯 싱겁게 들어가기도 우습고, 그렇다고 좋고 가리 없이 함부로 말대답하기도 그렇겠고 하여 이쩔 줄 모르다가 마음에 없는 말을 엉겁결에 내뱉었다.

"왜냐면 지랄한다구 붙으유? 평(評)두 있구 배기두 있는디, 해필이면 알어듣기 그냑 하게 핵타르라구 헐 건 뭐냐 이게유."

"천동댄이 이렇게 촌인가……저런 딱한 사람두 다 있으니, 나 보슈. 국가 시책으루, 미터법에 의하야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언젠디 여태까장 그것두 모르는 겨?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먹겄다 – 이게이?"

부면장은 당장 잡도리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인성을 높였다. 곁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집적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앉은 채로 응수했다.

"내 말은 그렇게백기 안들리유? 저 핵교 교실 벽패기 좀 보슈. 뭔라구 서붙었유? 나라 사랑 극이 사랑……우리 말을 쓰자는 것두 국가시책이래유. 옛날버텀 관공리 만 디르구 농민들 만 다른개 원칙인게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 끙–"

부면장을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참는지 한참동안 입술만 들먹거리더니 겨우 말머리를 찾은 것 같았다.

「우리 동네 김씨」의 주인공인 놀미마을 김승두 씨가 논에서 들일을 하다가 마침 새참을 해들고 나온 아내와 나누는 푸념 속에는 1970년대 우리 농촌의 질박한 삶들이 고스란히 묻어 살아난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요량이 없는 가뭄을 당해, 관정을 뚫고 빚을 내어 양수기를 사들여 고군분투하는 농민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눈물겹다. 소출이 적게 나오는 개뚝배미 자갈투배기 층층 다랭이논 농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김씨의 내일이 조금은 안쓰러워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 졸이게 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는 농민들의 건강한 해학 속에서 막연하나마 동이 터올 내일을 예감케 한다.

작가 이문구는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 1966년 『현대문학』을 통하여 문단에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72년에는 장편 『장한몽』으로 한국창작문학상을 수상했고, 1978년 『우리 동네』연작으로 한국문화 작가상, 1982년 제 1회 신동엽 창작기금 수혜, 1989년 춘강 문예기금 수혜, 1990년 요산 문학상을 수상했다. 창작집으로는 『해벽』, 『이 풍진 세상』, 『관촌수필』, 『엉겅퀴 잎새』, 『우리 동네』, 『으악새 우는 사

연』, 『유자소전』 등이 있고, 장편으로는 『장한몽』, 『산 너머 남촌』, 『매월당 김시습』 등의 작품집이 있다.

그는 또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대우교수로 있으면서 후학들에게 문학예술을 통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글 씀씀이의 엄격함을 가르치고 있다.

「다시 월문리에서」 - 송기원의 문학을 찾아서

송기원 문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동네가 화성군 팔탄면 외진 곳 월문리에 있다. 물론 송기원이 태어나 떠돌았던 벌교, 보성, 광주 그리고 서울에서의 지난한 삶들이 그의 문학을 이루는 주요 근간이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군사 독재하에서 옥고를 치르고 난 뒤 송기원의 시와 소설이 활짝 피어난 곳이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송기원은 1947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하여 중앙대 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4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와 소설이 동시 당선됨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가 월문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당시 그의 고단한 서울 문단에서의 탈출도 한몫 했겠지만 남도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편히 봉양하기 위한 배려에서였다. 연전에 먼저 귀향한 선배작가 이문구의 주선으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월문리였다.

그러나 어찌하랴. 1979년 월문리로 내려온 뒤 얼마 후 작가는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러야 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여의는 아픔을 또한 맛보아야 했으니 송기원의 비통한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절골을 지나 칡골을 거쳐 다시 돌팍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바로 돌팍산 등마루에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간질을 앓던 자식은 지난해 가을에 떠나보내고
그보다 한 해 앞서, 열살을 미처 못 채우고
역시 자식을 따라 간질을 앓던 용구마저 떠나보내고

혈혈단신 혼자몸으로 하위허위 넘어온 칠순 고개에서
고사리, 원추리, 취, 질경이, 모싯대 등 산나물들의 어린 싹을 뜯고 있는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를 묻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팔탄면사무소에 가서 타오는 구호미로
입에 풀칠은 한다지만
변지 간 자식놈 손주새끼의 잦았던 발작처럼
냄비나 온몸의 빼마디를 흑벼파는 신경통의
악값이라도 벌까 해서 산나물을 뜯고 있는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호호백발이 된 용구 할머니 옆에 서서
용구네 할머니보다 더 굽은 허리를 흔들거리며, 조팝나무들이
호호백발보다 더 하얀 꽃무더기들로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의 용구네 할머니 대신에
용구네 할머니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돌팍산 너머 홀로 잠든 어머니의 안부까지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꽃 피는 봄날 6」

깊은 산에 홀로 누워계신 어머니를 뵈러 돌팍산을 넘어가던 시인은 산 등마루에 희들짝 피어있는 하얀 조팝나무 꽃무더기들을 만난다. 저 꽃들은 누구인가. 저 난만한 꽃들은 누가 불러서 피어난 꽃들인가. 시인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진 곳 돌팍산에 배소의 꽃처럼 피어 있는 들꽃 속에서 고대하는 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팝나무 꽃은 용구네 할머니의 안부와 돌팍산 너머 홀로 계신 시인의 어머니의 안부를 조용히 들려주었을 것이다.

화냥년의 야산을 굽어돌자 옆에 가던 이선배가 손짓을 했다.
"저기여."
나는 이선배의 손짓에 따라 고개를 돌렸다. 삼년 전 가을에 도토리며 상수리 열매를 따러 몇 번인가 왔었던 눈에 익은 골짜기였다.

"저긴 칡골인데……공동묘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이선배가 다시 손짓을 했다.

"저기 솔밭 뒤로 만둥산이 보이잖여? 저기여."

나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칡골의 깊숙한 골짜기를 향해 다락논들이 비틀거리며 올라가는 왼쪽 어귀의 솔밭 사이로 만둥산이 엿보였다. 흔히 공동묘지 부근이 그렇듯이 아카시아나 가시나무 따위의 악목들만이 제멋대로 숲덤불을 이루어 우거져 있는 틈틈이 몇 개의 무덤이 추운 듯 엎드려 있었다. 나는 삼 년 전 몇 번인가 칡골을 드나들면서도 공동묘지를 보지 못했던 까닭이 수긍이 갔다. 나무다운 나무가 없는 만둥산 쪽을 구태여 올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송기원 작품집

이선배가 앞장을 서서 솔밭 속으로 산길을 타자 나는 잠시 멈추어 처와 아이들을 기다렸다. 맞은편 골짜기의 응달에서는 잔설들이 눈에 시렸다. 이제 막 음력설을 지낸 무렵이라 골을 타고 내리는 바람이 얼굴에 차가왔지만, 성급한 농부들이 져다 낸 무논의 두엄더미며 백빙 위로 쏟아져내리는 햇빛은 역연한 봄기운을 뿜어대며 빛나고 있었다. 그 햇빛을 바라보자 문득 내 시야에는 햇빛에 겹쳐 흰 두루마기 자락 같은 것들이 어른거려 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다. 내 시선에는 이제 보다 뚜렷하게 솔숲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흰 두루마기 차림의 큰아버지며 작은아버지 그리고 사촌형제들의 모습이 비쳐들고 있었다. 팔촌에서 십촌을 훨씬 넘어 거의 촌수를 헤아리기도 어렵게 벌족한 생부 집안은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어서 정초에는 스무 명 남짓이 떼를 이루어 종일토록 마을 뒤 선산의 잘 가꾼 솔숲을 헤집고 다녔었다. 그럴 때면 큰아버지는 서자 출신인 나의 어색한 입장을 거두느라고 으레껏 나를 앞장 세워 다니며, 이분은 증조부니라, 이분은 할아버님이시다, 이분은 할머님이시다 하고 자상하게 일러주었고, 그러다가 내 생부의 묘에 이르면, 에이, 몹쓸 것, 하고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버린 내 생부를 향해 쫏쫏 혀를 차곤 했었다.

나는 무논에서 눈을 돌려 가까이 다가온 처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던 처는 내 시선을 느끼자 얼핏 눈을 내리깔았다. 추위 탓만도 아닌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처의 표정을 굳게 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솔밭을 가로지른 산길로 걸음을 옮겼다. 이선배는 만둥산 어

귀의 발우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선배가 나에게 힐끗 일별을 던지고는 재빨리 외면을 했다. 이선배는 아침 무렵에 함께 서울을 떠나 이곳으로 오면서부터 이상하게도 줄곧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눈치였고, 그런 이선배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공연히 죄스러워져서, 차라리 혼자 올 걸, 하고 이선배와의 동행을 후회하는 마음이었다.

뭘 그리 급하게 구는 거여? 설이나 지나구 날씨가 따뜻해지걸랑 그때 천천히 가여, 나두 함께 갈 팅께. 지금 그렇게 성치 않은 몸으로 가면 마을 사람들한테 숭잽혀. 아, 공연시 마을 사람들한테 병신이 되어 나왔다구 헛소문 들을 필요가 어딨어?

꼬박 이년 반을 갇혀 살다가 나온 후에, 그 휴유증으로 병원에 들락거리던 연초의 어느 날 이선배에게 내가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올 뜻을 비치자 이선배는 벌컥 화를 내면서까지 만류해왔다. 무언가 에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선배의 만류대로 차일피일 산소행을 미루다가 음력설이 지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결단을 내렸다. 이번에는 이선배도 차마 만류를 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언짢은 표정으로 동행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아카시아숲이며 가시덤불 그리고 버려진 무덤들을 지나치며 민둥산을 올라갔다. 민둥산의 정상에 다다르자 이선배가 한 무덤 앞에 멈추어 섰다.

"여기여."

이선배가 여전히 나를 외면한 채 말했다.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 전혀 손질이 가지 않은 주위의 무덤들과는 달리 어머니의 산소는 그래도 비교적 다듬어진 편이었고 회강암으로 만든 작은 묘비도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잠자코 묘비를 들여다보았다. 유안해주최씨지묘(孺人海州崔氏之墓).

"그래두 이 일대에선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여."

옆에서 이선배가 마치 내던지듯한 어투로 말했다.

어머니의 부음을 전해들은 것은 내가 갇히 있기 시작한 뒤로 일 년 만이 가까워오는 무렵이었다. 엷은 비닐막으로 유리를 대신한 창문을 넘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햇살이 이제 막 투명하게 여겨지는 초가을이었다. 면회 온 처가 울먹이며 어머니의 부음을 전해주었다.

……병이 악화되어서 그만 ……

아니, 다 나으셨다고 했잖았소?

나는 면회실의 칸막이 너머로 악을 쓰듯 물었다.

사람들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좋지 않다고 ……

그럼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어나시지 못했단 말이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처를 건너보다가 그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래도 장례식은 외롭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처의 말을 마저 다 듣기도 전에 나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자꾸 비틀려지는 입술에 힘을 주면서 나는 감방까지 걸어갔다. 초가을의 햇살이 독방의 마룻바닥에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서서 과일과 어포 따위를 진설하고 있는 이선배와 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독방으로 들어서던 순간의 숨이 끊어질 듯하던 고통이 되살아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어억하는 외마디 신음과 함께 마룻바닥의 햇살더미 위에 나딩굴었다. 눈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라든가 분노 따위의 감정도 없었다. 나는 다만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사지를 뒤틀었을 뿐이었다. 훗날 나는 그 고통을 바로 어머니의 한이 나에게 그런 형태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송기원



송기원 창작의 산실 월문리
화성군 팔탄면 월문리.

그러나 딱 잘라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때 나에게 왔던 생리적인 고통은 너무 생생한 것이었다.

"뭘 해, 절허지 않구?"

진설을 마친 이선배가 망연히 서 있는 나를 추궁했다. 나는 이선배에게서 술잔을 받아 술을 친 다음에 허물어지듯이 엎드려 절을 드렸다. 그러고 나자 비로소 내 입술을 비틀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사든 잔디에 이마를 비벼대며 울었다. 옆에서 이선배가 혀를 찼다.

"내 이럴 줄 알구 될 수 있으면 늦게 오려구 한 거여."

독방에서도 울음이 터진 것은 어머니가 묻혀 있을 서해안의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을 향해 북쪽 벽 아래에다 한 그릇의 물 앞에 꿇어앉아 소리를 죽여 울면서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혼령이 계신다면 …… 한 번이라고 만나야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기심이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혼령이라도 한 번만은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았다. 당신의 말마따나 너무나 드센 팔자를 타고 나서 뼈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

비 그늘에서 갇혔더니 이제 비로소 자식과 함께 산 지 채 이 년이 못 되어 이번에는 자식 때문에 죽었다. …… 더군다나 자식은 당신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원청난 죄명 아래 갇히고, 거기다가 당신은 생모이면서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마저 금지되어 자식의 임종조차 나지 못했다. …… 당신의 냉이라는 것도 홧병으로 쓰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반신불수로 죽는 날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한 그릇의 물을 떠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서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든 단말마의 순간에 어머니가 반신불수의 몸을 뒤틀며 나를 향해 부르짖었을 외마디소리를 들고 그 모습을 보았다.

"…… 못 읽고 죽어나, 몸두 성치 않으면서 …… 나 지난 일 아네?"

이신베가 내 한쪽 팔을 붙들어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두 눈을 손잔등으로 씻으며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산소를 둘러보았다.

—「다시 월문리에서」

한 작가의 아픔이 어찌 개인의 아픔뿐이겠는가. 송기원은 1980년대의 질곡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가 비켜갈 수 없었던 생애의 자리에 민주주의 자유실천이라는 숨가쁜 광장이 있었다면 월문리라는 아주 고적한 마을도 있었을 것이다. 송기원은 월문리에서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 월문리에서』 등의 절창들을 뽑아냈다.

출옥 이후 송기원은 월문리를 떠나왔지만 그가 1984년 10월 마포구 공덕동 수원쌀집 2층 건물에서 실천문학사 둥지를 틀 때도 월문리 사람들이 그를 잊지 않고 농주에다 고사떡까지 해왔다 한다. 월문리에는 그의 소설 『월문리에서』 등에서 나오는 정동조씨(소설 속에서는 정동호씨로 등장) 정찬조씨 등이 지난날 아픈 시절의 송기원을 회고해 주었다. 특히 정찬조씨는 작가를 도와주었다는 죄 아닌 죄로 서슬 퍼런 육군 교도소에 끌려가서 강제로 진술서를 쓰는 등 곤욕을 치렀다 한다. 송기원이 살았던 집은 빈 집으로 남아 있는데 노모가 거처하시던 안채는 헐려 있고 작가가 집필실로 삼았던 사랑채만 쓸쓸히 남아 지난날의 아픔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송기원은 시집으로 『그대 언살이 터져 시가 빛날 때』, 『마음 속 붉은 꽃잎』과 소설집으로는 『열아홉살의 시』, 『월행』, 『다시 월문리에서』, 『청산』, 『인도로 간 예수』 등이 있다.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 - 홍일선을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데 비산비야 산과 내를 지나치다가도 옛시간이 그리워 눈가가 붉어졌으니 이 또한 지은 죄가 많아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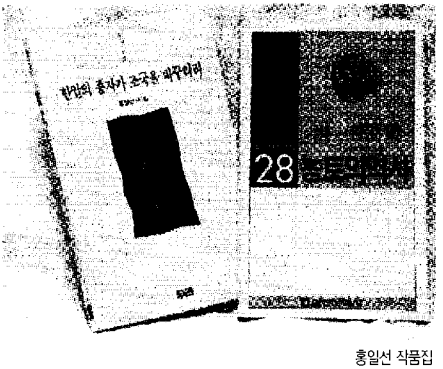
관산의 시절이 다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모두 가난했지만 다들 가슴만은 푸근하고 깨끗하지 않았던가.

본디 땅의 운명이란 것이 먼 들녘을 따스한 품에 끌어안아 오곡백과가 여물 수 있어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 깨끗한 양식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때 가난한 집 부엌 무쇠솥에서 익어가는 밥은 선지식(善知識)이 되어 이 땅을 지켜주셨을 것이다.

길은 깊은 밤
첫 사랑 두려움처럼
오산천을 거슬러 올라가
금곡리 늙은 밤나무 숲이 끝나는 곳에서
폐수 오래 된 정적 속으로 멈추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용주사를 빠져나온 범종소리도 지친 듯
잠든 마을의 배후를 서성일 뿐
길은 고향을 등진 자에게
더 이상 길이 되어 주지 못했다.

날지 못하는 새였을까
어린 날개짓 소리
빈 숲 흔들어 깨우지만
대체 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몹쓸 기다림은 언제 끝내야 하는 것인지.



홍일선 작품집

길 저쪽에서 보면
가야 할 길 분명했을까
지나온 길보다도 더 모호한 경계들이
남행열차 굉음에 묻혀
오산의 불빛에 흔들렸다.
—「시인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으리」

시인 홍일선은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336번지 돌모루에서 1950년 7월 19일에 태어났다. 돌모루의 푸른 논밭과 오산천 상류인 영천뜰의 빛고운 냇물을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고향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보낸 그는 부친의 농지개간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초등학교를 동탄과 남창초등학교에서 마치고 수원북중, 수원농고를 졸업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사회교육원 한문학과를 수학한 홍일선은 1980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로 문단에 등단하였다.

아울러 홍일선에겐 남양홍씨 문중 재당숙 어른이며 1930년대 낭만주의 시문학운동의 큰 흐름을 주도했던 노작 홍사용의 존재는 홍일선 문학의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 돌모루에서의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몇번의 실향은 유배된 자의 변방 체험으로, 그리고 주류에 영원히 합류할 수 없는 비주류의 슬픔으로 전이되어 '돌아갈 곳이 없었다 / 용주사를 빠져나온 범종소리도 지친 듯 / 잠든 마을의 배후를 서성일 뿐 / 길은 고향을 등진 자에게 더 이상 길이 되어 주지 못하' 여 한 시대를 지켜주는 희망과 그리움의 길들이 더 이상 기다림이 될 수 없음을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너무 알아서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제 이름도 지니지 못할 뻔했던
비산비야 朱鳳이
착한 소년의 얼굴로 바라보는
먹실에 가면
잘 키운 아들같은 논자락이 있었다.

洪字 昌字裕字 쓰시는 고집 센 노인이
온종일 논에서 산 덕분에
그 논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에게 논이나 밭은
남양 홍씨 일가 피붙이보다도 더 중했으리라.
잡초 무성한 황톳길에는
중복 지나 요 며칠새 부쩍 자란 명아주꽃이
날로 허리 굽어가는 노인에게 각별했으리라.
하마 인기척이 끊긴 길
홀로 지키던 마차 한 대
초저녁별 떠오르면
노인의 허연 속눈썹까지 빼닮아가는
늙은 소와 더불어
먹실 논을 나서는 고적한 풍경 한 점을
주봉은 안쓰러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먹실」

홍일선의 자전적 시같기도 한 「먹실」은 이 땅 천촌만락 작은 두메의 흔한 지명이기도 하다. 한 고집 센 노인이 온종일 논에서 산 덕분에 쌀 몇가마 소출되는 그 논은 농투산이들이 피땀흘린 노동으로 참될 수 있었고 미륵처럼 미더울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주봉이라는 아주 야트막한 산이 지켜주는 고적한 논의 꿈이 이제는 노쇠하여 어찌 달리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쓰러진 벼포기처럼 오늘의 농촌 현실을 아프게 노래하고 있다.

그는 시집으로 『농토의 역사』,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와 장시로 「풀무골 푸닥거리」, 「젊은 소작농 김씨의 꿈」 등이 있다.

민족문학 작가회의 전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는 홍일선은 현재 경기남부지역의 진보적 문학공동체인 『사람과 땅의 문학』의 편집동인이며 반년간 시지인 『시와 진실』을 주재 발간하고 있다.

「지금 병점엔 떡집이 없다」 - 시인 최정례의 고향

병점엔 조그만 기차역 있다 겁은 자갈돌 밟고 철도원 아버지 걸어오신다 철길가에 맨드라미 맨드라미 있었다 어디서 얼룩 수탉 울었다 병점엔 떡집 있었다 우리 어머니 날 배고 입덧 심할 때 병점 떡집서 떡 한 점 떼어먹었다. 머리에 인 광 한 자루 내려놓고 또 한 점 떼어먹었다 내 살은 병점 떡 한 점이다 병점은 내 살점이다 병점 철길가에 맨드라미는 나다 내 언니다 내 동생이다 새마을 특급 열차가 지나갈 때 죄죄한 맨드라미 깜짝 놀라 자빠졌다 지금 병점엔 떡집 없다 우리 언니는 죽었고 수원, planet, 정남으로 가는 길은 여기서 헤어져 끝없이 갔다

—「병점」

시인의 고향 언저리에 떡전거리가 성해서 병점이라는 따뜻한 이름을 얻었다 한다. 그러나 병점에 시인의 살이 되어주었던 떡집들은 지금 없다.

완행열차 결핍된 삶의 시간들만 정류하는 작은 역 병점에 '장앙해앵여열차아…… 장앙해앵여열차아……/ 개똥참외가 노래지고 벌써 며칠째 기다렸는데도 / 아버지는 오지 않아' 시인을 밴 만삭의 어머니께서 입덧이 심해지면 빈 터 후미에 멀찌감치 떨어져 홀로 외롭게 피어 있는 앉은뱅이꽃이나 바라보시다가 '떡집서 떡 한 점 떼어' 잡수셨을 것이다. 그래서 병점은 시인의 극진한 살점이며 철로길에 가난하게 피어 있는 맨드라미 또한 시인의 현신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병점에 떡집이 없음'에서 오는 상실 혹은 부재의 세계는 언니의 죽음에 맞닿아 그가 '서천(西天)으로' 가는 길만을 고집하는 연유가 또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천은 어디쯤 있는 곳인가. 혹은 어디쯤의 시간인가. 세상의 불확실한 미래를 빠져나간 온갖 부재들이 머무른 곳이 서천이었을까.

시인 최정례는 1955년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그는 199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으로 『내 귓속의 장대나무숲』과 『햇빛 속의 호랑이』가 있다.

「섬 그리고 섬」 - 홍사종을 찾아서

19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섬 그리고 섬』이 당선된 홍사종은 1955년 화성군

서신면 용두리에서 출생하여 서울예전과 중앙대학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하였다.

그의 등단작인 「섬 그리고 섬」은 1985년 2월 국립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또 1986년 아시안게임 문화축전행사로 무용극 「한두레」를 집필, 그 해 10월 국립극장에서 공연하였다. 그리고 문예진흥원 창작활성화 기금 대본부문에서 무용극 「비둘기만 날아가다」가 당선, 호암아트홀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또한 홍사종은 『시대문학』에 소설 「잡종지」를 발표하는 등 그외에도 무용평론, 발레극본 등 많은 작품을 집필하였다. 현재 그는 정동극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문선』의 보고 - 서거정을 찾아서

아호가 사가정인 서거정은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하여 1만여 수를 지어 집대성한 시집 『사가집』의 시인이다.

또한 조선 팔도 국토지리의 이모저모를 빼어난 시문과 함께 편찬한 『동국여지승람』과 신라 이후 역대 명시와 명문장을 모은 『동문선(東文選)』, 우리 역사서인 『동국통감』의 편찬자인 서거정의 무덤과 신도비를 모신 '염수제'가 화성군 봉담읍 상리 삼천병마골에 있다. 원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 1975년 봉담읍 삼천병마골로 옮겨졌다.

서거정의 문장은 당대의 누구와도 견주어 빼어났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세조의 총애를 받아 같은 집현전 학사였던 성삼문, 박팽년, 유성원, 이개 등 사육신과는 줄곧 다른 길을 갔다.

서거정은 시문에만 능했던 것이 아니라 시평론에도 일가를 이루어 『동인시화』를 써서 시론의 격을 높였고 산문집인 『필원잡기』, 『동인시문』, 『태평한화골계정』 등을 저술하여 조선의 문장을 발전시켰다.

홀로 앉았노라니 찾는 나그네 없고
빈 뜰에는 비기운이 어둡다.
고기 흔들어 연잎이 움직이고
까치가 밟아 나뭇가지 나부낀다.

거문고는 젖었으나 줄은 아직 울리고
화로는 차나 물은 그대로 있다.
진창길이라, 출입이 어려우니
한종일토록 문닫고 있을 수밖에……
—「홀로 앉아(獨坐)」

화성군에는 1988년 창립한 화성문협이 기관지인 『화성문학』을 1999년 현재 9집까지 발간하여 화성문화의 근간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문협에서는 1996년 10월 20일 노작 홍사용 문학제를 개최하였는데, 이 문학제는 홍사용의 문학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행사로서 매년 치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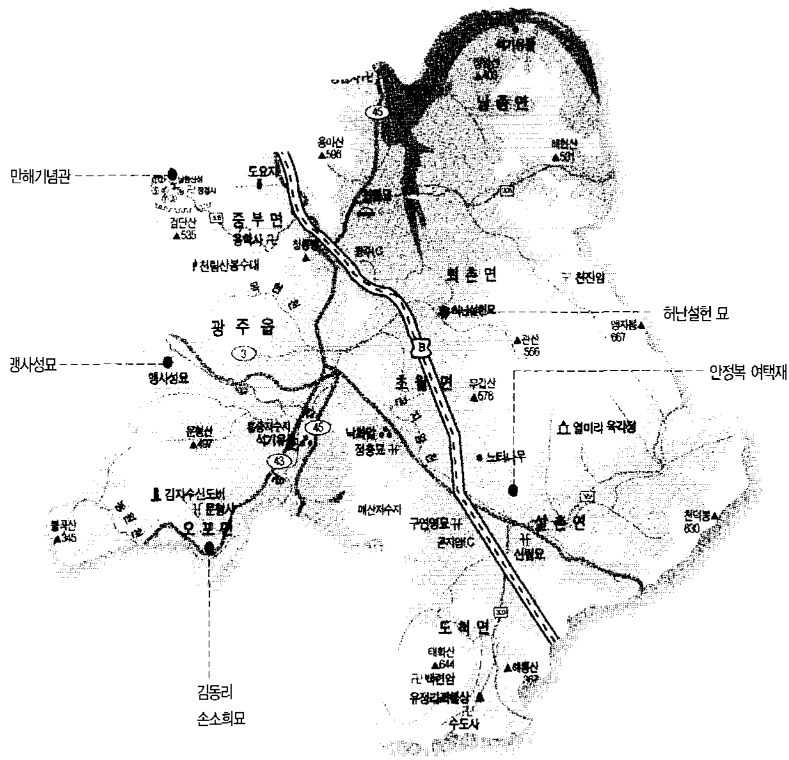
주요 회원 문인들로는 1991년 『시와 의식』으로 등단하여 시집 『조금씩 조금씩만 보고 가립니다』, 수필집 『아내가 아름다울 때』를 발간한 조광원 시인과 『문학 21』로 등단한 지현숙 시인 외 금종례, 이덕규, 정인자, 김창훈, 송해숙, 김균호, 우호태, 박대진, 이병숙, 김명훈, 홍길선 등의 문인들이 있다. 또 화성지역에는 1997년 『순수문학』으로 등단한 박승우 시인이 있다.

1) 畿甸: 경기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옛부터 '京畿' 라는 말이 쓰였다. 이는 임금이 사는 서울 성에서 10리 영역을 가리키는 京과 그 인근 지역을 畿로 말한 것을 합한 말이다. 아울러 '畿甸' 이라는 말도 많이 쓰였는데, 이 명칭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윤한택 전문위원이 정리해 놓은 글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윤한택, 「기전지방 기전문화」, 『기전문화예술』 1999년 봄호, 경기문화재단



광주

너른 고을 어딘들 문학이 아니랴





광주는 경기도에서도 알아주는 큰 고을이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까운 만큼 여기저기 신흥 위성도시에 땅을 많이 내주고 예전보다는 많이 세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광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시인이자 최초의 페미니스트라 할 수 있는 허난설헌의 슬픈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며, 실사구시의 광주실학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신소설의 대표자 최찬식의 고향이며, 우리나라 근대소설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김동리가 묻힌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남한산성이 있어 광주 문학의 전통을 생각하며 산책을 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고장이다.

너른 고을 어딘들 문학이 아니랴

광주(廣州)는 어러모로 억울한 땅이다. 우선 그 이름부터 앞머리에 '경기도' 자를 붙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대개 항쟁의 도시 빛고을 광주(光州)를 떠올리게 마련인 것이 첫번째 억울함이요, 지리적으로 이 나라 수도 서울이 원체 가깝다보니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에 슬금슬금 내준 땅이 적지 않다는 게 두번째 억울함이다. 게다가 남은 땅까지 수도권 상수도 문제나 국방상의 이유로, 또는 공원용지로 묶여 상당 부분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니, 얼핏 생각에도 절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억울함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득이 될 것이니, 이름이야 어느 한쪽이 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서울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주땅의 자인생태적 중요성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그야말로 발전이니 개발이니 하는 말의 값이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대접을 받을 게 분명하다.

어쨌거나 광주는 이것저것 떼이주고도 여전히 그 이름만큼이나 넉넉한 땅이니, 문학이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보아도 금방 증명된다.

문학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광주가 조선이 낳은 대표적인 여성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이 잠든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의 무덤은 중부고속도로가 빤히 바라다보이는 초월면 지월리에 있는데, 처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무덤 입구에서 참 좋은 자리구나 감탄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막상 그의 무덤을 찾아내고, 다시 그 위쪽에 그의 남편 김성립과 두번째 부인 남양 홍씨의 무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시대를 거슬렀던 한 천재 시인이 남긴 슬픈 요절의 역사를 절로 떠올리게 될 것이다.

1985년 전국시가비 건립동호회에서 세운 시비에는 「곡자시(哭子詩)」가 새겨져 있다. 번역은 허광자, 비문 글씨를 새긴 것은 정양완(鄭良婉).(정양완은 국학자로 유명한 위당 정인보의 딸로 『규합총서』를 번역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에는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잃었네
슬프디슬픈 광릉의 땅이여
두 무덤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구나
사시나무 가지에는 쓸쓸히 바람불고
솔숲에선 도깨비불 반짝이는데
지전(紙錢)을 날리며 너의 혼을 부르고
너의 무덤 위에다 술잔을 붓노라
너희들 남매의 가여운 혼은
생전처럼 범마다 정답게 놀고 있으리라
비록 뱃속에는 아이가 있다 하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날 수 있으랴
하염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피눈물 울음을 속으로 삼키노라

去年喪愛女/ 今年喪愛子/ 哀哀廣陵土/ 雙墳相對起/ 蕭蕭白楊風/ 鬼火明松楸/ 紙錢招汝魂/ 玄玄酒尊汝丘/ 應知弟兄魂/ 夜夜相追遊/ 縱有腹中孩/ 安可期長成/ 浪吟黃臺

詞/血位悲吞聲 (허경진의 번역)

허난설헌의 무덤 옆에는 그로 하여금 이토록 비통한 시를 쓰게 한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다. 허난설헌,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옥이 깨지고 구슬이 떨어지니
그대의 한평생이 불행하였어라
하늘이 내려줄 때는 넉넉하여 넘치게 했으면서도
어찌 그토록 가혹하게 벌주고 속히 빼앗아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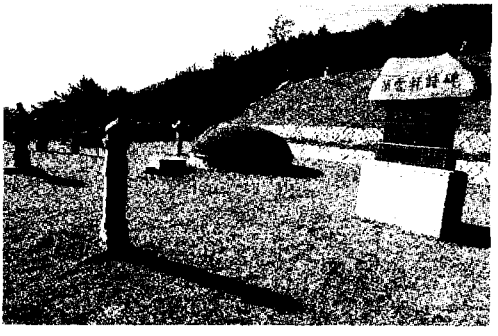
허난설헌이 죽었을 때, 그의 남동생 허균(許筠, 1569~1618)은 누이를 위해 이렇게 읊었다. 시(「毁蟾辭」) 속에 나오듯 허난설헌의 일생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는 남동생 허균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살았고, 그 결과 스물일곱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다.[1] 그의 삶은 근년(1997년)에 들어와 당대 제일의 소설가라는 이문열이 여성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은 장편소설 『선택』에서 "난설헌의 삶은 양가의 규수에게는 아무런 참고가 되지 못하였다"고 적었듯이 여전히 제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난설헌의 아버지 허엽(許曄, 1517~1580)은 대대로 문장이 뛰어났던 양천 허씨 집안 출신이었다. 호를 초당(草堂)이라 하고, 화담 서경덕과 퇴계 이황에게서 글을 배웠다. 허난설헌은 초당 허엽이 첫째부인과 사별한 후 재가한 호조참판 김광철의 딸 김씨 부인과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오빠 하곡(荷谷) 허봉(1551~1588)은 나중에 율곡을 탄핵하다가 유배와 방랑 생활을 이어나가다가 38세의 나이로 죽었고, 『홍길동전』의 작가인 아우 허균 또한 역적죄인으로 몰려 처형당했으니, 삼남매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다고 할 것이다.

난설헌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여인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이름'이 있었다. 초희(楚姬)가 그것. 그러나 남들과 달랐다는 바로 그 점이 훗날 난설헌 허초희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말하면 지나칠까. 과연 난설헌은 훗날 봉건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곡을 뚫고 여성해방운동의 선각자로서 우뚝 선, 당대 최고의 페미니스트라고도 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난설헌은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와 건천동에서 살았는데, 서애 유성룡, 충무공 이순신, 원균 등이 이웃에 살았다고 한다. 이들이 난설헌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만하다. 그는 여덟살 때 하늘에는 신선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광한전백옥루상량문」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문장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여서, 일약 그를 신동으로 소문이 나게 만들었다.





허난설헌 묘
초월면 지월리 무갑산 아래. 광주에서 3번 국도 이용, 중부고속도로 건너편.

초당도 난설헌에게 정식으로 글을 가르치지는 않아서, 작은오라비의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배운 문장이 "난설헌의 시는 작은오라비(荷谷)도 따를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하곡은 난설헌에게 자유분방한 당시(唐詩)를 권유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하곡의 스승 이달(李達)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런 영향으로, 난설헌은 시집가기 전부터 사랑과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시를 짓기도 했다. 미지의 낭군을 그리며 지은 시 한 편.

해맑은 가을 호수 옥처럼 새파란데
연꽃 우거진 속에다 목란배를 매었네
물 건너 님을 만나 연꽃 따서 던지고는
행여나 누가 봤을까봐 한나절 부끄러웠네

'한나절 부끄러웠다' 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난설헌은 여느 여자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표시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난설헌도 정작 결혼을 해서는 봉건제도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과 혼인했으나, 신혼 초기부터 아내에게 열등감을 지닌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과거를 핑계 삼아 기생방에 묻혀 지낸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다.

제비는 쳐마 비스듬히 짝지어 날고
지는 꽃은 여지럽게 비단옷 위를 스치는구나
규방에서 혼자 기다리는 마음 사못 아프기만 한데
님께서는 푸르러도 강남에 가신 님은 여태 돌아오시질 않네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는 이 시가 너무 음탕해서 시집에 실리지 않았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로 답답한 세상 속에서 사는 난설헌의 결혼생활은 그야말로 질곡 그 자체였을 터. 고부간의 갈등도 그를 견딜 수 없게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 배로 낳은 어린 남매를 일찍 여의었으니 그 슬픔이 어땠을까. 허난설헌의 묘 옆에는 그의 어린 남매 묘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 묘비에는 오빠인 허봉이 쓴 시가 새겨져 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진 희윤아
희윤이 아버지 성립은 나의 매부요
할아버지 담이 나의 벗이로다
눈물을흘리면서 쓰는 비문,
맑고 맑은 얼굴에 반짝이던 그 눈,
만고의 슬픔을 곡(哭)에 부치노라

게다가 그토록 정이 깊던 오라버니 허봉이 규양을 가게 되었으니…….[2]

날리는 규양가는 감산 나그네 / 함원땅 길 떠나는 참황한 행색//
신하는 가태부나 다름없건만 / 임금님이야 어찌 초회왕이리//
불은 가을 언덕에 가득 흐르고 / 함관령 구름 사이 헤지려 할 제//
어인 서럿바람 기러길 채니 / 안항(雁行)이 뚝 끊어져 줄 못 이루네

遠謫圭山客 感傷子色忙
日同賈太傅 主豈楚懷王
河水平秋岸 關雲欲夕陽

霜風吹雁行 中斷不成行

난설헌의 시는 훗날 동생 허균이 편집해서 펴냈는데(『蘭雪軒藁』), 발문을 쓴 서애 유성룡은 "이상하도다. 부인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하여 허씨 집안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이토록 많단 말인가"라고 놀란 소회를 적은 바 있다. 이 책은 중국 사신 주지번 등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는데 너도나도 베끼느라 낙양의 지가를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하며, 1609년 입국한 명의 사신들은 허균에게 앞다투어 난설헌의 시집을 얻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이 시집은 일본에서도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1711년에는 분다이야 지로베이에(文臺屋 次郎兵衛)에 의해 카다가나로 토를 단 『난설헌집』이 출간되었다고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貧女吟」)는 봉건조선의 여성이 겪는 불행을 극명하게 대변한 절창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 얼굴 남만 못하지 않고
바느질 길쌈도 솜씨 있건만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란 탓으로
중매인도 발 끊고 몰라라 하네

추워도 주려도 내색치 않고
진종일 창가에서 베를 짜나니
부모님이야 안쓰럽다 여기시지만
이웃이야 그런 사정 어이 아리요

밤 깊어도 짜는 손 멈추지 않고
짤깍짤깍 바디 소리 차가운 울림
베틀에 짜여가는 이 한 필 비단
필경 어느 색시의 옷이 되려나


허난설헌 시비

가위 잡고 삭독삭독 옷마를 제민
빔도 차라 엷손끝이 곱아드는데
시집갈 옷 상바느질 쉴새없건만
해마다 독수공방 면할 길 없네

하지만 국내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연암 박지원은 중국에 난설헌에 대한 잘못된 기록과 소문이 있음을 개탄하며, '뒷세상의 재사가 풍부한 규중 재녀들이 의당히 경계해야 할 거울'이라고 하였으며, 이덕무 역시 그를 가리켜, '부인이 글에 능하고 재주가 많은 까닭에 이같은 욕이 미치니 매우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한 이가 있으니, 매천 황현이 대표적이다.

허난설헌은 어느날 문득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올해가 바로 내 나이 3 · 9에 해당된다. 마침 오늘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날이다. 내가 지었던 시들은 모두 불태워 없애도록 하라"는 유언을 내린다.

한반도 좁은 천지에 태어난 것, 그것도 여성으로 태어난 것, 마지막으로 김성립의 아내로 굽슬이 좋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던 난설헌은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광주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정에는 전국국어국문학 시가비 건립동호회가 1980년에 세운 난설헌 시비가 따로 세워져 있다.

한편 광주는 실학(實學)의 중심지로도 기억되어야 한다.

이곳 출신의 문학평론가 구중서는 실학의 의미, 그중에서도 근기실학이라고도 불리는 경기실학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튼튼한 가치 척도는 '실사구시(實事求是)'로 표방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에서도 타개해야 할 난제가 있을 때엔 으레 하나의 전향적 행동철학처럼 '실사구시'가 내세워진다.

오늘의 현실에서뿐 아니라 실상 조선조 후기 이래 우리나라가 이른바 '근대화'의 큰 과제를

짊어지면서부터 이러한 명제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져왔다. 민본주의, 과학정신, 세계적 안목, 민족 주체성의 확립,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학사상을 역경 속에서 창도한 이들의 연고지가 있다. 연고지, 이것은 역사적 자산이며 동시에 오늘 그리고 미래에도 생동하는 정신의 샘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실학파 학자들로서 지봉 이수광,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의 연고지들이 오늘날 같은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수광과 유형원은 우리나라 실학의 밑동과 같은 이들이다. 그러면서 뒤에 형성되는 경기 남부 성호학파 또는 광주학파에 일치된다. 이익, 안정복, 정다산 등이 같은 남인계이면서 경기도 광주 또는 남한강 유역에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하는 실학의 지도적 이론가들이 바로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4]

광주 실학은 흔히 근기(近畿)학파라고도 불린다.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은 원래 아버지 이하진(李夏鎭)의 유배지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광주군 안산(安山) 첨성촌(瞻星村: 현재는 경기도 안산시 一洞)으로 돌아와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18세기 전반기 경세치용(經世致用)의 근기학파를 이끌었다. 그는 한때 과거에 뜻을 두기도 했으나 형 잠(潛)이 당쟁에 희생되자 벼슬을 단념, 향리에서 오직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저술하는 작업에만 몰두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사상체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그는 당쟁이 제한된 직제에 비해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많은 양반들이 과거를 통해 등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비판, 궁극적으로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중농(重農)사상에 입각하여 대토지의 점유를 억제하는 한전법(限田法)의 시행을 주장했다.

그의 학문은 제자인 순암 안정복을 비롯, 이가환, 이중환 등에게 계승되었다.

최근 안산 그의 묘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의 집터가 확인되었고, 자연석 비와 안내판도 설치되었다.(안산편 참고)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본관이 광주로,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울산 부사 등을 지낸 할아버지를 따라 서울, 울산, 무주 등지를 옮겨다니며 살다가, 25세때부터 선영이 있는 광주군 경안면 덕곡리 텃골(현재의 중대리)에 서재를 짓고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광주는 서울과 가까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자주 전할 수 있는 곳인 만큼, 바야흐로 안정복의 학문에도 일대 전환점이 되는 셈이었다. 그는 경학(經學)을 비롯하여 역사, 천문, 지리, 의약 등에 폭넓은 관심을 지녔으나, 과거에는 한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학문이 경세치용의 곬을 찾기 시작한 것은 서른다섯이 되던 해 이익의 분하로 들어가면서부터였다. 그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종래의 역사학을 실증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에 남다른 정열과 노력을 기울였다. 『동사강목(東史綱目)』, 『열조통기(列朝通記)』, 『광주지(廣州志)』 등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동사강목』은 단군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의 계통을 바로잡고자 하는 민족자주사관이 담겨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순암의 대표적 업적이라는 평을 했다.



외래 침략자를 격퇴한 역사적 사실을 특히 서술하고, 충신과 명장들의 빛나는 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고구려의 대수당(對隨唐)전쟁과 대거란, 몽고전쟁 등에서 조국의 수호를 위한 민중의 분투와 을지문덕, 강감찬, 서희 등 뛰어난 인물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의 용감성을 자랑하는 한편, 신라통일 이후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국방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나라가 약하게 되었다고 통탄하였다. 고려 성종이 주군(州郡)의 병기를 수납하여 농구로 개조한 사실을 들어 외적의 침입에 무엇으로 방어할 것이냐고 비



여택재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 3번국도를 타고 가다가 오른쪽 텃골 가는 길로 접어들면 곧바로 찾을 수 있다. 행정동명은 중대 1리 또는 덕곡리

난하기도 하였다.[5]

훗날 민족주의 사학자들인 신채호, 장지연 등도 이 책에서 많은 시사를 받았다.

이밖에도 그는 행정에 나아가는 관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한 『임관정요(臨官政要)』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다룬 『가례집해(家禮集解)』 등을 남겼다. 이 책들은 대개 덕곡리의 여택재(麗澤齋)라는 서재에서 집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의 묘소는 텃골 뒤 영장산 높은 중턱에 있다. 1996년에는 순암을 추모하는 이들이 마을 여택재 앞에 숭모비를 세웠다.

한편, 안정복은 자신이 지은 역사책 『열조통기(列朝通紀)』에서 임꺽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홍명희의 『임꺽정』과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명종 17년(1562) 봄 정월에 해서지방의 광적(광적) 임꺽정이 복주되었다. 임꺽정은 양주에서 도살업을 하던 자이다. 성격이 교활하고 영리하며 날래고 용감하였다. 무리배들을 불러 모아 도적떼를 만든 것이 오래되었다. 처음에는 명회적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대낮에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였으며, 옥문을 부수고 형리를 난도질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수령들의 힘으로는 체포할 수가 없게 되었다. ……대체로 3년 동안 몇 도의 군사를 동원하여 겨우 체포하였는데, 양민으로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았다.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보내 잡아다가 효수하였다.

이들 실학자들이 넓은 의미의 광주문학을 빛낸 이들이라고 본다면, **안민영**(安玟英, 생몰년 미상)에 관해서는 좀더 직접적으로 문학의 범주 속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조선 말 철종때 광주에서 태어난 가객으로 스승인 박효관(朴孝寬)과 함께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찬한 것으로 유명하다. 『가곡원류』는 김천택의 『청구영언』, 김수장의 『해동가요』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시조집에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앞의 두 책이 중간 결산집이라면 이 책은 총 결산보고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원본은 없이 10여 종의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추정되는 국립국악원본에는 남창부 665수, 여창부 191수로 총 856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작가의 신분 차이나 연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시조의 창법 및 곡조에 유념하고 있다는 점이 『청구영언』이나 『해동가요』와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그 스스로 지은 『영매가』 외 26수의 시조도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시조문학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가

곡원류』의 편찬자 안민영을 낳은 점은 광주의 자랑이겠으나, 아쉽게도 그 이상으로 그가 광주와 맺은 구체적 행적이나 자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김윤식

구한말 '불가불가(不可不可)'의 정치가로 유명한 운양(雲養) **김윤식**(金允植, 1835~1922)도 광주가 낳은 문장가다. 그는 광주군 남종면 귀여리에서 대동법으로 유명한 김육(金堉)의 9대손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낸 그는 16세때 서울로 올라가 민씨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장차 대제학(대제학)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다. 주변의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거에 급제한 것은 그의 나이 마흔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일단 관직에 들어선 그는 승승장구, 암행어사와 순천부사 등을 거쳐 불과 10여 년만에 정경판서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출세에는 당연히 민태호, 민규호 등 동문수학한 민씨 형제들의 입김이 작용을 했는데, 뒤에는 이런 사실이 오히려 반대파의 공격을 받는 빌미로 작용,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정치 역정은 파란만장한 당대의 역사 그 자체로서, 개화파로서 입지를 굳힌 그는 일본에 파견되는 신사유람단의 영선사를 지내는가 하면, 늙으막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수의(지금의 국무회의)에 참가, 해석이 분분한 '불가불가' 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이들은 그가 '불가 또 불가'라고 하여 한일합병을 두 번이나 불가하다고 반대한 것으로 좋게 해석하는데[6] '불가불(不可不)가(可)'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풀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는 『운양집』을 비롯하여 『천진담초』, 『음청사』, 『속음청사』 등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가 청의 이홍장, 일본의 이등박문과 친교를 맺는데 그의 뛰어난 문장력이 한몫했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그가 면천 시절에 지었다는 시를 읽노라면, 어쩐지 유약한 성격의 백면서생이 냉혹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거나 줏대없이 그저 대세에 편승하는 얄팍함마저 엿보인다. 무릇 문장이며 문학이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 싶은 이라면, 물어물어 귀여리의 생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터.

낙엽 이래 영탑이 드높았는데 / 숲속은 쓸쓸하기 가을 같구나

절과는 일찍부터 인연 깊던가 / 세상일 한바탕 봄꿈이로고
화성이 서로가니 사설이 늦고 / 하늘에 북두칠성 보이지 않네
뜬구름 이제 와서 우습고녀 / 얻은 것 촌사람의 대감소리

광주는 또한 신소설의 개척자 **최찬식**(崔瓚植, 1881~1951)이 태어난 고장이기도 하다. 풍산동 출생. 어린 시절 광주의 사숙에서 사서삼경까지 마친 그는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7년 아버지가 설립한 시흥(時興) 학교에 입학하여 비로소 신학문을 접했다. 나중에는 서울로 올라와 관립 한성중학교에 다녔으며, 1907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발행한 소설선집 『설부총서(說部叢書)』를 번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소설 창작에 뜻을 품게 된다. 그리하여 1912년에 우리 근대소설의 효시격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작 『추월색(秋月色)』을 발표하는데, 개화된 젊은이들의 새로운 애정 행각과 인식을 다루어 많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주제를 다뤄나가는 가운데 절충적 요소가 많이 엿보여 아직까지는 과거 소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 버리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최찬식은 이해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친일파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그의 동생은 해방 후에 자기 가족의 친일 행적을 오히려 애국으로 날조하기까지 했다.(최원식, 「한국문학의 근대성을 다시 생각한다」,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비 29쪽 참고)

예컨대, 최영년(崔永年, 1856~1935)의 아들이요 최찬식의 동생인 최원식(崔瑗植)이 자기 부형(父兄)을 마치 애국자로 미화한 『아동최씨고(我東崔氏考)』(1968)를 간행한 일은 참으로 귀신도 통곡할 일이다. 아마도 이 집안만큼 철두철미 친일로 '의식화' 된 가계는 드물 터인데, 그럼에도 그는 최영년을 『황성신문』의 주필이요 『대한매일신보』의 익명의 객원논설위원으로 위조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최영년은 1906년 일진회(一進會)의 기관지 『국민신보』의 주필이었고 1907년 이후에는 일진회의 총무원으로 활약한, 이인직에 버금가는 친일논객이었고, 최찬식의 신소설은 이인직을 앞지르는 친일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국어교과서에는 전에 못 보던 최찬식의 「추월색」과 안국선의 「인력거꾼」이 실려 있던데, 이 두 작품은 명백히 친일적이다. (최원식, 앞의 글, 194쪽)



맹사성 글씨와 맹씨행단

광주에는 또한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묘와 조선 초기의 문신 최항(崔恒)의 묘가 있다.

맹사성은 조선 세종때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냈는데, 『팔도지리지』를 펴냈다. 시문에도 능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라 평가받는 「강호사시가」를 지었다. 이 작품은 맹사성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계절에 따라 1수씩 읊은 것이다.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濁醪溪邊(탁료 계변)에 錦鱗魚(금린어)이 안주로다.
이 몸이 閑暇(한가)하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江湖(강호)에 여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孤孤(유신)한 江波(강파)는 보내 느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옴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江湖(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小艇(소정)에 그물 시러 흘니 씌여 더져 두고,
이 몸이 消日(소일)해옴도 亦軍恩(역군은)이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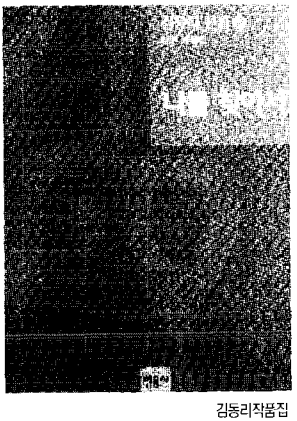
江湖(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칩지 아니 옴도 亦軍恩(역군은)이샷다.

맹사성은 청렴결백한 생활로 청백리(淸白吏)의 규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최항 역시 조선 세종, 세조 연간의 문신으로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도왔으며, 『고려사』 편찬에도 참가했다. 문장에 능하여 당시 명에 보내는 사신들의 표전문(表箋文)은 거의 그가 썼다고 한다.

한국 근대현대문학사에 적지않은 족적을 남긴 소설가 **김동리**(金東里, 1913~1995)가 역시 소설가였던 부인 **손소희**(孫素姬, 1917~1987)와 함께 오포면 신현리에 묻혀 있다.

김동리는 1913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다. 장형인 한학자 김범부(金凡父)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식민지시대에 이미 여러 신문에 시와 소설이 당선되면서 일찍부터 문명을 떨치기 시작한 그는 해방 직후부터 공산주의 계열의 문학단체와 맞서는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그리하여 1946년에는 문학가동맹에 대항하여 서정주, 박두진, 조지훈, 조연현, 박목월 등과 함께 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계급주의, 또는 민족주의 문학에 반대하는 이른바 인간주의 문학론을 이론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마침내 보수적인 문학인들의 총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문학가협회를 결성했는데, 이것이 5. 16 쿠데타 이후 새로 결성된 한국문인협회의 전신이었다. 이런 이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일찍부터 문단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추천을 받거나 도움으로 문단에 나온 이들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



김동리작품집

며, 뒤에는 서라벌대학(중앙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화랑의 후예』, 『무녀도』, 『황토기』, 『역마』, 『등신불』 등 우리 문학사에 우뚝 솟은 명작을 수없이 남긴 그의 작품 세계는 토속적이고 지방적인 소재를 완벽한 소설미학으로 재구성하여 그것을 보편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에게 있어 문학의 대상은 인간이요, 인간을 떠나 문학은 존재할 수 없고, 또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인간을 떠나 문학을 생각하고, 인간을 떠나 문학을 논의한 적이 없다.

나에게 있어서는 시고 소설이고 평론이고 일체의 문학이란 다만 인간을 의식하고, 인간을 정화(淨化)하고, 인간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7]

현대 한국문학사에서 그처럼 커다란 '문학권력'을 지녔던 이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그도 하늘이 내린 운명의 손길은 피해갈 수 없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는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겼다.

나는 오랜 옛 서울의
한 아름 없는 마을에 태어나
부모형제와 이웃 사람의 얼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볼 적부터
죽음을 밥 먹듯 생각하게 되었다.
아침에 피는 꽃의 빛깔과
황혼에 지는 동산의 기을 소리도
이별이 곁들이져, 언제나
그처럼 슬프고 또 황홀했다.
술과 친구와 노래는 입성인양 몸에 붙고
돈과 명예와 그리고 여자에도
한결같이 젖어들어

모든 짓을 알려다
어느 것도 익히지 못한 채
오직 한 가지 참된 마음은
내가 눈감고 이미 없을 세상에
비치어질 햇빛과 피어나는 꽃송이와
개구리 우는 밤의 어스름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살아 있을 모습을 그려보는 일이다.
—「자화상」

마지막으로 김동리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역마(驛馬)」를 함께 읽어보자.

역마살을 타고 난 성기는 떠돌아 다니고 싶어하는데, 이를 안 어머니 옥화는 여러 여자들을 붙여보았지만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성기를 절에 있게 한다. 어느 날, 체장수 영감이 딸 계연이를 데리고 나타나자 성기에게 붙여주려고 한다. 그런데 우연히 계연이의 귓바퀴 위의 조그만 사마귀를 발견하고는 놀라면서 영감이 말한 36년 전의 이야기를 생각한다. 악양의 명도로부터 당시의 이야기를 들은 옥화는 체장수 영감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계연이가 자기 동생임을 확인한다. 그 후 성기와 계연이를 멀어지게 한 후 영감이 돌아오자 영감과 계연이를 떠나 보낸다. 성기는 계연이가 떠나자 자리에 누워 앓게 되고, 이를 본 옥화는 사실 이야기를 한다. 옥화의 이야기를 들은 성기는 다시 힘을 얻고 자신의 타고난 역마살을 따라 엿판 하나를 구해서 계연이가 떠난 구례 쪽과 반대쪽인 하동 쪽으로 정처없이 떠난다.

이 작품의 테마는 역마살로 대변되는 운명론이다.

남사당과의 하룻밤 인연의 소산인 옥화는 다시 떠돌이 중과의 인연으로 성기를 낳는다. 성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역마살을 운명적으로 갖게 된 것이다. 그 역마살을 풀어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설은 종결된다. 사실성을 요구하는 소설의 관습으로 본다면 이 작품은 우연으로 점철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루 저녁 놀다 간 남사당에게서 옥화를 낳은 할머니, 떠돌이 중으로부터 성기를 낳게 된 옥화, 마침내 엿목판을 메고 유랑의 길에 오르는 성기 등 삼대에 걸

친 억배살의 내력이나, 옥화와 계인의 만남, 옥화가 계인이 그녀의 이복동생임을 알아차리는 계기 등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건들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우연들은 김동리의 소설 속에서는 단순한 우연에 그치지 않고 운명의 시위로 올라선다. 이 소설에서 등장 인물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태두리에 둘러 싸여 있다. 민속적인 소재를 통하여 토속적인 삶과 그 운명이 시적으로 승화된 이 작품은 『무녀도』, 『황토기』 등의 작품과 함께 김동리의 운명론적 문학관을 나타내주는 초기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8]



손소희



김동리, 손소희 묘소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광주읍 경안리 우체국 앞에서 오포면 신현리를 거쳐 분당 신도시까지 왕래하는 버스를 타고 간다. 20분 정도 소요.

김동리의 부인 손소희는 함북 경성 출생으로 1946년 『백민』에 「맥에의 결별」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주요작품으로 장편 『태양의 계곡』, 『에덴의 유역』, 『원색의 계절』 등이 있으며, 창작집 『다리를 건널 때』, 『창포 필 무렵』 등이 있다. 서울시문화상과 5월 문예상을 수상했다.

여성소설가 **한무숙**(韓戊淑, 1918~1993)도 결혼 후 한때 실촌면 곤지암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한무숙은 1918년 서울 출생으로 1942년에 『신세대』 장편소설 모집에 『등불 드는 여인』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1948년에는 국제신보 장편소설 공모에 『역사는 흐른다』가 다시 당선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한무숙 문학의 특징으로 누구든 감탄해 마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떤 소설가보다도 서울 말씨를 잘 구사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서울 말씨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표준말은 결코 아니다. 서울에서 전통적으로 사대부 계층들이 사용해왔던, 말하자면 서울 사투리인 셈이다.

한 평론가는 한무숙의 문학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김인환, 한무숙론, 『생인손』, 문학사상사)

한무숙은 표준어의 딱딱한 틀을 깨뜨리고 우리 문화의 기층으로 스며들어 숨어 있는 말씨의

결을 다시 찾아내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언어는 삶의 양식과 엇물려 있을 때에만 생명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흔히 문밖절이라는 것이 없는 서인의 가법과 직계 어른에게는 반드시 문밖절을 올려야 하는 남인의 가법에 대하여 들어왔다. 예절의 핵심은 마디를 따지는 데 있으므로 공경의 무게대로 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남인의 규정이고, 어버이와 자식의 도는 친애에 있으므로 가깝게 대하여 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서인의 규정이다. 한무숙에 따르면 같은 서인이라도 노론과 소론의 말씨가 다르다.

협호에 살면서도 소론집 풍습따라 시부모를 '마님' 받쳐 부르는 정씨가 가증스럽기만 했다. 풍습이 약간 다른 노론 출신인 서씨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그래도 때로는 "행랑의 새댁 얌전허기는 해. 까니를 잇지 못하면서 자킬 건 다 지킨단 말야. 친정은 아직도 반반하게 산다는데 시부모헌테 깍듯이 친정부모를 '밖어버이, 안어버이' 하지 않던가"하며 칭찬을 했다.

서울말을 캐어 낸다는 것은 말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적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씨의 터가 되는 삶의 결, 삶의 양식, 풍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한무숙의 소설에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 자체로 길들어 있는 풍속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한무숙은 이렇듯 우리말과 풍습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그런 우리 고유의 전통을 여지없이 파괴한 근대사에 대해서 창작의 초점을 맞추었다.

90년대 들어 눈부신 창작 활동을 했고, 『내 마음의 옥탑방』으로 1999년도 이상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박상우**의 출생지도 광주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의 전근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경기도내 여러 곳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기에 출생지 광주에 대해서 딱히 남아 있는 기억은 없다고 말한다.



구중서

민족문학의 대표적인 평론가 **구중서**(具仲書)의 고향은 실촌면 열미리로, 그곳은 지금도 구씨

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는 70년대부터 활발하게 평론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관심은 특히 리얼리즘문학론, 민족문학론, 제3세계문학론 등에 집중되었다. 저서로 『한국문학사론』(1978), 『문학을 위하여』(1978), 『민족문학의 길』(1979), 『분단시대의 문학』(1981), 『한국문학과 역사의식』(1985) 등이 있으며, 수원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9년 현재 그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이사장으로도 재직하고 있다. 동료 문학평론가 염무웅은 그의 비평세계를 일러 "구중서 형의 글은 문학비평이 단순히 재치있는 분석의 기술 내지 까다로운 논리의 유희로 되어가는 시대에 있어 드물게 보는 장식(長識)과 양심의 발언이다. 그것은 그가 인제나 문학현장의 구체적 필요에 자기를 일치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민족문학 건설의 대열에 앞장서온 일관된 자세의 반영"이라고 평한 바 있다.

남한산성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들 중에는 육군교도소를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남한산성'이라는 말이 곧 군 죄수들을 가두는 육군교도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율이 엄하다는 온갖 소문과 함께.

남한산성 교도소에는 80년대에 들어와 많은 민주인사들이 갇히곤 했다. **문익환** 시인과 **고은** 시인도 한때 영어의 몸으로 그곳을 지켰으니, 자연히 그곳은 우리 문학의 한 산실이기도 한 셈이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육군교도소 특감은 임실이다
햇볕 없이 하히 웃었다
하루는 송장 냄은 관이었고
하루는 전혀 비어있다
용하도다 거기서 사람들 몇이 살아난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돛단배 하나 없는 바다이기도 하구나
—고은, 「햇볕」 일부

문익환은 이렇게 그때를 회고한다.

남한산성에서 군법회의로 출정하는 날이면 우리 둘은 언제나 한 버스를 타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깊어만 갔다.(고은, 『조국의 별』 발문)

고은은 그 시절이 자신의 문학세계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80년대라는 이 터무니없는 시대에 부딪친 나의 재능은 일단 무력했던 것이다. 한동안 나는 몸뿐만 아니라 말조차 골병든 상태였다. 시인에게는 국어의 낱말 하나하나는 거의 운명이다. 나는 그 낱말들을 다시 생명으로 거둬들일 것이다.(고은, 「조국의 별」 후기, 1984)

과연, 그곳에서 나온 시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편편마다 절창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별 하나 우러러보며 젊자
어둠 속에서
내 자식들의 초롱초롱한 가슴이자
내 가슴으로
한밤중 몇백 광년의 조국이자
아무리 멍든 몸으로 쓰러질지라도
지금 진리에 가장 가까운 건 젊은이다
땅 위의 모든 이들아 젊자
긴 밤 두 눈 두 눈물로
내 조국은
저 별과 나 사이의 가득 찬 기쁨 아니냐
별 우러러보며 젊자
결코 욕될 수 없는
내 조국의 뜨거운 별 하나로
네 자식 내 자식의 그날을 삼자

그렇다 이 아름다움의 끝
항상 구름에서 태어난다 이침이자
내 이침 햇빛 뛰노는 조국
오늘 여기 부여안을 일체 전합의 젊음이자
—「조국의 별」 전문

뭐니뭐니해도 광주는 남한산성의 땅이다. 옛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역사의 성지 남한산성을 찾아왔고 또 그 감회를 글로 남겼는데, 근대에 들어와서도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 1901~1981)의 수필에도 남한산성이 나온다.

남한산이 다가오고 가을 단풍 고운 벽에 단공(短 : 짧은 지팡이)을 이끌어 광진교(廣津橋)에 나아가면 남으로 원장역산(圓長驛山)이 천공에 호선(弧線)을 그어 노기를 배알으며 기다리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엄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한산성이다.(박종화, 「남한산성」(기행문), 『백두산근참기』, 조선일보사, 1989)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이며 시인인 **김영무**는 산성 중턱에서 만난 꽃 한 포기도 놓치지 않았다.

남한산성에 가면 산중턱에 뜻밖에도 넓은 초원 펼쳐지고, 그 복판 사백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 가슴에 구멍 뚫린 채 정정하다 캄캄한 저 안에 무엇이 살까 어느날 그 구멍 속에 얼굴 대고 들여다보니 햇살의 해라들이 어둠 속에 가득 쌓이 하얀 눈썹을 빛내고 있었다. 고목나무 주위에서 흰나비 망초꽃들이 노랑을 자면서 풀섶 헤치고 산하나들을 오르다가 자꾸 뒤를 돌아본다. 머니에 제각기 머시포 쓴 꽃들의 뒷모습 쫓아가다가 나는 나무 그림자 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망초꽃들의 눈썹이 입술에 서늘했다. 갑을 잃은 바람이 이서 이서 일어나라고 이깨를 치는 바람에 망초꽃을 한아름 꺾어 고목나무 구멍에 넣어주고 꿈속을 두 바퀴 돌아 하동지동 산을 내려왔다. 빼다귀들이 쫓아올 것만 같아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눈썹 껌벅이며.

—「남한산성의 망초꽃들」 전문, 『산은 새소리마저 씻어두지 않는구나』, 1998, 창작과 비평사

광주 문학기행을 마무리하려면 남한산성(중부면 산성리 908번지) 백제장 뒷동네에 자리잡은 한용운 선생기념관(성남편 참고)을 찾아가는 것이 어떨지. 하지만 방문자 대다수는 도대체 남한산성이 만해 한용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사실, 남한산성이 만해와 구체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남한산성 기슭에 이 기념관을 세우는 데 더없이 큰 역할을 한 한 교수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으면 누구라도 금방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전보삼, 『만해 한용운 그의 삶과 혼』)

우리는 흔히들 역사 인물의 경우 그의 연고지나 사건 현장을 떠올리면서 그런 곳에 기념관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변변한 역사 인물의 기념관 하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들 생각이 종전의 고정틀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기념관들은 우리들 생활과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념관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에 있어야 하고, 우리들 생활과 멀리 떨어지면 곤란하다. 남한산성은 서울의 동남쪽에 위치하므로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강동으로 이어지는 즉, 한강을 건너온 곳에 도다른 남산의 위치요, 성남, 분당, 하남, 광주로 이어지는 수도권 시민의 또다른 휴식처요, 역사 현장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다. 더욱이 남한산성은 호국 승군의 의지가 서려 있는 역사의 땅이다. 산산의 외곽으로 배치되어 있는 아홉 개의 절(국청사, 천주사, 남단사, 한흥사, 장경사, 망월사, 옥정사, 동림사. 그리고 개원사)의 위를 살펴보면 이 사찰이 어떤 기능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명확하여진다. 산성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산성 외곽에 위치한 것이다. 임진년에는 서산 사명이 있어 나라를 구하고 기미년에 용성 민해가 서산 사명의 법손으로 조국을 구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고 보면 결코 우연의 일치로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이 위치한 것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1) 이하 허난설헌의 전기는 김신명숙의 소설 『불꽃의 자유혼 허난설헌』, 금토와 그 책 말미에 실린 허경진의 해설 「허난설헌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많이 참고했다.

2) 인용 시의 출처는 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3) 손종섭, 앞의 책

4) 물론 당색(黨色)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실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실학이 처음부터 전근대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데서 출발하는 사상 체계라면, 남인(南人) 계열과 근기 지방

인물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일지라도, 그들만으로 실학의 전 사상을 포괄하려는 시도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4권 실학 항목 참조.

5) 이우성, 『동사강목』 해제, 다중서, 「정기실학의 발이랑-그들의 생애와 연고지를 찾아」, 『기전문화예술』 참고

6)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김윤식 항목의 집필자 권석봉이 '1910년 8월 창덕궁에서 합방에 관하여 순종의 물음이 있었을 때 홀로 합방의 옳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고 쓰고 있다

7) 김동리, 『김동리전집』 제8권 「자전에세이 나를 찾아서」, 민음사, 1997, 239-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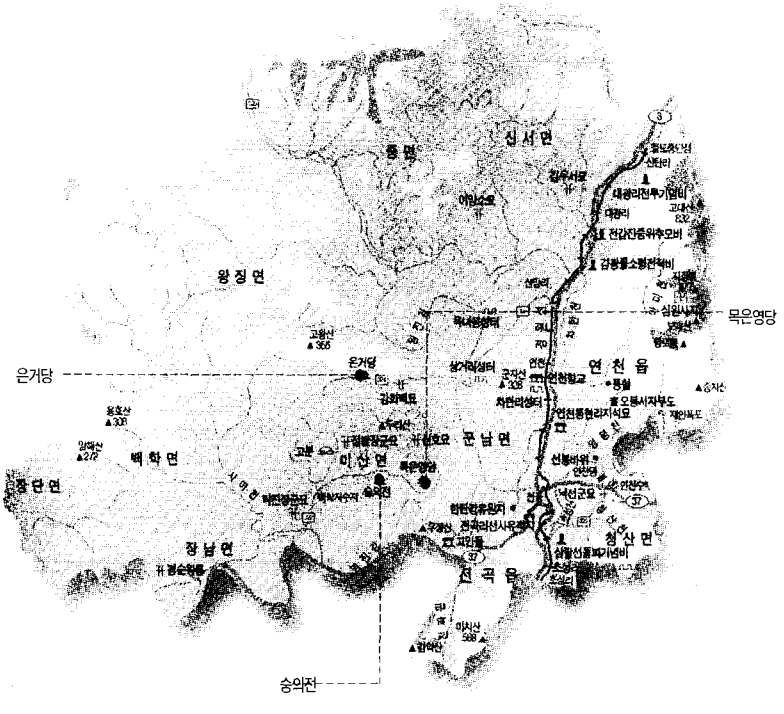
8) 인터넷 http://my.netian.com/~sms63 ,' 송문섭 문학수업' 에서 인용





연천

휴전선의 비극을 문학으로 아우르며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연천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목은 이색의 영당과 허목의 사우 은거당이 있어 훨씬 더 장구한 역사의 숨결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김상용,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의 남구만도 이곳 출신이며, 젊은 소설가 임영태는 고향 전곡을 꾸준히 작품화하고 있어 새삼 고향사랑의 정수를 맛보게 하기도 한다.

휴전선의 비극을 문학으로 아우르며

연천군은 경기도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람에 휴전선의 일부가 이곳을 가로지르게 되었다. 한국전쟁 전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북한 땅에 편입되었던 땅을 전후에 되찾기는 했으나 30퍼센트에 가까운 땅은 휴전선 북쪽에 남아 있다.

전곡리에서 선사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이곳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이 기원전 십만 년전부터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조선 왕조 문신 홍귀달에 의하면 '산은 첩첩이 돌아들고 물은 구불구불 흐른다'라고 했던 땅이기도 하다. 연천은 이처럼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산수를 자랑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긴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곳곳에 부대가 있어 훈련 때면 좁은 도로로 탱크가 지나다니고 대포소리가 지축을 울리는가 하면, 전쟁 때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출입 영농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목은영당

미산면 아미리 임진강가 절벽에 수령 500년이 넘은 느



선곡리 선사유적

티나무가 말없이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그 나무 곁에 서 있는 고색창연한 사당이 숭의전이다. 이곳은 고려가 망하고 새로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태조가 왕씨 후손들에게 고려 임금 일곱 사람을 제사하도록 짓게 한 사당이다. 고려 태조와 다른 여섯 임금을 모셨던 이 사당은, 세종 때에 와서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네 임금과 고려와 조선의 충신 15명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도 왕씨 중종에서 이를 맡고 있다.

강을 건너 미산면 마전리에는 이색의 영정을 모신 목은영당이 있다. 이색은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와 아울러 고려말 삼은의 한 사람이었다.

고려시대 석학이었던 그는 전제 개혁, 국방 계획, 교육 진흥, 불교 억제 등의 여러 정책에 있어 시정 개혁에 관한 정책을 폈던 인물이다.

1367년에는 대사성이 되어 국학의 중영과 더불어 성균관의 학칙을 새로 제정하고 김구용, 정몽주, 이숭인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1373년 한산군에 봉하여지고, 이듬해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사 겸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1375년 우왕의 요청으로 다시 벼슬에 나아가 정당문학, 판삼사를 역임하였고 1377년에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의 호를 받고 우왕의 사부가 되었다.

1388년 철령위문제가 일어나자 화평을 주장하였다. 1389년 위화도회군으로 우왕이 강화로 쫓겨나자 창왕을 옹립하여 즉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이성계 일파의 세력을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성계 일파가 세력을 잡게 되자, 장단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수년간을 각처로 떠돌며 유배생활을 하였다.

1395년(태조 4)에 한산백(韓山伯)에 봉하여지고 이성계의 출사 종용이 있었으나 끝

내 고사하고 이듬해 여강으로 가던 도중에 죽었다. 그는 원과 명의 교체기에 친명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보고 친명정책을 지지하였다.

또 고려 말, 신유학의 수용과 척불곤의 대두 상황에서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불교를 하나의 역사적 소산으로 보고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조 왕건 때의 중흥을 주장하였다. 그는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승려의 수를 제한하는 도첩제 등 점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성인의 출현여부로 판단하는 인간중심, 즉, 성인, 호걸 중심의 존왕주의(尊王主義)적 유교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였다. 문하에 권근, 김종직, 변계량 등을 배출하여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했다. 장단의 임강서원, 청주의 신항서원 등에 배향되었으며 목은영당은 그의 후손인 청주목사 이명근이 선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은거당

왕징면 강서리에 있는 사우. 숙종 때 허목이 노년에 낙향하여 은거하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헌병 초소에 신고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이다.

허목이 1678년(숙종 4)에 판중추부사를 사퇴하고 귀향하여 지내던 중, 경연관 이향의 진언으로 숙종이 그의 충절과 덕망을 기려 사우를 하사하였다. 허목은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뒤에 영예롭게 받아들여 성은을 입은 거소라 하여 은거당이라 명명하였다.

허목(1595~1682)은 제자백가와 경서의 연구에 힘썼고 특히 예학에 뛰어났으나 50여 세가 될 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효종 8년(1657) 지평으로 처음 벼슬에 올랐다. 현종 1년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로 제 1차 예송(禮訟)이 일어나자 서인 송시열 등이 주장한 기년설(만 1년)을 반대하고 3년설을 주장했으나 현종이 기년설을 채택함으로써 남인은 숙청되고 그는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숙종 즉위년 제 2차 복상 문제로 예송에서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되어 남인이 재집권하자 대사헌에 특진되었고 이조참판을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송시열에 대한 처벌을 놓고 강 온이 대립, 온건론을 주장하던 영의정 허적은 탁남(濁南), 강경론자는 청남(淸南)이라고 하여 남인은 분열되었다. 숙종 5년에 허적을 탄핵하다 파직된 허목은 고향에 내려가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그의 이기론은 독특하여 기(氣)는 이(理)에서 나오고 이는 기에서 행(行)하므로 이·기를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전서에 능하여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고, 그림과 문장 글씨에도 뛰어나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은거당

왕징면 강서리. 전곡읍에서 임진강을 건너면 왕징면이다. 그곳에서 똑바로 4km쯤 가다보면 정면에 부대가 막고 서 있다. 그 부대에 출입신고를 하면 강서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쪽은 출입영농을 하는 지역이라 민가는 전혀 없고 산과 강, 그리고 논밭만 펼쳐져 있는 전혀 때가 묻지 않은 곳이다. 안쪽으로 죽 들어가면 허목 선생의 묘가 있다는 돌에 새긴 안내판이 나오고 밭너머 야산 중턱에 선생의 묘가 멀리서도 보인다. 그러나 사유는 눈에 뜨이지 않는다. 농사일을 하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어보니 밭 한 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가 그 자리라고는 하는데 전쟁 중에 다 불타고 자금은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김오남

김오남은 1906년 연천에서 출생했으며 진명여고를 거쳐 1930년 일본여자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신여성으로 시조시인이다.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조선일보에 입사했으며 다음 해 진명여고에 근무하기 시작해 20여년간을 교직 생활을 하였다.

처음 시조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30년 경 당시 시조부흥의 기치 아래 최남선, 이광수, 정인보, 이병기, 이은상 등의 대열 속에 홍일점으로 당당히 끼었다. 그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기성 윤리에 관한 것들이었다. 때로는 생의 무상함을 영탄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숙명으로 돌리거나 도피하고 마는데 이는 그의 사상적 배경 때문인 것 같다. 여류시인의 작품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섬세한 서정성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놀라울 정도의 허탈과 한문투의 어휘를 즐겨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남선이 연시조 작법을 제창한 후 많은 시조시인들이 그 형식을 즐겨 썼으나 그는 계속 단시조를 썼다. 시조집으로는 『심영(心影)』, 『여정(旅情)』이 있다.

그의 자선 대표작 「소망」을 감상해보자.

부귀도 잊으리라 영화 또한 버리리라
죽장 짚고 망혜(芒鞋) 신고 팔황(八荒)의 객이 되어
부운혜(浮雲兮)) 세상 살이를 잊어보면 하노라.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로 유명한 김상용이 연천 출생이다. 현재 그에 관한 자취는 남아 있지 않다. 호는 월파(月波)이며 1902년에 태어나 1917년 경성 제일상고에 입학했다가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였다. 1921년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하였으며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 해방 전까지 이화여전 교수를 지냈다.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35년 「물고기 하나」, 「망향」 등 일제하의 지식인들의 울분을 담은 서정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의 시는 주로 우수와 동양적 체념이 깃든 관조적 서정시들이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영문학 강의가 철폐되자 이화여전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 종로 2가에서 장안화원을 경영했다. 해방 후에는 다시 이화여대에서 영문학 강의를 했으나 1946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연구했다. 1950년 세태를 풍자한 수필집 『무하선생방랑기(無何先生放浪記)』를 냈다. 9.28수복 이후에는 코리아타임즈의 사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다음해 51년 부산 피난 도중 식중독으로 사망했다.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어났느냐
재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교과서에 실린 이 시조는 『청구영언』에 실려 있다. 남구만(1629~1711)은 조선조 개국공신인 남재의 후손으로 송준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651년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 두루 많은 벼슬을 전전하다 1684년에는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 1687년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파직과 재서용 등으로 파란을 겪었다.

당시 정치 운영의 중심인물로서 정치 경제 형정 군정 인재등용 의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경륜을 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뛰어나 책문(冊文), 반교문(頒敎文:왕조 때,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널리 백성에게 알리려고 펴던 임금의 교서), 묘지명 등을 많이 썼다. 또한 국내외 기행문과 우리 역사에 대한 고증도 남기고 있다.

서화와 글씨에도 뛰어나 개심사, 양화루, 영송루 등의 액자를 남겼으며 저서로 『약천집』, 『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註)』가 전해오고 있다. 숙종 묘정에 배향, 강릉의 신석서원, 종성의 종산서원, 무산의 향사 등에 제향되었다. 현재 그의 출생지에 관한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홍직필

홍직필(1776~1852)은 조선시대 유학자이다. 서울에서 출생하여 연천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난 재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7세 때 한자로 문장을 지었으며 17세에는 이학(理學)에 밝아 성리학자 박윤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25살에 부모님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초시에는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는 성리학에 전념하게 되어 이봉수로부터 학문이 가장 뛰어나다는 칭찬을 받는다. 그는 당시 원로 명사인 송환기, 이직보, 임로 등과 연령을 초월하여 교유하게 된다. 특히 오희상과 가장 오래도록 교유하였는데 이로부터 유종(儒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1810년 돈녕부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1814년 익위사세마로 제배되었다. 이때 동궁(東宮:후에 익종)이 새로 세자에 올라 당시의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 매일 서연(書筵)을 여는데 그도 발탁되었다.

1822년 장흥고봉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838년 이조에 재학(才學)으로 천거되어 다음 해 장악원주부, 황해도도사에 임명되고, 1840년 군자감정에 재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이듬해 경연관에 천거되고, 이어 지평을 거쳐 집의에 이르렀다.

1844년 특별히 당상관으로 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양하고, 다시 동부승지에 제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51년(철종 2) 대사헌에 전후 두 차례나 특배되고, 이듬해 지돈녕부사에 승배되었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그해 7월 형조판서에 제수된 뒤 곧 죽었다.

그의 학문은 궁리(窮理)를 근본으로 하고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 통달하였으며, 천지음양귀신(天地陰陽鬼神)의 묘와 역대흥망치란(歷代興亡治亂)의 자취와 산천풍

토인물족계(山川風土:人物族系)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하였다. 성리학에서 정자의 신본설을 극력 지지하고 한원진의 심선악설을 반대하고, 또한 임성주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 고 한 데에도 반대하였다.

따라서 주리파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천의 경현사(景賢祠)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매산집』 52권이 있다.

임영태

소설가. 1958년 전곡 출생. 1991년 『한길문학』에 「바도마을의 저녁」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 시작. 1992년 문화일보 문예공모에 『추운 나라의 사람들』로 중편소설 부문 당선. 장편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어』로 오늘의 작가상 수상. 그외 작품집으로 『문밖의 신화』, 『비가 와도 이미 젖은 자는 다시 젖지 않는다』 등이 있다.



임영태 작품집

몇 해 전에 전곡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말에 조금 놀란 적이 있다.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서울에 일 보러 갔다가 술 한잔 하느라 늦는 날이면 택시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였다. 그 평범한 말이 나를 잠깐 멍하게 만들었고, 묘한 배반감을 주었고, 아득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했다.

택시라…그러고보니 전곡은 확실히 택시를 타고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리이기는 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무래도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옛날에 전곡에 살던 시절, 서울은 얼마나 먼 곳이던가, 얼마나 아득한 곳이던가. 일 년에 한 번 정도 서울 외가집에 가느라 들뜬 긴장감으로 경원선 열차에 오르면 열차는 창밖에 수많은 낯선 풍경들을 스쳐보내며 오래오래 달려 청량리역에서 긴 한숨을 풀어놓고는 했다. 그 전곡이, 그 서울이, 이제 늦은 밤에 술 한잔 걸치고 휘잉 택시로 달려갈 수도 있다니……그랬다, 내가 느낀 아득함은 단순히 거리감에 대한 재인식 때문이 아니라 세월의 속절없음에 대한 무상감, 그리고 돌

아오지 않는 유년기에 대한 일종의 비감한 그리움이었던 것이다.

작가에게 유년 시절, 유년의 땅이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흔히들 말한다. 생의 최초의 떨림, 욕망, 상처, 동경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원색의 빛깔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당연히 전곡이 그런 땅이다. '독점'이라고 부르던 가마터 꼭대기에서의 연날리기, 군인극장의 단체 영화관람, 철길 아래 유곽의 화장 짙은 누나들, 한탄강에서의 물놀이, 그 강물에 빠져죽은 아이의 집에서 진오귀 굿판이 벌어지던 날의 서글프고 무서웠던 기분……전곡의 이런 모든 기억들이야말로 내 정서의 심연이며 내 실존 의식의 근원일 것이 분명하다.

내가 첫 장편소설을 쓸 때 주인공의 고향을 전곡으로 설정한 건 그런 점에서 필연일 터이다. 그 장편뿐이 아니라 나는 여러 소설에서 전곡땅과 전곡에서의 기억을 소설의 중심 무대이거나 부분적인 배경으로 다루어 왔다. 소설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거나 문학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전곡을 찾아가고는 한다. 전곡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내 정서는 30년 저쪽으로 거슬러오르는 것이고, 나는 한껏 비장하게 그 정서를 들이마시며 내 인생과 문학적 갈등 같은 것, 그리고 일상의 사사로운 인간관계까지도 촘촘히 반추해 보곤 한다.

내가 전곡을 떠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이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들여보내고 싶어했던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소 서둘러 전학을 하게 되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던가 부모님마저 서울로 옮겨 와 이제 전곡에는 아무 연고도 없다. 너무 오래 되어 연락되는 친구도 하나 없기에 전곡에 가면 늘 혼자 돌아다닌다. 특별한 일정도 없다. 어느 소설에선가 나는 내 귀향의 풍경을 이렇게 그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와 똑같다.

사실 전곡에서 내 하는 일이란 게 늘 그런 식이었다. 시장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에 방을 잡아놓고는 낮시간 내내 무슨 성지 순례자처럼 전곡의 곳곳을 살살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어둑해지면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잔뜩 취기를 채워 넣고는 설익은 건달처럼 휘우청거리며 여인숙으로 귀가하는 게 내 전곡 여정의 전부였다.

전곡의 그 첫날도 역시 그랬다.

이박 삼일의 일정으로 내려간 나는 전곡에 도착하자마자 묵을 방부터 얻었다. 가방을 던져 놓고는 바로 1리 쪽으로 건너가 옛집과 국민학교 근처를 돌아보았으며, 그 다음엔 밭고랑을 타고 한탄강 기슭으로 내려가 잡초 무성한 소로를 어슬렁거렸다.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의 가장 만만한 쉼터가 되어 주던 한탄강변은 자갈 채취를 하느라 여기저기 함부로 파헤쳐져 을씨년스럽기

만 했다. 한탄강에는 또 언제 세워졌는지 낡은 철재 다리 옆으로 새로운 다리 하나가 당당한 위용으로 뻗어 있었다. 보아하니 옛 다리 쪽으로는 아예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소로를 빠져 다리 밑의 아트막한 둔덕을 타고 올랐다. 세월의 풍진에 녹슬어 있는 옛 다리로 해서 건너편 검문 초소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돌아오니 어느덧 해가 이우느라 저녁 하늘 가득히 불그죽죽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자 불쑥, 예전에도 자주 이런 시각에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다는 별 것도 아닌 기억이 가슴을 온통 저릿하게 만들어 버렸다. 나는 다리 끝 난간에 기대어 영화배우 같은 폼으로 천천히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리고는 여인숙이 있는 시장통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편 「전곡에서 술을 마셨다」 중에서

작년에는 혼자 월세방을 얻어 전곡에 6개월 정도 머물렀다. 원고 3천장 정도의 제법 방대한 새 장편을 쓰기 위해서였는데, 소설의 무대는 역시 전곡이었다. 당시에 자료 취재를 위해 읍사무소에서 향토사 책을 보면서 전곡의 과거 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다. 해방 전에는 요업이 번창했다는 기록을 보고는 우리 동네에 큰 가마터가 많이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고, 한탄강변에 곰나루바위가 많은 이유도 알았고, 직업군인이셨던 아버님이 전곡에 터를 잡을 무렵이 전곡이 가장 빈곤했으면서 한편 주민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였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소설 쓰는 걸 중단한 상태여서 스스로도 아쉬운데, 언젠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른 어느 소설에서보다도 전곡의 풍경과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길 것 같다. 지금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전곡초등학교 옛동창들과 전혀 교류가 없다는 점이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막상 지금 만난다 해도 서먹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곡에 갈 때마다 문득문득 옛 친구들이 생각나고는 한다.

전곡에 내려갈 때면 가끔 동창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보고는 한다. 작년에 MBC방송팀과 함께 위에 인용한 소설로 문학기행 촬영을 하기 위해 전곡에 갔을 때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전곡에 내려가 '전곡국민학교 제25회 동창회'라는 현수막을 보고는 한번 가볼까말까 망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묘하게도 소설을 재연하며 전곡거리를 걷던 그날도 동창회 현수막을 보았다. 그것도 소설에서처럼 25회 동창회였던 것이다. 촬영팀은 재미있는 우연이라면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까 하다가 마지막에 그만두었다. 너무 기막힌 우연이어서 시청자들이 일부러 꾸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실 나는 전곡에서 졸업을 하지 않아 내가 몇회 출신인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언제 기회가 닿으면 소설에서처럼 옛동창들과 어울려 자금은 사라진 유곽터 근처에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싶다.

사라진 것들과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을 위해 건배!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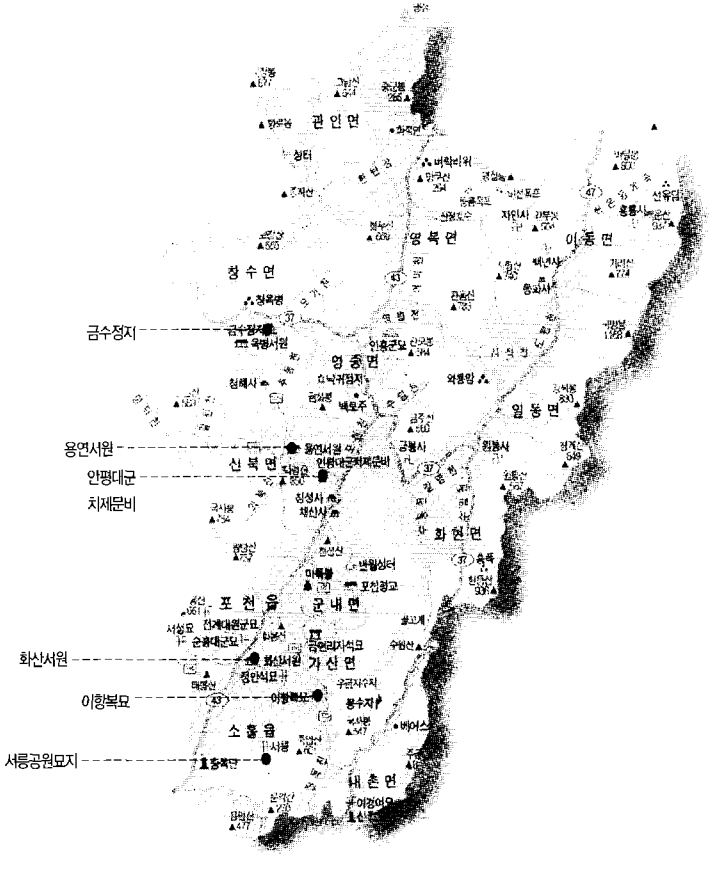
—임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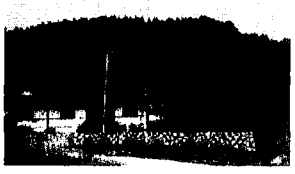




포천

산 좋고 물 맑으며 문학 또한 우뚝하니





포천을 휴전선이 가까운 군사도시만으로 기억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산수가 수려한 포천은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던 풍류의 고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봉래 양사언이 이곳 출신인데, 그는 한탄강변에 아름다운 정자를 지어놓고 벗들을 즐겨 부르곤 했다. 신소설의 대표자 이해조가 또한 포천 출신이며, 오성과 한음으로 더 알려진 이항복과 이덕형이 모두 포천 사람이다. 하지만 팔봉 김기진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의 역사가 묻혀 있는 곳도 포천이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산 좋고 물 맑으며 문학 또한 우뚝하니

포천은 경기도 동북단에 자리잡고 있다. 둘레로는 동두천, 의정부, 연천, 남양주, 가평 등의 경기도 땅과 강원도 땅 철원이 인접하고 있다. 경기도 북쪽 땅이니만큼 휴전선이 가깝다는 지레생각에 얼핏 가슴을 움추리고 찾아갈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한번이라도 포천을 다녀간 이라면 오히려 전원도시로서의 푸근한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다가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많은 유적이 손짓을 하는 곳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다.

신라의 석학 최치원의 사당 청성사, 한말의 의병장 최익현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채산사,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를 기리는 충목단 등이 다 포천에 있다.

식도락에 뜻이 있는 이들이라도 저 유명한 이동막걸리와 포천 갈비만 머릿속에 담지 말고, 한번쯤 그런저런 역사의 흔적을 애써 찾아보는 것도 한 즐거움이리라.

포천의 문인으로 우선 손꼽아야 하는 이는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로 유명한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다. 그는 1517년 포천군 신

북면 기지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형 사준(士俊) 아우 사기(士奇)와 함께 일찍부터 문재를 인정받았는데, 사람들은 그들 형제를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문장가 소순, 소식, 소철 3부자를 일컫는 말)에 견주기도 했다.

양사언은 1546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주로 강원도와 함경도의 8곳 군수를 지냈는데, 회양 군수로 재직시에는 금강산을 즐겨 찾았다. 최근 금강산 방문이 시작되면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만폭동의 한 바위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씌어 있던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岳元化洞天)' 이 바로 그의 글씨였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장안의 지가를 올린 미술사가 유홍준 교수가 그 글씨를 놓칠 리 없었다. '

삼일포 입구에서 오른쪽 계단을 오르니 홀연히 호수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온다. 호수는 넓어 굽은 곡선이 이룬 둘레가 8㎞나 되는데 호수 가운데로는 '사선정(四仙亭)' '단서암(丹書巖)' '무선대(舞仙臺)' 바윗돌들이 길게 누운 와우(臥牛) 섬과 정겹게 이웃하고 있다. 그 사랑스럽고 정겨운 정경이란 봄날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고 초여름 산들바람처럼 보드라운 서정을 일으키는데 안내원 왈, 여기는 혁명의 메아리가 서린 장군대(將軍臺) 충성각(忠誠閣)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리고 눈앞에 보는 바위마다 예의 그 굵고 붉은 글발로 '적기가'와 각종 만세구호가 새겨져 있다. 앞으로 남한의 금강산 유람단도 여기를 들른다는데 그때 유람객들이 피치 못하게 보게 될 이 장군대 충성각의 붉은 글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걱정스러워하며 우리는 봉래대(蓬萊臺)로 향했다.

장군대에서 긴 허궁(출렁) 다리를 건너 나지막한 바위산에 오르니 굴곡진 곡선이 아늑해 호수는 마치 연꽃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것도 같고 푸른 산이 푸른 물을 보듬고 있는 것도 같다. 그리고 뒤로는 저 멀리 안개 속에 살며시 고개를 내민 금강산이 넓게 펼쳐진다. 삼일포의 시정을 한 자리에 모은 이 바위는 옛날에 봉래 양사언이 즐겨 올랐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봉래대라 부르게 됐다.

봉래 양사언! 그는 진정한 금강산인(金剛山人)이었다. 역사상 금강산의 첫번째 주인공은 '나무꾼과 선녀'의 나무꾼이고, 두번째는 발연사(鉢淵寺)를 세우고 거기에 뼈를 묻은 신라시대 진표(眞表) 율사며, 세번째 주인공이 양봉래다.

양사언은 금강산을 사랑해 항시 금강산 가까이 살며 호를 아예 봉래라 했다.

그는 뛰어난 낭만파 시인으로 그가 읊은 금강산 명승 각처의 노래들은 뭇 시인과 선비들이 찬탄해 마지않는 바가 됐다. 그는 또 조선 4대 명필의 한 분이자 초서의 제일인자인데 그가 만폭동 너럭바위에 새긴 '봉래풍악(蓬萊楓岳) 원화동천(元化洞天)'은 한국 서예사에서 불멸의 바위 글발로 꼽힌다. (중략)

1564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양봉래는 이곳 삼일포에도 와 있었고 만년에는 삼일포 아래 감호에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거기서 지냈다. 그때 현판 글씨를 쓰는데 '날 비(飛)' 자는 기막히게 됐지만 나머지 두 자는 아예 못 미쳐 그 비자만 족자로 해 걸어두었다. 그러다 1581년 다시 안변부사 벼슬이 내려져 비래정은 남에게 맡겨두고 임지로 갔다. 그러나 불행히도 왕릉(王陵) 화재 사건으로 황해도로 유배됐다가 2년 만에 풀려 금강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상을 떠났다.

한편 비래정에는 어느날 '금강내기'라는 돌풍이 일어나 책과 종이들이 다 날아갔는데 관리인이 황급히 모두 주워들었건만 비자 족자만은 끝내 찾지 못했다. 훗날 양봉래의 친구가 비래정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는 손가락으로 꼽아보더니 그 날이 바로 양봉래가 죽은 날이라고 했다. 혼이 깃들인 이 글씨는 양봉래의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다.

봉래대 아래로는 양봉래가 글을 읽던 봉래굴이 있다.

배랑을 타고 조심조심 봉래굴로 내려가 보니 굴 대리는 호수로 향했는데 바위 벽에는 그가 유려한 초서체로 기세차게 쓴 지작시 한 수가 새겨 있다.

거울속에 피어있는 연꽃송이 서른여섯/하늘기에 솟아오른 봉우리는 일만이천/그중간에 놓여있는 한조각의 바위섬은/바다찾는 길손들이 한참쉬기 알맞구나

아련한 전설의 아름다운 삼일포는 아름다운 금강산 탐승의 디저트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40년간 관직에 있었지만, 전혀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았으며, 유족에게 재산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는 특히 글씨를 잘 썼는데, 해서와 초서에 능해 안평대군, 김구, 한석봉과 함께 조선 전기 4대 명필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그의 시는 작위적이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그 양사언이 함경남도 안변땅에 벼슬 살러 가 있을 때 서울의 백광훈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반가운 마음에 겉봉을 뜯어보니,

삼천 리 밖에서 한 조각 구름 사이 밝은 달과 마음으로 친히 지내고 있소
三千里外, 心親一片雲間明月

라는, "딱 열두 자 한 줄의 사연이다. 이만 사연 전하자고 천릿길에 편지를 띄웠더란 말인가. 그러나 음미할수록 새록새록 정감이 넘쳐나는 뭉클한 사연이다. 한 조각 구름 속에 밝은 달이라 했으니, 달은 달이로되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달이다. '심친'이라하여 그밖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월인천강'이랬거니, 달은 나 있는 안변이나 너 있는 한양이나 가뭇없이 비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널 보듯이 달을 보고, 달 보듯이 너를 생각한다는 사연이다. 그나마도 그 모습은 보일 듯 구름 사이로 숨기 일쑤이니 이 아니 안타까운가. 단지 열두 자의 편지가 심금을 울린다."(정민, 『한시미학산책』, 솔, 50-51) 그의 시를 한 수 더 읽어 보자.

천상 신선학이 구슬 누에 내리네 / 구만리 장공의 맑은 기운 거두었네//
푸른 바닷물은 은하에서 떨어지고 / 흰구름 하늘은 옥산마루에 떴다//
꽃은 사시장춘 모두가 경화(瓊花)인데 / 천년노송은 다 검은 머리로고!//
선궁(仙宮)에 잔 가득 한바탕 취하니 / 세간의 한가로운 시름 어느 틈에 이랴?
—「만경루(萬景樓)」 전문

만경루는 강원도 간성에 있는 누각인데, 풍류를 즐기는 그의 마음이 샘이 날 정도로 호화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처럼 봉래 양사언의 시에는 '선풍이 감도는, 그야말로 표표연우화등선(飄飄然羽化登仙)의 기상'이 넘친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이다.(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2, 291쪽)

그가 즐겨 찾던 누각이 또 있다.

창수면 오가리 546번지 한탄강변의 금수정(金水亭)이 그것인데, 원래 우두정(牛頭亭)이었던 것을 양사언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 양사언의 글씨 편액이 걸려 있던 금수정은 한국전쟁때 소실되고, 현재의 정자는 1989년에 복원한 것이다. 현재 편액은 암벽에 새겨진 양사언의 글씨를 탁본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이 많아 양사언을 비롯해 오성과 한음 등 당대의 문인, 묵객들이 찾아와 시회를 즐겼다. 향토유적 17호.

양사언의 묘는 향토유적 32호로 일동면 길명리 산193번지에 있다.

신소설의 대표자 **이해조**(李海朝, 1869~1927) 역시 포천 출신이다. 인조의 셋째왕자인 인평대군의 후손인 그는 어려서 한문 공부를 하여 진사 시험에도 합격한 바 있으나, 주된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신학문이었다. 그런 그의 관심은 나중에 고향에 청성제일학교를 설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부친은 1906년에 이미 포천에 華興義塾을 세운 바 있다) 그는 1906년 잡지 『소년 한반도』에 소설 「잠상대」를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에 들어갔다. 신분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구속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양반 가정 여인들의 생활 해방을 의도하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대한협회와 기호흥학회 등에 가입하여 신학문의 소개와 민중 계몽운동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 무렵부터 여러 신문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아무래도 『자유종』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신교육의 고취, 사회 풍속의 개량 등을 꾀한 당시로 보면 봉건제도의 구습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 작품이었다. 『화의 혈』은 그가 후기에서 '빙공착영(憑空捉影)'으로 표현한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또한 소설의 사회 계몽이라는 도덕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에 대한 동시적 인식 등은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은 그의 근대적 문학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그는 「빈상설」, 「춘외춘」, 「화세계」, 「봉선화」, 「탄금



이해조 「자유종」

대」 등 많은 작품을 발표, 신소설의 대중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한편 그는 프랑스 작가 줄 베르느의 『철세계』 및 미국 초대대통령 워싱톤의 전기 『화성돈전』을 번안 소개했다. 판소리계 소설을 「옥중화」(춘향전), 「강상련」(심청전), 「연의각」(흥부전), 「토의간」(별주부전) 등으로 개작한 것도 문학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해조의 『자유종』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훑어보자.

남자들은 자주 상종하여 지식을 교환하지마는 우리 여자는 한 번 만나기 졸연(卒然=갑작스러움)하오니까? 『예기(禮記)』에 가로되,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말라" 하였고, 『시전(詩傳)』에 가로되, "오직 술과 밥을 마땅히 할 뿐이라" 하였기로, 층암절벽 같은 네 기둥 안에서 나고 자라고 늙었으니, 비록 사마자장(司馬子長, 『사기』의 작자 사마천)의 재주 있을지라도, 보고 듣는 것이 있어야 아는 것이 있지요. 이러므로 신체 연약하고 지각이 몽매하여, 쌀이 무슨 나무에 열리는지 도미를 어느 산에서 잡는지 모르고, 다만 가장의 비위만 맞춰,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니, 진소위(眞所謂, 참말로) 밥먹는 안석(案席)이요 옷 입은 퇴침(退枕)이라, 어찌 인류라 칭하리까?

개명한 네 사람의 양반 여성들을 내세워 기존의 사상체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이 소설은 진정한 사상은 백성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계몽하는 뜻을 담고 있다. 한편 그를 동시대의 또다른 신소설의 개척자 이인직과 비교하여,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이인직)의 소설에는 생활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이해조의 소설은 구한말의 서울이라는 공간을, 그 공간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쉽사리 분해할 수 없는 육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최원식, 「지빙을 보는 눈」,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68쪽, 창작과 비평사

지금 40대 이상이라면 어린 시절 개구쟁이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이가 드물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

오성이 어릴 때 근처에 대장간이 있었다. 오성은 그곳에 놀러가서는 올 때마다 대장

장이가 애써 만들어 놓은 정 하나씩을 궁둥이에 몰래 끼어가지고 나왔다. 나중에 오성의 장난을 알아챈 대장장이는 어느날 불에 달군 정을 맨 위에 놓아 결국 오성의 궁둥이를 데게 했다. 하지만 오성은 눈물이 절로 쏟아지는 아픔을 꾹 참고 태연히 정을 갖고 나왔다. 그것을 본 대장장이는 오성이 장차 큰인물이 되리라 생각했다. 훗날 오성은 과연 큰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장장이가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정을 단지째 갖다 주어 살림이 피게 했다고 한다.

오성은 변소에서 불알을 잡아당기는 도깨비에게 자기가 장차 정승까지 지내리라는 예언을 들었노라 한음에게 말했다. 이에 한음도 변소에 가니, 과연 밑에서 무잇인가가 불알을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한음은 그래도 꾹 참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성이 노끈으로 한음의 불알을 묶어 잡아당긴 것이었다.

오성(鰲城)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이고, 한음(漢陰)은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이다. 두 사람이 어린 시절에 천하에 다시 없는 개구쟁이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천하가 알아주는 명신이 되었다. 그 두 사람이 포천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포천군 군내면 자작리에서 태어난 이덕형은 다섯 살 위인 이항복은 물론, 역시 포천 출신인 양사언과도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1580년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그는 임진왜란 당시 병조,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고, 좌의정, 영의정까지 지냈다. 글씨에도 뛰어났던 그는 죽은 뒤 포천군 신북면 용연서원에 제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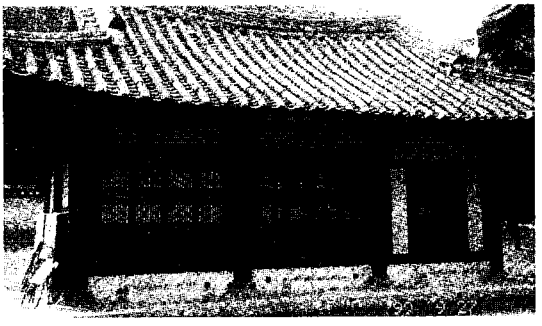
이항복의 호는 백사이지만, 훗날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군되었기에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 필운동에서 태어났으나 고향은 포천이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라났다. 소년 시절을 부랑아처럼 지내던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 사후 3년상을 치른 뒤 성균관에 들어가 열심히 학문을 연마했다. 이덕형과는 한림 시절부터 벼슬을 같이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도승지로서 선조를 지극히 모셔 신망을 얻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으니, 광해군때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구하려 힘쓰다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오른 일이 그것이다.

'철령 높은 봉에 쉬어가는 저 구름아' 로 시작되는 유명한 시조가 그때 나왔다.

그때 지은 시가 한 수 더 전해진다.

밝은 해 그늘져 대낮에도 희미하고
북풍은 나그네 옷 찢을 듯 불어댄다
요동땅 성곽이야 그대로 있겠지만
떠나간 정령위 안 돌아옴 근심하네

白日陰陰晝晦微
朔風吹裂遠征衣
遼東城郭應依舊
只恐令威去不歸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





용연서원
신북면 신평2리 168-1번지. 용연서원은 경기도 문화재 제70호로 숙종 17년인 1691년에 창건되었다.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 포천읍내에서 철원 방향으로 43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신북(기지)에서 왼쪽으로 난 344번 지방도로를 타고 들어간다. 경성전문대 근처에서 물어볼 것. 아쉽게도 용연서원은 닫혀 있는 때가 많다. 이장에게 연락하면 문을 따 준다.

한편, 이항복이 개구쟁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시도 있다. 『이언총림(俚諺叢林)』에 수록되어 전해오는 시조로서, 내용이야 대단한 게 없어도 해학적이고, 말을 씹는 재미가 이항복다운 느낌을 전해준다.

오늘 아침 남의 수레를 빌려 타다가 (今朝借乘남의轉)
홀연이 떨어져서 뒤꼭지가 깨졌네 (忽然落地꼭뒤破)
장안 큰길에서 에고에고 울자니 (長安大道에에哭)
세상 사람 모두다 미치광이라 하더라(世人皆稱미치狂)
—정민, 앞의 책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그의 묘는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산4번지에 있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니다 보면 외형적으로 남아 있는 인조 기념물에 오히려 실망하는 때가 있는데, 가볼까 말까 망설이다 겨우 걸음을 한 고인의 묘소에서는 의외로 답사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항복의 묘소가 그런 경우인데,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정표를 따라 간신히 이르렀어도, 길가에서는 그저 조그맣고 평범한 사당 한 채가 서 있어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왕 거기까지 이르렀으면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천천히 묘까지 올라가 볼 일이다.



화산서원

묘역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고 있어 눈 아래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풍경이 다 내려다보인다. 이항복의 묘는 정경부인 안동 권씨의 묘와 나란히 붙어 있는 쌍묘로서, 앞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나란히 서 있다. 퉁방울눈을 한 문인석의 인상이 꼭 개구쟁이시절의 이항복을 옮겨놓지 않았을까 싶어, 은근히 웃음부터 나온다. 이쨌거나 세월의 바람에 씻겨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묘비문을 애써 읽으려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에라 골치아프다, 봉분 옆 보드라운 잔디밭에 누워보는 게 어떨지. 철마다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다르겠지만, 어느 때건 가슴에 잔잔히 다가오는 느낌이 꽤 '고마울' 것이다.

한가위가 지났건만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들판의 누런 물결을 보는 것도 썩 괜찮은 일이며, 논에 나왔다가 잠시 쉬는 참에 논두렁에 앉아 담배 한 대 맛있게 태워 문 채 가만히 어딘가를 바라보는 농사꾼 할아버지의 모습이라도 눈에 담게 되면 역사라든지 문화이라든지 하는 답사의 목적조차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그야말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도 되지 않을까.

이항복은 사후 가까운 화산(花山)서원에 사액이 내려졌다.

가남면 방축리(산16-1)의 화산서원은 길가에 자리잡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짧지



이항복의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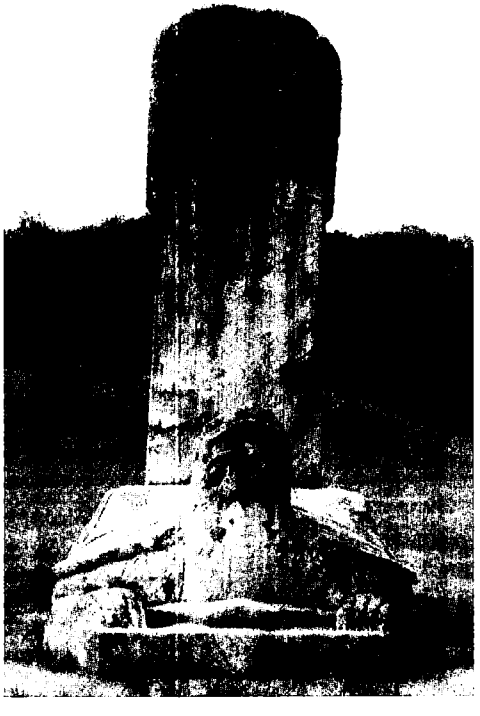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 산4번지. 의정부에서 포천 방면으로 난 43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가산교에서 우회전하여 316번 지방도로를 탄다. 2km쯤 가면 길 오른쪽에 연세슈퍼가 나오는데 거기서 골목길로 들어서서 가산추곡교회, 추곡상회, 오성교를 지나면 곧 길가에 사당이 나타난다. 화산서원도 근처에 있다. 연세슈퍼에서 직진하여 5백미터쯤 가면 길 왼쪽에 붙어있는 비석이 보일 것이다. 가남면 방축리 산16-1.

만 제법 운치가 있다. 용연서원과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쉽긴 하지만, 굳이 들어가보지 않고 담너머로 슬쩍 훔쳐보는 맛도 나쁘지 않다. 서원 앞의 작은 뜨락에는 아주 작은, 별 모양의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피기도 하는데, 그 옆으로는 크로바가 제법 가득하다. 네잎 크로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 마음먹고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지.

안에는 학문의 토론장소로 쓰였다는 필운재(弼雲齋)가 왼쪽에, 동강재(東岡齋)가 오른쪽에 있으며, 본당에 해당하는 네 칸짜리 인덕전(仁德殿)에 이항복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46호.

용연서원 가까운 곳(신북면 신평리 산 46-1)에는 조선 인조의 셋째아들이며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麟坪大君, 1622~1658)의 묘와 그의 업적을 기린 치제문비(致祭文碑)가 있다. 그는 서른여섯의 나이로 요절하지만, 그동안 왕족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1640년에는 병자호란에 패한 대가로 중국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던 소현세





인평대군의 묘와 치제문비

신북면 신평리 산 46-1. 포천읍내에서 철원 방향으로 43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신북(기지)에서 왼쪽으로 난 344번 지방도로를 타고 들어간다. 1km쯤 들어가서 태일동상 앞에서 길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산자락에 나타난다.

사, 봉림대군의 뒤를 이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었다. 그뒤에도 이른바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네 차례나 청에 다녀와야 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그의 탁월한 인품과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발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쟁에 진 약소국의 설움을 그는 고스란히 견뎌야 했으리라.

한편, 인평대군은 시서화에 고루 능했다고 하는데, 성루대 박물관 소장 「산수도」를 비롯하여 아주 적은 수의 그림이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송계록』, 『연행록』 등이 있다.

치제문은 그의 짧은 생을 위로하고자, 드물게도, 역대 왕들 넷이 직접 글을 써넣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촌면 마명리는 요즘 들어 스키장으로 유명한 베어스타운이 가까이에 있어, 서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훌쩍 한번 지나친 적이 있지 않을 곳인데, 그곳에 있는 서릉공원(서운동산)이라는 공원묘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이다. 춘원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의 묘가 있기도 하지만, 식민지시대의 프로문학 비평가이며 이념문학 논쟁으로 유명한 팔봉(八峰) **김기진**(金基鎭, 1903~1985)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진은 충북 청원군 출신인데, 식민시대에 17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한국전쟁 때에

는 북한군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등 수난을 겪었다.

그는 처음에 연극운동도 하고, 시와 수필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어디까지나 본업은 평론이었다. 1923년 『개벽』에 「클라르테운동의 세계화」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평론 활동을 시작한 그는 특히 프롤레타리아문학론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1925년 카프(KAPF) 결성에도 적극 가담했다.

사실, 그는 패기만만하던 동경유학생 시절부터 당대를 풍미하던 유미주의 혹은 병적 낭만주의 경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 붓끝을 들었다. "형이나 회월의 도피적 푸르구름한 상아탑 속의 영탄이 열을 띄워 오기를…… 소위 예술이니 무엇이니 하는 서푼짜리 문사들의 머리 우에 바늘을 한 개씩 꽂아 놓소서" [2] 하고 말할 정도였다. 이 독설에 가득찬 '팔봉의 바늘'은 한동안 위력을 발휘했다.



팔봉 김기진



팔봉의 묘
내촌면 마명리 서릉공원묘지. 광릉내에서 하루 2회 서릉공원행 버스가 있다. 승용차는 47번 국도를 타고 광릉삼거리에서 광릉교와 필야교를 지나 약 10km 더 가면 안내판이 나온다.

백조같은 집단이 지금 계급투쟁이 치열해지는 이 판국에 앉아서 무슨 사회적 의의가 있느냐…… 일본의 혁신세력과 함께 악수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후 조선민족이 해방되어 자주독립하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사상계』, 1958. 9

회고담에서 그가 말한 바는 적어도 어느 시절까지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926년 기관지 『문예운동』이 발간된 이후에는 운동 전선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다가 1938년에 이르러서는 '시국대응 전선(全鮮)사상 보국연맹'의 결성위원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완전히 친일노선으로 전향하였다. [3]

그때부터는 황도정신을 문예생활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는가 하면, 스스로 징병 · 학병의 출진을 격려하는 시와 시조를 쓰기도 했다.

가라! 아들아, 군기 아래로!

산나물 일본놈의 혼백마이 되었지 ?
놈이 10억의 전위(前衛)가 아니다
불멸의 의기, 김동의 손톱이 네겟이다 ?

대동아의 전쟁은 참말의 전선이 아니다
허무주의와 체결한 일체(一切) 기만조약 같은 것이 파기의 아 ?
전사(戰死)에 일짝이 있었다 안이다
내어(大義)에 순(殉)할 때 오체 ? 흥분의 감동을 네가 생각하 ?

학창을 일고 내학을 나오 ? 출가(出家)지다
칠년을 벽지고 통감을 잡으라, 하문 이상의 하분이 기대된다
감옥은 한 가지, 국원히 사는 ? 감은 공동 한 가지이니
가내! 아들아, 군가 아래로 활발히 나가라!
—「가라, 군기 아래로, 어버이들을 대신해서」, 매일신보 1943. 11. 5

지금, 그의 묘소를 찾는 이들은 무엇을 느낄까. 고인이 "나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해오는 말을 들을까. 아니면 "그땐 정말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변명은 늦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죽었고, 우리는 그의 묘소 앞에서 서서, 그의 고통과 고민, 번민과 불면의 시간들을 설사 이해는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 "언어에는 이미 역사성이 들어 있다"는 진리만큼은 분명히 새기게 되리라.

새삼, 역사는 냉엄하고, 그 못지않게 문학 또한 냉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후반부 인생 역시 파란만장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난을 못 간 그는 친일행적 때문에 북한군에게 체포된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그는 현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몽둥이로 두들겨맞는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져나왔는데, 쓰러졌던 그는 갑자기 일어나 몽둥이를 집고 걸어갔다. 그러자 다시금 몽둥이 찜질이 퍼부어졌고, 거기서 그의 생은 다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다. 누군가가 그를 구해주었던 것이다. 그 뒤 1951년 육군종

군작가단에 입대한 그는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죽음 일보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끔찍한 경험 때문인지 전후에는 남한 문단에서 가장 극렬한 반공작가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초기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 유홍준, 「삼일포와 양사언」, 『북한문화유산답사기 제2부』, 중앙일보,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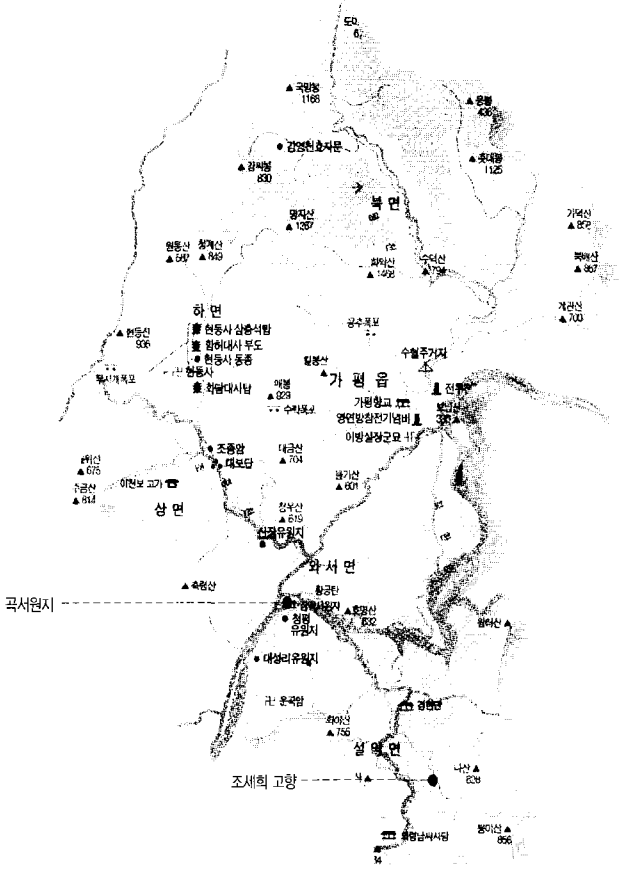
2) 박종화, 「백조시대의 그늘-김승환」, 「충청문인의 친일오욕-김기진」, 『청주문학』 제2호에서 재인용

3) 김기진의 전향 상황에 대해서 김승환은 "이러한 그의 친일문학은 사실 삶의 모습과 궤적을 함께한다. 평생의 동지였으며 사상적 지주였던 형 김복진(화가)의 사망(1940) 이후 그의 훼절은 시작되었다. 카프 해산계를 자신의 손으로, 경기도 경찰국에 제출하여 이른바 현실과 타협했던 그는 얼마 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입사했다. 대략 이 시점을 계기로 노골적인 친일활동이 전개되는데 1944년 문인보국회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상해 대동아문학자대회 참석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생활과 글 모두가 적극적인 친일의 일치된 양상을 보이는 바, 황도정신의 황도문학은 그의 신념이자 현실이었던 것이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김승환, 앞의 글



가평

수려한 산수만큼이나 수려한



곡서원지

수려한 산수만큼이나 수려한



지리적으로 가평은 강원도에 가까운 곳으로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이름이 높다. 소설가 조세희씨의 고향인 설악면도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강원도처럼 깊은 산골이었다. 거기에서 자연의 세례를 듬뿍 받는 은총 같은 소년기를 보낸 조세희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문단을 충격으로 몰아넣는다. 또한 가평의 초연대는 조선시대 대제학이었던 김상헌이 시 한수를 읊곤 하던 곳이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찾곤 했었다. 또한 잠곡 김육은 광해군의 학정과 부패상을 보다 못해 고향으로 들어가 숯을 구워가며 생활하는 데 그곳이 청평이다. 후에 인조대에 와서는 영의정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우리 근현대문학사의 무대 위에 이제껏 수없이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무정』의 이형식으로부터 『객지』의 동혁에 이르기까지,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로부터 『토지』의 최서희까지…… 그들은 제각기 출신 성분이며 사고방식, 행동유형이 다르지만, 이미 작가의 손을 떠나 우리 문학사에 없어서는 안될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올라서는 아주 특이한 인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의 신장은 백 십칠 센티미터, 체중은 사십 이 킬로그램.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한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고 난장이의 큰아들 영수는 쓴다.

그들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호39호에 살고 있었다. 도시빈민에 가까운 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를 조각마루 끝에 놓고 먹었다. 그러나 어느날 철거 계고장이 나온다.

난장이 아버지는 말했다. "나는 벌레야. 마지막으로 꿈틀대 돈이나 모아야지." 그리고 그는 굴뚝 위로 올라가 종이비행기를 날린다. 그는 지섭이 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는다. 자살하기 직전 그는 말한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 렌즈를 자키는 일야"라고.

그는 바로 신장이 117센티미터에 체중은 32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난장이였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난장이가 우리 문학에 상상도 할 수 없이 커다란 충격을 던지는 것이다. 바로 그 난장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한 권으로 일약 한국문단을 뒤흔든 소설가 **조세희**(趙世熙)가 바로 가평 출신이다. 그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자신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소설이나 다른 글을 통해서 많이 밝힌 편이 아니다. 우리는 한 대담을 통해서 그의 성장 과정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Q: 작가 자신의 생애는 어땠나요? 우리가 책을 읽고 단순히 추측하듯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하신 건가요?

A: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청평 호수에서 70리쯤 들어가는 곳이지요. 행정상으로는 경기도지만 지리적으로는 강원도 근방인, 선조들이 난을 피해서 들어간 시골이었다고 해요. 3백년쯤 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 저희 조씨들만 사는 곳이었죠. 조부가 94세까지 사셨는데, 근방에서는 조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우리집보다 작았으니까, 내가 가계에서 무언가 문학적 유산을 받았다면 조부의 영향일 것 같아요. 그분은 한시(漢詩)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가을, 겨울에는 외지의 친구분들을 초대해 한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곤 하셨죠. 자금도 그분의 묘비와, 산소로 들어가는 암석 등에 한시를 새겨넣은 게 있는데 읽어보면 좋은 게 많아요. 문학의 혈통을 굳이 가린다면 그분의 시취(詩趣)로 이어진다고나 할까.

Q: 자연체험은 충분히 가지셨겠군요.

A: 그런 면에서 은총을 받은 셈이죠. 자연의 세례를 소년기에 넉넉히 받았던 셈이니까.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요. 해질녘의 노을에 잠긴 사물들이 주는 괴이한 느낌, 그 시커먼 모습을 보며 죽음이란 바로 저런 것일 거야 하고 느꼈던 일, 바람 소리, 달빛, 추수한 후

남가네 속에서의 꼬마들과의 놀이.

그는 초등학교 5학년때 그 자연의 세례를 뒤에 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때는 한국전쟁이 아직 진행중이던 환도 직후여서 서울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였다. 서울에서 그는 신신백화점 뒤 종로통에서 살았다. 그가 문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였다. 그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은 게 최초의 개안(開眼)이었다고 회상한다. '해가 진 후의 폐허에서 겪었던 어둠이 되살아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둠의 빛과 나의 어둠의 빛이 같다는 생각' 을 하면서.

그는 서라벌예대를 졸업한 뒤 다시 경희대 국문과 3학년에 편입해서 다녔다. 졸업하던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돛대 없는 장선」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오지만, 그후 1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Q: 10년간이나 침묵을 지키셨는데요. 그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A: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문학은 안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 컸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자전거에 하루 한 편 발표하기가 싫더라구요. 어렸을 때의 욕심은 '아주 좋은 책' 을 쓰는 거였고, 정말 좋은 원고를 평생 3천 장만 쓰자고 생각했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 난쟁이와 똑같은 체험을 했지요. 어렸을 땐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이 대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경제적으로 궁핍한 체험을 했고 또 직장에서의 난쟁이 체험이 나의 문학적 토양을 준 셈이랄까.

그 침묵의 기간이 지난 후, 그는 짧은 기간에 「칼날」(『문학사상』 1975. 12), 「뫼비우스의 띠」(『세대』 1976. 2), 「우주여행」(『뿌리깊은나무』 1976. 9),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문학과지성』 1976. 겨울), 「육교 위에서」(『세대』 1977. 2), 「궤도회전」(『한국문학』 1977. 6), 「기계도시」(『대학신문』 1977. 6. 20), 「은강 노동자족의 생계비」(『문학사상』 1977. 10),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문예중앙』 1977. 겨울), 「클라인씨의 병」(1978. 봄),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창작과 비평』 1978 여름), 「에필로그」(『문학사상』 1978. 3) 등 이른바 '난장이 연작' 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일거에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훗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이라는 소설집으로 묶여나온 그의 작품들은 황석영의 『객지』,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더불어 7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세 작품은 각기 간척공사장, 재개발지역, 공업단지 등을 무대로 급격한 경제개발을 겪어나가는 당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당시, 한국은 60년대 초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을 착실히 수행하여 70년대 초반부터는 비약적인 성장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급속한 이농현상이 발생하고 농민의 자식들은 새로이 도시의 노동자로, 그 가족들은 달동네의 도시 빈민층으로 계층 이동을 하게 된다. 결국 고도성장의 신화는 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것이었다. 조세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도 절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이루는 도시빈민과 노동자 계급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대를 사는 작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연작 속의 주인공들은 작가의 이러한 인식을 극단화하여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괴물처럼 거대해진 산업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자문하면서 영수, 신애, 영희, 앉은뱅이 등이 휘두르는 칼이 그것인데, 특히 영수의 분노는 마침내 살인까지 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당시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착취당하던 노동자계급과 도시빈민의 소외감을 대변해 준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비민주성에 대한 우회적 공박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었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사랑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아재비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당대적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는 난쟁이 아버지 김불이가 사랑이 강요당하는 세상을 꿈꾼 이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연작의 후반부터 은강이라는 공업도시를 전면에 드러내는데, 이는 그 짧은 기간에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던 도시화, 공업화를 상징

하는 배경 장치라 할 것이다. 이제 초점은 마찌꼬바(가내공장)나 건설현장의 불완전고용 노동자나 막노동자에서 거대 공업단지내 대공장에서 일하는 조직노동자에게로 이동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세희는 이후 좀더 치밀하게 탐색을 해나가지 못한다. 아마 80년 광주의 대학살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기존의 리얼리즘적 기법과 상당히 다른, 조세희 특유의 형식실험을 시도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스타카토 문체, 환상과 사실의 혼합, 개인적 상징, 사건 제시 순서의 복잡화, 작품구조의 공간화 등이 그것이다. [2]

이 작품은 이제껏 100만부가 넘게 팔릴 정도로 독자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으며, 80년대에는 운동권 신입생들의 필독서로도 각광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황석영의 『객지』가 노동자계급의 전망을 확실하게 보여준 데 반해, 비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비평가들 사이에서 새삼 리얼리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3] 조세희는 80년대에 들어와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민중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진 작업에 몰두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사진집이 『침묵의 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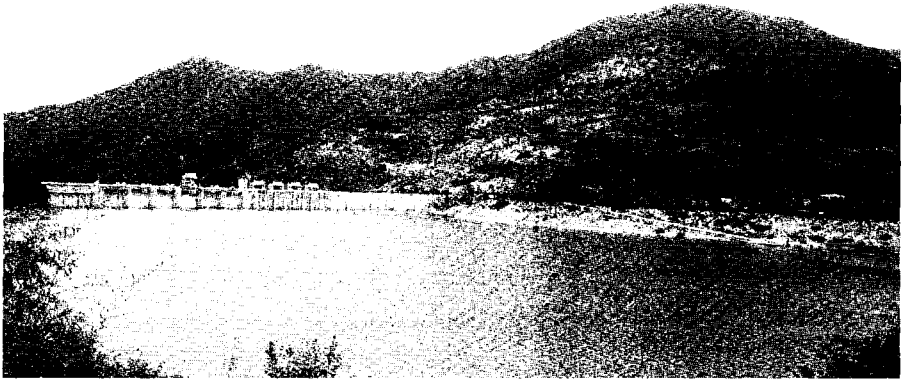
조세희는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현실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는 발언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사회평론지 『당대비평』을 창간한 것이라든지, IMF 이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줄기차게 가하고 있는 사실 등이 그것.

가평을 이야기하자면 북한강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강은 전장이 371킬로미터로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춘천을 넘어와 양수리 두물머리에 이르러 남한강과 합쳐질 때까지 대성리, 청평 등 가평 군내를 두루 적시며 흐른다. 수량이 풍부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옛부터 많은 문인, 예술가들이 이 북한강을 노래했는데, 최근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우리 시대의 음유시인 **정태춘**의 노래 「북한강에서」를 들어보자.

저 아득한 밤 하늘에 가득 떴던 별무리들이 / 밤새 당신 머릴 젖시고도 간 아침
나는 여기 북녘 하가 뜨는 새벽강에 / 홀로 나와 그 친묵에 안부를 씻고



북한강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 또 당신의 이름과
그 텅빈 거릴 생각하오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신과 산들이 얘기하는 /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릴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부딪치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아주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소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천천히 걷힐거요

정태춘 스스로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붙인 이 노래는 특히 도회에 사는 우리에게 북한강이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릴' 어디서 듣는단 말인가.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맘속엔 또 내가 부딪치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 는 광경을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

일찍이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배를 타고 이 북한강 수로를 건너 춘천까지 오가곤 했다. 그는 널찍한 고깃배를 지붕집처럼 꾸미고 문설주에다 '산록수재(山水綠齋)'라는 편액까지 걸었다. 아들 정학연의 배에는 '물위에 뜬 집, 떠다니는 가택(浮家泛宅)'과 '물에서 자고 바람을 먹는다(水宿風餐)'라고 써서 걸었다.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야말로 환상적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는 유배 이전에 꿈꾸었던 '소내(능내) 물결 속을 떠다니며 낚시하는 늙은이'로서 한세상을 마치고 싶다던 꿈을 잠시나마 실현해 보고자 했을 것이다. 그 경험을 그는 북한강 수로지인 『산수심원기』로 남겼다.(심경호, 『한시로 엮은 한국사기행』, 범우사, 1994, 175쪽)

정약용은 유배길에 오르면서 미원(薇源)에 은둔하며 살던 심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원은사가」라는 제목의 가행시(歌行詩)를 짓기도 했다. 정치없이 귀양을 떠나는 길에 자연히 고향을 생각했을 테고, 그러다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되새기게도 되었을 터. 결국 그는 심씨에 관한 이야기 속의 이상향을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은근히 견주었던 게 아닐까.

미원은 청평댐 부근으로 현재 설악면 지역이다.

벽계 남쪽 미원은
구지 무릉과 짝할 만하다.
인흔다섯 집이 씨뿌리고 나무 심었는데
꽃 많은 집이 심씨네 동산
심씨는 본디 서울 사대부집 자제로
성균관에서 공부하여 벼슬을 꿈꿨으나
하루아침에 집 팔아 물패를 노래하며
수풀가를 사모해 조각배를 띄웠다
곧바로 이곳에 들어와 집을 얽고선
죽통 이어 물 끌어다 거친 들 개간하니
벼며 조를 회계하면 저축할 만한 소출
종복들도 둔덕 나눠 마을을 이루었다

.....

꽃피는 시절 오면 취하도록 마셔

술동이 앞에 백발 날렸다

저서(著書)는 자못 소동파를 배웠고

남모르는 비서에 귀신 부르는 말이 많다

이 노인은 둔괘(遯卦)의 뜻을 실천하여 하느님이 복 주시니 특별한 은혜로세

내 인생 글러서 그를 못 따르니 이 미친 노래나 자손에게 남길 밖에

시 중에 '불패를 노래한다'는 말은 '임금이 안녕하시길 빈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이 시에 나오듯 심씨 일가의 공동체 생활을 무척 이상적으로 생각한 듯하다. 자기네도 본래 능내에서 논 70마지기와 밭 스무날갈이를 부쳤는데, 그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종복들까지 골고루 땅을 나누어 75집이나 한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심씨네가 무척 부러웠을 터. 이런 인식은 다만 혼자 무릉도원에 들어가 세상만사를 잊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하고는 처음부터 달랐다. 그는 심씨가 종복들한테도 땅을 나눠주고, 아들한테도 직접 농사를 가르치고, 제가 스스로 농법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 정신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훗날 그는 『전론(田論)』 등을 통해서 이상적인 토지 분배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일으켜세우기도 했다.

지금 문관과 무관으로서 높은 벼슬을 한 자와 마을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한 집에 곡식 수천 석을 소득하는 자가 매우 많다. 그들의 전지를 계산하면 100결 이하는 되지 않을 터인즉, 이것은 990명의 명맥을 해롭게하여 한 집이 이롭게 된 것이다. ..... 그런데도 조정이 위에서 부지런하게 급급히 서둘러서 부자의 것을 덜어내어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어 그 살림을 고르게 하는 것을 급무(急務)로 하지 않는 바, 이것은 수령이 행하여야 할 도리로서 그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정약용, 「전론1」, 『다산논총』, 을유문화사, 1972)

70년대 후반부터 『반시』 동인으로 활동을 시작해온 시인 **정호승**(鄭浩承)의 북한강 노래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정호승 시인이 북한강 어디쯤에서 이 시를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북한강이 한 시인에게 전해준 그 느낌을 우리도 한번 똑같이 느

쪄보는 일이 아닐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너를 보내고 나니 눈물 난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것만 같다
만나야 할 때에 서로 헤어지고
사랑해야 할 때에 서로 죽여버린
너를 보내고 나니 꽃이 진다
시는 날까지 살아보겠다고
기다리는 날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돌아갈 수 없는 저녁 강가에 서서
너를 보내고 나니 해가 진다
두 번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 같은
강 건너 붉은 새가 말없이 사라진다
—「북한강에서」

가평은 또한 경춘선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경춘선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도 북한강에 대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한 젊은 시인은 어느 겨울날 그 경춘선을 탄 소회를 이렇게 읊는다.

갈 곳이 더는 없었네
더 가봐야 천책선, 민간인 통제구역
남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붙이진 이름도 많았네
보고 싶은 내 친구 내 형제들이
방하기를 삼고 있다는 태백산맥의 공찌기
그래도 민족인의 시내다움을 기우고 있다는
저들이 보고 싶어서
겨울 경춘선을 탔었네

.....

그리운 고향에 다가가는

안쓰러운 자식들 몸이나 성한지, 그런

부모들이 가득한 겨울

경춘선

시려웁게 겨울을 보내는 더는 갈 곳 없는

겨울 경춘선

—신동호, 「겨울 경춘선」 일부

지금, 연인과 함께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이들 중에 과연 몇이나 분단의 비극을 자기 것으로 느낄 텐가. 그럴 필요도 없으리라.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은 이런 시인처럼 남모르게 슬픔을 크게 느끼는 시인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

가평에는 경치 좋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 옛부터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아와 풍광을 노래했으니, 1630년 당시 대제학이던 청음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가평에 와서 초연대(超然臺)에 올라 시 한 수를 남겼다.[4]

봄나들이 떠나온 길손

석양 무렵 이 대에 오르다

모습은 마치 바다자라 같은데

왕개미 서너 마리 자갈 위에 서성인다

푸른 강 저편에는 구름물결 출렁이고

이름모를 풀꽃들 비단 같구나

물과 산 어울리고 기러기 나니

다시 한 번 오묘한 섭리를 헤아리게 하누나

—「於超然臺」

초연대는 가평천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놓여 있는 산으로, 이곳에 올라 유유히 흐르는 북한강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시상이 떠오를 것이다. 1599년 선조 32년에

는 서예의 대가 한석봉(韓石峰)이 가평군수로 부임해온다. 이미 명필의 반열에 오른 그에게 가평의 경치를 즐기며 더욱 서도에 정진하라는 선조의 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1614년(광해군 6년) 잠곡(潛谷) **김육**(金堉)은 광해군의 학정과 관료들의 부패상을 보다못해, 가족을 이끌고 고향인 청평으로 돌아와 손수 밭을 일구고 숯을 구워가며 생활했다. 그러면서 학문에 정진한 결과, 인조대에 들어서서는 문과에 급제하고, 나중에는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랐다.

김육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공물법을 폐지하고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크게 공헌한 데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상평통보의 주조와 유통을 체계화하는 데에도 적지않이 기여했다.

지금도 김육이 살던 곳에는 잠곡서원지가 있는데, 그곳을 잠곡동이라 부른다.

1) 김승희, 「조세희 문학의 인간적 탐구」, 『난장이 마을의 유리빙정』, 동서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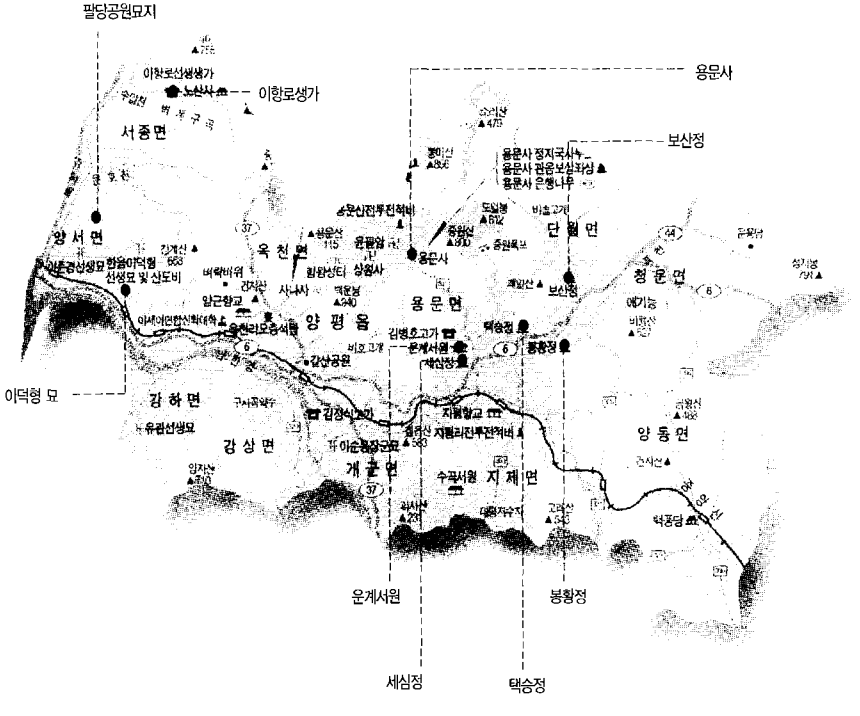
2) 최유찬, 「『난장이』의 구조와 리얼리즘적 성과」, 『내일을 여는 작가』 제10호, 37쪽.

3) 『내일을 여는 작가』 제10호(1997년 11, 12월호)는 「『난장이』를 보는 네 가지 시각」이라는 특집을 선보이고 있는데, 방민호, 최유찬, 황국명, 김태환 등이 글을 썼다. 이들에 앞서 또다른 평론가 진정석이 민족문학작가회의 주최의 한 심포지움에서 「민족문학과 모더니즘」이라는 발제를 통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이 논쟁에는 윤지관, 김명환, 김이구 등도 가세했다.

4) 신현정, 「아름답고 유서깊은 가평의 자연과 역사」, 피플뱅크, 1994

양평

남북이 두물머리에서 만나듯





용문산과 용문사, 또한 양수리의 고장 양평은 신수경개가 좋기로 옛부터 널리 알려져 왔으며, 그런 만큼 인물도 많이 났다. 이덕형, 이항로를 비롯하여 조욱, 이식, 이호민 등이 양평을 빛낸 조선조의 문인들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문인들이 물과 산이 좋은 양평을 찾아 자취를 남겼는데, 「양수리 가는 길」의 김인숙이나 80년대 민중문학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시인인 채광석 등이 대표적이다.

남북이 두물머리에서 만나듯

양평군은 경기도의 동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양평군은 '용문에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용문은 곧 용문산을 이르는 것으로 양평은 용문산을 중심으로 높고 낮은 산봉들이 불쑥불쑥 솟아 있고 그 산자락에 자리잡은 고을들은 한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절경을 이룬다. 또한 한강의 본류를 이루는 양수리의 경치가 이곳의 자랑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이곳은 예전에는 다른 지방을 이어주는 물길이 되기도 했다. 강원도의 곡식들이 이 물길을 따라 서울의 마포나루까지 내려갔으며, 충청도 쪽에서도 갖가지 물산이 남한강을 타고 올라와서 이곳을 거쳐 서울로 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산속이 좀 넓게 열렸으나 지세가 깊이 막혔고 공기가 또한 한랭하고 사방의 산악들은 우아하지 못하며 앞 시내가 바싹 막혀 낙토가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리하여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곳이면서도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이다.

또한 강원도와 맞닿아 있는 양평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그래서 이곳은 경기도에서 겨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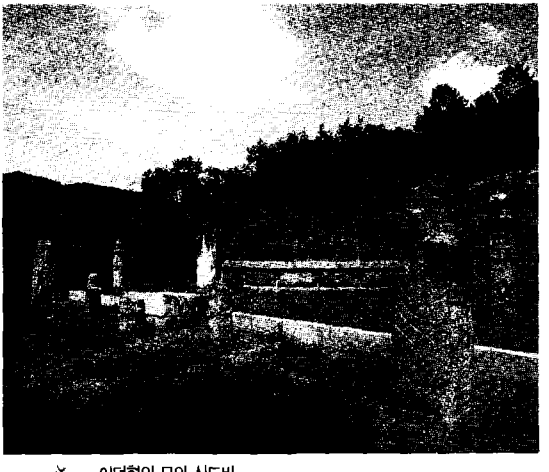
가장 긴 곳으로 대개 10월이면 얼음이 얼고 11월에는 눈이 내리며 이듬해 사월에야 얼음이 녹는다.

이덕형(1561~1613)

이덕형은 이름보다는 '오성과 한음'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침착한 성정이었던 한음 이덕형과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오성대감 이항복과의 기발한 장난은 재미있는 일화로 남아 있다.

여기에 오리대감 이원익과 더불어 3리(李)라고도 불리고 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친한 사이였다. 이원익은 체구는 남달리 작으면서도 굽힐 줄 모르는 의지와 솔직 대담성, 그리고 소탈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항복은 기지와 해학, 재기발랄한 명민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남을 사랑하고 인정에 넘치는 가장 인간적인 인물이었다. 이덕형은 위풍이 당당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언제나 상대에게 호감을 주면서 상대를 압도하였다. 이 세 사람은 남다른 교분을 지녔고 또 영의정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숱한 일화를 남겼다.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

양평군 양서리 목왕리에 있다. 마을 삼거리에서 개울을 건너면 비각이 서 있고 그 비각 안에 이덕형의 신도비가 있다. 묘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청계산 자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 양수리에서 6번 국도를 따라 양평 쪽으로 약 400m쯤 가면 길 왼쪽에 양수역 앞을 지나 목왕리와 서종면 문호리로 가는 1번 군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목왕리쪽으로 가다보면 이준경 묘소로 가는 길이 나온다. 이준경 묘소 입구에서 1번 군도로를 따라 목왕리 쪽으로 1.2km쯤 더 가면 목왕리 사촌마을에 닿게 되고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두 갈래 길 앞에서 오른쪽의 개울을 건너면 이덕형 신도비가 있고 왼쪽 목왕리로 난 길을 따라 약 300m쯤 가다 다시 오른쪽으로 난 지장교를 건너면 작은 절이 나오는데 절 뒤로 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덕형 묘소에 닿는다.

한음은 세 사람 중 나이가 제일 적었으면서도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항복은 한음이 죽은 5년 후, 인목대비 폐모 논의에 반대하다가 북청의 배소에서 죽었다. 이원익도 폐모논의에 반대하다가 홍천에 유배되었으나 인조반정 후에 영의정에 추대되었

고,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을 겪고 난 뒤 죽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의 가장 큰 공이라면 임진왜란을 수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첫째 공로자는 서애 유성룡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다. 그 다음이 3리(李)라고 말하여진다.

이덕형이 태어나던 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하였던 때였다. 위로는 사화가 연이어 일어났고 당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는 토호의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도적들이 횡행했다. 이처럼 이덕형이 살던 시기는 조선조 중기의 암흑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때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덕형은 스무살의 나이로 별시문과의 을과에 급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교리, 대사성 등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에는 예조참판 겸 대제학이 되었다. 그의 나이 서른한 살 때였다. 이때부터 그는 정치가로서, 외교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592년 임진왜란중, 북상중이던 왜장 고니시가 충주에서 그와 만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단신 적진으로 향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군은 동래를 함락한 후, 파죽지세로 경상도를 휩쓸면서 북행하고 있었다. 이때 왜군측에서는 화전의 교섭을 다 뿌리치고 이덕형을 만나자고만 하였다. 한양의 버슬아치들이 허겁지겁 북쪽으로 달아나고 있을 때, 이덕형은 동지충추부사의 몸으로 진선에 나가 있었다. 이덕형은 밀양에서 단신 적진으로 뛰어가 일본의 배신을 힐책하고 물러나왔다.

왜군은 평양성의 함락을 앞두고 또 한차례 이덕형을 만나자고 하였다. 이덕형은 회담장소인 임진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일본측에선 안면 있는 현소와 야나가와 등이 나와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주고 또 협조해 달라고만 강요했다. 이덕형은 조금도 굽힘없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물러나왔다.

이덕형은 이때 왜군이 강화로서는 물러가지 않을 것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이를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선조를 정주까지 모시고 가면서 이항복과 함께 명에 구원병을 요청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덕형은 청원사가 되어 명으로 건너갔다. 명에서는 국내의 사정으로 구원병 보내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덕형은 명이 결국은 구원병을 파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설득과 회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를 성공시켰다. 이여송의 부대가

압록강에 당도하자 이덕형은 그 접반관이 되어 오만무쌍한 이여송을 달랬다. 이여송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점령한 평양에 대한 탈환 작전을 벌이자 이덕형은 막역한 친구요 선배인 평양관찰사 이원익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탈환작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평양탈환의 성공은 전란 중 명나라와의 연합으로 이룬 최초의 승리였다. 이어 명나라 제독 유정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적장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인 1598년 이덕형은 서른여덟 살의 장년으로 우의정에 올랐으며 이어 좌의정, 훈련도감 등을 역임했다. 전쟁 후, 민중들은 괴질과 기근으로 시달렸으며 풍기도 극도로 문란해져 있었다. 이에 이덕형은 민중의 구호사업과 민심의 수습, 그리고 지방 군대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난후 선조를 호종한 신하들이 공신으로 추대될 때 이항복과 이원익은 1,2등에 책훈되었으나 그는 이를 극구 사양하였다. 그는 녹훈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더러 왕을 호종한 것은 잠시이고 언제나 전선에서 명나라와 교섭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1602년 이덕형은 정치가로서 관리로서 최고의 영예인 영의정이 되었다. 그는 4년간 영의정에 있으면서 전쟁으로 피폐된 나라를 바로잡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으며, 당색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정사를 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광해의 난정을 겪은 그는 관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1613년,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삼사에서 영창대군의 처형과 인목대비를 폐모하려고 할 때 이항복, 이원익과 함께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이에 삼사가 모두 그를 모함하여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광해군은 관직을 삭탈하는 것으로 이를 수습하였다. 그는 곧장 행장을 꾸려 양근에 내려가 은거하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포천의 용연서원과 상주의 근암서원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한음문고』가 있다.

이항로 생가

양수리에서 북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뚫린 길은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드라이브코스이다. 그래서인지 온갖 모양새를 한 울긋불긋한 까페



이항로 생가와 노산사

서종면 노문리 535. 양수리 양수교 앞 진중삼거리에서 6번 국도를 따라 양수교를 건너 양수사거리에서 363번 지방도로를 따라 서종면과 청평댐 방면으로 약15km 쯤 가면 수입리의 수입교를 건너게 되고, 바로 길 오른쪽에 노문리로 가는 10번 군도로가 나온다. 거기서 3.4km 정도 더 가면 마스바 기도원 앞에서 다시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 오른쪽 길을 택해 2.5 km 가면 노문리 벽계마을에 닿는다.



이항로 선생 생가

들로 눈이 어지러워 심산을 쉬러왔다가 오히려 피곤해질 지경이다.

그러나 북한강변을 달리다 수입리로 접어들어 용문산쪽으로 달리다보면 노문리에 닿는데 이곳은 비교적 예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바로 이곳 벽계마을에 평생 시대의 변화와 타협할 줄 모르고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자존을 지킨 이항로(1792~1868) 선생의 생가가 있다. 지은 지 200년이 넘은 이 생가는 근래 다시 복원하여 새집처럼 단장을 하였다. 이쨌든 선생은 이곳에서 평생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독학으로 이룬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어나갔다.

포천 출신인 그는 3세 때 이미 『천자문』을 떼고 6세때 『십구사략』을 읽었으며 『천황지황변(天皇地皇辨)』을 지었다. 12세 때에는 신기령에게서 『서전(書傳)』을 배웠다.

1908년, 반시(泮試:한성 초시)에 합격하였을 때 일이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당시 권력층이 과거 급제를 구실로 자기 자식과의 교분을 종용하였다. 그는 이에 격분하여 과장의 출입마저 수치스럽다 하여 아예 과거에 응하지 않았으며 끝내 과거를 포기하였다. 그의 대쪽같은 성품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는 당시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서울의 임로와 지

평의 이우신 등을 찾아가 학우의 관계를 맺는다.

25-26세 때 부모님을 차례로 여읜 그는 이후로 오직 학문에만 더욱 전념하여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를 흠모하는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는 세속을 피하여 쌍계사, 고달사 등의 사찰을 옮겨다니며 『사서삼경』, 『주자대전』 등 성리학 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의 연구 업적은 더욱 널리 알려져 조정에서 그를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오직 자신의 학문 연마에만 주력한다. 1840년(헌종 6) 휘경원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그 뒤에도 지방 수령 등에 제수되었지만 고사한다. 그는 자신의 서재 한쪽에 명옥정을 세워 강당을 마련하고 여숙강규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무렵 한 말의 위정척사론으로 유명한 최익현, 김평묵, 유중교 등이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2년(고종 1) 당시의 권력자 조두순의 천거로 장원서별제, 전라도사, 지평, 장령 등에 임명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그때 그는 동부승지를 제수받고 입궐하여 대원군에게 화친론을 배격하고 기필코 싸워 도성을 지킬 것을 강력히 상소한다. 대원군은 그의 주전론을 채택했다. 이항로는 며칠 뒤 공조참판으로 승진되고 경연관에 임명되었으나 "나라의 정세가 혼란한 만큼 무리한 경복궁 중수 공사를 중단하고, 백성의 재물 모으는 일을 금하라"는 등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고 만동묘의 재건을 건의한다. 이 일로 이항로는 대원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삭탈관직 당한 뒤 낙향한다.

이항로의 학문 세계는 주리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만사는 이(理)뿐이라' 했다. 말하자면 '이'가 주가 되고, '기'가 역(役)이 되면 만사가 어지러워 천하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상이었다. 곧 주인과 객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고 왜곡하면 혼돈이 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그의 학설은 이기합일설을 주장한 중국 나흠순 일파의 우주론을 반대하고 이와 기를 엄격히 구별하는 동시에 차등을 두어 인식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항로는 호남의 기정진, 영남의 이진상과 함께 침체되어 가는 주리철학을 재건한 조선 말기 주리철학의 3대가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주리론에 기초를 둔 심전설(心專說), 즉, 심즉리(心卽理) 심즉기(心卽氣)설을 반대하고 심합이기설(心合

理氣設)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존기비(理尊氣卑)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중교가 비판하였듯이 이리단심(以理斷心)의 이론이라 할 수 있으니 그의 심설은 심전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심전주리론에 그 기초가 깔려 있다.

이러한 그의 심전주리론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대의(春秋大義)라는 윤리와 아울러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처럼 하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집처럼 한다는 애국 사상과 자주의식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조 말기의 민족 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 이념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른다.

그의 저서로는 『화서집』, 『화동역사합편강목(華東歷史合編綱目)』,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 『벽계아언(碧溪雅言)』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꼿꼿한 선비 정신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그의 생가에는 '노산정사(魯山精舍)'라는 편액이 붙어 있다. 15칸 한옥에 사랑채가 딸린 이 집은 그의 부친이 지은 집으로 200년이 넘은 것이다. 지금도 주위에는 겨우 십여 호 정도의 인가가 있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적막한 곳이었을지 짐작하게 한다. 세속의 시시비비를 떠나 학문을 연마하려던 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을 것이다.

사랑채에 앉으면 멀리 북한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입천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그 너머로 산들이 첩첩이 늘어서 한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하다. 이항로는 수입천을 벽계천으로, 그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포옥 감싸고 있는 승경지 9곳을 벽계구곡이라고 이름지었다. 이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신봉했던 주자의 사상과 함께 주자의 삶과 자취를 엿볼 수 있었던 무이구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1곡에서 제9곡까지 벽계구곡은 외수입, 내수입, 정지터, 용소, 별소, 분설담, 석문, 속사천, 일주암이다.

이항로 생가 뒤로 돌아가면 그의 묘소가 있고 그 앞에 사당 노산사가 있다. 노산사는 그의 인품을 흠모하던 유림들이 1954년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이다. 스승도 없이 독학으로 학문의 한 경지를 이룬 선비 이항로는 벌다른 욕심없이 이 한곳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생가터는 오랜 세월의 강을 건너 여전히 그의 체취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조욱의 운계서원, 세심정

조선 중기에 태어난 조욱(1498~1557)은 1516년(중종 11)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 연마에 힘쓴 학자이다. 조광조, 김식 등에게 사사하였는데 이 두 스승 때문에 기묘사화에 연루되었으나 나이가 어리다 하여 화를 면하였다. 그 뒤 형인 성과 삭녕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강론하며 지냈다.



조욱 묘

뒤에 선원전, 순릉, 영릉 등의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어머니가 죽은 뒤 3년 상을 마친 그는 용문산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용문산은 지금도 양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지만 산세가 웅장하고 빼어나며 계곡이 깊어 예로부터 명산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었다. 선생은 명종 16년(1561) 현재의 정자를 건립하여 '세심정' 이라 하고 스스로의 당호도 세심당이라 지었으며, 이곳에서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문이 알려진 뒤로는 용문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졌다.

세심정은 야산 기슭 고대에 자리잡아 전면에 용산과 용소보를 접하고 사면은 울창한 노송과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자에서 10m전방에는 20여 평 되는 연당이 있다. 주위가 석축으로 이루어진 연당은 장방형으로 정면 16m, 측면 11.5m의 규모이며, 한가운데는 관상노송이 운치있게 식재되어 있다. 세심정은 6각 원당형을 가미한 20여 평의 아담한 목조건물인데 지붕은 팔작 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다. 7개의 주초석 위에는 6각의 기둥을 세웠고 2.5m길이 6개의 툇마루가 부착되어 있으며 내부는 속칭 우물마루를 깔았다. 현재 건물 상태는 60여 년전 중수한 원상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편이다.

조욱은 명종 때에는 성수침, 조식 등과 함께 천거되어 내섬시주부로 제수되었고, 이듬해 장수현감에 이르렀다. 시문과 서화에 능하였으며, 서경덕, 이황 등 당대의 명사들



세심정



세심정 앞의 연못



세심정

용문사에서 1km쯤 내오다보면 카페들이 즐비한 거리를 만나게 되는데 커다란 오지항아리를 나무 위에 올려놓은 카페 '시루항아리집'을 끼고 돌아서면 덕촌리 퇴촌부락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인들이 장기를 두거나 한담을 나누고 있는 마을회관을 지나 조금 더 가면 야산 위에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잡은 세심정을 만날 수 있다.

과 교유하였다.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저서로는 『용문집』이 있다.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에 있는 운계서원은 조선 후기에 조욱 선생의 제자들이 그의 교훈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여 강론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현재 이곳 묘우에는 조욱 선생 외에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향을 올리고 있다.

선생의 묘는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7번지에 모셔져 있다. 묘역은 약 50평으로 묘 우측에 묘비, 중앙에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 동자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영조 21년에 건립된 것으로 팔작 지붕형의 옥개와 장방형의 비좌를 갖추었으며 비신은 대리석이다.

이식의 택풍당

양평에서 홍천으로 가는 국도를 달리다가 328번 도로로 접어들면 계곡을 끼고 달리는 제법 호젓한 도로를 만난다. 산세가 웅장해서 제법 깊은 산 속에 들어온 듯, 드라이브 코스로 손색이 없는 길이다. 그곳에서도 양동면까지는 차로 약 30분 정도 가야 한다. 양동면 면소재지를 지나서 조금 가면 양동초등부 간판이 나오는데 그리로 꺾어들어가서 마을 끝까지 가면 검은 기와로 잘 가꾸어진 택풍당이 있다.

쌍학리 안골 부락에 있는 택풍당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이식

(1584~1647) 선생이 제자와 자손들의 교육과 학문 연구를 위해 건립했던 사당이다.

광해군 11년 (1619)에 택당 선생이 건립하여 몇 차례의 보수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전해져 오는 곳이다. 2층 누각이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겹처마집으로 눈길을 끄는 특이한 형식이다.



택풍당
양동면 쌍학리 인골.

현재 이 건물은 정면과 측면이 각각 4.6m의 건물로서 외문(外門)과 잘 보수된 담장을 갖추고 있다. 2층 누에는 툇마루를 달았고, 온돌방 안에는 갓을 비롯한 택당 선생이 사용하던 유품 일부가 남아 있다.

사진을 찍고 돌아나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온다.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동차를 보고 왔다는 아주머니는 이식 선생의 종가집 며느리라고 한다. 전에는 안에 선생이 쓰시던 유품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손을 많이 타서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

택당은 1610년(광해군 2) 별시 문과에 급제, 1613년 설서를 거쳐 1616년 북평사가 되고, 이듬해 선전관을 지냈다. 1618년 북평사가 되고, 이듬해 선전관을 지냈다.

1618년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나자 은퇴하여 경기도 지평(지금의 양평군 양동면)으로 낙향하여 남한강변에 택풍당을 짓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호가 택당인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1612년 여러 차례 출사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왕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뒤, 교분이 두터운 친구들이 집권하게 되자 요직에 발탁되어 이조좌랑에 등용되고, 이듬해에 부수찬, 응교, 사건, 집의를 역임하였다. 1625년(인조 3)에는 예조참의, 동부승지, 우참찬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에 대사건, 대사성, 좌부승지 등을 지냈다. 1632년까지 대사간을 세 차례 역임하였다. 그러나 사친(私親)의 추숭(追崇)

이 예가 아님을 논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서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633년 다시 부제학을 거쳐 1638년 대제학과 예조참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642년 김상헌과 함께 척화를 주장한다 하여 심양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의주에서 잡혀 갇혔으나 탈출하여 돌아왔다. 1646년에는 별시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시제에 역모를 도모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여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는 당대의 이름난 학자로서 많은 제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장이 뛰어나 신흠, 이정구, 장유 등과 함께 한문사대가로 꼽혔다. 그의 문장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고문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김택영은 그를 여한구대가(麗韓九大家)의 한 사람으로 손꼽아 『여한십가문초』에 「사간원차자(司諫院箚子)」 등 6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그의 시는 각 체에 모두 능숙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다. 대체로 정경의 묘사가 뛰어나다. 그는 고체에 능하였다고 하나 오언율시에 가장 특색을 발휘하였다. 1686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여주의 기천서원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택당집』이 전하며 『초학자훈증집(初學字訓增輯)』, 『두시비해(杜詩批解)』 등을 저술하였고, 『수성지(水城誌)』, 『야사초본(野史初本)』 등을 편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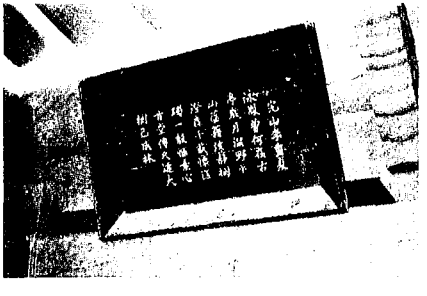
봉황정

봉황정은 조선 인조 2년 (1624) 이곳 남원 양씨의 선조 이조참의 양응청과 병사 양응학 두 분이 창건했다는 정자이다. 양평 광탄리를 찾으면 그곳 국도변에 봉황정으로 올라가는 문이 나타난다. 북한강 변 절벽 위, 노송이 우거진 사이에 자리잡은 정자에서 옛 선비들의 고아한 성품과 풍류를



봉황정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 239-1





느낄 수 있다.

절벽과 강물이 어우러져 천연의 절경을 이루는 이 정자는 구성대(九城臺) 또는 남휘정(攬輝亭)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다. 여기에서 구성이란 성대풍류가 아홉 번 이루니 봉황이 와서 춤추는 형상이고, 남휘는 봉황이 천길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내려앉는다는 뜻을 지닌 것이다.

이 정자는 창건 이래 양씨 문중과 이 고장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기에서 충장공 양헌수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이 양성되었고 이항복, 이식, 김창흡, 이중하 등 명인재사들의 시화와 풍류가 깃든 유적의 글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 팔작 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겹처마의 건물로서 내부에는 누마루를 놓았다. 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정방형 건물이다.

보산정

보산정(寶山亭)은 고려 말 공민왕(1351~1374) 때 무안 박씨의 선조인 간의대부 송림공이 당시 정계와 왕궁의 혼란을 피해 이곳에 낙향해서 시회장으로 건립한 것이 그 기원이라 한다. 이 정자는 고려 우왕 1년에 창건하고 그 뒤 송림공의 6대손 이좌참판, 항양공 박원겸의 수학당으로서 이후 저명한 유림문사와 애국지사들의 시회장으로 혹은 유한야사의 소요지로 사용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중건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 건물은 1955년 마루를 축조했고 1974년 무안 박씨 종중에서 기둥 벽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조로 복원한 것이다. 지붕은 팔작 지붕에 골기와를 얹은 정면 2칸, 측면 2칸, 정방형의 굴도리집으로 겹처마에 단청을 하였다. 정자 주변에는 몇 그루의 노송이 운치있게 둘러싸여 있으며, 전면에는 전설이 담긴 신비로운 연못이 있어 한층 아취를 더해 준다.

이호민의 묘 및 신도비

이호민(1553~16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장에 뛰어나 임진왜란 때 왕명으로 각종 글을 많이 작성하였으며, 그가 지은 교서의 내용이 간절하여 보는 이의 감동을 자

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분상보다는 시에 뛰어나다는 평을 들었다. 의주에 있을 때 적의 수중에 있는 서울을 삼도의 군사가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 「용만행재하삼도병진공한성(龍灣行在下三道兵進攻漢城)」은 절창으로 널리 애송되었다.

그는 1579년(선조 12)에 진사가 되고, 1584년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5년 사관으로 발탁되고 계속해서 응교·전한을 역임하였으며, 집의·응교를 겸하였다. 1592년에는 이조좌랑으로 임진왜란을 만나 의주까지 왕을 호종하였다가 요양으로 가서 명나라에 지원을 요청,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때부터 명나라와의 외교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거의 전담하였다.

1608년에 선조가 죽자 영창대군의 즉위를 반대하고 적서의 구별없이 장자를 옹립하여야 된다는 입장론(立長論)을 주장하였다. 이에 광해군이 즉위하자 명나라에 가서 입장론을 내세웠다. 이러한 그의 공에 대해 포상하려 하자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1612년 김직재의 옥사에 연루되었고 1614년 정온 등이 영창대군 살해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자 이들의 방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에는 구신(舊臣)으로 우대를 받았고, 죽은 뒤에는 청백리에 올랐다.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그의 묘는 정경부인 양천 허씨, 파평 윤씨와 합장묘로서 묘 앞에는 묘비, 상석향로석 그리고 망주석, 동자석, 문인석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이수와 귀부를 갖추었는데, 이수의 상단은 원형으로 운룡이 정교하고 세련되게 조각되었고 귀부의 용두는 마멸이 심한 편이나 원형을 살피는 데는 지장이 없다. 신도비는 인조 13년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은 이명한이 짓고 김주우가 글씨를 썼다.

저서로는 『오봉집』 16권이 있으며 지례의 도동향사에 제향되었다.

용문사

양평을 지나 홍천 쪽으로 가다보면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어 명산으로 알려진 용문산을 만나게 된다. 용문산은 약 800m 이상 되는 봉우리들이 모인 큰 산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경기의 금강이라고 불렀다. 특히 정상에서 뻗어내린 바위계곡들의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그 중에서도 조계골과 용계골의 경관이 매우





용문사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양평읍 입구 삼거리에서 왼쪽 6번 국도를 따라 홍천쪽으로 15km 정도 가면 왼쪽에 용문사로 빠지는 331번 지방도로가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 계속 작진. 양평 읍내에서 군내버스가 수시로 다닌다.

빼어나다.

그곳에 용문사가 터잡고 있다. 용문사의 일주문은 용문이다. 용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이 꿈틀거리며 일주문을 휘감아 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용문사는 649년(진덕여왕 3)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892년(진성여왕 6) 도선국사가 중창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뒤 몇 차례의 중창을 하여 1447년(세종 29) 수양대군의 어머니 소헌왕후 심시를 위해 보전을 짓고 불상 2구와 보살상 8구를 봉안했으며, 이듬해 경찬회를 베풀었다. 이 경찬회 법회에 참석해 기도하던 수양대군은 불사리의 방광을 목격하고 원찰로 삼았다고 전한다.

이어 세조와 성종을 비롯해 왕실에서 종종 중창했으나, 1907년 의병의 근거지로 사용되다가 일본군들이 불태우는 비운을 겪는다. 취운스님 등이 재건을 거듭해오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는 승패의 분수령이 되었던 용문산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

용문사로 오르는 길에는 각종 불교경전에서 뽑은 글귀들을 새긴 나무판이 있다. 썩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 그 정성이 마음에 든다. 그 글들을 읽으며 산길을 오르

노라면 어느새 마음은 나무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가볍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용문사 법당에 삼배를 해보면 부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지.



용문사 올라가는 길에 있는 불경을 새겨넣은 나무판

서러움 녹아 진지디치다
문득, 울음 그친 곳

가을 계곡에 안기면
귀이 앚아야 할 사람도
잊지 못할 사랑도 없는데

누가 귀이기고 있는지요
지는 해, 참혹한 부명 속을,……

저 먼저 벙는 단풍보단 잎잎이
단굽이 붉아 두런두런 떠오릅니다
—최영미, 「용문사 계곡에서」

용문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된 은행나무가 있다. 여름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해 몸체를 보기 어렵지만, 늦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천년 세월을 견뎌온 은행나무의 온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어디 한곳 불기를 빨아올릴 것 같지 않은 고사목 같은 나무인데, 봄이면 어김없이 수액을 날라 가지 끝 잎마다 벅어 푸른 잎을 돋게 하는데 외경스럽기까지 하다.

천연기념물 제 30호로 지정된 용문사 은행나무 나이는 대략 1,100여 세에 이른다. 원효대사가 용문사를 창건한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한 나이다. 그러나 이 은행나무는 의상대사가 심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사랐다고도 하고, 신라의 마지박 왕자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풀 길 없어 금강산으로 들어가면서 지팡이까지 버리기 위해 꽂아놓고 떠난 것이라고도 한다. 사실 여부는 알 도리가 없으나 그 어떤 사연이라도 지금에

야 처연하도록 아름답기만 하고, 천년의 역사를 가지마다 매달고 있는 은행나무가 거룩하기만 하다.

김인숙의 「양수리 가는 길」

비록 국적조차 알 수 없는 이름의 카페들과 모텔들이 즐비하다고 해도 양수리 가는 길은 아직 사람들에게 낭만으로 기억되는 곳이다. 한강이 시멘트 축조물들과 살인적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도로에 그 낭만을 넘겨 주었다면, 양수리께는 아직 강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곳에 가면 강의 수면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새벽녘,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있다.

소설가 김인숙이 단편 「양수리 가는 길」에서 말하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뭔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될 때 그곳에 가면 물안개를 볼 수 있다는 것.

소설 속의 남자 역시 언젠가 여행길에 나섰다가 문득 졸음에서 깨어났을 때 눈에 잡혀들었던 물안개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맙소사, 양수리라니……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양수리'를 생각해 낸 것은 조금 어이없다 싶기는 해도 전혀 황당한 일은 아니었다. 2년 전 처음 자기 차를 갖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마치 갚지 못한 빚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양수리'를 생각하곤 했다. 양수리에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는 거냐고, 아내는 곧잘 신기한 사람 보듯이 그를 쳐다보곤 했었다. 아내는 처음엔 그래서 장난처럼 싫다고 했을 터이고 나중에는 습관처럼, 그러다가 끝내는 양수리라는 곳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처럼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종내 아내는 '양수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아내의 표정은 이유 없이도 늘 당당했다.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양수리를 싫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안달을 부리듯 양수리를 입에 올리곤 하는 것도 별다른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교 3학년 때던가, 그는 무작정 새벽 버스를 타면 속초까지 달려가 버린 적이 있었다. 그가 그의 '양수리'와 첫 대면을 한 것이 그 버스 안에서였다. 새벽 첫차를 타기 위해 부산을 떨어댄 탓인지 서울을 빠져나가



양수리의 새벽풍경

기 전부터 부족한 잠에 곯아떨어졌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그 순간에 눈을 뜨게 됐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창문 가득히 펼쳐져 있는 눈앞에의 풍경에 시야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여기가 어딥니까?

그는 넋을 잃은 듯한 목소리로 옆좌석의 사람에게 물었고, 옆좌석의 사내가 부스스 잠을 깨며 대꾸했었다.

—어, 눈안개 조오타. 가만있자, 여기가 양수린가.

그가 좀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순간에 속초행을 포기해 버렸을는지도 모른다. 하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테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그 버스를 멈추게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새벽녘의 그의 눈앞에 펼쳐진 눈안개의 풍경은 그의 온몸을 뒤흔들어 대는 것과 같이 압권의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에 그리 쫓기며 살았던 것일까. 그는 양수리에 가고 싶다는 희망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닫는다.

그는 지금,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아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아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제 그는 2, 3개월 후면 동남아의 오지로 파견 근무를 나가야 한다. 해외 근무를 선호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즈음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그가 가야 하는 곳은 천장에 도마뱀이 기어다니고, 고깃간에는 냉장고조차 없고, 용변 뒤에 휴지를 쓰지 않는 나라이며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동료가 걸레조각처럼 말라비틀어진 상태로 귀국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아내는 면허시험에 보란 듯이 합격하고 두 사람은 인천의 월미도로 향한다. 그는 끝내 양수리로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내는 얼굴에 애교를 가득 담고, 그리고 투정을 부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 차몰기 시작하면 첫 기념으로, 그래, 우리 양수리에 갔다 오자. 당신 맨날 양수리 타령했잖아. 까짓 거 한번 갔다 오지, 뭐. 새벽에 나서면 물안개 볼 수 있다고 했지? 도시락 싸가지고 우리 식구 전부 양수리에 갔다오면 좋겠다. 당신이 나 시외 연수도 시켜주고, 그럼 좋잖아? 그치?"

"그래……"

그는 아내의 애교 있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내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더군다나 그까짓 차 때문에는. 더군다나 애교를 부리는 아내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불쌍한 여자……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럴 기회가 있을까? 아내의 말처럼 양수리에라도 가게 된다면 그 물안개의 분위기에 파묻혀 말할 수 있을가. 물안개를 모두 걷어버린 속살의 수면 같은 목소리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삶은 찬란하고 찬란한 만큼 절박한 것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 절박함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인가……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자신이 결코 양수리에는 갈 수 없을 것임을 확신처럼 짐작하고 있었다. 아내가 그에게서 뺏어간 차는 결코 양수리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고요히 그를, 지도상에 양수리라는 지명이 적혀져 있지 않은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양수리의 물안개만이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 물안개를 뿜어낸 그 속살같은 수면의 정체는 결단코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가 연극처럼 꿈꿔 온 '양수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끝내 양수리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그곳은 다만 한 남자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물안개의 낭만을 꿈꾸고 있을 수 없는 남자의 가슴 속에.

그러나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는 양수리는, 눈으로 확인한 양수리보다 더 큰 의미로 더욱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수리 가는 길」은 지도상의 양수리에서 영원한 그리움의 대명사로, 물안개

로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될 것이다.

양수리에 가게 되면, 길가에 즐비한 카페나 술집이 아닌, 강변으로 내려가 보라. 그리고 밤이 깊이갈수록 산그림자가 길게 물 속으로 눕는 것을 지켜보라. 새벽녘 뽀얗게 피어오르는 물안개 속에 서면, 지친 가슴 속에 그리움 하나가 조용히 들어와 자리잡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일마간 황폐해진 삶을 견딜 수도 있으리라.

양수리가 가지는 몽환적 분위기와 상징성은 많은 소설가들이 작품의 배경으로 생각해보게 만든다. 김인숙 작품 외에도 양수리는 숱한 소설 속의 배경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물론 시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시인의 양수리는 어떤 곳인지 감상해보자.

때로는 우연을 가장하고 청량리발 원주행 완행열차를 타고 나는 양수리 용국 형을 만나러 간다. 만 듯하면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 어디에선들 혹은 내 마음 속에선들 바람 불고 꽃이 피고 꽃이 지지 않겠냐만, 바람 불면 어떻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또 어떠랴. 내 마음이 멀리 가는 길에서 잠시 내려 강여울을 따라 걷다 보면 깊 위의 나는 강물 위를 걷는 내 그림자와 함께 나른 촉촉의 고요를 흔드는 새들이 그린 세상, 가을이다.

—이흔복, 「다시 양수리에서」

채광석

한때 우리나라 문단을 뜨겁게 달구었던 건 중에 '민족문학 주체논쟁' 이 있었다. 이는 그동안 민족의 현실을 온 몸으로 감당해왔던 민중을 문학의 주체로, 그리고 나아가 역사의 주체로 일으켜 세웠던 중요한 논쟁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이가 바로 시인 채광석(1948~1987)이다.

그는 1968년 서울대에 입학한 후 대학 4학년이던 1971년 10월 위수령 실시 후 강제 징집당한다. 3년 후 제대한 그는 가을 학기에 복학하여 이듬해 서울농대생 김상진 열사 추모 시위사건으로 구속되어 공주교도소에 수감된다. 2년 6개월의 복역 후 출소한 그는 1980년 5월 서울의 봄 이후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다시 체포당하여 40일간이나 모진 고문을 당한다. 1983년, 68학번이던 그가 학원자율화조처로 15년만에 다시 복적 허

락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다. 이후 그는 민중문화운동연합을 창립하여 실행위원을 지냈으며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재건하여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민통련 문화예술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후배 시인인 김정환의 장편서사시 「황색예수전」에 「김정환의 예수」라는 평론을 발표하고, 사회문화평론집 『물길처럼 불길처럼』, 시집 『밧줄을 타며』를 발간하는 등, 바야흐로 문학적 역량을 한껏 발휘하려던 때, 1987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타계하였다.

그는 개발독재가 한층 기승을 부리던 7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민중' 이라는 개념을 끌어냈다. 민족문학을 계승했으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노동해방문학, 민족해방문학 등의 변혁운동과 결합해가던 과정 속에 그가 있었던 때문이다. 즉, 그는 민족문학운동이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과 결합되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 민중지향적이라는 의미의 민중문학을 꿈꾸었다. 그는 시를 그냥 좋은 시가 아니라 '민중과 교감하는 시' 로 생각했으며 작가적 실천을 그냥 실천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하는 실천으로 생각했다. 바로 여기에서 '민중문학'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중적 민족문학, 즉, 민족문학의 민중적 단계라는 표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고민은 '민중을 위하여' 에서 '민중의' , '민중에 의한' 으로 심화되었다.

이문구의 민중체험이 『장한몽』을 낳고 황석영의 공사판 체험이 『객지』를 낳았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적 체험과 한국 문학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진다. 작가는 체험이 없어서 못쓰고 체험이 있는 자들은 문학을 몰라서 못쓰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수기나 일기 편지 따위는 고도의 문학작품들을 압도했던 것이다. 거의 문학적 사망선고와 맞먹는 일련의 일들을 놓치지 않고 경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채광석이었다. '문학이 민중으로부터 소외되고, 민중이 문학으로부터 소외' 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그의 문학운동론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패러다임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문학운동' 이 단순히 '좋은 작품을 쓰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민중의 것이 되게' , '민중에 의한 문학운동' 이 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 실천적 단계로 일어난 것이 공동창작론, 장르 확산론이었고 거기에서 문학교실과 문예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안에서 여러 작가들이 출현하여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민중운동이 퇴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작활동을 견지

하고 있는 작가들이 다수 있다. (시인 김형수의 채광석 5주기 기념 강연 참고)
채광석의 묘는 팔당공원 묘지에 있다.

밧줄을 탄다

히말라야 산맥 우리의 형제와 동료들의
목숨을 거둔 봉우리에 오르기 위하여
노동산 인수봉의 비위벽, 설악산 골짜기의 위을벽
벽을 탄다 기어오른다
하나의 밧줄에 차례로 몸을 얽고 하나의 운명이 되어
목숨을 걸고 한 발 두 발 비지땀을 흘리며
식은 땀을 흠치며 목숨을 걸고 한 발 두 발
뼈를 아우성치는 여름이나 혹한 내리꽂히는 서역이나
저 끝에도 못잊을 원한과 열망의 봉우리
꼭대기에 두 발을 딛고 세 하늘 세 땅을 보기 위하여

산 사나이들이 밧줄을 탄다

네네림이 반치고 설한풍이 손끝 발끝을 흔들고
뇌성벽력이 몰아친다 해도
밧줄을 놓을 수는 없다

그것은 목숨이기에 덕석민원들 우리로 달겨들어
패대기치더라도 리아카는 우리들 목숨의 줄이므로
내루먹이고 냉들게 하고 꼬드김 손찌검

밥김질 몽버가지질 몽둥이질 이간질
체대도 노동삼권은 우리의 목숨이므로 민주회는

통일은 우리의 목숨이므로
목숨을 탄다

민주 민족 민중의 산맥 우리의 선열과 형제들의
목숨을 머금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하여
공장 농촌의 얼음벽 학교의 바위벽
벽을 탄다 기어오른다
하나의 밧줄에 차례로 몸을 엮고 하나의 운명 되어
목숨을 걸고 한 발 두 발 비지땀을 흘리며
식은 땀을 훔치며 목숨을 걸고 한 발 두 발
아우성치는 압제의 손길 내리꽂히는 수탈의 손길을 뚫고
저 꿈에도 못잊을 원한과 열망의 봉우리
꼭대기에 두 발을 딛고 새 하늘 새 땅을 보기 위하여
외치며 노래하며

민족의 아들딸
밧줄을 탄다 목숨을 탄다

민주주의여
통일이여
질기디 질긴 목숨의 밧줄이여
—「밧줄을 타며」



채광석 작품집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많은 후배 시인들이 추모시를 남겼다. 그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소개한다.

형이 새벽의 거리에서 황망히 우리곁을 떠난 지 십 년
나는 형이 묻힌 산엘 찾아가지 않았다
많은 눈을 비람부는 거리에 서 있었다
형이 생각날 때면 시장 골목 목로주점 찾아가
후배들에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던
젖은 목소리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얼굴 떠올리며
급하게 소주잔을 뒤집었다
형이 떠나던 그해 이른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파릇는 빗발 피하지 않고 길을 걸었다
짧은 생애 내내 이 시대의 대리 위로 파릇는
빗줄기 피하지 않고 형이 갔던 것처럼
나도 그 이후 십 년 피하지 않고 내 길을 걸어왔다
그때마다 산 속이 아니라 이 거리 어딘가에
형이 함께 있으리라 믿었다
대나체를 휘어잡힌 채 내동댕이 쳐진 노동자의
벗겨진 신발 옆에 형이 함께 있을 것 같았고
천지만원의 햄머소리에 소스라쳐 놀라는 사람들 곁에
함께 아픔을 쓰다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을 것 같았다
차디찬 감옥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철문을 발로 차며 거세게 항의하다 끌려가
내방으로 날아와 긴 긴 사링의 편지를 쓰며
밤을 새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내가 괜찮냐 아랑게 물으면
철창 너머 서 있을 것 같았다
망초대 씨이 흔들며
산비탈에 혼자 누워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터를 잃고 쫓겨난 지 오래인 나를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
큰 소리로 이름 부르며 길 건너 달려올 것 같았다

자유와 밥과 사랑을 위해
질기디 질긴 목숨의 밧줄을 타며
갈라진 땅의 모질고 큰 절망과
그 절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것 같았다
칠월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다 못한 이야기 너무 많아 무어라 무어라 소리지르며
길 저쪽으로 끝도 없이 걸어가고 있을 것 같았다
등만 보이며 젖어젖어 빗 속으로
몸짓만 보이며 하염없이 빗 속으로
—도종환, 「칠월의 거리에서 -채광석 형 10주기에」

채광석의 후배였으며 함께 활동하던 작가 김남일은 그의 단편 「길」에서, 그가 가고 없는 빈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로 읽히는 작중의 '나'는 돈벌레가 나오는 연립주택 지하에 살면서도 자신이 쓰는 소설 속의 주인공과 똑같을 수는 없음을 실토한다. 그는 태어나면서 조건지워진 것들을 어찌하지 못할 것임을 절감하고 자괴감을 느낀다. 게다가 채광석이 죽은 후(작품에서는 민식으로 나온다)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다. 아니 뒤집어졌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 조직에 연루되어 수배 생활을 하던 형태까지 뒤늦게 민식의 무덤으로 찾아오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다. 남부 항구 도시의 골리앗크레인 이야기 속에 이따금씩 섞여들던 그가 나에게 한 말이 있었다.

도덕이 아니야. 편싸움, 그래, 거기서 이기는 쪽이 도덕이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주 튼튼한 뿌리를 내리겠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밖에 있는 적과 우리 내부에 있는 적.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회의주의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갉아먹는다. 페레스토로이카. 베를린 장벽. 휴지처럼 버린 이념. 뜻을 모아 건설했던 체제. 순결한 무장.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미래. 아니야, 차라리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 좋다. 끝까지 남는 자와 포기하는 자. 내가 이긴다.



채광석 10주기 추모의 밤에 모인 문인들



채광석 묘

양수교를 사나빈 곧 왼쪽으로 팔당공원 묘지로 가는 길이 보인다. 묘소는 공원묘지 산중턱에 있는데 그냥 가면 찾기 어렵다. (사)민족문학작가회의(02-313-1486)로 문의할 것. 2000년에 그의 고향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사비를 건립할 예정이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었다. 형태는 함께 타고 산을 내려오던 버스에서 내린다. 이 밤을 어디서 보낼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미처 묻지도 못하고 그를 떠나보낸다. 뭔지 모를 답답증이 가슴을 찍어 누른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차는 곧 출발했다.

형태는 감긴 입감판 아래 선 채로 손을 흔들었다. 그 뒤쪽으로 아스팔트길이 곧게 뻗어 나갔다. 그가 갈 길이었다. 불현듯 그의 밤이 되비쳐 올 것 같았다. 내가 아직도 그렇게 되어? 아직도? …… 무슨 뜻일까. 차는 이제 빠르게 달렸다.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묻고 싶었다. 아직 시를 쓰는가고, 그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밤을 어디서 보낼지, 그리고 또……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고개를 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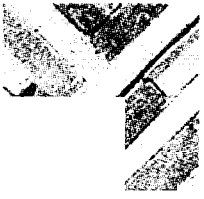
차창 저 멀리, 우리가 빠져 나온 신호짜기가 보였다. 거기에 민식이 형이 누워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왠지 가슴이 푸근해졌다. 내년에는 두 집 애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차는 곧 검문소를 지났다.

그 검문소가 바로 양평교 건너 삼거리에 있는 검문소이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으로 주창되었던 채광석의 민중문학론은 이제 힘을 잃었는지 모른다. 솔직히 지금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색깔의 문학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아니, 민중문학은 문학에 있어 미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마치 문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라도 한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이 오로지 저 홀로 문학일 수 있을 것인가. 문학이 사회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진대, 한 문학현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학적 요구를 해왔던 역사적 시대적 사회상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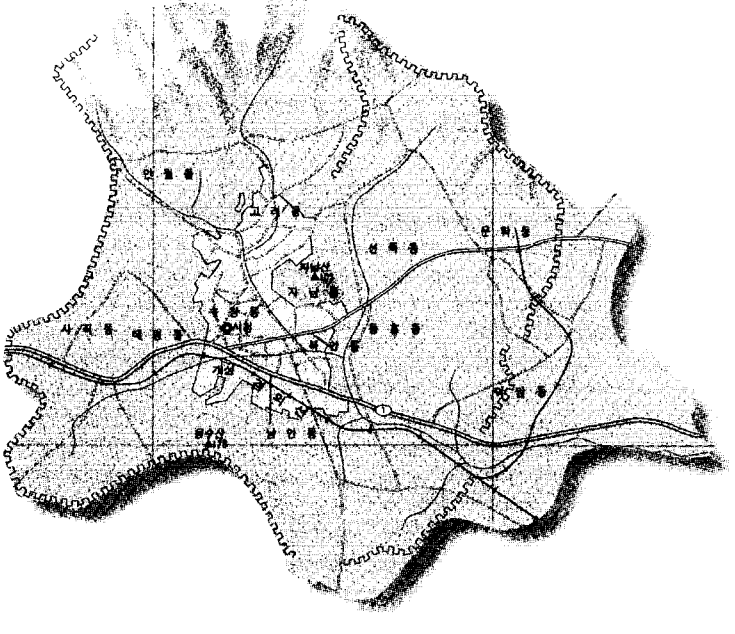
양평 출신이거나 현재 양평에 거주하는 문인으로 시인 백창일, 황명걸, 이청리, 신순례, 한춘섭 그리고 소설가 김용만 등이 있다.





개성

희미한 옛 도읍의 그림자를 찾아서



희미한 옛 도읍의 그림자를 찾아서

지금은 찾아갈 수 없는 곳, 개성. 고려의 도읍이었으며 인삼과 송상(松商)으로 유명한 고도, 개성.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자꾸만 희미해져가는 개성을 기억할 의무가 있는데, 황석영의 장편소설 『장길산』이나 박완서의 『미망』이 그런 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개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손꼽히는 황진이의 전설 아닌 전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문학사에서 언급될 것이다.

개성! 어디인가, 그곳이…… 그리고, 어떻게 가는가, 그곳에…… 옛날,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가는 길에 쓴 시가 전한다.

울긋불긋 산밑에 서당이 몇이런고 (山山紫翠幾書堂)
푸른 시내 낀 울타리가, 양쪽으로 늘어섰구나 (綠水連籬間兩廂)
삿갓이 바람에 불리자 비 개기 시작하니 (竹笠欹風林雨散)
인삼꽃 활짝 핀 온 마을이 향기롭구나 (人蔘花發一村香)
—「松京道中」

이 시에도 금방 나타나듯이 개성은 인삼의 고장이다. 지금은 비록 갈 수 없지만, 개성을 떠올리면 인삼꽃 향기가 먼저 코끝에 묻어나는 듯하다. 그 인삼을 둘러싸고 자연히 큰 매매가 이루어지니 개성은 옛부터 인삼 상인들의 본거지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초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이끌어온 그들을 일러 흔히 '송상(松商)', 또는 개성상인이라고 하였다.

황석영(黃晳暎)의 대하소설 『장길산』도 이러한 상업중심지로서의 개성을 무대로 한 송상들의 활약상을 중요한

사건축으로 하여 전개된다.

특히 원래 송상 배대인의 차인 출신인 박대근은 장길산 일행에게 물심양면으로 큰 영향을 끼치며, 소설 전편에서 이상화된 상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거우 남의 재물을 뺏어 주림이나 견디겠다고 사내대장부가 산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닐세…… 백성을 돕는 녹림당이 되어야 하고, 힘을 길러 저 도적들을 없애야 하지. 내가 재물의 참뜻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일세! 힘…… 팔도에 두루 덮이는 막강한 힘일세."(현암사 판, 1권 173쪽)

사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에 비추어볼 때, 송상 박대근의 설정은 매우 근거있는 것이다. 역사학자 강만길이 지적했듯이, "조선 초기부터 전업적이고 조직적인 상인집단으로 발전해온 송상, 즉, 개성상인은 18세기 이후에는 도고상업에 손을 대어 대자본의 집적에 성공하는 한편, 대외무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그리하여 일부는 집적된 상업자본을 광산경영이나 인삼재배업과 그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상인물주 내지 산업자본가로 변신하기도 하였다."(「개성상인과 인삼재배」,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송상이 얼마나 이재에 밝은지를 『장길산』을 통해 살펴보자. 박대근의 주인 배대인이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송상은 돈을 알기를 목숨보다 중히 여긴다. 아무 까닭없고 노력없는 일에 백냥은커녕 일전도 내어서는 안된다. 그 여편네가 당장 굶어서 죽는 것두 아니니 부지런히 품을 팔아 살아가면 될 것이다."(2권 111쪽)

제일 귀여워하는 막내딸이 유모처럼 각별히 정을 주었던 어느 과부에게 돈을 좀 보태주자고 말하자, 배대인은 일언지하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자 워낙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커 그 역시 이재에 밝기로는 아버지 못지 않은 딸은 "누가 거저 쓰겠나요. 이자까지 붙여서 한달 안으로 갚으면 되지요"하고 말한다. 이때 부녀간의 연이은 문답이 걸작이다.

"이자를 물인다…… 그렇다면 내 백냥은 내야겠다. 그 대신에 담보를 잡아야되겠다. 네까짓 게 담보 잡힐 만한 물건이라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십육 세이오니 이팔이 넘어 성혼을 시켜주시겠지요."

"그래서……"

"다른 건 물론이고 노리개며 패물은 해주시겠지요."

"그거야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가져올 받으십시오. 만약에 제가 백냥을 갚지 못하게 되면 혼수감은 물론 패물도 받지 않겠습니다."

막내딸은 과연 그 돈을 갚았을까.

한달만에 막내딸은 백이십냥짜리 어음을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미심쩍어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설명하는데, 유모를 도와주고 남은 돈으로 약재를 사서 이리저리 장사를 한 결과 그렇게 이문이 남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기뻐할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그 이문의 생성과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하기를 잊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송상의 송상다운 특징이 아닐까 싶다.

"백냥으로 삼백오십냥을 벌어들인 것은 잘한 노릇이다. 그러나 이문 이백오십냥에 성실한 노력이 깃들지 않았으니 이러한 재물은 뿌리가 없어서 또한 쉽게 나가 버릴 돈이니라."

"한달 동안 차인들이 저자를 헤맸는데 성실한 노력이 부족하다니 어인 말씀이십니까."

"첫째, 속임수를 쓰지 않았느냐. 헛소문으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여 일단 이문을 보았으되 신용을 잃어 다시는 그런 이들과 거래를 트지 못할 것이다. 장사는 신의를 쌓아올리지 않으면 도적질 같은 짓으로 지탄받게 되는 거야. 둘째로, 싸고 헐한 약재를 택한 것이 잘못이다. 부는 풍족한 자에게서 얻어야 하고, 원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을 받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취하여 쓰는 약재를 매점하였으니 피해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셋째는 상도(商道)를 타락시킬 위험이 있었다. 이런 축재가 알려져 그 방법이 널리 퍼지면 시장은 마비되고 말 것이다. 허나 그 용(用)은 그릇되었으되, 취재(取財)는 제법 잘하였다."(2권 113-114쪽)

황석영의 『장길산』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개성을 주요 무대

로 삼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끈다.

이밖에 개성상인에 대해 말할 때 꽤 흥미로운 책이 한 권 있다. 우리 문학 평단에서는 관심권 밖에 있었지만 독서시장에서는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베니스의 개성상인』(전 3권, 오세영 지음, 장원, 1993)이 바로 그것이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기까지 살았던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이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원래 한국인으로 본명은 유승업이라는 것. 그가 개성상인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업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전혀 엉뚱한 인생항로를 걷게 된다. 그는 이탈리아 베니스까지 건너가 장사에 큰 수완을 발휘하게 되고 마침내 '꼬레아 캄파넬라' 라는 회사를 운영하기까지 한다.

개성상인의 국제화라고나 할까.

어쨌든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개성의 문학을 말할 때 **황진이**(黃眞伊)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비록 기녀였지만, 당대 신분사회의 모순에 맞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항한 페미니스트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훌륭한 시인으로서도 인정을 받는다.

황진이는 생몰년이 미상이지만 조선 중종때의 기녀임이 분명하고 기명은 명월(明月)이었다. 정사에서 그의 자취를 찾기는 어려우나, 『연려실기술』, 『금계필담』, 『송도기이』, 『어우야담』 등의 야사집에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무척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하지만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를 신화화시킨 것이 많아 엄밀하게 고증을 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사에서 그가 많이 회자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대 신분사회의 모순이나 양반들의 위선에 통렬한 일침을 가한 그의 비판정신을 읽어낼 수는 있다.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황진이, 서화담, 박연폭포)을 이루는 화담 서경덕(徐敬德)과 얽힌 이야기는 유명하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황진이가 그리던 이 '이론님'이 바로 서화담이었다. 처음에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던 황진이도 화담의 그릇을 알아본 뒤로는 자청해서 사제지간을 맺었다. 그리하여 그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스스로 택한 것이었다.

그가 지은 한시에는 「박연(朴淵)」, 「영반월(詠半月)」, 「등만월대회고(登滿月臺懷古)」, 「여소양곡(與蘇陽谷)」 등이 전하며, 시조 작품으로 앞의 「동짓달……」 이외에도 다섯 수가 더 전한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왜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때 '명월'이란 바로 황진이 스스로를 이름이다. 황진이가 기녀로서 절정의 위치에 있을 때 벽계수라는 이름의 왕손(王孫)이 그에게 반해 애간장을 태웠다. 그러나 황진이가 선뜻 응해줄 리는 없는 법. 그는 친구들을 동원해 마침내 황진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황진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황진이가 즉석에서 읊은 시조가 바로 이것이었다. 『금계필담』에 전하기는, 바로 이 순간, 말을 타고 가던 벽계수가 너무나 그 소리가 아름다워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낙마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을까. 황진이는 그 모습에 실망해 그 길로 돌아가 버렸고……

워낙 미모가 뛰어났던 황진이는 인근 총각들의 흠모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 중 한 양반 자제가 황진이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쩌지 못해 상사병에 걸려 그에 죽고 말았다. 그의 장례 상여가 만가를 부르며 황진이 집 앞으로 지날 무렵, 관이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연을 알게 된 황진이는 선뜻 문밖으로 나와 상여를 잡고 손으로 쓰다듬으며 "내 무엇이관대 젊은 목숨을 죽게 할 수 있을고……"라고 흐느끼니 그때서야 상여가 움직였다고 한다.

그후 황진이는 기생이 되었으나 고귀한 품성과 매혹적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아름다운 애정의 시편들이 이런 일화 속에서

탄생했던 것이다.

청산은 내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예어 가는고

그 외에도 30년 면벽수행한 지족(知足) 선사를 파계시키기도 한 황진이이나 그녀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재주가 뛰어났고 꿈이 많았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자기 때문에 청춘을 저버린 총각에 대한 연민의 정과 죄책감을 떨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도무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허무에 빠져 단풍이 곱게 든 송악산을 거닐고 있던 황진이의 귀에 바람소리인 듯 애절한 퉁소소리가 산새 소리와 물 소리에 끊어질 듯 들려왔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에 이끌려 숲속으로 들어가자, 웬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퉁소를 불고 있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 열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마침내 황진이는 한눈에 그 사내에게 반하고 말았으니, 그가 황진이의 첫번째 연인 김경원이다.

그는 경기 양주 사람으로 비록 벼슬은 없었지만 부유한 양반집 자제였으며, 퉁소와 시문을 좋아하여 팔도강산을 유람하는 풍류객이었다. 사랑에 눈을 뜬 황진이는 그를 위하여 극진히 대접하며 춤과 노래와 시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난 지 일년이 되던 어느날, 두 사람은 김경원의 고향 양주땅 소요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김경원은 사라진 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떠나버린 부운거사(浮雲居士) 김경원을 그리는 마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황진이는 꿈속에서나 그를 볼 뿐이었다.

꿈길밖에 길이 없어 꿈길로 가니
그 님은 나를 찾아 길 떠나셨네.
이 뒤엘랑 밤마다 어긋나는 꿈
같이 떠나 도중에서 만나를 지고……

이후 당대의 유명한 문필가요 명필인 양곡 소세양 대감을 모신 이야기도 유명하다. 고결하고 대쪽같은 성품으로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기로 유명한 양곡대감을 관가에서 우연히 만난 황진이는 일찍이 흠모하고 있던 대감을 가까이 모시고자 했다. 이에 친구들이 천하의 양곡 대감이 명월에게 무심할 수 있겠느냐며 단 열흘만 황진이와 같이 지내기로 내기를 했다. 그러나 그 열흘간 손수 옷을 지어 입히고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며 갖은 정성을 바치는 황진이에게 양곡 대감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그래도 약속은 어길 수 없다며 열흘이 지나자 길을 나섰다. 황진이는 "어찌하여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곁을 떠나가고, 시정잡배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해 안달인가"라며 신세 한탄을 한다. 황진이는 떠나는 양곡 대감을 배웅하러 임진강가까지 와서는 이별주를 권하며 애통한 마음을 시조로 전한다.

달 밝은 밤에 오동잎은 지는데 / 서리맞은 들국화 노란 들국화
다락은 높아서 하늘에 닿고 / 사람은 취해서 지꺾 마시네.

흐르는 물소리 거문고 소리 / 매화 향기 피리소리 향기로운데
오늘 우리 헤어지면 언제 만나리 / 그리움은 저 물처럼 끝이 없으리.
– 「송별(送別) 소세양(蘇世陽)」

결국 양곡 대감은 황진이의 손을 덥썩 잡으며 "명월아, 내 떠나지 않으마, 울지 말아라"하며 눌러 앉아 한달 가까이 더 머무른다.

황진이의 모진 운명은 정이 많아서일까, 사랑이 많아서일까. 뭇 남성들의 연모를 한 몸에 받았건만 여자로서는 그다지 행복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죽을 때 "죄많은 나를 야산에 버려 까마귀밥이 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무덤을 만들었다.

황진이의 무덤 곁을 지나가던 길손이 하나 있었다. 전라도 나주 땅에 살던 유명한 문장가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로 마침 평안도 부사가 되어 임지로 가던 길이었다. 그 먼 곳에서 황진이의 소문만으로도 그녀를 흠모하던 그는 황진이의 무덤에 술 한잔을 권하며 시조 한 수를 남겼다.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홍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가.
잔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朴趾源)의 호는 연암(燕巖)이다. 연암은 그가 한때 거주했던 연암골에서 따온 것으로, 연암골은 황해도 금천군에 속하는데 개성에서는 30리 떨어진 두메산골이었다. 연암은 틈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묵곤 하였는데, 그러다가 인근 개성에 가서 벗들을 만나 세상사를 논하곤 했다. 연암은 개성 사람 양호맹(梁浩孟)의 금학동(琴鶴洞) 별장을 얻어 한동안 묵기도 했다.[1]

그러나 아무래도 개성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백운거사 **이규보**(李奎報, 1168~1241)를 꼽아야 할 것이다. 그는 고려말 무신의 난이 일어난 지 얼마 안된 1168년 12월 개성에서 태어났다. 아주 어렸을 때 무척 병약했던 그는 아버지가 점을 쳤는데 '살아난다'는 점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습이 너무 흉칙해서 문밖에 내다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신인이 나타나서 '천만금보다 귀한 아기'라고 일러주어 다시 데려와 키웠다는 것.

이규보는 젊은 시절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개성에서 살았다. 24세에 부친상을 당한 뒤로는 개성 북쪽 천마산으로 들어갔다.

그에게는 개성 근교에 선친이 물려준 사가재(四可齋)라는 별장이 있었다. 이 사가재에 얽힌 이야기는 그의 수필 『사가재기』에 나온다. 거기에서 그는 '사가'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밭이 있으니 식량을 마련하기에 적합하고, 뽕나무가 있으니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하기에 적합하고, 샘이 있으니 물을 마시기에 적합하고, 나무가 있으니 땔감을 마련하기에 적합하다. 나의 뜻에 맞는 것이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 사가재는 강화도 그의 무덤 곁에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다.

이규보는 천마산을 오가던 시기에 우리 고전문학사의 최대 걸작이라 할 『동명왕편』을 완성한다. 그때가 스물여섯. 그는 유교적 인습에만 젖어 있던 문벌 귀족층이 감히 손대지 못했던 우리 신화를 과감히 소재로 삼아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킨 것이다.

이규보는 철저히 문장으로 나라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문화국(以文華國)의 정신을 실천했다. 특히 그의 말년에 몽고의 침략을 받아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하자 거기서 몽고와 주고받는 거의 모든 외교문서를 집필하는 등 자신의 문장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74세로 강화도에서 세상을 등졌다. 평소 그는 시와 술, 거문고를 몹시 좋아했는데, 그런 까닭으로 스스로 호를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는 시 한 편 한 편에 온정성을 다 기울였다.

낮이나 밤이나 심간(心肝)을 깎아서
몇 편의 시를 짜내네.
세계나 기틀은 말할 것 없고
산귤조차 남지 않았네
빼만 남아 괴로이 읊조리는
이 모습 참으로 가소로워라.
—「시벽(詩癖)」

이렇듯 고통스럽게 시를 지었던 그의 문학이 당대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백운거사전(白雲居士傳)』을 잠깐 살펴보자.

백운거사(白雲居士)는 선생이 스스로 칭한 것이다. 그 이름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니, 그 자호(自號)한 이유의 뜻은 선생의 「백운이백운(白雲以白雲)」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집안의 쌀독이 자주 비고, 불에 익혀 먹는 음식도 잇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이연(怡然: 기쁘고 즐거워함)하였다. 성품은 방탕(放蕩: 남이나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하고 침속됨이 없으니, 육합(六合: 온 세상)을 협소하다 여기고, 천지를 비좁다고 여겼다. 원짜이 술을 마시며 스스로 환미해졌으니, 사람들 중에 초대하는 자가 있으면, 흔연히 곧 찾아가서는 곧세 취하여 되돌아오니, 애매도 옛날 도연명(陶淵明)의 무리일 것이다.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로써 스스로 회포를 풀어냈다. 아는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것이다. 거사는 취하이서는 읊이대니, 스스로 이 전(傳)을 짓고, 또 스스로 찬(贊)을 지었으니, 찬에 이르기를, "뜻은 분시 육합의 밖에 있으며, 천지에 국에되지 않으니, 장차 '기(氣)의 어머니' '(渺 또는 道)와 함께 무하유(無何有: 노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경지)의 고향에서 소요하며 놀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짤막한 「이견설」 한 편을 소개한다.

어떤 손님이 나에게,

"엊저녁에 어떤 불량자 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너무도 비참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네."

하기에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네. 그래서 이후로는 다시는 이를 잡지 않을 것이네" 하였더니 손님은 실망했다는 태도로,

"이는 미물이 아닌가?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비참한 생각이 들기에 말한 것인데, 그대가 이런 하찮은 것으로 반박하니 이는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닌가?"

하기에 나는,

"무릇 사람에서 소·말·돼지·양·곤충·개미에 이르기까지 혈기가 있는 생물들은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동일하네. 어찌 큰 것만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던가? 개와 이의 죽음은 한가지라네. 그래서 나는 이를 예로 들어 대답한 것이지 어찌 자네를 놀리려고 말하였겠는가? 그대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대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보게나.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겠는가? 한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혈육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동일한 것일세. 더구나 개와 이는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인데,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죽음을 좋아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대는 돌아가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게나. 그리하여 달팽이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큰 붕새처럼 구별 없이 볼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나. 그런 뒤에야 내가 그대와 함께 도를 말하겠네" 하였다.

하찮은 미물에게도 귀한 생명이 있음을 들어 짧은 지식을 자랑하려던 이를 보기좋게 질타한 촌철살인의 명문이라 하겠다. 이규보의 그릇을 능히 알게 해주는 글이다.

이밖에도 그의 작품으로는 현재 282구의 장편 오언고시 「동명왕편」이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전한다. 한편, 그는 시뿐만 아니라 산문에도 능했으니,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가전체(假傳體)문학을 대표하는 『국선생전』, 『청강사자현부전』 등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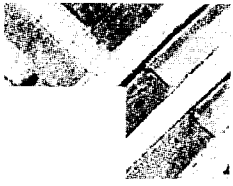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한 것으로 역시 술을 의인화한 앞선 시대 임춘의 『국순전』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두 주인공 '국순'과 '국성'에 대한 서술자(임춘과 이규보)의 큰 시각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임춘(서술자)의 '국순'에 대한 시각은 '애증(愛憎)'이 겹쳐 있다('기린아다', '창생을 그르칠 자다'). 이에 대해 이규보의 '국성'에 대한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다. 임춘의 '국순'(맑은 술) 이야기는 술의 이야기이면서도 '부당하게 임금의 총애를 지나치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자세로 이야기의 방향이 옮겨 가 있는데, 이규보의 '국성'(탁한 술)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 형태를 빌은 술의 이야기로 이다까지나 술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 다시 말해 임춘의 『국순전』은 왕의 총애를 부당하게 누리는 존재에 대한 비판이 중심 화제였음에 대해,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인간 생활에서 술의 긍정적인 역할의 서술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2]

이는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 크다. 즉, "임춘은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생 벼슬하지 못했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었다. 이규보는 쉽게 과거에 합격했고(22세, 1189년에 감시에 장원), 40세(1207년)에 최충헌(진강후)에게 발탁되어 최충헌과 그의 아들 최우의 특대를 받으며 거의 죽을 때까지 부러울 것이 없이 복락을 누렸" [3] 다는 점에서 술에 대한 상이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도읍의 자리에서 지켜보았던 개성,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다. 그렇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가. 개성의 문학을 일별하면서 자꾸 북쪽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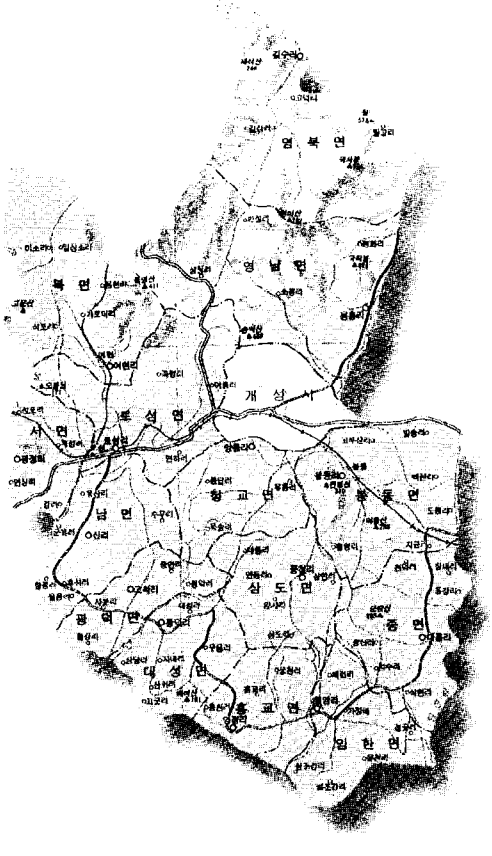
1)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9
2) 정상균, 「고려 가전체 문학 연구」, 『전농어문연구』 제11집, 1999.
3) 정상균, 앞의 글





개풍

갈 수 없는, 그러나 가야만 할



갈수 없는, 그러나 가야만 할

개성을 둘러싸고 있는 개풍 또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다. 공민왕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개풍이 바로 노대가(老大家) 박완서의 고향이라는 사실이다. 박완서는 이곳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고희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문학사를 화려하게 빛내주는 박완서 문학의 원형은 아닌지…… 『쏘리킴』의 작가 송병수도 이곳 개풍 출신이다.

지금은 북쪽 땅이 되어버린 개풍을 말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8. 15 광복의 기쁨도 잠시, 민족 최대의 비극을 불러온 삼팔선이 등장했다. 그에 따라 황해도의 옹진군과 연백군 일부가 경기도로 들어오는 대신에 개성 북쪽의 장단군과 연천군 북쪽 일부가 삼팔선 너머로 넘어간다.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면서는 임진강에서 철의 삼각지대를 거쳐 강원도 고성군에 이르는 한반도의 허리를 관통하여 휴전선이 등장함으로써 연천군과 포천군의 일부가 경기도로 넘어왔으나 개성시를 포함한 개풍군과 장단군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뒤 1961년 3월 황해북도 금천군의 매현리와 강남리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지금은 1개의 읍과 18개의 리를 이룬 곳이 바로 개풍이다.

개풍군은 대체로 한강과 예성강의 하류에 있는 평탄한 평야지대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군의 북쪽은 비교적 높은 산지를 이루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낮은 언덕을 이루다가 예성강가에 이르러서는 해발 20m정도의 풍덕평야와 신광평야를 펼쳐놓았다. 특

히, 두꺼운 이탄층 위에 비옥한 토양으로 덮여 있는 풍덕평야는 대체로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은 10.5℃를 나타내고, 연 평균 강수량이 1,200-1,300mm로 비가 비교적 풍부히 오는 편이어서 중요한 곡창지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풍군의 묵송리에 있는 옥련저수지 주변은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개풍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 있으니, 바로 개풍군 해전리 봉면산의 남쪽인 문성봉 중턱에 있는 공민왕릉이다. 고려 31대 공민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산기슭에 네 개의 단을 이루는데, 첫째 구역의 왼쪽에 왕의 무덤인 현릉이 있고 오른쪽에 왕비의 무덤인 정릉이 나란히 있다. 무덤 안은 각 한 개씩의 무덤길과 무덤 칸으로 되어 있는데, 무덤길은 남쪽으로 나 있으며 천장은 평천정이다. 벽과 천장에는 고구려의 무덤 풍습을 따라 벽화를 그렸다. 천장에는 해와 북두칠성 그리고 삼태성을 그렸으며 벽면에는 12지신을 그렸다. 둘째 구역은 봉분 앞면에 석등을 설치하였고 좌우에는 문관을 형상한 돌조각을 각 두 개씩 세웠다. 셋째 구역은 좌우에 무관을 형상한 조각이 두 개씩 있으며, 가운데는 폭이 넓은 돌층계가 있다. 넷째 구역의 왼쪽에는 본디 정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그런데 1905년에 일제가 이 무덤의 돌을 폭파하여 유물을 도굴하였다고 한다. 1365년부터 1372년까지 7년간에 걸쳐 완공된 공민왕 고분은 규모가 웅장하며 조각이 섬세하고 세련되어 이런 유형의 무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초기 향가 11수가 실린 『균여전』의 저자 **균여**(均如, 923~973) 대사가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 영통사(靈通寺)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영통사의 백운방(白雲房)이 낡아 균여가 고쳤더니 지신이 노하여 변괴가 일어났다. 그리자 균여가 노래 한 수를 지어 붙이자 더 이상 변고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 균여는 바로 그 영통사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했다고 전해진다.

균여의 향가가 지니는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어보자.

"우선 그는 이 향가를 통하여 문학과 종교의 거리를 좁혔으며, 이러한 문학과 이념의 조화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아울러 그는 향가를 통해 딱딱한 종교적 교리만을 강조하지 않고 거기에 문학적 형상력을 발휘함으로써 뛰어난 시가 작가

로서 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향가 11수를 제작함으로써 신라대에 이룩된 시가 양식이 고려 초기에도 지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작품은 가장 완성된 형태로 알려진 10구체로 되어 있는데, 이 10구체 향가는 통일신라 이후에 유행되던 것이다." [1]

쉽게 접하기 힘드니만큼 균여의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를 읽어보자.

마음의 붓으로 / 그리온 부처 앞에
절하는 몸은 / 법계(法界) 없이지도록 이르거라.
티끌마다 부처 절에네 / 절마다 뫼셔 놓은
법계 차신 부처 / 구세(九世) 내내 절하옵저.
아아, 신어의업(身語意業)无疲厭(无疲厭)/ 이리 종지(尽等) 지이 있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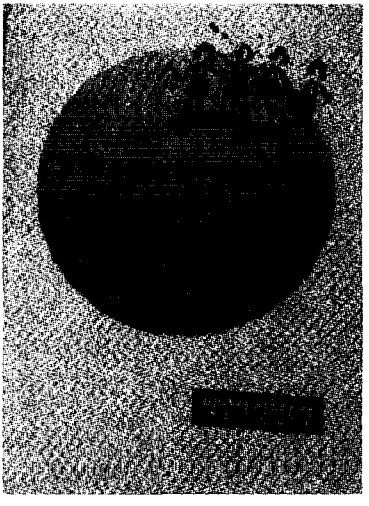
현대적인 해석을 통하면, "마음으로 붓을 삼아 부처님을 그리오며/ 우리러 절하오니 두루 시방세계 비취오시라./ 한 티끌, 티끌마다 부처님 나라 뵈이고/ 곳곳의 절마다 온갖 부처님 뫼시옵니다. 보고 들을수록 부처로부터 멀어진/ 다생(多生)의 나를 만나오니 / 영겁의 긴 시간일망정/ 이찌 예경하지 않겠습니까?/ 몸과 말, 그리고 생각의 세 업(業)을 싫은 생각 하나 없이 닦으오리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다. [2]

개풍은 또한 소설가 **박완서**(朴婉緖)의 고향이다.(구리편 참고)

그는 1931년 일제 식민지 상황 아래 경기도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 박적골에서 아버지 박영노와 어머니 홍기숙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청교면은 개성 바로 남쪽으로 맞붙이 있는데, 묵송리는 그중에서도 남쪽이다.

박완서에게는 열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오빠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훗날 소설가가 된 박완서는 그때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3]

나를 잃은 잔도 잊고, 잔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더냐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리고 잔인한 시는



박완서 작품집

데,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규명해 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나의 성미가 훗날 글을 쓰게 했고 나의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전쟁 중에 목격한 오빠의 죽음도 나에게 불치의 상처를 남겼다. 오빠와의 우애는 각별했다. 열 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에게 그는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였고 우상이었다. 그는 6. 25를 체험하기 전의 젊은이들이 흔히 그랬듯이 한때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다가 전향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0대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하트가 없고 30대에도 공산주의자라면 브레인이 없다던가 하는 말이 유행할 때였다. 그러나 이땅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젊은 혈기의 그런 시행착오조차 극렬한 증오와 가혹한 보복으로 다스려야 직성이 풀릴 만큼 무자비한 것이었다…… 오빠는 서서히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오빠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장장 일년이 걸렸다. 나는 지금까지도 어느 쪽이 오빠를 죽였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둔 오빠의 죽음은 원귀가 된 것처럼 수시로 나를 괴롭혔다.

그가 죽은 오빠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못 잊어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 개풍에 대한 망향가와 다르지 않다. 그의 소설 곳곳, 편편에는 바로 그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이 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고향을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써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다.

시접골 그의 집은 바깥채는 초가고 안채는 기와집으로 전형적인 송도 가옥이었다. 안뜰은 희고, 마루는 길이 잘 들어 거울처럼 번들댔다. 화강암이 부서져서 된 그 고장 특유의 토질은 도시 전체를 조용하고 정결하게 보이게 했지만 그날 그 집 안뜰은 유난히 희게 보였다. 마치 송악산에서 몇날 며칠 마련한 당목을 길길이 펴놓은 것 같았다. 부엌 앞 긴 돌엔 치자나무 화분이 놓였

었고 동쪽 담장 밑에 국화꽃이 만발해 있었다. 가둥 서까래까지 매일 기름걸레질을 하는가 싶게 윤이 반들거렸지만 꽃밭만은 돌보는 대로 내버려둔 양 국화가 마구 뒤얽혀 이룩해 엉클어져 피어, 송이가 꽃 피우기 민주만하면서도 꽃잎의 숱이 많아 도톰하고 빛깔이 담백한 토종국화는 그 집뿐 아니라 그 고장에 지천으로 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까지도 토종국화 하면 그 날 그 집 마당의 국화밭부터 떠올리곤 했다.

—자택의 해후」 중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는 자식의 선보는 자리에서 고향에서 한때 선까지 봤던 조노인을 만난다. 결국 나는 그 조노인과 함께 임진강을 찾는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 앉았다. 그는 어디서 주웠는지 백돌 깨진 조각으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송악산 용수산 남대문을 그리고, 사가지를 북부 남부 서부 동부로 나누고 나서 성그나무 같 시점과 노루재 영복목장 장작재 헬레다리 당성다리 고리고개 큰웅덩 작은웅덩 사우물골 궁골 마하니골 한적골 가재다리 기생골 항명사골 감전골 배주봉골 큰각산골 작은각산골 노루재 장작재…… 등등 그 고장 특유의 골목과 다리의 이름을 줄줄이 끝도 없이 써넣기 시작했다.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리움은 사라질 줄 모른다.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욱 짙은 한으로 가슴속을 파고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은 점점 사위어가기만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어린 시절의 기억만큼은 도무지 흐려지지가 않는다. 그렇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 분명한 영상으로 맺혀지기만 하는 것이다. 이디 그게 조노인뿐만의 특이한 체험일까.

박완서의 입을 빌어 그의 고향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자동은 이런지 알 길이 없지만 개성 개풍지방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분단 직전까지 오랜 동안 인삼 고장과 상업의 중심지로 독자적인 민영과 독특한 분화를 누려왔었다. 따라서 삼포와 장사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개성에 살면서 그 두 가지를 외면하고 산 별종을 그릴 게 아니야 구태여 개성땅을 무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개성 근교에 살면서 인삼농사도 장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벼슬에만 연연해 온 좀

치사한 별종의 집안이었다.

—장편 『미망』 책머리에, 문학사상사

소설 『미망』은 개성 지방을 중심 무대로 하여, 개성의 부호로 이름을 날리는 거상 전처만 일가의 삶을 그려놓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시간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한 세기를 포괄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시간적 단위가 우리 가족사의 격동기를 모두 드러내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성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미망』은 역사적 재구성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인보다는 오히려 지나간 한 시대의 삶을 재창조해내고자 하는 작가의 꿈을 담고 있다.

『미망』은 주인공 전처만의 부친 전서방과 그의 아내에서 시작하여 이후 5대에 걸친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상민 출신으로 가난한 소작인이었던 전서방은 온갖 고역과 박해를 받지만, 아들 전처만을 끝내 살려낸다. 그렇게 살아난 전처만은 장사꾼을 따라다니며 상업에 눈을 뜨고 드디어 개성 지방의 대부호가 된다. 이 과정은 조선조의 봉건 경제체제의 붕괴과정과 조응한다. 여기서는 전처만의 합리적 생활태도가 돋보인다. 이제 전씨 일가는 제3대째로 접어들어 전처만의 자식들이 등장한다. 장남은 요절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며느리, 그리고 두 아들이 그들이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각기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지만, 바야흐로 본격화되는 일제의 수탈과 해방직후의 혼란, 전쟁 등으로 인해 근대적 상업자본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좌절을 겪는다. 제4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전처만의 장손녀 태임이다. 태임은 일찍 부모를 잃고 조부 전처만의 슬하에서 성장한다. 성장해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 이종상과 결혼한다. 태임은 전씨 가문의 풍속과 정신을 이어가는 한편, 조부가 물려준 재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댄다. 뒤에 고무신공장을 운영한다. 태임과 이종상 사이에서 아들딸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미망』의 마지막 세대인 셈이다. 그들 중 아들은 가업인 고무공장 운영에 전념하고, 딸은 신여성으로서 '마땅히' 우여곡절을 겪으며 산다.(권영민, 「소설 미망의 구도」, 『미망』 해설)

이렇게 볼 때, 『미망』은 개성 지방을 무대로 봉건과 근대의 격동기를 살아야 했던 한

가족에 대한 실감나는 연대기라고 하겠다. 박완서는 자기의 기억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과 자료를 토대로 고향에 대한 연대기를 훌륭하게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에도 그의 고향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이십 리 가량 떨어진 개풍군 청교리인 탁송내 박적골이라는 이십 호가 채 안 되는 벽촌인데 대을 사람들은 개성을 송도라고 불렀다. 어린 나에게 송도는 꿈의 고장이었다. 돌감밖엔 아니 고욤이나 참외나 큼직맹기나 식칼이나 호미나 낫도 다 송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다…… 박적골엔 이렇게 두 양반집과, 양어섯인가 열일곱 호의 양반 아닌 집이 있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뉘어져 있진 않았다. 대위라고는 하나도 없이 능선이 부드럽고 맷맷한 동산이 두 팔을 벌려 얼싸안은 듯한 동네는 앞이 탁 트이고 밭이 넓었다. 넓은 벌 한가운데를 개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 「넘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은 아무 데나 있었다. 우리 집에서 뒷간에 가려도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실개천은 흐르다가 논을 만나면 곡선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군우물이라고 해서 먹는 우물과 구별했다…… 그런 고장에서 여덟 살까지 자라는 동안 이 세상에 부지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

그런 고향을 박완서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쓸쓸함을, 그러나 박완서는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고향을 마지막으로 가본 건 1949년 겨울방학이었다. 임진강 철교를 건널 때 내려다보니 성엣장(遊氷)이 진뜩 떠 있었다. 전체면한 것도 있고, 맷방석만한 것도 있었다. 이제나 빽빽이 떠 있는지 성엣장을 징검돌 삼아 임진강을 건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임진강이 만만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임진강을 건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1950년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6. 25가 났고 임진강은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 '

분단이 남긴 상처는 그러나 박완서에게는 훌륭한 문학적 자산이 되었으니, 처녀작 『나목』을 비롯하여 「부처님 근처」, 「카메라와 워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저녁의 해후」, 「아저씨의 훈장」, 「엄마의 말뚝」 등도 결국 분단

의 산물인 셈이다.

작가는 「엄마의 말뚝 2」에서 가장 비통한 기억, 오빠의 죽음이라는 원체험에 용감하게 다가선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부처님 근처」 등 초기 단편에서 허구화 속에 가려진 오빠의 죽음의 진상이 비로소 이 작품에서 공개되는 것이다. 해방 후 좌익으로 활동하다가 전향한 그는 6.25때 이웃의 고발로 체포, 의용군에 지원했지만 전세가 역전되면서 거지꼴로 귀환, 다시 1.4후퇴를 맞아 현저동에 숨어 있다가 다시 퇴각하는 인민군 군관의 총에 맞아 그 상처로 어이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해방에서 휴전까지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던 정치 정세 속에서 남한의 한 좌익 청년이 맞이했던 이 철저한 자기 파멸은 사실 흔히 상상하듯 영웅적이기보다 어찌 보면 지극히 산문적이기조차 하다. 그러나 그 죽음의 산문성이 비극적 성격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점이야말로 유의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작품의 핵심은 그 죽음 이후 살아남은 가족, 특히 이 연작에서는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삶의 궤적이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의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게 늙으신 어머니"의 입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작품은 아들의 악몽 속에 '원한 맺힌 맹수'로 변모한 마취 상태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야말로 통렬하게 그려낸다. 그 속에서 작중화자인 딸은 "내 어머니의 오지에 감춰진 게 선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었다"는 사실에 전율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최후의 이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영혼의 왜곡을 넘어서 아름다운 승리에 도달한다. 며느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화장하여 개풍군이 바라보이는 강화 바다에 뿌렸듯이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주검을 화장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다. 아들의 뼈를 바다에 뿌리는 장면의 묘사는 대단히 인상적이다.

> 강화도에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중략)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은 비단 고향을 북에 두고 온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리라. 그러나

해가 갈수록 통일에 대한 그야말로 통일된 기원이 점점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안정된 생활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통일 같은 것'에 대한 냉소주의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느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투기꾼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좋은 목 좋은 땅을 점찍어 놓고, 거기에 별라를 지을 것이다. 가든도 지을 것이다. 파크도 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통일이 마냥 반가운 것만도 아닐 것 같은데, 천만에,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땅히 지워내고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한다. 투기꾼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통일. 아니, 그런 소극적인 통일말고, 적극적으로 아름다운 새조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써 이룩하는 통일!

그런 통일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박완서와 함께 그의 고향 마을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그가 손짓하는 대로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아아, 그때 누군들 아니 눈물을 흘릴까. 하루빨리 그날이, 노대가의 주름진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우리 역시 그렁그렁한 눈물을 달고 바라볼 그날이 왔으면…….

1932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난 **송병수**(宋炳洙)는 한국전쟁기에 종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기에, 그가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공식적인 종군작가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전쟁기 문인들의 종군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종군이란 한국 전쟁에의 참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송병수는 한국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작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전쟁 피해자들의 삶을 그린 「쑈리 김」으로 등단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또 그의 중요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제재로 한 송병수의 작품들은 대체로 휴머니즘을 옹호하며 전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송병수의 전쟁소설은 한국전쟁기에 발표된 숱한 전쟁소설과는 구분된다. 즉, 송병수의 작품에는 적에 대한 적개심이라든가, 전쟁

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송병수의 전쟁소설은 휴머니즘 옹호의 입장에서 전쟁의 비극적 성격과 그것의 비인간적 속성을 고발한다. 그런데 이러한 휴머니즘 옹호의 정신은 비단 전쟁 자체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격적인 전쟁소설은 아니지만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쑈리 킴」과 「장인」은 그 대표적인 작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쑈리 킴」은 한국전쟁의 비극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사람 사는 집이라곤 통 없는 일선지구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소년의 눈을 통해 전쟁 피해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쑈리 킴이라는 소년은 전쟁 고아이다. 아버지는 '빨갱이가 쳐들어왔을 때 다락에 숨어 있다가 잡혀' 갔고, 어머니는 애기 젖 먹이다가 폭격에 무너진 대들보에 깔려 죽었다. 소년은 그래서 청계천 다리 밑 '왕초' 밑에서 동냥질도 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다가 교통순경에 붙잡혀 고아원으로 끌려가고, 보름간 지내다가 배고픔에 견디다 못해 다시 탈출하여 미군부대가 있는 일선 지역으로 오게 된다. 여기서 그는 양키들에게 양갈보를 붙여주고, '그럭저럭 얼려 지내다가 하우스 보이라도 되기만 하면 팔자를 고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쑈리 킴은 동요 '저 산 너머 햇님'을 즐겨 부르는 순진한 면을 지니고 있는 소년이기도 하다. 중공군의 참호였던 땅구덩이에서 양갈보 노릇을 하는 '따링 누나'에게 미군을 붙여주며 먹고 살지만, 그녀로부터 『보물섬』이나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인 것이다. 이러한 구석이 있기에 그의 생활상은 보다 비극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작품의 우수성은 주제의식을 뒷받침해 주는 작품 구성의 치밀함에서 찾을 수 있다. 소위 '재수 보기'는 이 작품의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쑈리 킴은 매일 아침 언덕 위 길목에 벼락맞은 고목나무에다 돌멩이를 던져서 '재수 보기'를 한다. 돌을 던져 첫 번에 맞으면 그날 재수는 아주 '장땡'이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맞으면 그저 그렇고, 세 번 다 안 맞으면 그날은 재수 옴붙은 날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첫 날은 세 번 던졌으나 한 번도 맞지 않는다. 쇼리 킴은 '오늘은 재수 옴 붙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쇼리 킴은 따링 누나를 붙여달라는 '검둥이 중에서 제일 못생긴 검둥이'인 '볼독'의 청을 거절하다가 그에게 몹시 얻어맞는다. 두번째 날은 첫번째, 두번째 돌이 실패하자 오늘도 어제 모양 재수 잡치는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번째 돌은 둥글납작한 것이 손 안에 꽉 잡힌다. 요걸로 던지기만 하면 뭣이든지 정통으로 들어맞을 것 같으나 그렇게 그냥 던져 버리기가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서는 그는 세번째 돌을 그의 호주머니에 넣어 둔다. 이때 따링 누나가 숨어 있는 땅구덩이 근처에 미군 헌병차가 나타나고, 따링 누나는 헌병에게 붙잡혀 간다. 그리고 '쩔뚝이'는 그 땅구덩이에서 자신의 돈을 훔쳐 가지고 도망간다. 쩔뚝이는 비짓이 군복에다 상이군인 표까지 달고 행세하지만 진짜 상이군인은 아니다. 그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양키부대의 이발쟁이로 있으면서 '뚜럭질'을 하다가 양키 총에 맞아 쩔뚝발이가 된 인물이다. 쇼리 킴은 조금 전 주머니에 넣어 둔 세번째 돌로 달아나는 쩔뚝이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맞춘다. 이에 피투성이가 된 쩔뚝이가 달려들어 쇼리 킴에게 바윗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딱부리가 그의 등을 칼로 찍어 버린다. 쩔뚝이는 꿈틀거리며 죽어가고, 두 소년은 공포에 떨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요컨대 이 작품은 '재수 보기'라는 장치를 통해 미군부대 주변에 사는 인물들의 비참한 생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비극을 초래케 한 전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수 보기'는 단지 사건을 암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 및 작품의 주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처럼 송병수의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전쟁에의 참여는 작가로 하여금 그것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전쟁과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송병수 자신의 전쟁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개풍에서 출생한 **김태영**은 1965년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단편 「산놀이」로 한국문학 제 1회 신인상 소설부문으로 당선했다. 그외에도 장편 『훈풍』으로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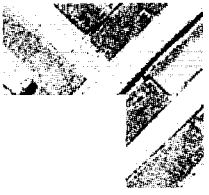
도의문화저작상을 탔고, 『중림지대』로 MBC 6.25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살려놓고 봐야죠』, 『북풍』, 『훈풍』, 『차장 놓친 버스』, 『가면 벗기기』, 『대륙 관광열차』 등 다수가 있다.

특히, 민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김태영은 작품 『다물』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물이란 말은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주체적인 역사책인 『한단고기』 고구려 본기에도 여러군데 언급되고 있는데 다물의 어원을 살펴보면 '되물린다'는 말과 같다. 고조선 즉, 단군조선과 그 뒤를 이은 부여를 계승한 고구려인의 건국 이념은 바로 이 다물 정신이었다. 고구려 초대 임금인 고주몽성제의 연호도 '다물'이었다고 『한단고기』에 나와있다. 다시 말해 영광스럽고 태평스러웠던 단군 조선의 영광을 되찾고 그 통치 영역을 '되물려받겠다'는 것이 고구려인의 한결같은 국가 목표였고 국민 윤리였다.(중략) 그러나 지금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본의 식민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서 학문을 전수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식민사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해방된 지 40년이 되었건만 우리의 역사의식은 아직도 식민사관의 망령 속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소설이 다물 사상을 배경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한 노력으로 쓴 작품이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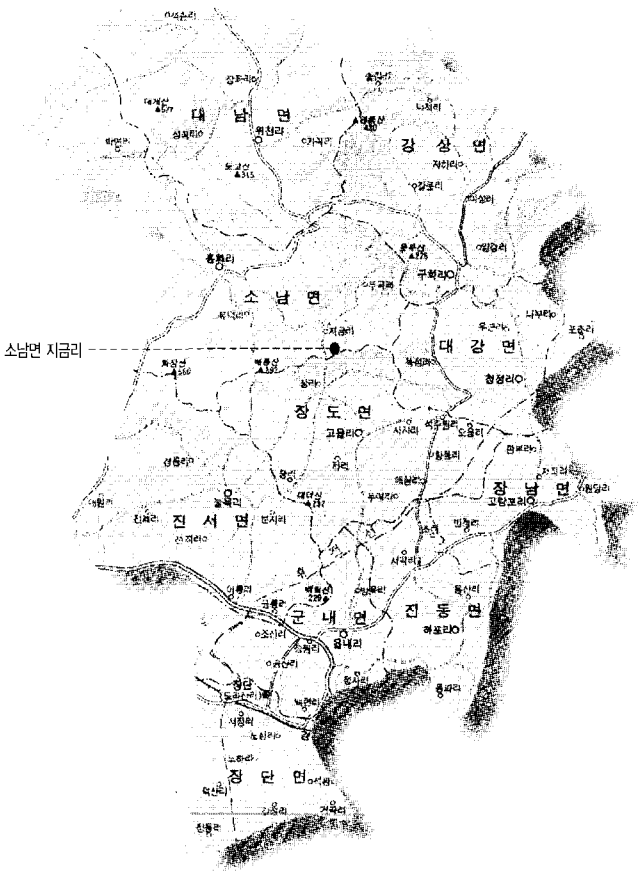
1) 정병헌, 이지영,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1998.
2) 정병헌, 이지영, 앞의 책.
3) 박완서, 「나에게 소설이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4) 박완서, 「그러나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1987





장단

임진강 구비마다 스민 문학의 역사



임진강 구비마다 스민 문학의 역사

임진강을 끼고 북쪽에 자리잡은 장단은 통일이 되어야 가볼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 경기도민으로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장이다. 장단에 익재 이제현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다. 그는 『동명왕편』, 『역옹패설』 등 우리 고전문학사를 수놓은 주옥 같은 명작을 생산해 낸 문인인데, 아쉽게도 그의 뒤를 받쳐줄 후배 문인들이 얼른 떠오르지 않은 것 또한 분단이 낳은 비극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8·15 광복 이후 1945년 11월에 장단군이 5개 면과 개풍군의 2개 면을 통합하여 새롭게 생긴 군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1952년 12월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풍군의 영북면 3개 리가 금천군에 편입되었다. 본래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장단군은 1960년 3월에 개성직할시로 편입되었으며, 1961년에는 강원도 철원군의 6개 리를 통합하여 지금은 1개 읍과 23개 리로 되어 있다. 군 소재지는 장풍으로 개성직할시의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남쪽으로는 판문점을 두고 북쪽으로는 크게 흐르는 임진강을 사이로 강원도의 철원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길게 뻗은 아호비령을 따라가며 황해북도의 금천군과 개성시와 연접한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파주군과, 사미천이 길게 흐르며 이어 놓은 경기도의 연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장단군 소남면 지금리에는 고려때 문충공을 지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묘가 있다. 다른 호는 역옹. 1301년 성균시에 장원, 이어 문과에 급제하면서

문명을 떨치기 시작했는데, 원나라 연경에 있던 충선왕에게 불려가 그곳의 조맹부 등과 어울리면서 학문이 더욱 깊어졌다. 여러 가지 벼슬을 거쳐 우정승을 두 번 지냈고 문하시중으로 있다가 1357년에 벼슬을 떠났다. 은퇴 후에 왕명으로 실록을 편찬했다.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각종 외교문서를 집필했고, 정주학의 기초를 세웠다. 시, 산문, 사(詞) 등에 두루 능통하였는데, 특히 한시에 조예가 깊어 우리나라 한시의 정종(定宗)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저서로는 『익재난고』와 『역옹패설』 등이 있는데, 후세에 유저를 한데 모아 펴낸 『익재집』도 전한다.

『역옹패설』은 시화문학서로서 4권 1책이다. 내용은 역사책에 보이지 않는 이문(異聞), 기사(奇事), 경론, 시문, 서화 등을 수록했고, 책 끝에 자신의 시문 약간을 보탰다.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과 더불어 고려시대 3대 비평문학서로 손꼽힌다.

앞머리(前序)만 살펴보기로 하자.

정임오에 이르러, 여름비가 달을 이어 내리니, 두문불출하는데 뚜벅뚜벅 찾아오는 이의 발소리마저도 끊기고 무료함을 달랠 길이 없어, 연적(硯滴)을 들고 가서 처마밑으로 떨어지는 물을 받아다가, 친구들끼리 주고 받은 편지(折簡: 접는 편지)를 엮어서, 기록한 것을 맞딱뜨리는 대로 편지 뒤에 쓰고, 그 끝에다가 제(題)하기를, 『역옹패설』이라 하였다. 그 력에 락(樂)을 붙인 것은 그 음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력'(상수리 나무)은 재목으로 쓰이지 않아 해(害)를 멀리할 수 있어, 나무에 있어서는 즐거워할 만한 것이 되니 그래서 '락'을 붙인 것이다. 나는 일찍이 대부(大夫)의 뒤를 좇아 스스로 해를 면하여 졸박함을 길렀으니, 그래서 '역옹'이라 호를 붙인 것이며 그 '력'의 재목으로 쓰이지 않으므로써 장수할 수 있음을 바라는 것이다. 패(稗)에 비(卑)를 붙인 것은 그 음 때문이지만, 그 뜻으로 본다면, 곡식 종류로는 가장 비속한 것이다. 나는 어려서 책을 읽을 줄 알았고, 커서는 그 학문을 그만두었고, 이제는 늙어버렸으나, 도리어 잡박한 문장을 짓기를 좋아하여서 내실이 없고 비속하니, 패(稗: 곡식 종류 중에 하나인 피)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이름하여 '패설(稗說)'이라 하였다.

『익재난고(益齋亂藁)』는 1363년에 간행되었는데 10권 4책이다. 문, 역대 왕에 대한 사찬(史贊), 습유(拾遺), 묘지(墓誌) 등을 수록했다. 특히 권4에 있는 「소악부」는 고려의 속요를 한시로 옮긴 것으로 국문학상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거정의 『동인시화』에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 한 토막.(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2 참고)

익재가 충선왕을 호종하여 북경에 가 있을 때의 일이다. 왕이 만권당(萬卷堂)을 여니 중국의 조맹부 등 여러 학자들이 와서 놀았다. 하루는 충선왕이 즉흥으로 한 구를 불렀다.

"닭 우는 소리 마치 문앞의 수양버들 같아라!(鷄聲恰似門前柳)"

그러자 여러 학자들이 일제히 그 용사(用事: 전고나 사실의 인용)를 물어왔다. 왕이 갑작스런 질문공세에 당황하여 답변을 쉬이 하지 못할 때, 이를 눈치챈 익재가 전광석화처럼 한 구를 불렀다.

"아침해 맞이하는 지붕 위 수탉소리 실버들 하늘하늘 간드러지게도 길구나."

익재는 자신이 지은 이 구를 "우리나라 사람의 시에 이런 게 있는데 전하의 시는 이에 발미암은 것"이라 둘러댔다. 충선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중국 학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은 당연한 일. 이것이 바로 익재의 기지와 문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유명한 '만권당 사건'이다. 연암 박지원이 훗날 익재의 이 사건을 일러 '익재의 구기(口氣)는 지금도 향기롭다'고 했을 만도 하겠다.

이덕무도 『청비록』에서 '이천년래 으뜸'이라 했던 익재의 문재. 아쉽지만 시 한 수만 소개한다.

뉘엿뉘엿 넘 산의 해는 지는데 (落日斜含遠山)
넘실넘실 강 어기여차 와 닿은 물가 (長江曲曲來灣)
어부들 늙이간 흰 갈대 숲엔 (漁人去入蘆花雪)
두어 오리 밥 찾는 새파란 연기 (數鴨飯烟晩更青)
—「어촌낙조」

한편,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이 묻힌 곳도 장단이다. 그는 1805년 서울 재동집에서 예순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사후 그에 대한 전기 『과정록(過庭錄)』을 남긴 아들 박종채의 기록에 따르면, '유언은 깨끗이 목욕시켜 달라는 말씀뿐'이었다고 한다. 연암은 그해 12월 5일 반남 박씨 선영이 있는 장단군 송서면 대세현에 있는 어머

니의 묘에 합장되었다.(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9. 이하 인용도 동일)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독일에 괴테가,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박지원이 있다"고 감히 말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연암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문호에 속한다. 새삼 그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이 군소리일 듯싶어, 이 자리에서는 문장에 대한 그의 생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바에 따라 그 형상과 소리를 곡진히 표현하고 그 정경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만 있다면 문장의 도(道)는 그것으로 지극하다.

옛을 본뜨는 사람은 그 자취에 구애됨이 병폐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법도가 없음이 폐단이다. 진실로 옛것을 본받으면서도 변통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도 법도가 있다면 지금의 문장은 옛문장과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옛것과 새것의 변증법적 조화를 으뜸으로 삼았던 그의 말이 세기의 전환기에 새삼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왜일까.

장단 출신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문인은 그리 많지 않고 좀더 확인할 길도 막막하여 아쉽기만 하다.

강위수는 1941년 경기도 장단 출생으로 우석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5년 단편 「귀환」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현실의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몸부림을 그린 작품들을 주로 발표해왔으며 작품으로는 「돌의 미소」, 「고향나그네」 등이 있다. 작품집 『돌의 미소』.

한영일은 1944년 경기도 장단 출생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시조문학』에 시 「꽃 사설」, 「고목」이, 1984년 『현대시학』에 「산(山) · 적(寂)」, 「정」 등이 추천 완료되면서 등단했다. 1986년 「어떤 추억」으로 『시와 의식』 신인상을 수상했다. 인생의 아픔과 시련, 갈등을 기도하는 자세로 재조명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집으로 『불씨를 묻어두고』, 『다박솔의 꿈』 등이 있다.

■참고문헌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밭출판사, 1982
강재언, 『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경기도 박물관, 『제1기 박물관 대학』, 1997
경기도, 『경기도의 민속예술』, 1996
경기도, 『뿌리깊은나무』, 1983
경기도문인협회, 『경기문학』
경기도사 편찬위원회, 『경기도 역사와 문화』, 1997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총람』, 1999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예술』,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인실태조사』, 1998
고은, 『산하여 나의 산하여』, 중앙M&B, 1999
광주문화사업협회 설립준비위, 『남한비사』, 4289
구중서,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창작과비평사, 1985
『국역 완당전집』, 솔,
권영민, 『한국문학 50년』, 문학사상사, 1995
기록문학회,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실천문학사, 1997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김응교, 『천년 동안만 – 김응교 예술문화기행』, 문예마당, 1996
김훈, 박래부, 『문학기행』(전2권), 한국문원, 1997
남양주문화원, 『남양주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9. 10. 8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광주 성남 지역의 지명자료집』, 1998
남해군, 『남해에 스민 문학의 향기』, 1999
너른고을 문학모임, 『너른고을문학』

단대 사학과, 포천군, 『포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지도』(상, 하), 계몽사, 1996
동두천 사임당회, 『소요문학』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 『한국문학인 인명록』, 월간 에세이, 1996
박광정, 『역사와 함께하는 옛시조 문학산책』, 청목, 1997
박석무 편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시인사
박영호, 『허균 문학과 도교사상』, 태학사, 1999
박완서 외, 『아름다운 성찰』, 한울, 1999
박은봉, 『개정판 한국사 100장면』, 실천문학사, 1997
박종배 저,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9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9
박태순, 『국토와 민중』, 한길사, 1983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제3권, 1993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 제1권, 한겨레신문사, 1991
복사골문학회, 『부천문단』
삼성문화재단,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학고재, 1997
손종섭 편저, 『옛 시정을 더듬어』, 정신세계사, 1992
송탄문인협회, 『송탄문학』
신경림, 『민요기행』, 한길사, 1985
신구전문대 출판학과, 『남한산성 솔잎향기』, 1997
신중신, 『문학기행-한국 명작을 찾아서』, 벽호
신현정, 『아름답고 유서깊은 가평의 자연과 역사』, 피플뱅크, 1994
심경호, 『한시로 엮은 한국사기행』, 범우사, 1994
양평문화원, 『향맥』
용인문학회, 『용인문학』
유길준 저, 허경진 역, 『서유견문』, 한양출판, 1995
유진오, 『젊은날의 자화상』, 박영사, 1976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2』, 창작과비평사, 1994
윤정국, 고미석, 김광원, 『명저의 고향』, 비룡소, 1994
『이광수 전집』, 삼중당

이근배, 『시가 있는 국토기행』(1, 2), 중앙 M&B, 1997
이동분, 『파주문학의 뿌리』,
이동분, 『파주여, 찬란한 문향의 고장이여』, 여울
이상분 외, 『창작의 고향』, 문이당
이영재 편, 『문학산책』, 도서출판 한겨레, 1989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이을호, 『정다산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79
이이화, 『한국 역사인물 연구』
이익, 『성호사설』, 한길사, 1999
이해조, 『자유종』, 창작과비평사, 1996
이형권, 『문화유산을 찾아서』, 매일경제신문사, 1993년--이응노, 추사
이호철, 김진홍 편, 『풍요한 부재』, 한무숙재단, 1993
임동헌, 『시와 소설을 찾아가는 여행길』, 아세아미디어, 1996
임중빈, 『만해 한용운』, 범우사, 1995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 향토사학』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 1996
정병헌, 이지영,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돌베개, 1998
정약용 저, 이익성 역, 『다산논총』, 을유문화사, 1972
정후수, 『추사 김정희 시전집』, 풀빛, 1999
최현수, 『재미있는 부천이야기』, 태백, 1996
『추사 김정희 또다른 일굴』, 아카데미하우스
파주군, 파주문화원, 『파주의 역사와 문화』, 1995
파주문화원, 『파주문화』
평택시, 평택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하남문화원, 『하남문화』
『한국 시조 큰사전』
『한국문예사전』, 어문각, 1991
한국문인협회 김포지부, 『김포문화』
고양지부, 『고양문학』
과천지부, 『과천문학』

광명지부, 『광명문학』
남양주지부, 『남양주문학』
부천지부, 『부천문학』
성남지부, 『성남문학』
수원지부, 『수원문학』
시흥지부, 『시흥문학』
안산지부, 『고잔들과 협궤열차』
안성지부, 『안성문학』
안양지부, 『안양문학』
여주지부, 『여주문학』
오산지부, 『오산문학』
의정부지부, 『의정부문학』
이천지부, 『이천문학』
파주지부, 『파주문학』
평택지부, 『평택문학』
화성지부, 『화성문학』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경기 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1996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충남』, 돌베개,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발견-경기도』, 뿌리깊은나무, 1983
한영우 외,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1999
한춘섭, 『한국 근대시조시인연구』

경기문학지도 2

인명색인

강신재 85
강위수 371
강윤후 34
고 은 137,268
공석하 149
구중서 267
균 여 355
금종례 248
기형도 159
김광림 94
김기진296
김기팔 85
김동리 263
김동환 89
김명훈 248
김복태 98
김삿갓 185
김상용 278
김상직 116
김상헌 311
김영무 270
김오남 277
김옥희 116
김완하 157
김 용 116
김용만 339
김유신155
김 육 312
김윤식 260
김인숙 329
김장생 72
김재황 95
김종경 45
김종문 85
김종성 62
김창훈 248
김태영 364
김하기 28
김혜원 116
김효진 116
나옹선사 177
남구만 278
맹사성 262
문익환 27,268
민 영 54
민영환 50
박광숙 202
박대진 248
박두진 122
박범신 58
박봉우 91
박상우 267
박승극 216
박승우 248
박완서 356
박재호 116
박정엽 95
박종화 270
박지원 349,370
박 철 174
백인걸 77
백창일 339
서거정 247
성수침 76
성지월 112
성 혼 69,76
성홍환 116
손길순 116
손소희 263

송광택 95
송기원 26, 237
송병수 362
송병탁 116
송 영 57
송혜숙 248
신배섭 116
신석초 40
신순례 339
신현림 20
안국선 119
안 막 120
안민영 259
안정복 258
안 향 19
양만규 97
양사언 286
양승본 45
오달제 50
오민자 116
오봉옥 25
우호태 248
원명희 158
원용문 198
원희석 94
유길준 34
유 영 44
유주현 195
유진오 37
윤 관 83
윤모촌 98
윤정모 58
이건영 45
이건청 105
이관재 116
이규보 193, 349
이기현 99
이기형 55
이대형 95
이덕규 248
이덕형 292, 315
이동륜 96
이문구 230
이문열 110
이범선 61
이병례 116
이병숙 248
이봉구 133
이 색 194, 275
이수광 182
이 식 322
이용연 116
이우영 115
이율곡 66
이응백 99
이 익 257
이인직104
이제현 368
이청리 339
이하윤 59
이항로 317
이항복 292
이해조 290
이호민 325
이효석 88
이흔복 205
이희승 17
인평대군 295
임영태 280

임 재 348
임혜봉 116
임홍재 151
장만영 60
장상현 116
정대구 225
정봉주 47
정약용 307
정영자 116
정인섭 19
정인자 248
정종구 116
정진규 144
정태춘 306
정현기 199
정호승 309
조광원 248
조광조 48
조병춘 99
조병화 128
조세희 302
조 욱 321
조인희 116
조정래 29
조태일 45
주요섭 86
진경이 96
진준섭 96
진 화 45
채광석 332
천승세 87, 168
최경창 80
최두석 66
최정례 246
최정희 90
최찬식 261
한광구 153
한기석 116
한무숙 266
한상윤 114
한상칠 114
한영일 371
한용운 270
한천석 147
한춘섭 339
한하운 164
허 균 51
허난설헌 251
허 목 276
호영송 97
홍길선 248
홍명희 183
홍사용 210
홍사종 247
홍승희 97
홍신선 221
홍일선 243
홍직필 279
황명걸 339
황명숙 98
황석영 27
황석영 342
황신이 84, 345
황 희 73

기전문화예술총서 ❹ / 경기문학지도 [2]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백성운
발행일/ 2000년 2월 8일

주소/ 440-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전화/ 0331-258-5105~8
FAX/ 0331-258-5106

홈페이지/www.kcf.or.kr
E-MAIL/ planning@kcf.or.kr

등록/ 1999년 3월 2일, 제 99-1-6호
편집디자인/ 한결커뮤니케이션(251-3360)

값 15,000원

이책의 판권은 경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파손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ISBN 89-950886-0-5(세트)
89-950886-4-8-04800